나눔의 손잡기 기금모금
ARS:060-700-1080
전국어디서나 일반전화·휴대폰으로 1080
누르면 '관음손'이 됩니다
우리이웃
수요일은 1080 누르고 福 짓는날!

현대불교

고객의 행복한 여행을 추구하는 여행사
제주도 · 중국전문 성지순례 여행사
(주)행복만선
Tel. 02)720-8489

www.buddhanews.com ☎구독신청 02)737-0090·대표 02) 737-8881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8년 (서기 2004년) 6월 9일(음력4월 22일) 수요일 (주간) 제477호



산사에선 안거 도심에선 논강

6월 2일 해인사 동화사(사진 왼쪽)를 비롯 전국 100여 선원들은 일제히 결제법요식을 갖고 3개월간의 갑신년 하안거에 들어갔다. 조계종 중앙신도회도 여름안거를 맞아 재가불자들의 수행을 위해 3일 조계사 극락전에서 '〈백일법문〉 재가논강(오른쪽)'을 시작했다. 관련기사 3 · 4면

사진=박재완 · 배지선 기자



출판계 '살아남기'도 벅차다

불황 · 판매부진에 '법보시 출판'으로 견뎌 … 기획력 · 인력도 부족

서울 도서전 5년째 참가조차 못해

불교출판이 장기적인 불황과 기획력 부족, 판매 저조 등으로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을 정도로 급박한 위기에 처해 있다.

올해 들어 지금까지 불교계 출판사들이 펴낸 책은 출판사 당 고작 1~4권 정도. 그나마 초판을 1천여부 밖에 찍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불교학술서의 경우는 200권도 채 팔리지 않는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대부분의 출판사들은 정식 출판보다는 법보시 책 발간이나 편집대행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불교계 출판사들의 화두가 '양서 만들기'가 아닌 '살아남기'가 된지 오래라는 말을 절감하게 된다.

6월 4일 열린 2004 서울국제도서전은 이러한 불교 출판계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 행사였다. 도서전에서 불교 서적이라고 해 봐야 일반 출판들이 펴낸 책 몇 권이 전부였다. 불교계 출판사들이 "도서전에 참가해 봐야 인건비도 나오지 않을 뿐 아니라 실상 가지고 나갈 책도 없다"는 이유로 5년째 도서전에 참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매년 도서전에 참여해 온 (사)기독교출판협회는 5개 부스에 500여 종의 책을 전시하고 '기독교 도서목록' 등의 책자나 이벤트를 통해 홍보에 열을 올렸다.

물론 장기 출판 불황이 불교계만의 문제는 아니다. 현재 등록된 출판사의 80~90% 정도가 일년에 단 한 권의 책도 발간하지 못하고 있고, 지난 5년 동안 전국의 서점 60%가 문을 닫았다. 인터넷서점들 또한 구조조정에 들어가거나 책 판매대금 결제를 늦추는 경우가 허다하다. 현대인들의 활자 기피와 영상 선호 분위기에 경제 불황까지 겹친 탓이다.

하지만 불교계 출판사들은 이런 어려움에 더해 불교 출판계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한 채 그야말로 '생존투쟁'을 벌이고 있다. 민족사 윤창화 대표는 오늘날 불교계 출판 현실을 "비전이 전혀 없다"는 극단적인 표현으로 설명한다.

사실 98년 외환위기 이후 불교는 '출판계의 마지막 남은 보루'라 불릴 만큼 높은 관심을 받았다. 2002년 틱낫한 스님의 방한과 더불어 붐이 일기 시작한 해외 고승 법문집과 불교 관련 서적은 그 어느 때 보다 활발히 출간됐다. 지난 부처님오신날을 전후해서도 30여 권이 넘는 불교 서적이 선보였다. 그러나 달라이라마, 틱낫한 스님 등 '흥행보증수표'로 통하는 책이나 외국의 베스트셀러는 모두 일반 출판사의 차지다. 출간해 봐야 초판도 다 팔리지 않는 불교 전문 서적은 일반 출판사로서는 '논외'인 것이다.

그렇다면 불교 출판계가 살아날 방법은 없는 것일까?

운주사 김시열 과장은 "출판사 스스로 필자 발굴은 물론 독자의 요구와 취향을 제대로 파악한 후 다양한 기획을 시도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종단차원의 지원 없이 출판사 자체의 힘으로 최근의 난항을 헤쳐가기는 쉽지 않다. 일반 출판사들과의 '무한경쟁'에 내던져지기엔 불교계 출판사들의 역량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현재 기독교출판협회에 소속된 출판사는 160여 곳이 넘고 서점만도 430여 개에 달한다. 반면 불교계 출판사로 이름이 알려진 곳은 10여 군데 남짓. 불교전문서점은 사찰 내 불교용품 판매점에서 구색 갖추기 식으로 책을 판매하는 곳을 포함하더라도 100여 곳 정도에 불과하다. 잘 만들 곳도, 잘 팔 수 있는 공간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셈이다.

결국 종단 차원에서 그동안 숱하게 대안으로 제기되어 온 독서캠페인 전개와 교구 본사 중심의 도서관 건립, 경전독후감 공모 등 불교출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불자들 또한 경전과 각종 불교서적이 '깨달음으로 가는 지름길이자 지도'라는 인식을 가지고 불서읽기 운동이라도 벌여야 한다는 소리가 높다.

이러한 현실에서 7월 초 열릴 예정인 '불교 출판사 대표자 모임(가칭)'이 관심을 끈다. 불교계 출판사들이 한자리에서 당면한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며 고질적인 불교출판의 문제를 풀어나겠다는 것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현대불교 안전하고 편리한 구독신청
전화 한통화로 해결하십시오
● 구독료 전화요금합산 납부 · 자동이체 신청 ●
직통 (02)737-0090 대표 737-8881

동화사 '담선대법회' 개최

9월 '간화선 수행 어떻게 할것인가' 주제로 12회

대구 동화사(주지 지성)가 '참선(간화선)수행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를 놓고 하안거가 끝나는 9월 4일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총 12회에 걸쳐 '담선(談禪)대법회'를 통일대불전에서 봉행한다.

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 선과 선사상을 널리 알리고 생활 속에 살아 숨쉬는 선으로, 또 21세기를 이끌어가는 정신적 대안사상으로의 역할을 밝히기 위해 봉행되는 담선 대법회는 고우 · 무여 · 지환 · 호진 스님 등 12명의 논주와 매회 3인의 논사들이 초청돼 12가지 논제발제와 논평, 자유토론으로 이어지게 된다.

조계종의 종지 종풍인 간화선의 본질과 의미를 밝히게 될 이번 담선 대법회는 △근본불교와 부파불교시대의 선사상과 실천 △육조단경의 선사상과 실천 △조사선의 성립과 수행체계 △ 간화선의 성립과 선사상 △간화선의 수행체계 △간화선의 수행방법 △간화선의 수행과 선병의 문제 △위빠사나 수행과 간화선의 비교 △간화선 수행의 문제점과 극복 방향 등 간화선 수행과 관련한 모든 부분을 총 망라하는 논제발제와 논평이 이어진다. 또 간화선과 한국불교라는 논제 아래 한국불교의 나아갈 바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053)985-4404

배지선 기자 jjsun@buddhapia.com

새기획 '지역불교현장을 가다' 7면

불교예술품 경매로 만난다

불교용품 전문 쇼핑몰에서도 불교예술품을 경매로 사고 팔 수 있게 됐다.

마하몰(www.mahamall.co.kr)은 불교예술품 경매코너를 통해 불화나 법구 등 불교예술품을 경매한다. 경매코너를 신설하게 된 것은 최근 자신이 소장하고 있는 불교예술품을 판매하고 싶어하는 개인들의 문의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6월 7일부터는 청곡 이한동 화백의 팔상도 병풍 경매에 들어갔다. 이 팔상도 병풍 원본은 시가의 10% 수준인 4백만원부터 경매를 시작한다. (02)732-1520

'할'



그림 · 조태호

정각 스님 법문에서(법문은 24, 25면에서 만나세요)

전국비구니회관 · 법룡사 문화센터 수강생 모집

특별강좌
● 로터스(연꽃)명상프로그램 :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마음공부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깨닫는 기회를 가져보십시요.
- 정목스님 : 전 불교방송 차한잔의선율진행 / 마음고요선방운영
6월 9일 ~ 10일 - 10:00~17:00
6월 12일 ~ 13일 - 14:00~20:00
● 묵선 심재영여사 초청 서예특강 - 심재영 : 동방연서회 이사 / 미협서예분과위원
- 매달 마지막주 목요일 10:00

비구니스님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 불화그리기 신설 - 무애스님 : 동학사 승가대 졸 / 통도사 사명암 동원스님 사사 - 매주 화요일 13:00
● 불전헌화 꽃꽂이 - 정명스님 : 연꽃개발 특허출현 - 매주 수요일 10:00
● 사군자(문인화) 신설 - 지오스님 : 충청남도 미술대전 · 대전광역시 미술대전 초대작가 - 매주 수요일 13:00
● 한지공예 - 법연스님 : 신사임당 공모대전 특선/ 한지공예 개인전
- 매주 수요일 14:00
● 사찰음식 신설 - 선재스님 : 선재사찰음식문화연구원 원장
- 매주 목요일 10:30
● 다도강좌 - 혜성스님 : 한국명선차인회 이사장 / 서경다도연구회 회장
- 매주 금요일 10:00

전통교양강좌
● 우리가락 사물놀이 신설 - 운용준 : 대전 한밭제 전국농악경연대회 장원 / 경기도 민속예술제 대상
- 매주 월요일 10:30
● 김숙자류 경기도살풀이 - 이정희 : 김숙자류 경기 도살풀이 보존회 회장 / 이정희 무용학원 원장
- 매주 화요일 10:00
● 고전무용 - 정지영 : 춘앵무와 처용무의 대가이신 김천흥 선생 1기 제자
- 매주 화요일 13:00
● 유창선생의 경기소리 신설 - 유창 : 중요무형문화재 제 57호 (묵계월선생) 경기민요 전수조교 / 전국 경 · 서도민요경창대회 대통령상 수상 / KBS 국악대상 수상 (조교:김희자) - 매주 금요일 10: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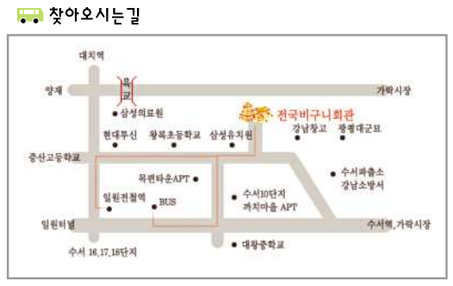
교양강좌
● 엔돌핀 노래교실 신설 - 선선호 : 대한불자가수회 사무국장 / '동심', '신호등'의 작곡가
- 매주 월요일 13:00
● 서예 - 강혜영 : 묵선 선생님 제자 (월1회 묵선 심재영선생 특강)
- 매주 목요일 09:30
● 도자기 교실 신설 - 김태성 : 현 군산대 산업도예과 출강 / Lugio&Ottobre 도자기 공방운영
- 매주 화요일, 목요일(주 2회) 10:30
● 무료 어린이 한자 - 이인종 : 사단법인 한국어문회 주최 한자능력1급 합격 - 매주 목요일 15:00

생활건강강좌
● 선무동작명상요법 신설 - 이선옥 : 포천중문의과대학 보건대학원 선무 무용치료전공 주임교수
- 매주 수요일 10:30
● 명상요가 - 천선혜 : 마음공부 마스터/ 세계영성공동체 탐방 / 팔당 생명살림 "마음바꾸기프로그램 자연과의 교감"진행
- 매주 목요일 10:00
● 금강승 선관무 신설 - 김재웅 : (사)금강승선관무 서울본원 원장 / 원주중앙수련원 / 서울서초본원
- 매주 목요일 19:30

어학강좌 신설
● 일어 불전(교리) 강독반
● 영어 불전(교리) 강독반 - 황순일 : 동국대 · 금강대 강사 / 충북대인문학연구소 전임연구원
- 매주 월, 수 19:30
● 중국어 불전(교리) 강독반 - 김진무 : 동국대 강사
- 매주 화, 목 13:00

비구니스님들을 위한 강좌
● 상용불교의식 신설 - 선정스님 : 동대(경주)국악과 범패전공 / 효동범음대학 상주권공 수료 / 1999~2003년까지 운문승가대학 의식 강의
- 매주 금요일 13:00
● 다도강의 - 혜성스님 : 한국명선차인회 이사장 / 서경다도연구회 회장
- 월 1회 (6월 14일) 14:00

불교교리
● 불교의 첫걸음 신설 - 최종석 : 금강대학교 불교문화학부 교수 /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및 사회교육원 교수역임 - 매주 금요일 19:00
● 일요법문 - 법사 : 혜원스님, 자광스님, 일법스님, 광옥스님, 운달스님, 승혜스님
- 매주 일요일 10시

찾아오시는길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 744번지 전국비구니회관 법룡사
- 문의전화 : (02) 3411-8106, 8103
- 홈페이지 : www.kbiguni.org



토굴문화 이대로 안된다

토굴은 말 그대로 흙으로 굴처럼 얼기설기 검박하게 지은 수행자의 외딴 거처이다. 이를 초기경에서는 꾸띠(kuti, 초막)라 부르며 지금도 남방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이런 전통은 우리나라에서도 토굴이라 불리면서 면면히 이어져 왔다. 부처님께서는 "쭌다여, 여기 나무 밑이 있다. 여기 빈집이 있다. 참선을 하라. 쭌다여, 방일하지 말라. 나중에 후회하지 말라. 이것이 그대에게 주는 나의 간곡한 당부이다.(중부 제8경 등)"라고 하셨으니 외딴 토굴생활은 목숨을 내놓고 장부일대사를 해결하기 위해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간곡히 권장하신 삶의 방식이라 하겠다.

이처럼 토굴생활은 부처님이 장려하신 것이 분명하지만 아무에게나 권장하신 것은 아니다.

부처님께서는 초기경의 많은 곳에서 "성스러운 계목(戒目)을 구족하고, 성스러운 감각기능(根)의 단속을 구족하고, 마음챙김과 알아차림(正念正知)을 구족하여 숲 속이나 나무 아래…와 같은 외딴 거처를 의지한다(중부 제27경)"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러한 비구라야 토굴생활을 허락하셨다.

그러나 장부일대사를 궁구하기 위한 토굴이 요즘은 편안하고 해이한 생활을 즐기는 굴택이 되어버렸으며, 토굴은 개인의 재산으로 치부되고 있고 심지어는 때때로 들러서 피로를 푸는 온갖 첨단장비를 구비한 호화별장의 개념으로까지 변질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토굴이 개인 굴택으로 전락해버린 작금의 원인은 물론 출가자들의 기강해이가 그 근본원인이겠지만 현실적으로 몇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다.

첫째는 개인공간이 보장되지 않고 게다가 앉는 시간만 점점 늘리는 극단적인 선방풍토를 들 수 있다. 선방생활이 극단적으로 힘들수록 해제 때에 쉬는 공간이 더욱 절실해지고 그럴수록 토굴생활은 극단적으로 해이해질 수밖에 없다.

둘째, 본·말사 가릴 것 없는 사찰의 붕당화를 들 수 있다. 사찰이 특정 인물이나 인맥의 전유물이 될 수록 일반 출가자들은 책 등 자신의 기본 사물조차 보관할 공간이 없어지며 토굴이라는 이름의 개인공간을 마련할 수밖에 없게 된다.

셋째, 공찰주지는 임기가 끝나고 지낼 공간 마련에 급급하게 되고 그래서 토굴이라는 이름으로 개인공간을 장만한다. 이런 공간일수록 호사스럽다.



사유재산·호화별장으로 변질
개인공간·노후보장 확립돼야

그러므로 출가자의 신분보장과 노후보장 차원에서도 본사별로 실버타운 형태의 처소를 건립하여 일단 재적승려가 되면 누구에게나 배분해서 일생동안 개인사물을 보관할 수 있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그래야 토굴은 진실로 발심한 자가 두문불출하고 일대사만을 궁구하는 부처님 시대의 꾸띠와 같은 진정한 수행처소가 될 것이다.

물론 이렇게 기본공간을 제공하는데도 개인 명의의 토굴을 가지는 자는 승단에서 엄격히 규제해야한다.

■ 각묵(초기불전연구소 지도법사)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 쇄 인 : 채수삼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1개월 5천원 영구 62만5천원

종조 도의 국사 다례제 봉행

조계종, 6월19일 조계사서 "종단 정체성 확립 계기 될 것"

한국 선종의 종조로 추앙받는 도의 국사. 성은 왕(王), 법호는 명적(明寂), 시호는 원적(元寂). 통일신라 말인 784년 당나라로 건너가 개원사에서 서당지장(西堂智藏) 선사에게 불법을 이어받은 뒤 귀국, 신라에 선종(남종선)의 씨를 뿌렸다.

당시 서라벌 중심의 왕권불교와 대립하며 진보적인 선사상을 전파했던 도의 국사는 말년에 양양 진전사로 들어가 은둔했다. 이후 도의 국사의 사상은 염거화상-보조체징에게 전해지고, 체징은 9산선문 중의 하나인 가지산파를 열며 우리나라 선종의 시작을 알리게 된다.

그러나 우리 역사 속에 사상적 일대 전환을 일으킨 대선사임에도 불구하고 도의 국사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런 가운데 조계종이 종단 정체성 강화를 위해 종조 도의 국사 다례제를 6월 19일 봉행한다.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는 6월 1일 "종단 정체성과 역사성 강화, 법통 확장 등을 위해 도의 국사 기일인 6월 19일 종조 다례제를 봉행한다"며 "장소는 서울 조계사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종정 법전 스님 및 종단 원로스님들이 참석 예정인 다례제는 육법공양, 천수대비주, 거불, 권공, 축원, 행장소개, 법어, 거목, 청사, 헌좌게, 다게, 헌화, 권공가지, 발원문 순으로 진행된다.

6월 19일(음력 5월 2일)은 1941년 4월 23일 제정된 '조선불교조계종 총본사태고사법' 제9장 법식(法式) 제81조 '항례법회 및 기일'에 나오는 "도의국사 기일은 5월 2일"에 따른 것이다. 다례제와 관련 총무부는 "간화선 중심의 승풍을 진작하고 역대 선장(禪匠)들에 대한 추모 및 존승을 통해 종단 위계와 위의를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속초 신흥사는 지난 4월 27일 양양 진전사지에서 진전사 복원 기공식을 갖고 복원에 들어갔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언양 석남사에 있는 도의 국사 진영.

결산안 승인 등 처리 못해 파행

동국대 이사회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199차 이사회가 5월 28일 동국대 교무위원실에서 열렸지만 2003년도 결산안 승인 건을 놓고 이사들 간의 이견이 맞서면서 파행을 겪었다. 결국 이날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었던 2003학년도 각급기관 결산 승인과 신규임원(스님 및 재가 이사) 선임, 필동 중대병원 매입 승인 등의 건은 상정조차 못하고 다음 회기로 연기됐다.

이날 이사회의 쟁점은 박도근 재단 감사의 2003학년도 결산 감사보고내용 가운데 동국의료원 약품납품업체 수의계약건과 필동병원 매입 계약금 130억 과다지출. 장윤 스님은 "중앙대 필동 부속병원 매입과정에서 계약금이 통상적인 계약관행을 깨고 130억원이나 지급된 경위를 밝히라"며 해명을 요구 했다. 홍기삼 총장은 "2003년도 회계가 끝나는 시점에서 학교의 이익을 위해 급하게 처리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은석초등학교 학칙 개정, 교원 승진 등 인사, 경주병원 의료장비리스 승인, 2004학년도 사학진흥기금 융자에 따른 가채승인 등의 건을 처리했다.

조용수 기자

"신도활동 강화해야 포교성과"

조계종 포교종책 연찬회서 지적

6월 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제3차 포교종책연찬회'에서 중앙신도회 이상근 총무부장은 '신도회·신도단체의 역량 진단과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수행과 포교, 출가자와 재가자 등 양 조건의 상호 보완과 협력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 총무부장은 "현재 조계종에 등록된 2,200여개의 사찰 중 신도회가 구성된 곳은 25%에 불과하고, 사업 및 활동을 하는 곳은 10%에 미치지 못하는 등 각 신도회의 활동 등이 유명무실한 상태"라며 "정책생산력 강화, 법과 제도의 개선, 참여구조 확대 및 민주적 절차 확립, 자원의 관리 및 개발·육성 등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총무원 이민우 기획계장 역시 "문화교양강좌, 일대일 대화·토론 방식 등 시대의 흐름과 일반인 및 신도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신도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4차 포교종책연찬회는 오는 23일 열린다.

김은경 기자

조계종 총무원 부장급인사

총무 무관 스님 사회 지원 스님
호법 진원 스님 문화 성정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6월 3일 교역직 인사를 단행해 총무부장에 무관 스님(대구 법계사 주지), 사회부장에 지원 스님(부산 문수사 주지), 호법부장에 진원 스님(부안 내소사 주지), 문화부장에 성정 스님(여주 보륜사 주지), 호법국장에 자공 스님을 각각 임명했다. 또 전 총무부장 성관 스님과 전 호법부장 종열 스님을 종책특보에, 전 사회부장 미산 스님을 국제특보에 임명했다.


지원 스님


진원 스님


성정 스님

무관 스님은 1964년 사미계, 72년 구족계를 수지한 뒤 83년 동국대 교육대학원을 졸업했다.

1966년 사미계, 74년 구족계를 받은 지원 스님은 제11대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불교인권위원회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진원 스님은 1980년 사미계, 83년 구족계를 수지했다. 제12대 중앙종회의원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불교환경연대 집행위원으로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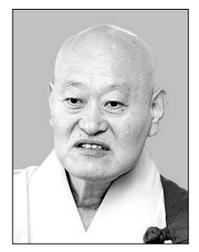
1967년 사미니계, 74년 구족계를 받은 성정 스님은 90년 일본 용곡대학원을 수료한 뒤 98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법장 스님은 "소임을 맡기는 것은 개인의 뜻이 아니라 종도들의 뜻이자 부름"이라며 원칙을 기준으로 원융화합을 해 주길 당부했다.

남동우 기자

"원칙 가지고 원융화합 노력"

신임 총무부장 무관 스님



"종단 위계질서와 종단 체계 확립에 일조하기 위해 총무원장 법장 스님의 부름을 받고 왔습니다. 원장 스님의 말처럼 원칙 있는 원융화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새 총무부장에 임명된 무관 스님(사진)은 하안거 결제를 위해 구례 화엄사 선방에 방부들인 첫째 날 서울에 왔다. 교육문화회관 상량문을 썼던 무관 스님은 당시 법장 스님의 생각을 읽을 수 있었으며, 그것이 인연이 돼 제도권 안에서 종단 위상 정립과 위계질서 확립을 위해 밤중에 올라왔다는 것이다.

무관 스님은 행자교육원 운영위원, 교육원 교재편찬위원회 위원장, 계단위원회 위원 등의 이력이 말해주듯 학자다. 이와 관련 스님은 최근 조계사에서 열렸던 '선원장 초청 대법회'를 언급하며 종단 정체성에 맞는 수행상 정립에도 뜻을 둘 것임을 밝혔다. 그러나 일부에선 종무행정 경험이 많지 않다는 우려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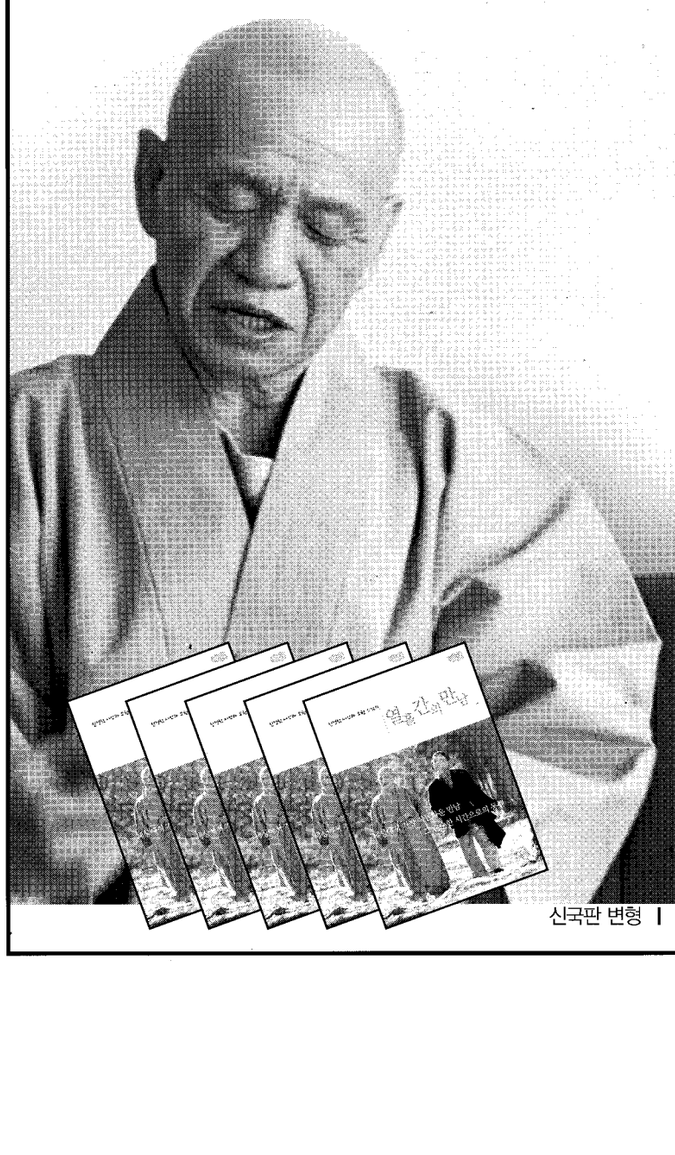
"종정 법전 스님이 합천 해인사 주지를 맡고 있을 때 교무소임을 봤었습니다. 또 8대와 10대 중앙종회의원을 하면서 중앙종무기관의 흐름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배운다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스님은 종무행정 실무 역할을 맡고 있는 국장 스님들을 도와주는 것이 자신의 몫이라고 말했다. 또 부장스님들끼리 화합하는데도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소욕지족(小欲知足)'을 늘 마음에 새긴다는 스님은 "자기 절제가 곧 수행"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종무행정을 펼칠 뜻을 내비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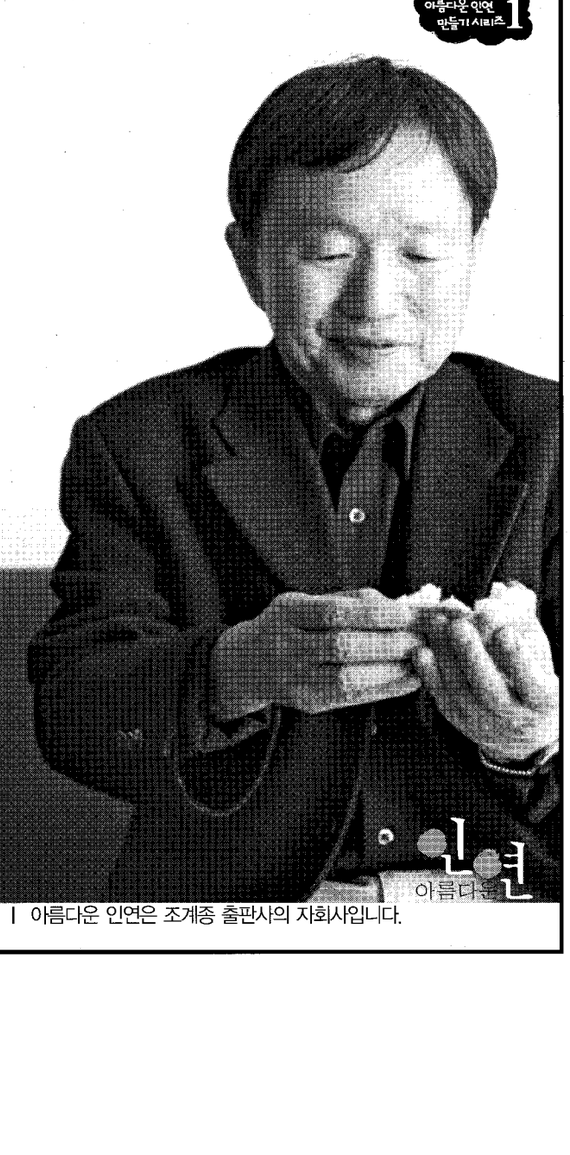
남동우 기자

언론에서 극찬한 화제의 책



신경림 시인과 오현 스님의
열흘 간의 만남

아름다운 인연 만들기 시리즈 1



형식에 관계없이 잡다한 얘기를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스님들의 삶에 있어
내가 궁금해 하던 것들에 대한 대답을 스님으로부터 끌어낼 수 있었다.
나 자신을 포함 불교에 다가가려는 사람들에게 크게 도움이 될 얘기가
스님의 말 속에서 허다히 찾아진다는 점,
만남을 가지면서 내내 즐거웠던 까닭이 여기에 있다.
- 신경림 -

KBS 9시 뉴스방영! • MBC·YTN 뉴스 방영!
스님과 시인의 특별한 만남 - 동아일보
수행과 문학의 고수(高手)가 만나 사랑·욕망 등 7가지 주제를 묻고 답한다. - 조선일보
급한 마음 붙들어매고 천천히 두 사람의 대화를 따라가다 보면 곳곳에서 반짝거리는 지혜를 만나게 된다. - 중앙일보
시와 선이 만나는 곳엔 서로 구분지을 수 없는 깨달음의 웃음 한바탕 - 한겨레
승속(僧俗)의 경계를 넘은 '아름다운 교감' - 한국일보
삶을 치열하게 살아낸 이들만이 가질 수 있는 통찰과 여유가 돋보인다. - 문화일보
세상사와 인생을 말하면서 자신들의 개인적인 경험 또한 잔잔하게 털어놓는다. - 경향신문
지난 겨울 두 사람이 백담사에서 열 네 차례 만나 '내공'을 겨루다. - 한국경제

인연 아름다운

신국판 변형 | 280면 | 값 9,800원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45번지 | Tel. 02-2011-1880~1 | Fax. 02-720-6019 | 아름다운 인연은 조계종 출판사의 자회사입니다.

기업 공적자금 횡령에

사찰 연루 혐의

성원토건 김 前회장 재산은닉 도와

성원토건 김성필 전 회장이 공적자금으로 투입된 회삿돈 47여억 원을 횡령하는데 경남 ㅌ사찰 ㅇ 스님이 연루된 것으로 검찰이 발표해 충격을 주고 있다.

5월 28일 대검 공적자금비리 합동단속반 발표에 따르면, 성원토건 김 전 회장은 98년부터 ㅌ사찰의 사찰등록증과 주지 스님의 위임장 등을 도용해 47억 5천여만 원을 횡령했다. 김 전 회장은 사찰 명의 계좌 30개를 만들어 2억 원씩 나눠 입출금하는 수법으로 돈세탁을 했으며, 이듬해 성원토건의 부도가 예상되자 돈세탁한 금액을 사찰의 시줏돈으로 가장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ㅇ 스님은 사찰 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20억 원대의 허위영수증을 발급하는 등 직접적으로 성원토건의 돈 세탁을 직접적으로 도왔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ㅇ 스님은 김 전 회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2000년 12월 서울 성북동 소재의 호화저택 2채와 집터 등 204억원에 이르는 부동산을 사찰명의로 이전해 김 전 회장의 재산 은닉을 돕고, 전 회장의 250억 규모 버스터미널과 80억 규모의 주차장 등 총 330억 상당의 부동산을 은닉하는 데에 명의를 빌려주기도 했다. 검찰은 여기에는 다른 사찰의 스님들도 다수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적자금을 횡령한 김 전 회장의 은신처는 여섯대의 무인감시 카메라가 작동되는 대지 103평의 서울 성북동 소재 고급주택으로서 천평이 넘는 지하실엔 헬스클럽을 겸한 실내골프연습장이 조성돼 있고, 창고에는 유명디자이너 옷 수백벌과 이탈리아제 수제구두 및 그림 수십점이 빼곡히 차 있었다.

현재 김 전 회장은 한신공영 김태형 전 회장 등과 함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이며, ㅇ 스님은 이를 도운 혐의로 구속됐다.

김은경 기자

불교계 인사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수행자로서 해선 안될 일

혜능 스님(해인율원장)

율장의 논서인 <선견율비바사>에는 음녀의 공양을 받아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놓고 논쟁하는 대목이 나온다. 결론은 이것을 사용하는 비구의 과정과 결과를 놓고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행자가 부정한 돈을 받아 돈세탁을 대신해주는 등 사회적으로 지탄이 되는 일을 벌였다는 것은 수행자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그 과정이 어떠했든 절대로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본다.

개인 일로 종단전체 비난 말길

효림 스님(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이번 사건은 최근 청와대와 정부가 개혁을 추진하면서 그동안의 관행을 문제 삼는 가운데 벌어진 일 같다. 해당 스님이 불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불행한 일에 연루된 것 같다. 사회적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면이 있지만 불교계가 먼저 나서서 스님을 비난하는 것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또 스님 개인 건으로 종단 전체가 어려움을 겪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

다시는 이런일 없도록

철안 스님(남양주 봉선사 주지)

문제가 된 시주금이 공적자금인 줄 알면서도 숨기는 차원에서 일을 했다면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모르고 한 일이라면 정상 참작을 해야 할 것이다. 사찰이 비영리단체이고 스님이 인간 관계상 어쩔 수 없이 했을 가능성도 많을 것이다. 이 일과 관련해 철저한 조사를 한 후 여론을 들어보고 다시 이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절대 용납해선 안될 관행

백창기 회장(조계종 중앙신도회)

사찰과 스님이 기업주의 불법 공적자금 횡령을 도왔다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성원토건 사건의 경우 횡령 액수가 커서 부각되고 있을 뿐, 사실상 불교계에는 스님들의 관행으로 이 같은 일이 비일비재로 일어나고 있다. 사찰과 스님들의 부도덕한 일의 견제기관으로서 각 사찰 신도회가 활발히 활동해 이 같은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청정한 보시' 여야

김희욱 원장(교단자정센터)

성원토건 김성필 사장이 지역 불교계 발전에 공헌한 바가 많다는 것은 많은 불자들이 아는 사실이다. 그렇지만 그것이 오히려 불교계에 큰 짐이 됐다는 현실에 아쉬움이 크다. 이번 사건으로 보시의 청정함 여부는 생각하지 않고 많이 받으면 그만이다라는 불교계의 관행을 고쳐나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청년 불심에 불 지피자

한국대학생불자연합회(회장 강지혜)가 각 지부 및 지회별 사업내용 공유와 협력방안을 찾기 위한 '2004 대불련 전진대회'를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경기도 김포 효원연수원에서 개최했다. (사진)

대불련 전진대회 개최
중앙·지부·지회 협력 다짐



대불련 24개 지부 177개 지회장 및 중앙임원 50여명이 참석한 이번 대회는 중앙 및 지부의 사업보고와 불교학생회 활성화를 위한 토론, 포교원과의 간담회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대불련 회원들과 포교원 실무자와의 간담회 자리는 처음 마련된 것으로, 대불련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대불련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등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하지만 포교원 측이 제시한 '대불련 포교활성화 기반조성'을 위한 대불련 조직 실태조사 및 지도법사단 구성 등의 일부 안에 대해 대불련 임원 및 회원 대다수가 공감할 수 없다며, 포교원의 대학생 포교정책의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대불련 홍지연 지도위원은 "불교학생회의 현황 파악과 지도법사단 구성보다 대불련 조직을 바로 세우고 각 지부 및 지회들이 신행활동을 하며 겪는 어려움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은경 기자

도심 속 재가불자 수행열풍

백일법문 논강, 각계 인사 150여명 참가

"성철 큰스님의 <백일법문>의 핵심은 중도(中道)입니다. 중도는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 말씀이 다 중도고, 선 또한 중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6월 3일 조계사 극락전에서는 사찰 신도회 임원, 단체장, 정부부처 실무자, 언론인, 교수 등 사회각층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활동하고 있는 재가불자 150여명이 모여 성철 큰스님의 이론과 사상을 집중 조명하는 특별한 자리가 마련됐다. 바로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스님들의 전통 수행기간인 하안거를 맞아 재가불자들의 도심 속 수행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한 '<백일법문> 재가논강' 현장.

입제식을 겸한 이날 논강은 성철 큰스님의 상좌인 파라미타청소년협회 회장 원택 스님의 특강과 경북 봉화군 각화사 고우 스님의 법문,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됐다.

증명법사로 나선 고우 스님은 '생활인의 마음 공부법'이라는 법문을 통해 "부처님이 말씀하신 중도는 이론이 아닌 생활"이라며 "불교의 가장자리만 맴돌 것이 아니라, 중도를 가장 쉽고 명확히 설명한 <백일법문>을 공부하며 불교의 핵심인 중도를 깨우쳐 나가자"고 제안했다.

보름에 한번씩 진행되는 <백일법문> 재가논강은 총 8회에 걸쳐 진행된다. (02)737-7277

김은경 기자

조계종, 시민단체 지원 확정

'한끼밥상 나누기 운동' 등 7개 사업

불교시민사회단체 공모사업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 위원장 미산)는 5월 24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어린이불자 미디어 교육 등 7개 단체의 사업을 지원대상으로 확정했다.

이날 선정된 프로그램은 ▲불자사회 네트워크 구성과 구성 사업(조계종 중앙신도회) ▲좋은 이웃 한끼밥상 나누기 운동(좋은벗들) ▲불교생태 계절학교(인드라망 생명공동체) ▲어린이불자 대상 미디어교육(보리방송모니터회) ▲유엔본부에 NGO 활동 연계 및 홍보활동(뉴욕사원연합회) ▲사찰 상담복지 실현을 위한 '사찰 상담실 설치운영 매뉴얼' 발간(불교상담개발원) ▲청소년 나혜석 예술제(파라미타청소년협회 수원지부) 등이다. 강유신 기자

"산사 특징 살릴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필요"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스님과 실무자 20여명은 6월 4일 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템플스테이 사업의 전망과 과제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해남 대흥사 수련원장 법인 스님은 "템플스테이를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산사의 특징을 살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무자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문화관광부 김수연 종무관은 "템플스테이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 콘텐츠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계종 템플스테이 사업단은 다음달 템플스테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통하는 등 운영 사찰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김은경 기자

박종철 인권상 수상자 윤기진·황선 씨 선정

박종철인권상 심사위원회(위원장 청화)는 6월 1일 윤기진, 황선 부부를 제2회 수상자로 결정했다. 윤기진 씨는 현재 범청년 남측본부 의장을 맡고 있다. 윤 씨의 부인 황선 씨는 현재는 범청련 남측본부 대변인을 맡고 있다. 강유신 기자

통영 불교 방생법회 9일, 치어 7만여 마리

통영불교사암연합회는 9일 도남관광지와 연화도 해상에서 '2004 통영불교 방생법회'를 개최한다.

하동 쌍계사 조실 고산 스님을 비롯, 합천 해인사, 양산 통도사 스님 및 신도 3천여 명이 참석 예정인 방생법회에서는 7만여 마리의 양식 치어를 통영 앞바다에 방생할 계획이다.

도남관광지에서 열리는 식전 행사에서는 어산작법과 풍어기원 수륙대재가 열리고 유람선을 이용 욕지면 연화도 앞 용머리 해상서 선상법회가 봉행된다. 천미희 기자

JTS 北에 1년내 20억원 투자

개발기금 조성…통일대비 모델 사업 지원키로

JTS가 북한 개발을 위한 기금을 만든다.

한국 JTS(대표 유수)는 5월 31일 장수 죽림정사에서 열린 정토행자 천일결사 9차 백일기도 입재식에서 '북한개발기금'을 조성키로 하고, 남북통일에 대비해 북한 개발 모델을 만들기 위한 사업들을 지원한다. '북한개발기금'은 북한의 보건 의료 교통 사회 기초 인프라 시설 건설은 물론 문화재 복구 및 인력 양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JTS는 1차 3년 라선시, 2차 3년 함경북도, 3차 3년 북한 전역 순으로 북한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며, 우선 2005년 5월까지 라선시에 20억원을 투자해 보건 의료 등 기초 인프라 시설들을 갖추어나갈 계획이다. 또한 JTS는 산하에 '북한개발위원회'를 설치하고 당면한 구체적인 현물지원과 향후 인적 교류, 기술교류를 대비할 계획이다. 강유신 기자

"호국영령이여 고이 잠드소서"

13일 원광사 등 전국 군법당서 천도법회

조계종 군불교위원회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월 13일 오전 10시 전쟁기념관과 국방부 호국원광사에서 호국영령 천도법회를 봉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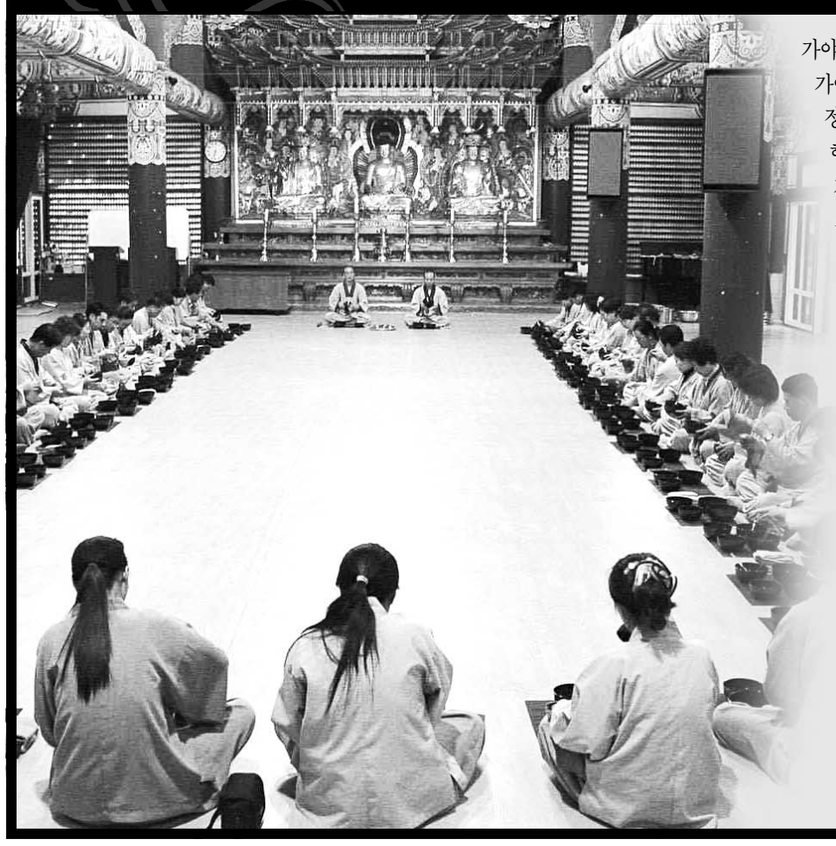
전쟁기념관에서 호국영가 청혼 및 이운으로 시작되는 천도법회는 전몰장병 위패를 선두로 국악대와 원광사 합창단, 신도대표들이 원광사까지 행진하며, 원광사에서 천도독경, 축원 등으로 진행된다.

이날 법회에는 국방부와 수도방위사령부, 기무사령부, 특전사령부, 수도군단 등 재경지역 군법당 소속 군법사와 군불자, 일반신도 등 1천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천도법회는 전국 4백여 군법당에서 부대 실정에 맞게 동시에 열린다.

한편 군불교위원회는 6월 22일 오후 1시 국방회관 태극홀에서 군불교 호국합창제를 개최한다.

박봉영 기자

2004년 법보종찰 해인사 여름 수련회 안내



가야산 해인사에서는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제 21회 여름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가야산 해인사는 고려팔만대장경을 봉안하고 있는 법보종찰로서 불교문화와 수행전통을 잘 간직하고 있으며, 현재는 총림(叢林/종합수도원)으로서 조계종 종정 법전 대종사를 중심으로 250여명의 스님들이 정진하고 있는 한국불교 최대의 수행도량입니다.
해인사의 수련회 일정은 참선과 묵언 등 엄격하고 신심 있는 내용으로 스님들과 똑 같은 수행 프로그램으로 짜여져 있으며, 이러한 4박5일의 기간을 통해 단기 출가를 경험하고 새로운 삶의 방향과 의미를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해인사의 새벽 예불은 타성에 젖은 수련생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잔잔한 감동이 될 것입니다. 법보종찰 해인사 여름 수련회 수련생을 아래의 일정과 절차로 모집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수련주제 :** "가장 화려한 날은 바로 오늘이다."

■ **여름 수련회 일정**

기 간		대 상 자		인원
1차	7월 6일(화)~7월10일(토)	20~60세 이하	일반인	130
2차	7월13일(화)~7월17일(토)	〃	〃	130
3차	7월20일(화)~7월24일(토)	〃	〃	130
4차	7월27일(화)~7월31일(토)	〃	〃	130
5차	8월 3일(화)~8월 5일(목)	14~19세 이하	중·고등부	150
6차	8월10일(화)~8월14일(토)	20~60세 이하	일반인	130
7차	8월17일(화)~8월21일(토)	〃	〃	130

■ **접수기간 : 2004년 5월24일부터 선착순 마감**

■ **신 청 서 :** 신청서 양식은 해인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인터넷 및 팩스 접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팩스로 신청하실 때는 전송 후 전화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련회 참가비 :** 일반부 8만원, 중 · 고등부 6만원(교재, 기념사진, 기념품, T셔츠포함)

■ **접수방법 및 통보 :** 선착순 접수에 의해 마감하며, 참가비 입금이 확인되면 수련생으로 정식등록이 됩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한 차수 변경은 3일전까지만 가능하며, **불참하더라도 입금한 참가비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계 좌 번 호 :** 수련회 참가비는 아래 통장으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 **농 협 : 843174-51-006770 (예금주 : 해인사)**

※ 입금하실 때는 자신이 원하는 차수를 이름 뒤에 기입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준 비 물 :** 필기구, 세면도구, 우산, 하얀 고무신, 하얀 양말, 쌀 1되와 상 · 하 법복이 있는 분은 가져올 것

■ **접수안내 : 055-934-3110(포교국) 팩스 055-934-3112**

※ 자세한 것은 해인사 홈페이지(**www.haeinsa.or.kr**)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2교구 본사 법보종찰 해인사 주지 박세민 합장

한 마리 옛 용은 하늘가에 맴도네

원담 스님

(덕숭총림 수덕사 방장)



묵좌선창망풍진(默坐禪窓忘風塵)
청산영리기조훈(靑山影裏幾朝昏)
백운심처일월고(白雲深處一月孤)
회일고룡원천변(回一古龍遠天辺)

묵묵히 선방에 앉아 세상 인연 잊었는데
푸른 산 그림자 속에 세월이 얼마나 흘렀는고.
흰 구름 깊은 곳 달은 외로운데
한 마리 옛 용은 하늘가에 맴도네.

(주장일타)
한 생각이 일어날 때 일체가 생기고 한 생각이 멸할 때 일체가 멸한다.
생각코자 하되 생각할 수 없는 것을 밟아 깨뜨릴 때에 만리에 구름 없듯이 항상 드러나니라.
(중략) 언어가 끊어지고 심행처(心行處)가 멸한 곳이라야 아는 도리니라.
다만 마음과 마음이 서로 응답(應答)하니 제자가 대답하고 스승이 부르는 일이 어찌 우연이겠는가!

각 총림 결제법어(요약) 전문은 buddhanews.com에

돌다리는 보지 못하는 구나

법전 스님

(조계종 종정 · 해인총림 방장)



조주석교본무성(趙州石橋本無星)하니
수급유어불이정(水急游魚不易停)이로다
교상지관려마적(橋上只觀驢馬跡)하니
수인감향어가행(誰人敢向御街行)고.

조주의 돌다리는 본래부터 디딤돌이 없어
물이 급해 노는 고기 멈추지 못한다
다리 위에는 말과 당나귀 발자취만 보이니
뉘라서 말을 타고 감히 건너려 하랴.

조주 선사에게 어떤 납자가 물었습니다.
"조주의 돌다리 소문은 오래 전에 들었습니다만 와서 보니 외나무다리만 보입니다."
이에 선사가 말했습니다.
"그대는 외나무다리만 보고 돌다리는 보지 못했구나."
납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어떤 것이 돌다리입니까?"
"말도 건너가게 하고 나귀도 건너가게 하는구나."
"어떤 것이 외나무다리입니까?"
"사람을 하나하나 건너가게 하느니라."
(중략)
이 산승이 결제대중들에게 묻겠습니다.
조주 스님께 돌다리를 물으니 말도 건너가게 하고 나귀도 건너가게 한다고 하였고 외나무다리를 물으니 사람을 하나하나 건너가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조주 선사는 돌다리를 두둔한 것입니까? 나무다리를 두둔한 것입니까?
올여름 한 철 동안 잘 참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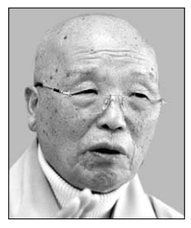
장경이압랑두비(長鯨已壓浪頭飛)하고
파별교변상전니(跛鱉橋邊尙轉泥)로다
도마도려수회득(度馬度驢誰會得)고
녹양영리노동서(綠楊影裏路東西)로다.

큰고래는 벌써 물결을 누르고서 날아가는데
절름발이 자라는 아직도 다리 곁에서 진흙탕 속을 헤맨다.
말도 건너고 나귀도 건너는 뜻 누가 알리오.
푸른 버들 그늘 밑엔 동서로 길이 트였구나.

지혜로운 자 의심 없을때 용맹정진

보성 스님

(조계총림 송광사 방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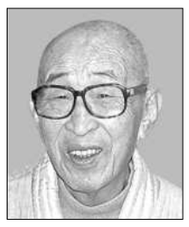
(중략) 고인(古人)의 송(頌)에
경경답지공인지(輕輕踏地恐人知)하라 어소분명갱막의(語笑分明更莫疑)하면
지자지금맹제취(智者至今猛提取)하여 막대천명실각계(莫待天明失却鷄)하라
살풋살풋 땅을 밟아서 남이 알까 두려워하라
말과 웃음에 분명해서 다시 의심이 없거든
지혜 있는 이는 이때 용맹을 다해 정진하여
날이 밝기를 기다려 닭 울 때를 놓치지 말라 하였다.
대중(大衆)은 결제해제(結制解制)에 상관없이 부지런히 정진(精進)하라

야선도진무수인(野船渡盡無數人)인데 만강풍우자종횡(滿江風雨自縱橫)이로다
나룻배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건네주지만
강에 가득 불어오는 비바람은 어쩔 수가 없구나

한칼 들고 부처도 조사도 죽임이라

수산 스님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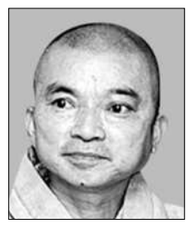
역수단도 살부살조(亦手單刀 殺佛殺祖)
변고금어현요 험용사어주빈(辨古今於玄要 驗龍蛇於主賓)
조금강보검 소제죽목정영(操金剛寶劍 掃除竹木精靈)
분사자전위 진열호리심담(奮獅子全威 震裂狐狸心膽)
요식임제종마 청천굉벽력(要識臨濟宗麼 靑天轟霹靂)
평지기파도(平地起波濤)

맨손으로 한칼을 들고 부처도 죽이고 조사도 죽임이로다
예와 지금을 삼현, 삼요로써 판단하고
용과 뱀을 빈주구로 일음이라
금강의 보검을 잡고
도깨비를 쓸어내고
사자의 위엄을 떨쳐
여우와 너구리의 넋을 찢음이로다
임제종을 알려는가?
푸른 하늘이 벼락을 치고 평지에 파도가 이는 도다.

지천에 널린 道 보고도 깨닫지 못하네

지허 스님

(태고총림 선암사 칠전선원장)



삼십년래심검객(三十年來尋劍客)
기회낙엽기추지(幾廻落葉幾抽枝)
자종일견도화후(自從一見桃花後)
직지여금갱부의(直至如今更不疑)

삼십년 되도록 칼을 찾던 나그네여
몇 번이나 잎이 지고 가지가 돋았던가
복숭아꽃 한 번 스스로 본 뒤
곧바로 오늘에야 다시 의심치 않게 되었네
(중략)

대오(大悟)한 역대(歷代) 조사(祖師)스님이 특별한 분이 절대로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절대로 도가 멀리 있지 않고 우리 주변에 지천으로 널린 것이 도인데 우리가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돈독하게 정진하고 또 정진하면 꼭 깨치게 되는 것이 기정사실이라는 것을 굳게 믿어 이 안거 내에 꼭 우리 본래의 칼을 찾아 영운 스님처럼 복숭아꽃을 보도록 합시다.

▮고불총림 새 방장 수산 스님 기자간담회

"마음 속 마구니 쓸어 내세요"

"공부하는 것은 마구니를 때려치는 것입니다. 이번 안거에는 마음속에 날뛰는 도깨비를 쓸어내세요."

6월 2일 갑신년 하안거를 맞아 전국 제방 선원과 사암의 대중들이 3개월간 안거에 들어갔다. 고불총림 백양사의 이번 안거는 각별하다. 현대 한국 선불교를 대표하는 서옹 스님이 지난해 원적에 든 후 수산지종(壽山知宗) 스님이 방장으로 취임, 처음 열리는 하안거이기 때문이다.

고불총림 하안거 결제에는 운문선원, 고불선원, 비구니 동천선원에 30여명의 눈푸른 납자가 입방했고 외호대중도 50여명 결제했다. 운문선원은 '북 마하연 남 운문'으로 불릴 만큼 선방 수좌들에게는 꿈의 수행처이다. 이는 북쪽의 금강산 마하연선방과 함께 남쪽의 백암산 운문선방이 수행에 가장 좋은 자리라는 것이다. 운문선원에는 서산, 진묵, 백파, 학명, 환응, 용성 스님 등 쟁쟁한 선승들을 비롯해 근대에는 만암, 인곡, 고암, 운봉, 서옹 스님이 있고 현 조계종정 법전 스님도 이곳을 거쳐가 가장 많은 종정을 배출한 선원이기도 하다.

▲ 고불총림 가풍은 무엇인지요?

– 만암 대종사가 1947년 식민지 불교 청산과 민족정기 함양, 승풍진작 등 3대기치를 내걸고 전라도 20여 사암을 모아 백양사에 고불총림을 결성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총림입니다. 초대방장 만암 스님은 '수행자의 행(行)'을 강조했습니다. 언행일치가 안되는 수행을 용납하지 않아 백양사 납자들에게는 '모범 백양'이란 별칭이 붙었습니다. 지금도 백양사 대중은 어디가나 수행자의 사표가 되고 있습니다.



하안거 결제법요식 후 운문선원, 고불선원, 동천선원 수좌들이 방장 수산 스님(사진 앞줄 중앙)과 기념촬영했다.

▲ 수행도량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뜻을 엿볼 수 있습니다. 서옹 스님께서 주창하셨던 '참사람운동'이 고불총림을 대표하는 수행운동이겠군요.

– 하루는 만암 스님이 저에게 '중 승(僧)'자를 쓸 줄 아느냐고 묻더군요. 인(人)변에 일찍증(曾)을 붙인것이 아니냐고 대답했더니 그뜻을 다시 물으세요. 그리고는 사람이 먼저 되고 중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일깨워 주셨어요. 사람도 못 되면서 중이 되서는 안되죠.

요즈음 보면 형태만 사람이고 하는 일은 사람답지 않은 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서옹 스님은 더 이상 이래서는 안되겠다 하여 '참사람운동'을 펼치셨습니다. 물질문명에 급급하다 보니 세상살기는 편리할지 몰라도 인간본성의 파괴로 많은 사회적 병폐를 안고 있습니다. 참사람운동은 자유자재한 인간의 본래 참모습(無位眞人)을 찾아내 모든 생명이 서로 존중하는 평화로운 세상, 곧 불국정토를 이루자는 운동입니다. 고불총림은 이 운동을 계승해 나갈 것입니다.

▲ 오늘 갑신년 하안거를 결제했습니다. 대중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지요?

– 오직 정진 잘 하도록 할 뿐입니다. 불가의 공부가 대학가는 수학, 영어를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마음공부하는 것이니 화두 놓치지 않고 여일하게 밀고나가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 대중이 화합하고 만암, 서옹 큰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수행정진 하도록 위법망구(爲法忘軀)하고자 합니다.

▲ 산문 밖 재가자들에게도 공부방법을 일러주십시오.

– 먼저 마음이 정화되어야 합니다. 잠잘 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았는가? 마음자리를 바로잡아 어디로 마음이 새나가는지 지켜보고 점검해야 합니다.

안거란 꼭 절에서 다리꼬고 앉아서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번 하안거를 맞아 어디에 있든 모두들 일념으로 마음을 지켜보아 성불합시다.

백양사=이준엽 기자

세계불교 법왕청 초대법왕

일붕 서경보 존자 원적 8주기 추모대제 및 만등불사와 일붕조사전 낙성법회

= 세계인류평화와 남북평화통일 성취를 염원하시고 온 중생을 제도하신 일붕존자 추모대제 =

귀의 삼보하옵고 신록의 계절을 맞이하여 법하의 법체청안 하시옵고 하시는 제반일 들이 광대무변한 부처님의 불은으로 원만하게 회향되시길 기원드립니다. 금번 저희들의 대스승이시며 세계불교 법왕청 설립 초대 법왕을 역임하시고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을 창종하신 일붕 서경보(一鵬 徐京保)존자의 원적 8주기를 맞이하여 추모대제 및 만등불사와 일붕조사전 낙성법회를 다음과 같이 봉행하고자 하오니 공사다망하시더라도 부디 왕림하시어 일붕존자의 그 높은 참뜻과 유업을 기리고 다같이 추모하는 법의 자리를 빛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음

◎ **일 시 :** 불기 2548(2004)년 6월26일 (음 5.9) 토요일 오전11시
◎ **장 소 :** (재)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총본산 의령 봉황산 일 붕 사(一鵬寺)
◎ **문 의 :** 1)서울 총무원 ☎(02) 998 8161 ~2 FAX (02)998-8384
2)의령 일붕사 ☎ (055) 572-9990, 7777 FAX (055)572-8444
3) 문 도 회 ☎ (054) 633-1138
4) 각 일붕관련단체 및 각교구 지역본부

◆ 일붕존자 원적 8주기 추모대제 추모 봉행위원회 ◆

◎ **증 명 :** 현붕해 대종사, 김무찰 대종사, 조혜룡 대종사
◎ **고 문 :** 각종단 원로 및 대덕 큰스님 정금봉(장로의장), 지혜 대종사(조계종 원로부의장), 김명종(장로부의장), 유청송(장로의원), 염원각(장로의원),송원경(장로의원), 이송은(장로의원),박수암(장로의원), 안통령(장로의원), 이청암(법인이사), 홍학암(보존회의장), 서무공(승가회회장),김동암(국제승가회장), 김지산(정토종종정), 하청하(법사종종정), 한화란(금강선원총재), 성정담(법왕청신문사장), 나황정, 황원광, 찰스 메르시에카(미국IAEUP 총재), 김호일, 성영락, 원의범(일붕대학원장), 정태혁(동대명예교수), 김영덕(국회의원), 한우상(의령조수), 최현낙(의령서장)
◎ **지도위원 :** 현경원, 이무성, 김진철, 이옥천, 김덕수, 송수양, 박혜강, 사상철, 이한주, 한회숙, 도종묵, 정칠석, 최성기, 임정기, 김창락, 남강수, 김활선, 이영봉, 박인곤(미국), 이신화(브라질), 이군철(중국), 이재하(미국), 미첼콜드(캐나다), 로레벤도벤(LA)
◎ **주관협력기관 :**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이사회 /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종단/ 대한불교 일붕문도회 / 일붕존자 유지보존협의회/ 사단법인 대한불교 호국법사단/ 일붕법왕 사상연구소
◎ **봉행위원장 :** 정동봉(총무원장)
◎ **봉행 부위원장 :** 최혜천(총무원 부원장), 이법운(교육원장), 김원각(포교원장), 서병렬(일붕문도회 사무총장)
◎ **봉행위원 :** 전국종도일동, 전국문도일동, 일붕유지보존회임원일동, 호국법사단일동, 법왕사상연구임원일동
◎ **추진위원장 :** 엄지공(중앙종회의장)
◎ **추진 부위원장 :** 진대륜(중앙종회 부의장), 박도안(중앙종회 사무처장), 정유심(부산교구), 김화엄(울산교구), 강삼현(대구교구), 박도안(대전교구), 이보해(강원교구),이정수(경남교구), 조혜광(경북교구), 안법해 (경기남부), 임유정(인천교구), 이도혜(경기북부), 김혜성(전남교구), 유혜선(전북교구),박영명(충남교구), 김법청(충북교구), 이현철(제주교구), 강상규(법사단 이사), 배맹자(일붕사 약사회장), 정금조(일붕사 지장회장)
◎ **기획위원장 :** 최용암(호계원장)
◎ **기획 부위원장 :** 이법상(홍보부장), 이일명(교무국장), 김인덕(법사단 이사)
◎ **집행위원장 :** 김화엄(감사원장)
◎ **집행 부위원장 :** 김법선(중앙종회 의원), 권연화(사회국장), 권기태(일붕사 신도회장)
◎ **진행위원장 :** 정법성(선거관리위원장)
◎ **진행부위원장 :** 장삼준(법사단 이사) , 이무웅(법사단 이사)
◎ **분과 위원회 :** 총무 분과위원장 안법해(교육부장)/ 재무 분과위원장 김법진(재무부장) /의전 분과위원장 이정수(경남종무원장) / 섭외 분과위원장 김지성(규정부장) / 봉사 분과위원장 장성각(사회부장)/ 홍보 분과위원장 박응천(교무부장) / 경호 분과위원장 정철(법사단 단장) / 시설 분과위원장 일붕사 청년회장 /준비 분과위원장 일붕사 신도회 / 안내 분과위원장 최혜숙(수도사 회장)
◎ **각교구 동원위원장 :** 서 울 이법운 / 부 산 김효산 / 대 구 최석담 /인천 양도안심/ 대 전 이용주 /울 산 박지완/ 경기남 염혜안 / 경기북 박일웅 / 강 원 최동암 /경남 김보광/ 경북 최해동 / 전남/ 광주 김혜성 /전북 송무봉 /충남 김청표 /충북 김법청

불기2548(2004)년 6월 일

일붕존자 원적8주기추모대제 봉행위원장 **정 동 봉**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이 사 장 **김 혜 운**
대 한 불교 일 붕 문 도 회 중 앙 회 장 **김 도 기**
일붕존자 유지보존협의회 공동의장 **현 붕 해, 홍 학 암**
사단법인 대한불교 호국법사단 이 사 장 **정 철**
일 붕 법 왕 사 상 연 구 소 이 사 장 **이 존 영** 합장

‘천성산 살리기’ 대학생들 나섰다

서울대 · 고려대 등 100여명 참석
지율 스님과 만남, 현장 답사 계획
연대 통한 적극적 홍보 방안 모색

대학생 환경 운동가들이 천성산 살리기에 발벗고 나선다.

‘걸으면서 느끼는 느림의 소중함’이라는 주제로 7월 1일부터 8일까지 ‘고속철 반대, 천성산 살리기 파란 2004’가 열린다.

청년환경센터(대표 이헌석)와 사회당대학생위원회(대표 임세환)를 비롯 서울대, 고려대 등의 환경동아리에서 환경 운동을 펼쳐오던 대학생 100여명이 대거 참석하는 이번 행사는 고속철 2단계 구간인 대구~경주~천성산~부산을 걷는 것으로 진행된다. 핵발전소 건립 예정지, 북한산, 새만금 등 매년 환경 현안이 되고 있는 지역으로 달려가 대학생의 눈으로 문제점 분석과 대안 찾기에 주력해온 학생들의 ‘파란’ 바람이 천성산 살리기에 불어온 것이다.

‘파란 2004’는 단군이래 가장 큰 국책사업인 고속철도 사업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를 통해 환경적 문제뿐 아니라 삶의 방식에 대한 문화적 접근까지 시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단순한 선전순회나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속도’와 ‘편리’에 매몰된 생명사상과 인간의 이기심을 극복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느리게 걸으며 국토를 느끼는 현장학습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특히 파란 2004 대원들은 부산, 대구, 경주 등의 대도시에서는 고속철의 문제점과 천성산의 파괴로 인한 환경문제 등을 알리는 캠페인도 벌인다. 또한 천성산 공사 현장을 중심으로 천성산 기행 및 지율 스님과의 간담회도 마련해 놓고 있다.

대원들은 천성산의 암자에서 하룻밤을 보내며 천성산의 자연생태적 가치를 살펴보는 천성산 답사도 가진다. 환경문제 파괴의 현장을 눈으로 보고 함께 느끼는 현장 프로그램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파란 2004’는 현재 천성산 터널 공사 구간에서 90 여일 째 농성중인 지율 스님과의 만남에도 큰 의미를 두고 있다.

또한 ‘파란 2004’ 행사의 의미을 극대화 하기 위해 행사 이후에도 각 학교별 환경 동아리를 중심으로 천성산 살리기 여론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모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들 대학생들은 청년환경센터, 사회당대학생위원회 등의 전국 조직을 활용, 전국 연대 구성을 통해 천성산 살리기 운동을 펼치는 방안도 모색중이다. 이미 청년환경센터는 안티 KTX 인터넷 모임, 천성산 비상대책위와 함께 6월 17일 서울에서 고속철 반대 및 천성산 살리기를 위한 토론회를 준비중이다. 이 밖에도 이번 파란 2004를 학생 환경운동의 실질적인 발전을 꾀하고 전국 규모의 연대체를 결성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각오다.

청년환경센터 이헌석 대표는 “주요한 환경 현안인 천성산 문제가 고속철 1단계 구간 개통으로 사실상 묻히고 있다”며 “1차 개통 이후 통일호 폐쇄, 새마을 · 무궁화 감축으로 인한 불편함과 노선 선택권 침해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고속철도 문제를 들여다보고 천성산을 살리는데 힘을 보태고 싶다”고 이번 도보 순회의 의미를 밝혔다. 집행위원장을 박민주씨로 정하고 막바지 준비 모임을 갖고 있는 이들은 환경 문제에 관심 있는 대학생들의 동참을 기다리고 있다. (02)741-4978

한편 공사 현장을 떠나지 않고 있는 지율 스님은 “대학생들이 천성산 살리기를 위해 도보를 한다니 고맙고 힘이 난다”며 “대학생, 초등학생 등 많은 분들이 현장을 방문해 힘을 모아주고 있으니 이런 분들의 관심과 마음으로 천성산은 반드시 지켜질 것”이라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용천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부산 참여불교운동본부 창립
5월 30일 희생자 천도재 봉행

북녘 용천 어린이에게 희망을 주는 참여불교운동본부(공동 대표 황정, 이하 참여불교운동본부)는 5월 30일 부산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참여불교운동본부 창립 법회를 갖고 2부 행사로 ‘북녘 용천참사 희생자 위령천도재’를 봉행했다.

‘늘푸른 세상’ 주관으로 열린 이날 참여불교운동본부 창립법회에 이어 내원정사, 동명불원, 운수사, 황정사 등 부산의 각 사찰에 비치했던 ‘북녘 어린이 돕기 희사함’에 모인 불자들의 정성스런 보시금을 참여불교운동본부에 전달하는 시간도 가졌다.

특히 대한전통불교문화예술원 주관으로 열린 2부 행사에서는 용천 사고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천도재 의식을 봉행하며 어린이들과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여불교운동본부는 앞으로 한달 정도 추가 모금 운동을 펼친 뒤 통일부 민간단체에 가입하고 조선불교도연맹에 직접 1차 모금액을 전달할 계획이다. 현재 1천 5백여 만원의 모금을 벌인 참여불교운동본부는 향후 전국의 사찰을 중심으로 모금을 벌이는 한편, 미국, 일본 등지의 교포 사회에도 관심을 일으키는 행사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천미희 기자

부불사협, 사업계획안 확정
어린이 · 청소년 지도사 교육 등

부산불교사회복지기관협의회(회장 혜총, 이하 부불사협)가 5월 31일 2004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2003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 심의와 올해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심의를 통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토론이 이어졌다.

혜총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부불사협 소속 기관이 화합 · 단결하고 자비사상을 기본 이념으로 불교 복지사업의 기틀을 다지는데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열린 사업계획안 심의를 통해 중간관리자 수퍼비젼교육, 어린이집 교사 교육, 청소년 지도사 교육, 복지사업 사례발표회와 선진기관 견학, 불교소속기관 연수회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계획이 확정됐다. 또한 이날 임기가 만료된 부불사협 회장에 혜총 스님이 회장으로 재 선임되었으며, 화명종합사회복지관(관장 유정)과 사회복지법인 혜원(대표이사 원허)이 새 회원기관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게 됐다.

부불사협은 부산 불교계 사회복지기관 협의체로서 회원 기관 직원 연수회 개최를 통한 교류 증진은 물론 평소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관심과 기획으로 사회복지발전에 기여한 언론사 및 언론인에게 시상하는 사회복지언론인상을 시상해왔다. 천미희 기자

득도 스님 열반, 시신 의대 기증



6월 1일 세수 53세, 법랍 36세를 일기로 열반한 득도 스님(사진)의 법구가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에 해부용으로 기증되어 주위를 숙연케 했다.

이는 평소 장기 기증운동에 헌신해 온 스님의 생전 뜻에 따른 것으로 스님의 법구는 2일 경북대학병원 영안실에 안치되어 조문객을 받고, 3일 오전 7시에 발인하여 대구 동구 정법사에 위패를 모셨다.

평소 무소유를 강조했던 득도 스님은 1996년 생명나눔실천회 대구 · 경북지부 지도법사를 맡아 장기기증 운동에 앞장서 왔다. 배지선 기자

권상무 교수 찬불가 연주회

단순한 찬불가가 화려한 기교의 연주곡으로 변신해 무대에 올랐다.

5월 28일 부산 동의대 석당아트홀에서 ‘청산은 나를 보고’라는 제목으로 열린 이번 연주회에는 동의대 음악아카데미 권상무 교수가 직접 작곡 및 편곡한 찬불가가 선보였다. 단조로운 찬불가가 화려한 기교 넘치는 현대적 편곡으로 변신해 무대에 오른 이날 연주회에는 여여선원 주지 정여스님의 시 낭송이 곁들여져 더욱 관심을 모았다. 천미희 기자

“싸서 좋고, 도움줘서 기쁘고”



경주 동국대 부속 유치원 원생들이 신나는 노래와 율동을 선보이며 바자회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경주 동국대 유치원 나눔의 바자회
북한 및 세계 기아어린이돕기 일환

경주동국대학교 부속유치원(원장 이수경)이 5월 29일 ‘자비의 손길, 나눔의 손잡기 바자회’를 개최했다.

불국사 부주지 관우 스님, 분황사 주지 신행 스님을 비롯한 지역 스님과 인사, 학부모, 졸업생 등 10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성대하게 개최된 이번 바자회는 1부 알뜰바자회와 외부 초청공연, 2부 재원생과 졸업생들의 공연, 3부 제등행진으로 이어졌다.

이날 모금된 성금은 경주인근 난치병 어린이, 북한 용천 어린이, 세계 기아 어린이 돕기에 쓰일 예정이어서 의미를 더했다.

작년에 이어 2회 째 이어지는 이번 바자회는 졸업생과 학부모들이 대거 동참하여 사물놀이, 난타 등의 공연을 선보이고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 동아리들이 흥겨운 공연을 펼치는 축제의 장이 됐으며 지역의 많은 스님들이 각종 수공예품을 기증해 세계 불우 어린이들을 위한 모금에 동참했다.

또 유치원생과 졸업생들은 바자회를 통해 마련한 수익금을 직접 모금함에 넣으며 평화롭고 따뜻한 세상이 되길 발원했다. 해가 저물고 이어진 3부 제등행렬에서는 이날 행사에 참석한 사부대중이 등을 밝히고 탑돌이를 하며 부처님의 자비를 되새기는 시간도 가졌다.

이수경 원장은 “이번 바자회를 계기로 경주시민 전체가 참석하여 우리 이웃과 함께하는 바자회가 열릴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지선 기자

대구 불교사회복지회 · 남구청 공동
노인 일자리 마련 위한 장터 펼쳐



대구 교대 운동장에서 진행된 행복한 나눔장터에 참가한 어린이들이 손때 묻은 물건을 팔고 있다.

5월 30일 대구 교대 운동장에는 대구시민 전체가 어우러지는 특별한 장이 섰다. 불교사회 복지회 남구노인인력지원기관과 남구청이 공동 주최한 노인일자리 마련을 위한 ‘행복한 나눔장터’가 열린 것이다. ‘행복한 나눔장터’는 집에서 쓰지 않는 물건을 판매하고 그 수익금 일부를 노인일자리사업기금으로 기부함으로써 노인에게는 역할과 일자리를 주는 활동의 장이며, 대구시민들에게는 자원재활용과 이웃돕기의 실천의 장으로 연결되는 뜻깊은 장터이다.

이번 장터는 대구에서 최초로 마련된 대규모 가족 벼룩시장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아 이른 아침부터 각종 물건을 가지고 모인 시민들로 붐볐다. 어린이장터, 노인장터, 가족시민장터, 축제장터 등 총 150개 판매자리 중에는 가족이 총 출동한 이들도 있었고, 남대구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단체로 장을 만들어 눈길을 끌기도 했다. 특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주축이 되어 열린 나눔의 가게는 향후 상설화 돼 노인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

엄마랑 같이 나왔다는 남대구 초등학교 6학년 류진광 어린이는 “옷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 일자리 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불교사회복지회 이사장 지도 스님은 “행복한 나눔장터가 단순 이벤트성 물물교환으로 끝나지 않도록 시민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 자원 즉, 노인의 경험이나 기술 등을 상품화하고 지역 경제에 활용할 수 있는 전 사회적 의식운동으로 확산되도록 할 것” 이라고 말했다. 배지선 기자 jsun@buddhapia.com

빙의 영가와의 대화를 통한 영치유법

「전생, 빙의」 특별 워크샵

WWW.HYPNOS114.COM

아주 오래된 과학, 경이로운 최면의 세계 !

약 3000여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최면은 그리스의 “잠자는 사원”이라는 곳에서 육체와 영혼의 치유는 물론, 신탁의식을 행했던 데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하버드 대학 등 세계 유명 대학에서 최면을 교과목으로 채택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학 내에 최면 전문 클리닉센터를 속속 설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최면을 치료의 한 방법으로 공식 승인해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최면의 진정한 활용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해의 폭은 아주 좁다고할 수 있습니다.

전생상담 과정은 최면상태에서 떠올린 기억들이 실제전생이든 심리적 갈등의 상징이던 그 사실성 여부보다는 잠재의식속에 내재되어있는 전생의 기억속에서 내담자가 일상생활속에서 겪고있는 원인모를 심리적, 신체적 문제들을 해결 함에 있어 중요한 단서를 찾아내고자 하는데 보다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이 기법의 효과는 문제해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왜곡된 감정속에서 방황하는 내담자에게 최면전생체험을 통하여 자신의 현재삶의 제반 문제들을 이해하고 통찰하는 힘을 길러줌으로로서 보다 폭넓은 인생관을 갖게 하여 스스로 지혜로운 삶을 열어갈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교육내용

1.최면이론 및 실기 : 최면개론, 자기최면, 타인최면 유도기법, 자율훈련법 등 최면의 공통이론과 최면기법의 핵심노하우를 전달한다.
2.연령퇴행 기법 : 현생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핵심원인을 잠재의식에서 찾아 통찰시키고 자아강화를 통해 당당한 삶의 자세를 갖게 한다.
3.전생퇴행 기법 : 현생과 연결된 전생의 인과응보의 핵심원인을 찾아 전생의 업장을 해소하며 업장과 연결된 자신을 통찰하여 스스로 지혜로운 삶의 기회를 찾게 한다.
4.미래진행 기법 : 자신의 미래를 운명처럼 바라보게 하기 보다는 현생과 전생을 통찰시키고 남은 인생을 가장 바람직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희망의 메세지를 설계하여 자신감을 고취 시킨다.
5.빙의령 치유 기법 : 빙의령 확인법, 영가와의 대화기법, 천도확인법, 악령제압법, 제 삼자를 통한 원격 빙의 확인 및 제거법 등 빙의된 영가와의 대화를 통한 핵심감정 및 문제파악, 해원과정, 재접신 방지 영치유법.
6.법회, 참선교실 : 즉각적으로 깊은 단계로 명상을 유도하여 법회의 감화를 높이고 참선교실을열어 자기치유와 마음의 평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법을 자문함.

※본 교육내용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발송비 5,000원을 입금계좌로 보내신 후 연락주시면 안내자료와 자료비디오를 발송하여 드립니다.

- 전 화 : 042/255/0734~5
- 주 소 : 대전광역시 중구 대사동 248-301(청운빌딩 2층 전관)시민회관 후문
- 홈페이지 : www.hypnos114.com

- 과정 이수 후 감사사례 중에서

한국전생빙의 연구원을 만난 것은 저에게 크나큰 인연이었습니다. 그 인연을 통하여 저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신도들에게도 제가 깨달은 통찰을 얻은 그대로 전해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아울러 전생의 업장이나 여러 인연으로 인한 빙의된 영가 로 인해 고통받는 신도는 물론 "가족들도 빙의영가와 직접대화"를 통해 원을 풀고 깨닫게하여 천도하는 것은 물론 천도되는 모습까지도 제주가 직접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 입니다.

- 중략 -

00사 00 합장



주최 : 한국 전생·빙의 연구원
주관 : 한국 최면 아카데미 WWW.HYPNOS114.COM

[특 전] 한국최면아카데미 인증 전생상담사 이수증 수여
[교육기간] 2004년 6월 14일 /21일 /28일 /7월 5일 /12일 매주 월요일 오후 1시 ~ 7시 까지(5주간)
(교육이수 후 무료 재수강 및 지속적인 자문 지원)
[수강신청] 전화 접수 및 방문신청 개인 및 소수 특별지도 별도 문의. (출장강의 가능)
[교 육 비] 200만원
[입금계좌] 조흥은행 591-01-008086 (예금주: 한국의식개발원)
[기타문의] 특별법회 초청 강연 및 개인상담 별도 문의

大野 임 재 형
상담학 박사
한국최면아카데미 원장
한국생활최면실천학회 회장
한국교육최면학회 부회장
대한 최면심리학회 부회장
뿌리찾기운동본부 본부장
인천교육대학교, 충남대학교
청주대학교 외 다수 대학에서 강의

괌 관해정사

문화·전법 도량으로 변모

한국전통문화원 건립, 석가여래불 조성

괌 최초의 한국사찰 관해정사(법주 반월)가 석가여래불 봉안과 한국전통문화원 건립을 추진한다.

1999년 8월 범어사 해외 포교당 제1호로 괌에 개원된 관해정사는 3천 여 평의 부지에 미국 정부의 허가를 얻어 한국형 사찰 건립과 더불어 석가여래 대불 봉안을 발원하고 관해정사 중창 추진위원회를 결성했다.

괌 아가나시의 아름다운 해변에 자리잡은 관해정사는 포교당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교민불자로부터 기증받은 3천 여평의 대지에 한국식 전통 목조 건축으로 대웅전 및 한국전통문화원 건립을 추진한다. 특히 한국전통문화원은 현지 교민 3~4세를 위한 한국어학당과 교민들뿐 아니라 해외 관광객들에게 한국 문화를 알리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전망이다. 한국전통문화원은 한국어학당, 한국도서관, 다도실, 서예실, 전통 악기실 등을 갖추고 한국문화재 전시, 한국문화 강좌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로써 관해정사는 한국 개신교 교회 20여 곳이 교포 종교 활동의 중심이 되어왔던 괌에서 한국 불교는 물론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중심도량으로 도약하게 된다. 인구 13만 중에 8천명에 달하는 교민사회는 물론 현지인, 관광객들에게 한국 불교와 한국문화를 알리는 전진기지가 생긴 셈이다. 현재 관해정사는 주지 도휘 스님을 중심으로 현지 교민들을 위한 기초교리, 주말 참선, 참회기도 등의 신행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관해정사 중창 불사를 위해 범어사 신도회, 연등사 신도회가 발을 벗고 나선 가운데 범주 스님, 수안 스님 등 부산 불교계의 대덕 스님들이 마음을 모아 선서화전을 개최하고 기금 마련에 나서 더욱 관심을 모은다. 괌 현지, 부산, 서울 등에서 잇달아 개최되는 선서화전을 통해 마련된 기금은 전체 높이 10m의 석가여래 대불 조성 불사에 전액 사용된다. 선서화전은 6월 4일부터 12일까지 부산 국제신문 4층 전실에서, 15일부터 20일까지 서울 조선일보사 미술관에서 전시된다. 전시작품으로는 범주 스님 작품 2백여 점, 수안 스님 작품 120점, 고승 선서화 50여 점, 토경 송호선생 동양화 20여 점이 선보인다.

다도실·서예실 등 체험공간으로 운영
기금 마련 위한 선화전 부산·서울 개최

관해정사 법주 반월 스님은 "괌에 사는 불자들은 대부분 일제식민지 역사 속에 조국을 떠나와 고통을 겪었던 분들"이라며 "이 분들이 불심으로 민족적 자긍심을 되찾고 타국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한국의 불자님들이 마음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괌 아가나시에 건립될 한국전통문화원 조감도.

죽림정사, 용성 스님 기념관 개관



5월30일 장수 죽림정사에서 열린 용성기념관 개관법회에서 테이프를 커팅하는 모습.

5월30일 낙성식
유품 400여점 전시

근대불교의 선지식 용성 스님의 뜻을 기리기 위한 용성기념관이 문을 열었다. 장수 죽림정사는 5월 30일 용성기념관 개관 기념 낙성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범어사 주지 대성 스님, 괌 관해정사 법주 반월 스님, 동국대 불교대학원장 보광 스님, 정토회 지도법사 법륜 스님, 원광대 조정근 이사장, 정의화 국회의원, 유종혁 백용성조사기념사업회 이사장 등 1천5백여 명이 참석했다.

죽림정사 조실 도문 스님은 "백용성 조사님의 탄생성지를 잘 가꾸어 민족의 번영을 기하고 부처님의 정법안장을 수호함으로써 만대에 복전을 지으라"고 법문했다.

범어사 주지 대성 스님은 축사를 통해 "근대 선지식이며 한국불교의 중흥조이신 백용성 조사의 유품을 잘 보존하여 전시하게 된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라며 "이를 계기로 백용성 조사님의 가르침과 정신을 깊이 새기고 선양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8억8천만원을 들여 목조 41평 규모로 건립된 용성기념관은 용성 스님의 유품 400여점을 상설 전시하며, 용성 스님의 행장을 첨단 멀티미디어 영상시스템을 통해 상영한다.

박봉영 기자

해남 광보사, '불자예배대회'
목포교도소 재소자들 '절' 경연



교도소 재소자들의 업장소멸과 수행점검을 위한 '불자예배 수행대회'가 5월 27일 목포교도소 강당에서 열렸다.

교도소법회를 지도하고 있는 자황 스님(해남 광보사 주지)이 주관한 이날 수행대회는 재소자 30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50여명이 출전해 열띤 경연을 펼쳤다.

이날 자황 스님은 인사말에서 "불교수행 가운데 절은 업을 참회하고 자신을 되돌아보는 가장 좋은 공부이다"고 소개하고 "절을 많이 하기보다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회에 앞서 재소자들은 자황 스님의 지도로 절하는 요령을 배우고 본격적인 경연대회에 들어갔다. 한편 광보사는 이날 수행대회 상품으로 생활용품과 영치금을 제공했다.

이준엽 기자

한국전 희생자 '화순 위령제'
5·18 김동수 열사 추모제 봉행



한국전쟁 당시 미군의 세균전으로 희생된 민간인들의 넋을 추모하는 위령제가 53년 만에 처음으로 5월 30일 화순군 이서면 돈등마을에서 봉행됐다.

평화실천광주전남불교연대(상임대표 행법 스님)와 전민특위(대표 임동규)가 주관하고 안심사(주지 일진)가 후원한 이날 위령제는 억울하게 숨져간 민간인 영령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독경과 문영숙씨의 살풀이, 생존자 증언으로 진행됐다.

한편 평화실천 광주전남 불교연대는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조선대 총학생회와 함께 5월 27일 광주 조선대 김동수열사 추모비 앞에서 5.18 광주민중항쟁 당시 전남도청에서 산화한 '지광 김동수 열사 추모제'를 봉행했다.

이준엽 기자

지금, 우리 절에서는…

경기도 광주 불국사

복지불사의 문 항상 열린 도량



지난해 공설운동장에서 가진 '무료 돋보기 나눠주기' 행사에서 주지 가섭 스님과 불국사 '광명회' 회원들이 어르신들에게 돋보기를 나눠주며 사용설명을 하고 있다.

"부처님을 만나면 행복해집니다."

신도시 분당을 가로질러 광주방향으로 향하면 곳곳이 들어선 전원주택 사이로 대형 현수막 하나가 반갑게 맞이한다. 이곳은 지역 주민들의 기도처이자 자비실천 도량인 경기도 광주 불국사(주지 가섭). 무엇보다도 불국사는 독거어르신을 비롯한 외국인 노동자 등 소외민들을 위한 포교활동에 열심이다.

광주지역은 노인복지관 및 관련시설이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복지서비스도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복지혜택이 전무하다고 봐도 무리가 없을 정도.

독거노인, 외국인 노동자 포교 진력
'무료 돋보기 나눠주기' 등 큰 호응

가섭 스님은 "현대의 사찰은 종교시설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복지생활과 문화 창출을 북돋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그래서 불국사는 사찰내 봉사단체인 '광명회'를 중심으로 지역복지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이며 자비의 법향을 널리 피우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광주시와 연계해 지역어르신들을 위한 경로잔치를 해마다 열고 있다. 올해 행사는 작년 1천여명에서 절반이상이 증가한 1천 5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치러졌다.

어르신들의 높은 호응과 관심, 그리고 다양한 문화행사 등으로 행사는 해를 거듭 할수록 지역민들을 하나로 잇는 지역문화행사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불국사는 어르신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시키기 위한 '무료 돋보기 나눠주기' 사업도 벌이고 있다. 작년에 8천여개를 보급한데 이어 올해에는 1만여개의 돋보기를 지역 어르신들에게 나눠줬다. 또한 돋보기 보급에 그치지 않고 매년 돋보기를 지급한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가 새것으로 바꿔주는 철저한 사후관리로 더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불국사의 사업은 모두 지역민들을 위한 것이다. 즉, 행사 참여를 불자로 국한시키지 않는다. 포교란 대상을 가리지 않는 것이며, 깨달음에는 불자와 비불자가 나눠지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이다. 물론 불자를 대상으로 한 것보다 가시적인 효과는 다소 떨어진다.

하지만 불국사의 이러한 열린 모습은 최근 2~3년 사이에 법회 참가인원을 15여명에서 150여명으로 늘리는 등 보다 많은 사람들을 부처님 품으로 이끌고 있다.

그러나 불국사는 이에 만족하지 않는다. 매주 일요일 '외국인노동자 법회'를 진행하는 등 보다 많은 사람, 특히 의지할 곳이 필요한 소외민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과 사랑, 자비를 전하기 위해 오늘도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031)719-0408

김은경 기자

www.kibs.or.kr

한국불교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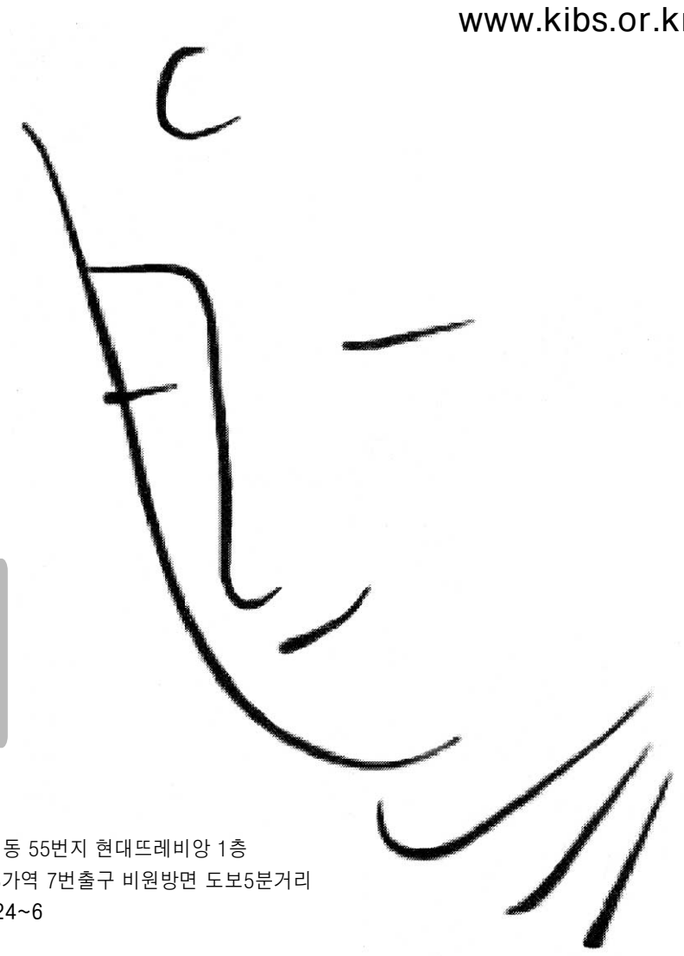
개원 30주년기념특강

(사)한국불교연구원이 개원 30주년을 맞아 종로구 익선동으로 이전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려 합니다.
6월 첫째주부터 개강할 불교강좌를 안내드리오니 많은 관심과 동참부탁드립니다.

정병조 박사 의
"불교란 무엇인가?"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임승택 박사의
" 불교와 요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30분

최종석 박사의
" 법 화 경 "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서울시 종로구 익선동 55번지 현대뜨레비앙 1층
지하철3호선 종로3가역 7번출구 비원방면 도보5분거리
문의: 02)762-5624~6

충남 아산시

신도시 개발따라 포교바람 솔솔

KTX개통으로 수도권 진입…관광·교육·산업 여건 팽창

사암련 활동확대, 신도 급속 증가
사찰별 특화된 포교 프로그램 준비

지역 불교가 꿈틀대고 있다. 지방화시대의 거센 물결에 서해안 고속도로 등 도로망 확충, 고속철 개통이라는 교통의 발달에 따라 불교도 지역특성에 맞는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시대조류에 떠밀린 측면도 없지 않지만 각 지역불교가 이렇게 고유의 특성과 색깔을 찾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는 점에서 본다면 발전적 변화 의지가 넘쳐나고 있음은 분명하다.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행정, 포교, 교육 등 모든 일이 이루어지던 과거와는 달리 각 지역불교가 이제는 독자적인 환경 구축에 나서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에 현대불교는 각 지역의 불교가 어떤 특징을 갖고 어떻게 변화해가고 있는지를 파악함과 동시에 그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사찰과 인물들을 통해 발전방향을 점검해보는 기획시리즈를 마련했다. 본 기획시리즈는 다른 종교와 비교해 불교세가 비교적 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충청지역을 시작으로 경기, 강원, 경상, 전라 등 전국 지역을 다룰 예정이며, 시 단위를 중심으로 탐방한다.

인구 20만의 관광도시 충남 아산.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된 이후 빠른 인구증가세를 보이던 아산이 최근에는 KTX 개통과 함께 아산 신도시 개발이 본격 추진되면서 새로운 지도를 그려가고 있다. 삼성반도체와 현대자동차 등 거대 규모의 공장들이 속속들이 들어섰고, 대학만도 순천향대, 호서대 등 6개가 자리잡고 있다. 온천과 아름다운 계곡 때문에 관광도시로 알려져 왔지만 이제 아산은 단순한 관광도시가 아니라 교통의 요충지면서 산업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다.

이런 변화와 맞물려 아산불교도 매우 빠른 속도로 변해가고 있다. 교통망이 확충되고 각종 산업시설이 들어서면서 신도들이 늘고 있고, 이에 따라 아산의 사찰들은 도시 외형 변화와 불교인구 증가에 걸맞는 포교와 조직체계를 갖추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우선 아산 불교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교통망이 확충되면서 지역 90여개 사찰의 신도들 가운데 아산 지역민이 50%가 채 되지 않을 정도로 외지 신도들이 많아졌다는 점이다. 아산에서 가장 규모가 큰 보문사를 비롯해 수암사, 봉국사, 대윤사 등 많은 사찰의 신도 상당수가 가까이는 평택, 안성, 화성, 성남, 분당 등 경기도와 인천, 서울 사람들이다. 경치 좋은 사찰을 찾는 불자들이 교통이 편리하고 수도권과 인접한 아산 지역 사찰에까지 발길을 옮기고 있는 것이다.

서울에서 1~2시간이면 쾌적한 산사를 만날 수 있는 지리적 여건은 이제 아산 사찰들의 신도 지형을 변화시키고 있는 셈이다.

도시 유입인구 증가에 따른 불교 인구 증가도 눈에 띈다. 본지가 탐방한 아산의 8개 사찰 주지 스님들은 모두가 최근 2~3년 새 불교신도가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말한다. 2001년 당시 2만7천여 명이었던 신도수가 이제는 5만여 명에 육박할 정도로 됐다는 것이다.

이렇게 신도수가 늘면서 사찰 수도 10여 년 전에 비해 20여 곳 이상 늘었으며 길상사, 송암사, 봉수사, 불국사 등이 불사를 통해 사찰을 재단장하는 한편, 상당수 사찰들이 불사를 계획하고 있는 등 늘어나는 신도를 수용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외형적 흐름에 발맞춰 지역 불교계 내부도 변화하고 있다. 충청지역 사암련 가운데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아산불교사암연합회는 다양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핵심사업은 불교회관 건립이다. 아산불교의 숙원사업인 불교회관 건립을 위해 70여 회원 사찰이 뜻을 모으고 있다. 회관이 건립될 경우 현재보다 더 많은 외지 사람들에게 효율적으로 포교활동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된다. 사암연합회는 기금조성 방법 등을 다각도로 모색중이다.

아산사암련은 불과 3년 전만 해도 조계종 사찰 중심의 사암협의회와 다른 종단들이 연대한 사암연합회로 양분돼 있었지만 불교 포교를 위해 합치자는 뜻을 모았고, 올해는 역대 부처님오신날 행사 가운데에서 가장 규모있게 행사를 치르면서 단합된 힘을 과시했다.


옥련청소년육성개발원이 지난 4월 옥련암 인근 신정호수에서 개최한 '시민과 한마당' 행사 모습.

사찰별로 특화된 포교활동도 강화되고 있다. 어린이, 청소년, 직장인 포교를 하고 있는 각 사찰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고, 참선과 기도 등 수행에 역점을 두고 있는 사찰들도 불자들과 일반인들이 편안히 수행할 수 있는 여건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어느 지역보다 비구니 스님들의 활동이 활발한 것도 아산불교의 특징으로 꼽힌다. 90여 사찰 가운데 비구니 스님이 주지 소임을 맡고 있는 곳이 절반에 이르고 있으며, 관음사포교당 백련암 옥련암 윤정사 대윤사 등 대표적인 포교 사찰들이 바로 비구니 스님들이 운영하는 사찰들이다.

또한 사암연합회 임원진의 절반도 비구니 스님들일 정도로 이 지역에서 비구니 스님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다. 그래서인지 "아산불교는 비구니 스님들이 이끈다"는 말이 나오고 있을 정도다.

신도회 활동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사암련의 70여 회원 사찰 신도회 회장단 200여명은 6월 4일 시내 전원예식장에서 '신도단체총연합회'를 결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신도단체연합회는 앞으로 지역 사찰의 연합 거사림회로서 수행과 신행은 물론 지역복지 등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어서, 이제 아산불교는 명실공히 승·재가가 어우러지는 포교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하지만 포교활동에 비해 교육여건은 다소 열악하다. 관음사포교당에서 매주 한차례씩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불교대학은 과거에 비해 인원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포교에 주력하면서 상대적으로 교육에 소홀해온 탓이다.

각급 신행단체 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것도 아쉬운 부분이다. 이에 따라 아산사암련은 시청과 경찰 불자회를 창립해 신행단체 활성화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복안을 세워놓고 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아산 불교 이끄는 스님들


송운 스님
(보문사 주지)

지역사찰 단합 견인
노인복지 활동에 진력


대각 스님
(수암사 회주)

사암련 통합에 기여
영산합창단 봉사단체 자리매김


지행 스님
(관음사포교당 주지)

어린이 포교 앞장
룸비니 유치원·어린이집 설립


종인 스님
(옥련암 주지)

옥련청소년육성개발원 설립
문화축제 통한 청소년 포교


성엽 스님
(대윤사 주지)

직장불자 포교에 일익
일반인 상담도 적극


묘각 스님
(봉곡사 주지)

일반인에게 수행지도
봉곡사 수행도량으로 가꿔

아산 사찰의 종단 분포도를 보면 전체 90여 사찰 중 조계종과 선학원 소속 사찰은 23개에 불과하다. 그만큼 여러 종단 사찰들이 고루 분포돼 있다. 그런데도 어느 지역보다 사암연합회가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데에는 사암연합회 회장인 **송운 스님**(보문사 주지)의 역할이 크다. 이 지역의 스님들은, 송운 스님이 서로 이해가 다른 사찰들은 하나로 묶으면서 지난 2년간 사암연합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왔다고 평가한다. 송운 스님은 보문사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노인복지에 심혈을 기울이면서, 사암련 차원에서도 지역 복지사업을 전개하는 한편, 불교회관 건립에 전력을 기울이겠다는 각오다.

지역 사찰들이 화합하는데 기여한 스님으로 **대각 스님**(수암사 회주·사암련 고문)을 빼놓을 수 없다. 송운 스님이 사암련 회장을 맡기 전 사암련과 사암협의회가 양분돼 있을 당시 사암련 회장을 역임하면서 송운 스님과 함께 두 단체가 통합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산하 단체중 가장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영산합창단이 교도소와 군부대 등을 방문해 법회를 보는 등 자원봉사단체로 자리매김하는데에도 많은 공헌을 했다.

지행 스님(관음사포교당 주지·룸비니유치원 원장)은 이 지역 어린이 포교의 대모로 통한다. 22년 전 모종동에 어린이집을 세우면서 어린이 포교에 본격적으로 발을 내디딘 지행 스님은 7년전에는 초사동에 체험 학습실을 갖춘 5천평 규모의 유치원을 열면서 아산지역에서는 다른 어떤 종교보다도 불교 유치원이 질적인 면에서 확실한 우위를 확보하는데 기여했다. 교재개발 등 각종 연구사업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을 정도로 어린이 포교에 대한 열정이 뜨겁다.

어린이 포교에 지행 스님이 있다면 청소년 포교에는 **종인 스님**(옥련암 주지)이 있다. 1998년 옥련청소년육성개발원을 설립한 종인 스님은 1년에 24차례의 문화축제를 개최하면서 문화를 통한 청소년 포교에 전력을 기울여왔다. 그런 노력을 인정받아 이제는 시에서 주최하는 각종 청소년 축제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가출 청소년 쉼터와 무료 공부방도 열어놓고 있다.

성엽 스님(대윤사 주지·사암련 재정부장)은 직장인 포교에서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대윤사 인근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불자회 지도법사로 활동하면서 이들에게 불교공부는 물론 수행지도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여기에 비불자 직원들에게도 각종 상담을 해주는 등 교육자이자 포교사로서의 1인2역을 해내고 있다. 성엽 스님은 대윤사 앞에 공원처럼 작은 휴식공간을 만들어 인근 주민들이 편하게 쉴 수 있도록 해주고 싶다는 소박한 꿈도 가지고 있다.

묘각 스님(봉곡사 주지)은 퇴락해 가던 봉곡사를 수행도량으로 복원하고 이곳에서 수행에 전념하며 불자와 일반인들에게 수행지도를 하고 있다. 봉곡사가 잘 알려져 있지 않아 찾는 이가 많지는 않지만 이만한 수행도량을 찾기도 쉽지 않을 정도로 봉곡사를 가꾸어놓았다. 만공스님의 뜻을 이어 신도들뿐만 아니라 스님들도 마음놓고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묘각 스님의 계획이다.

이밖에도 **혜명 스님**(혜명사 주지)은 수행과 포교에 열심이며, **성주 스님**(백련암 주지)과 **인득 스님**(윤정사 주지) 등도 활발한 포교활동을 펼치고 있다.

돋보기

보문사
대웅전과 지장전, 관음전 등 전각들이 1000여 평의 대지 위에 정갈하게 놓여 있다. 마치 조각공원 같은 느낌을 줄 정도로 시원하게 잘 정리돼 있으면서도 편안함을 준다. 칠보사 조실 석주 스님이 수행과 포교를 위해 건립한 사찰로, 현충사 바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041)545-65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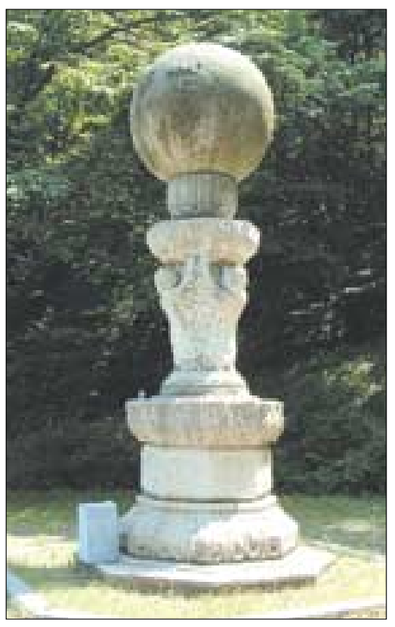

조각공원처럼 편안한 느낌을 주는 보문사 전경(사진위). 봉곡사 만공탑(아래)은 만공 스님의 용맹정진과 깨달음을 상징한다.

봉곡사
신라 51대 진성여왕 원년인 887년에 도선국사가 창건한 전통사찰. 봉곡사로 들어가는 소나무 숲길은 고요하고 아름다우면서도 운치가 그만이다. 1895년 만공 스님이 이곳에서 수행하던 중 깨달음을 얻었던 곳으로, 이를 상징하는 만공탑이 절 입구에 놓여 있다. 99년 요사채 옆에서 출토된 부처님 형상을 한 자연석 형태의 오방불(五方佛)도 눈길을 끈다. 사찰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조용히 수행하기에는 더없이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 (041)543-4004

인취사
신창면 읍내리 학성산 기슭에 위치한 전통사찰. 고려시대 창건된 사찰로 경내에 삼층석탑 2기와 극락전이 있다. 근래 들어서는 연꽃을 재배·보급하고 관상할 수 있는 사찰로 유명하다.(041)542-6441

세심사
고려조에 창건된 절로 원래는 심신사였으나 최근 세심사로 개명했다. 명산으로 일컬어지는 영인산 기슭에 자리 잡고 있는 세심사는 다층석탑과 부도전이 있으며 목판으로 조성된 부모은중경을 보관하고 있다. 전통사찰답게 고즈넉하고 우아하다. (041)543-2696

동심사
고려시대 창건됐으나 이후 폐사지나 다름없이 방치되고 있던 것을 1996년 향담 스님이 기도도량으로 복원했다. 복원되기 전 이곳이 절터였다고 해서 지금도 마을이름이 절골로 불리고 있는데, 동심사 극락보전 뒤편에 있는 130Cm 크기의 마애불이 눈길을 끈다. 최근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에서 문화재적 가치를 파악하기 위해 정밀조사를 했다. 아산 북서쪽 영인산에 위치. (041)542-5747



업그레이드 불사 시동

태고종 11일 전통문화전승관 건립위 발족
천태종 구인사 유물관 설계승인 등 절차 마쳐
진각종 경주 산내연수원 시설확충 본격화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회관, 구인사 유물전시관, 산내연수원 수련원 등 종단 차원의 큰 불사를 앞두고 있는 태고종, 천태종, 진각종 등 주요 종단들이 부처님 오신날 이후 대작 불사에 박차를 가하고 나선다. 특히 이들 종단들은 이 불사를 종단 결속력 강화와 종단내 분위기 전환, 종단 위상 변화 등을 모색하는 계기로 삼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1월 총무원 등 중앙종무기관이 입주할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회관 불사계획을 내놓았던 태고종은 6월 11일 총무원 집행부와 중앙종회 의원, 19개 시도교구 소속 스님으로 구성된 건립추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앞서 5월에는 연건평 1천6백평 규모의 회관 2차설계에 착수했다. 설계안이 확정 되는대로 이미 확보해놓은 30억원의 국비와 10여억원의 예산을 투입, 불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이에 따라 태고종은 1960년대 태고사(현 조계사)에 총무원을 둔 이후 40여년만에 '종로시대'를 다시 여는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내년 전승회만을 완공하면 태고종은 한국불교 양대산맥을 이루는 조계종의 이웃으로 등장, 한국불교의 중심에 서게된다. 뿐만 아니라 이 불사를 통해 종단의 새로운 면모를 종단 안팎에 알려 제2종단의 위상을 되찾겠다는 각오를 내비치고 있다.

구인사 유물전시관 건립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터파기 공사를 벌여 온 천태종도 실시설계승인신청 등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고 7월부터 본격적인 불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구인사 유물전시관은 총본산성역화사업의 일환으로 한중조사전 건립과 함께 천태종의 올 최대불사로 꼽힌다. 무엇보다 구인사가 천태종도들의 정신 · 신앙적 귀의처로 자리잡는데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같은 기대는 투입되는 재원과 규모에서도 잘 드러난다. 유물전시관은 국비와 지방비, 종단 예산 등 총 96억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천9백평 규모로 건립된다. 여기에 소장되는 유물은 '초조본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 제29' 등 지정문화재 21점을 포함해 2천6백여점에 달한다. 천태종은 2006년 완공을 목표로 불사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지난해 8월 30만평 규모의 경주 산내연수원을 인수한 진각종은 수련원(연수관) 시설 확충을 위한 불사를 벌인다. 이와 관련 진각종 총무부장 혜일 정사는 "수련원은 아직 설계가 마무리 되지 않아 구체적인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지만, 빠른 시일내에 불사가 시작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진각종은 산내연수원을 교육 · 수행 · 복지 · 문화타운으로 육성한다는 중장기 계획에 따라 기존의 휴양 · 수련시설 외에 수행관, 납골시설, 노인복지시설, 전시관 등을 연차적으로 갖춰나갈 계획이다. 산내연수원의 개발이 본격화될 경우, 신교도들의 휴양을 겸한 신행활동 공간으로서의 역할은 물론 종도들의 수행과 복지도량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대승종 내분 끝…종단 재정비

비상종도대회서 총무원장 혜심 스님 추대


혜심 스님 서봉 스님 만춘 스님 도일 스님 기현 스님

총무원 운영과 관련해 종도들의 참여를 둘러싸고 내홍을 겪어 온 대승종이 최근 종무행정을 정상화하고 종단 재정비에 나섰다. 지난해 9월 중앙종무기관 해산으로 발생한 대승종의 내분은 사실상 마무리됐다.

대승종은 5월 중순께 안양 만장사에서 종단 정상화를 위한 비상종도대회를 개최했다. 3백여 종단 소속 스님들이 참석한 이날 대회에서는 종단 업무를 정상화시키기로 결의하는 한편, 이를 이끌어갈 총무원장에 혜심 스님(홍천 실상사)을 추대했다. 또 원로원장에 서봉 스님(광주 아도정사)을, 중앙종회의장에 만춘 스님(광주 백련암)을, 교육원장과 포교원장에는 도일 스님(서울 동의선원)과 기현 스님(서울 흥도사)을 각각 선출했다.

이날 종도대회는 중앙종무기관 해산을 주도했던 일오 스님이 총무원장직을 내놓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열렸다. 前 총무원장 일오 스님은 "종단화합이라는 대의를 위해 총무원장직에서 물러나 종도의 한사람으로서 종단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대승종은 총무원을 홍천 실상사로 이전, 종무행정을 재개한데 이어 5월말에는 불교종단협의회의 종단대표자 명의 변경 등 각종 행정절차를 마무리했다.

총무원장 혜심 스님은 "'작고 알찬 종단'을 실현할 수 있도록 화합을 최우선목표로 삼고 종지종풍을 진작해 나가겠다"며 "빠른 시일내 총무원 집행부를 구성하고 지역교구 종무원장의 권한을 유지토록 하는 등의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봉영 기자

태고종 14일 새 종정 추대

일우·혜초 스님 물망…운산 총무원장 종단개혁 선언

태고종(총무원장 운산)은 6월 14일 오전 10시 서울 봉원사에서 제3차 원로회의를 열고 새 종정을 추대한다. 현재 원로회의 의장 일우 스님과 원로의원 혜초 스님이 물망에 올라 있다.

태고종 종정직은 지난해 11월 덕암 스님이 원적한 이후 궐위 중이다.

한편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은 15일 오전 10시 봉원사에서 열리는 제88차 임시중앙종회에서 '제2창종'에 버금가는 종단개혁을 선언한다.

운산 스님은 이날 8~9일 실시되는 총무원 등 중앙종무기관에 대한 종도대표 특별감사의 결과를 토대로 이후 종단운영의 큰 틀을 발표할 계획이다.

종무행정 투명화와 엄격한 종헌 · 종법 적용, 직영사찰 건립 등 종권 강화를 골자로 한 주요 종책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종단의 규모에 비해 활동과 역할이 미약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총무원의 결단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이날 종회에서는 사찰법 제정안을 포함한 종헌 · 종법 개정안과 2003년도 결산안, 종도대표 특별감사 결과보고의 건 등이 안건으로 다뤄진다.

박봉영 기자

상월 조사 30주기 열반재 천태종 6월14일 구인사서

천태종(총무원장 운덕)은 중창조 상월 원각 조사의 열반 30주기를 맞아 6월 14일 오전 10시 구인사 대조사전에서 추모법회를 봉행한다.

법회에는 종정 도용 스님을 비롯해 총무원장 운덕 스님, 감사원장 정산 스님, 중앙종회 의장 덕산 스님 등 종단 스님과 전국 사찰 신도, 정 · 관계 인사 등 2만여명이 참석한다. 법회에 이어 오후 2시부터는 상월 조사 적멸보궁을 참배할 예정이다.

상월 원각 조사는 1967년 법화 수행을 근간으로 하는 천태종을 중창, 주경야선(晝耕夜禪)을 생활화 하도록 하는 등 새불교운동을 주창했다. 이후 애국 · 생활 · 대중불교를 지표로 천태종의 제도적 틀을 정착시킨 후 74년 음력 4월 27일 원적했다.

박봉영 기자

조계종 7월 본말사 주지연수 문화기획 등 5개 주제로

2004년도 조계종 본말사 주지연수가 7월 7~8일 양일간 서울 · 경기 · 강원권 사찰을 시작으로 8월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김포 중앙승가대에서 실시된다.

올해 본 · 말사 주지 연수교육도 지난해와 같이 5개 주제 가운데 1개를 선택하는 분반교육 형태로 진행된다. 참가 대상 스님은 △불교환경의제21과 실천프로그램 만들기 △사찰과 자원봉사 △사찰상담 △상장례와 화장문화 △불교문화기획 어떻게 할것인가? 등의 주제 가운데 하나를 골라 해당 교구본사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역별 연수 일정을 보면 직할교구 · 용주사 · 신흥사 · 월정사 · 봉선사 등 서울 · 경기 · 강원권은 7월 7~8일, 법주사 · 마곡사 · 수덕사, 관음사 등 충청 · 제주권은 7월 15~16일 각각 열린다. 직지사 · 동화사, 은해사, 불국사, 고운사 등 대구 · 경북권은 7월 22~23일, 해인사, 쌍계사, 범어사, 통도사 등 부산 · 경남권은 7월 28~29일, 금산사, 백양사, 송광사, 대흥사, 선운사 등 광주 · 호남권은 8월 4~5일 예정돼 있다. (02)732-4923

조용수 기자



위덕대 · 영덕군 관 · 학협정 체결

위덕대(총장 한재숙)는 5월 27일 경북 영덕군청과 관 · 학 협정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위덕대와 영덕군은 농 · 어촌 지역의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수립과 조사연구, 이동사회복지관 운영, 노인의 사회참여 활동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 등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위덕대는 "향후 농어촌 노인복지와 아동, 청소년복지 향상에 기여하며 농어촌 사회복지 전문인력 양성을 활발히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선각종 장흥교도소 재소자 위문

선각종 총무원(원장 정암)과 장흥 선산사(주지 법인)는 5월 21일 전남 장흥교도소를 방문, 재소자를 위한 위문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법회에는 불자 재소자와 교정인, 선산사 신도 등 500여명이 동참했다. 선각종 총무원장 정암 스님은 법어를 통해 "지극한 염불수행과 기도정진으로 과거 · 현재의 업장을 소멸하고 하루빨리 출소하여 희망찬 새 삶을 살기 바란다"며 "불법을 만난 인연을 소중히 여겨 늘 자신을 추스리라"고 당부했다.

종단소식

국내 · 외 장학승선발

조계종 교육원(원장 청화)은 종단의 유능한 인재 양성을 위해 2004년도 국내 · 외 장학승을 선발한다. 대상은 국내 · 외 정규대학 석사과정 2학기 이상에 재학중인 조계종 스님으로, A4용지 5매 이상의 불교관련 보고서와 지도교수 추천서 등 소정의 서류양식을 7월 31일까지 교육원으로 제출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02)732-4923

하반기 49일 불공 입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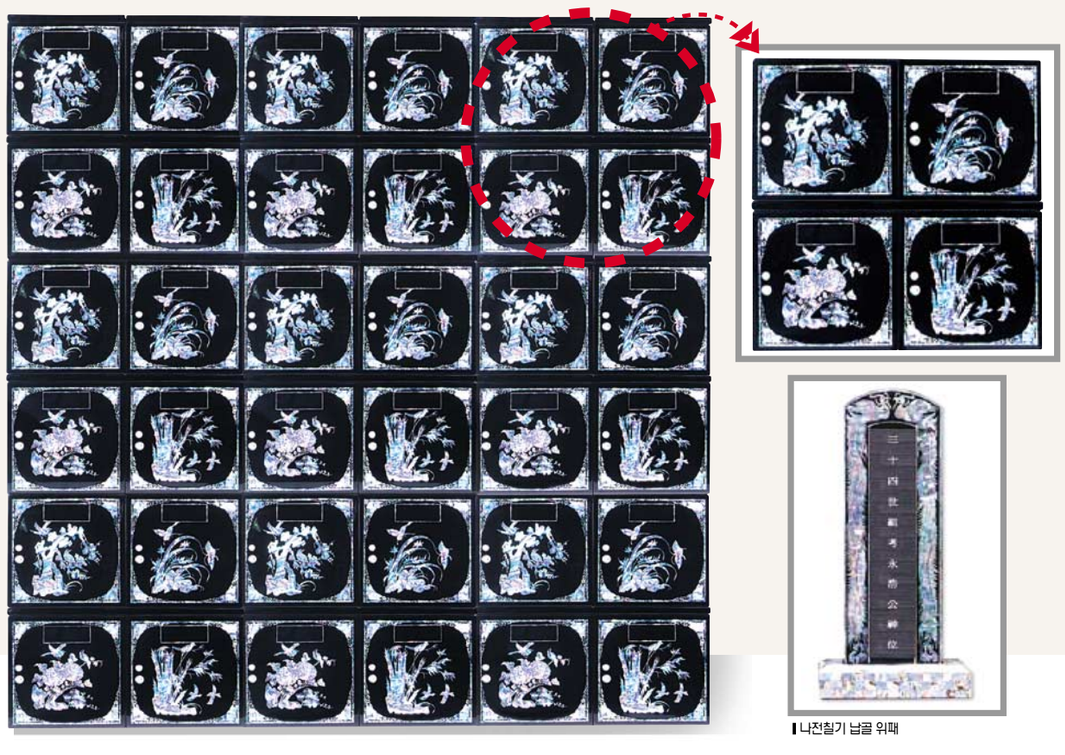
총지종(통리원장 우승)은 7월 15일까지 서울 총지사를 비롯해 전국 사원에서 하반기 49일 불공을 올린다. 5월 28일 총지사에서 열린 입재식에서 우승 통리원장은 "항상 마음자리를 살피면서 참 수행을 위해 마음을 닦는 불공법을 바로 세워 용맹정진하라"고 당부했다. 불공 기간에는 가정의 화평과 조상의 극락왕생, 소원성취 등을 기원한다.

경주 자운사 개원

미륵종(총무원장 송정)은 경주지역 포교도량인 자운사(주지 혜연)를 최근 개원했다. 이날 개원법회에서는 대웅전 낙성과 석가모니 불상 점안, 지역어르신 초청 경로잔치가 열렸다. 총무원장 송정 스님은 "주지 스님을 중심으로 모든 신도들이 화합하여 경주지역 포교의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나전칠기(사군자) 공법으로 제작한 고급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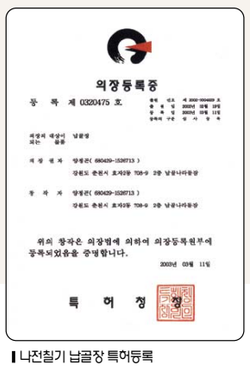
수년간의 연구개발의 결과, 장엄한 전통나전칠기공법으로 납골장을 제작 보급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납골장의 미려함과 습기, 결로현상의 완전 제거 기능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전칠기 납골 위패

전국 사찰, 법당안에 납골당 설치 정당 (합헌 결정)

지장보살전, 명부전, 기존 건축물 ... 납골장 설치 가능
행정기관이 「건축 후 납골당 용도로 이용불가」라는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내줬다 하더라도 사찰법당 내부에 납골함을 설치한 것은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장광환 부장판사)는 지난 5일 대한불교조계종 문빈정사 (주지 임연구)가 광주 동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사설납골당 설치신고 수리거부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건축허가 신청내용이 법당에 대한 건축허가임에도 동구청이 '납골당 용도로 사용불가'라는 부관을 부서한 것은 법적으로 무효이므로 납골당 설치신고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종교 집회장인 사찰에 납골당을 설치하더라도 이는 건축법상 용도변경에 해당되지 않으며 설사 해당되더라도 기존 건물을 이용한 납골당 설치가 자연공원의 보전, 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재판부는 "기존의 건물을 이용한 납골시설 설치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매장 중심의 장례문화를 화장중심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아직 혐오시설로 인식해 그 설치가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그 허용의 필요성도 크다"고 강조했다. 무등산에 위치한 문빈정사는 2001년 9월 29일 극락전 법당과 화장실 등 부속시설을 증축한 뒤 이듬해 1월 4일 법당안에 약 900기 규모의 납골함을 설치하려고 신고를 했으나 동구청이 건축허가 당시 '납골당 용도로 사용불가'라는 조건에 위반된다며 반려하자 소송을 제기했었다.


나전칠기 납골장 특허등록

돌잠 DOLJAM
납골장, 납골묘 제작 시공 전문업체
나전칠기 납골함, 위패 제작판매
(의장등록증 발급)
강원도 춘천시 효자2동 708-9 2층
납골나라 돌잠 080-232-4444
H·P 011-365-0202
※ 나전칠기 및 상감기법 납골장 전시관 상시운영
(언제든지 방문하시고 확인하십시오)

대구불교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무료제작
문의) 053-427-5114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FM 105.5MHz
www.dgbbs.co.kr

BBS 춘천불교방송 FM100.1MHz
음악이 있는 오후 오후 3:05 ~ 4:00
감자바우 황금바우 오후 4:10 ~ 4:45

5월 31일 법보종찰 가야산 해인사에 조계종 원로스님 21명이 모였다. 종정 법전 스님을 비롯해 석주 · 수산 · 성수 · 도견 · 보성 · 원명 · 벽암 · 정천 · 천운 · 지관 · 종산 · 이두 · 활안 · 동춘 · 지혜 스님 등 법명만 들어도 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이 시대 대표 원로들이다. 원로스님들이 모처럼 한 자리에 모인 것은 대종사(大宗師) 법계 품서식(稟敍式)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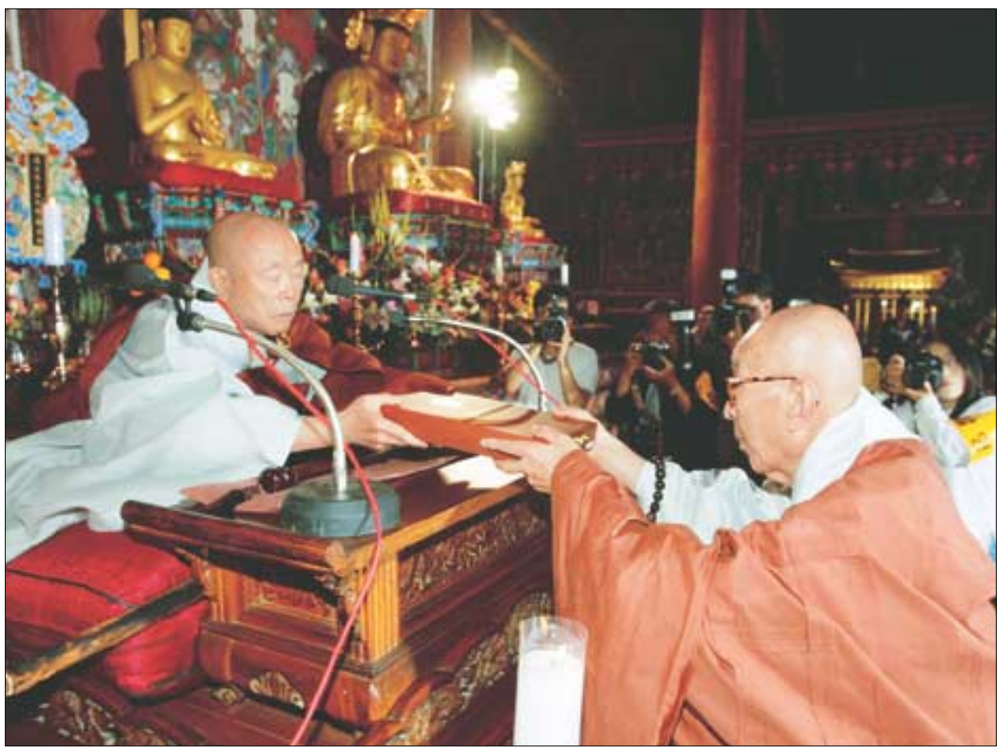


품서식에 참석하고자 석주 스님이 부축을 받으며 대적광전으로 향하고 있다.

모든 중생 해탈케 하겠나이다

조계종 대종사 법계 품서식열리던 날

원로 21명 해인사서 '큰 서원'



조계종 대종사 법계 품서식에는 종정 법전 스님을 비롯 21명의 원로스님들이 참석했다. 사진은 법전 스님이 원로회의 의원 수산 스님에게 법계증을 수여하고 있는 모습.

품서식 시작을 알리는 명종 소리가 은은히 울려 퍼진다. 스님들은 대적광전 주불인 비로자나불을 향해 합장한다. 삼귀의 반야심경 봉독에 이어 법계 품서를 부처님께 알리기 위해 고불문을 원로회의 의장 종산 스님이 낭독한다.

"원하옵건대 삼가 저희들이 이로 인하여 성불에 이르도록 물러남이 없이 정진할 것이오니 증명하여 주시옵소서."

법계는 수행력과 종단 지도력의 상징이자 종단 위계서열의 기본이다. 따라서 법계 중 최상위인 대종사는 최고의 수행력과 종단 지도력을 갖춘, 승가로서 최고의 지위에 해당되는 것이다. 또한 대종사는 원로회의 의원이 될 수 있는 자격 요건 중의 하나다.

조계종으로 출가하면 6개월의 행자 생활(행자교육원에서 1개월 교육 포함)을 거친 뒤 사미(니)계를 받는다. 또 4년 동안 기본교육기관(강원, 중앙승가대, 동국대, 기본선원)을 마치고 4급 승가고시에 합격하면 비구(니)계를 받아 정식 스님이 된다.

이에 따라 조계종의 비구(니) 법계는 견덕(계덕)(승랍 10년 미만, 4급 승가고시에 합격한 자), 중덕(정덕)(승랍 10년 이상, 견덕법계 수지 및 3급 승가고시에 합격한 자), 대덕(혜덕)(승랍 20년 이상, 중덕법계 수지 및 2급 승가고시에 합격한 자), 종덕(현덕)(승랍 25년 이상, 대덕법계 수지 및 1급 승가고시에 합격한 자), 종사(명덕)(승랍 30년 이상, 종덕법계 수지자), 대종사(명사)(승랍 40년 이상, 종사법계 수지자)로 구분된다.

총무원장 법장 스님과 중앙종회의장 지하 스님 등이 부처님 전에 헌화를 한 뒤 원로의원 지관 스님이 서원문을 낭독한다.

"지극한 마음으로 서원하나이다.…모든 중생을 교화하여 해탈을 얻게 하겠나이다.…목숨이 다하도록 물러나지 않겠나이다.(절) 목숨이 다하도록 물러나지 않겠나이다.(절) 목숨이 다하도록 물러나지 않겠나이다.(절)"

몸은 쇠했을지 모르지만 마음만은 초발심 그대로다. 은산철벽(銀山鐵壁)을 뚫지 못하면 목숨이 다하더라도 물러나지 않겠다는 것이다. 백척간두진일보(百尺竿頭進一步)하겠다는 다짐이다. 노구(老軀)들에서 뿜어져 나오는 결기가 대적광전을 휘감아 돈다.

종정 스님이 법상에 등단한 뒤 품서 대상자 스님 한 분 한 분에게 법계증을 수여한다. 원로 석주 스님이 첫 번째다.

석주 스님은 이번에 큰 마음을 냈다. 대종사 법계를 품서받지 않아도 수행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지만, 종단 위계질서와 법계 체계를 확립한다는데 선뜻 동의해 구순이 넘는 몸을 이끌고 서울에서 해인사까지 왔기 때문이다.

법계중 최고 위치…수행 · 지도력 인정

"불일을 만고에 빛나게 하고…" 종정법어

연꽃당초무늬에 휘장 달린 가사 첫선

법계증을 받아든 스님들은 조금은 신기한 듯 내용을 읽어보기도 한다. 처음 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만면에 미소를 띠며 즐거워하기도 한다. 이에 앞서 종산 스님과 법계위원장 보성 스님은 종정 스님에게 법계증을 봉정했다.

잠시 후 종정 스님이 주장자 삼타를 한 뒤 법어를 내리기 시작한다.

"도의 국사가 구산선문(九山禪門)을 기원(起源)하니 아종조(我宗祖)요 태고보우가 조계종을 중천(重闡)했으니 아중흥조(我中興祖)라. 그 종맥(宗脈)이 면면부절(綿綿不絶)하여 현전(現前)에 이르렀으니 금일 계계상승(繼繼相承)한 대종사위(大宗師位)를 제방(諸方)의 선장(禪匠)들에게 품수하는 호시절이 도래했구나. 이는 여래의 심인(心印)을 이어받은 마조의 현현(顯現)이요 임제의 응화(應化)이니 이 땅의 불일(佛日)을 만고(萬古)에 빛나게 하고 삼보(三寶)를 법계에 유전케 함이라."

법어가 끝난 뒤 법계위원장 보성 스님이 가사를 수여하기 시작했다. 가사에는 연꽃 형태에 당초무늬를 바탕으로 조계종의 상징인 삼보륜이 새겨져 있는 대종사 휘장이 달려있다. 첫 선을 보이는 것이다.

가사를 수하기에 앞서 스님들은 정대게(頂戴偈)를 읊기 시작한다. '어진 마음 청정한 손으로 모든 중생을 섭취하여 일체 액난에서 구해 안온하게 하고저 이 복전을 지으니 살아서는 재해가 없어지고 오곡이 풍성하며 죽어서는 왕생극락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요지다.

부처님 전에 삼배를 한 스님들은 원로회의 의원 원명 스님의 발원문 낭독을 마음속에 새기며 가없이 용맹정진 할 것을 발원한다.

총무원장 법장 스님이 법계를 품서한 스님들에게 축하의 의미로 법의 상징인 불자(拂子)를 봉정한다. 이어 행사에 참석한 7백여 대중들이 스님들에게 정신적 사표(師表)에 대한 삼배의 예를 올린다. 사홍서원으로 행사는 마무리된다.

법보종찰 해인사에서 거행된 대종사 법계 품서식. 팔만대장경의 법향에 대종사 법계를 품서한 스님들의 법향이 더해진다. '이 땅의 불일(佛日)을 만고(萬古)에 빛나게' 할 그날이 어서 오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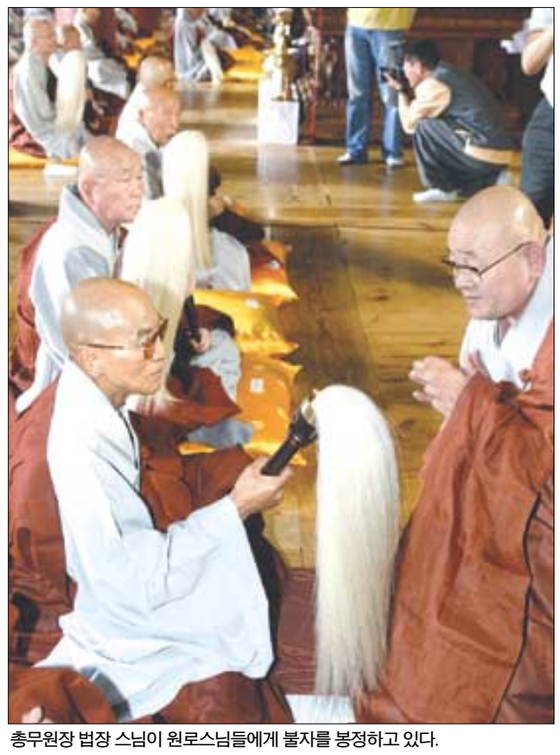
해인사=남동우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품서식에서 종정 법전 스님이 법어를 내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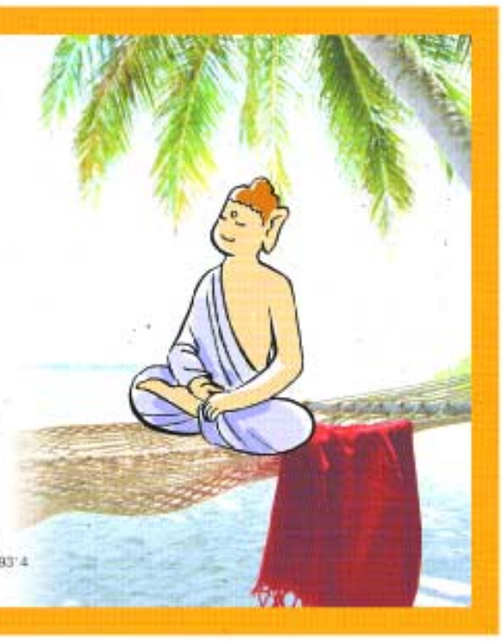


가사를 수하기 전 정대게를 하는 모습 (작은 사진은 '대종사 휘장').



총무원장 법장 스님이 원로스님들에게 불자를 봉정하고 있다.

부처님은 웰빙족이었다?
문화영의 생활명상집 〈무심〉! – 무심(無心)을 알고 마음이 가벼워질 때, 참된 웰빙을 맛본다!
소프라노 조수미의 긴 손톱에 담긴 자유로움!
아름다운 죄, 사랑을 흔내주는 방법은 복수가 아닌 무심!
폐위된 광해군이 18년 동안 유유자적 기쁘게 산 경지!
근심걱정과 화를 금방 잊어버리는 축복받은 건망증!
무심의 경지에서 지치지 않고 쌩쌩하게 일하기!
수치심을 벗으면서 얻는 훨훨 날 듯한 마음의 자유로움!
즐거운 죽음, 소풍가듯 죽는 방법!
부처님처럼 웰빙하는 맑고 시원한 경지,
문화영의 생활명상집 〈무심〉이 알려드립니다!
명상마을의 자연인, 문화영
방송작가이며, 아루이 명상 지도자이다.
충북 진천의 명상마을 '명상아루이 수선대'에서
별과 바람과 더불어 자연인으로 살고 있으며,
그곳에 명상을 배우러 찾아오는 사람들을 지도하고 있다.

출간 2주만에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진입!
책 이 름 : 무심(無心) - 사람은 어떻게 자유로워지나
지 자 : 문 화 영
펴 낸 곳 : 도서출판 수선재
펴 낸 날 : 2004년 5월 6일
가 격 : 9,000원
분 량 : 240쪽
수선재 서울시 종로구 부암동 274-1 2층
TEL 02)391-9315 FAX 02)391-9314
WWW.SOOSUNJAE.COM


1곳만 더하면 '전국 석권'

대한경불회, 인천지방경찰청 창립 … 14곳 중 13곳째

경찰 공무원 불자들의 '불교바람'이 세차게 몰아치고 있다.

지난 5월 21일 인천지방경찰청 불교회가 결성돼 전국 13곳 지방경찰청 불교회가 창립됐다. 특히 인천지방경찰청 불교회는 불교세가 미약한 이 지역에 신행바람을 일으키기 위해 인천 강화서, 중부서, 서부서, 인천공항경찰대 불교회 등과 연계사업을 모색하고 있어 향후 활동이 기대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인천청 등 전국의 지방경찰청 불교회는 관내 경찰서 불교회 출범에 기폭제로 작용, '경불회 깃발'을 나부끼고 있다. 실제로 2001년 창립된 전남지방경찰청 불교회는 도내 12곳의 경찰서 불자 모임을 한꺼번에 결성케 한 원동력이 됐다. 이는 지난해 제주도를 뺀 전국 16곳 도·특별·광역시청에 불자회를 탄생시킨 한국공무원불자회연합회와 함께 경찰 공무원 불자들이 '일터'를 생활불교의 마당으로 넓히게 했다.

전남지방경찰청 불교회장 천승범 수사과장은 "지방청 불교회 창립은 그간 개별적으로 신행활동을 하던 불자 경찰관들을 한데 묶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며 "동일 지역 내 산하 경찰서 불교회가 상호 유기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는 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경찰 공무원 불교회가 괄목한 성장을 보일 수 있던 것은 오는 6월 12일 창립 3주년 기념법회를 범어사에서 봉행하는 대한민국경찰불교회(이하 대한경불회)의 노력에서 찾을 수 있다. 대한경불회는 지난 2001년 출범 이후, 지방경찰청과 경찰서 불교회 창립과 경찰불자들의 신행활동을 돕는 프로그램 지원 등에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2002년에 경찰청 내 중앙사무국을 개설하는 한편 경찰법요집 발간, 경찰출신 상임포교사 25명의 미창립 경찰기관 법회 지원, 불교회별 등산 및 사찰참배 등의 소모임 활성화, 지역별 직장·직능불교단체와의 연계활동 강화 등을 추진해왔다.

대한경불회는 또 올 4월 전국 확대위원회를 갖고, 조직운영을 권역별 중심체제로 전환했다. 산하조직을 서울·경기, 부산·경남 등 총 6개 권역별로 개편해 지부별 네트워크를 구축키로 했다.

이같은 대한경불회의 괄목한 발전은 전국 산하 기관 불교회 결성 현황에서도 확인된다. 출범 당시 기존 5곳의 지방청 불교회가 13곳으로, 53곳의 단위 경찰서 불교회가 103곳으로 늘렸다. 이 같은 증가는 현재 경찰청 산하 지방청, 경찰서, 부속기관 등 255곳 기관의 40.8%에 달하는 수치로, 총 46곳이나 늘었다.

대한경불회 김진홍 사무국장은 "지방청 불교회가 불자 모임 결성을 주도하면서 그동안 창립을 주저하던 단위 기관 경찰서 불자들이 자신감을 얻게 된 것이 경찰불교회 성장배경이었다"며 "앞으로 미창립 기관의 불교회 창립을 위해 기존 직장신행단체와 연계, 범종단 차원의 경승위원 위촉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연도별 지방경찰청 불교회 창립 현황

1989. 9. 8	경찰청불교회
1991. 10	충북지방경찰청 불교회
1992. 9. 6	서울지방경찰청 불교회
1997. 10	대구지방경찰청 불교회
1998. 7	경기지방경찰청 불교회
2001. 2. 7	경남지방경찰청 불교회
2001. 4. 28	대한민국경찰불교회
2001. 5	경북지방경찰청 불교회
2001. 6. 16	전남지방경찰청 불교회
2002. 3. 3	충남지방경찰청 불교회
2002. 3. 27	강원지방경찰청 불교회
2003. 6. 18	제주지방경찰청 불교회
2003. 9. 2	울산지방경찰청 불교회
2004. 5. 21	인천지방경찰청 불교회
미창립 : 전북지방경찰청-지부장 임명, 불교회 창립을 위한 준비 중	

관악 불심은 '불이회'로 통합니다

서울대 통합교수불자회 5월 31일 창립

회장에 소광섭 교수 … '후견인 제도' 등 도입

서울대에 통합교수불자회가 창립됐다.

서울대학교 교수불자 모임 불이회는 5월 31일 관악캠퍼스 수의과대학 합동강의실에서 소광섭 초대회장, 회원 및 학생 2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법회를 봉행하고 본격적인 신행활동에 들어갔다. 이번에 출범된 서울대교수불자회는 지난 94년 수원캠퍼스에서 결성된 교수불자회를 확대·개편한 것으로, 앞으로 21개 단과대 및 대학원에서 개별적인 신행을 하던 불자 교수들이 이곳을 구심점으로 활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서울대교수불자회에는 쟁쟁한 불자 교수들이 대거 참여했다. 인간배아줄기세포 배양에 성공해 최근 조계종 제1회 불자대상을 수상한 황우석 교수(수의대)를 비롯해 한나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당선된 박세일 교수(국제대학원), 인문대 종교학과 윤원철, 법대 호문혁, 의대 조보연 교수 등이 불자회에 가입했다.

서울대교수불자회는 우선 '신행'과 '연구 활동'에 상호 자극할 수 있도록 불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불자로서의 정기적인 신행활동과 함께 회원들의 전공에 따른 불교연구를 적극 장려할 방침이다. 매월 한 차례 '불교철학과 학제적 접근'을 주제로 집담회를 개최하는 한편, 불교와 전공을 접목한 연구 활동을 벌이는 불자교수를 발굴해 교계는 물론 학계에 알려 불교연구영역의 외연을 넓힐 예정이다.



◇서울대 교수불자 모임 불이회 회원들이 창립법회를 마치고 합장 인사하고 있다. 사진 뒷줄 왼쪽에서 네 번째가 소광섭 회장, 앞줄 왼쪽에서 네번째가 우희종 총무.

서울대교수불자회 소광섭 교수는 이날 창립법회에서 "그동안 불이회원들이 발표한 불교 관련 논문들을 묶어 논문집을 발간하고, 교수불자연합회와의 연계활동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산발적으로 활동해온 단과대·대학원별 불교학생회, 직원 불자모임과 합동법회도 추진된다. 먼저 재학생 불교모임의 활성화 방안으로, 불자교수와 학생을 1:1로 결연하는 '후견인' 제도를 도입한다. 이 같은 시도는 교수와 학생이 함께 불교신행공동체를 일궈, 서울대에 '불교바람'을 조직적으로 일으키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한편 이날 창립법회에서는 화계사 국제선원장 현각 스님의 '진정한 종교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한 특강도 진행됐다.

김철우 기자

우리불자회는요

감사원 불자회

'바른 감사, 바른 나라.'

국민의 공복으로서 국가에 봉사하고, 공직 사회의 기강을 불어넣는 우리 감사원 공무원들의 사명감과 청렴성을 표현할 말입니다. 그럼 감사원 불자들은 어떨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의 지혜의 칼로 언제나 공명정대하게 일과 신행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감사원 불자회가 창립된 지 만 5년이 됐습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5월에 강화도 전등사와 석모도 보문사 등을 돌아오는 기념 순례법회를 개최했습니다. 초창기 때의 발심을 되새기고, 참다운 불자로 살기위해 소중한 시간을 가졌지요.


◇감사원 불자회원들이 지난 2003년 6월 경주 황룡사지에서 열린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제4차 수계법회에서 좌선을 하고 있다.

일도 신행도 언제나 '공명정대' 자부

"젊은 직원 늘어 법당도 젊어졌어요"

참, 불자님들께서 감사원 공무원들은 어떤 생활을 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이 기회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원 직원들은 사무실에 있는 시간보다 출장을 가서 있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그야말로 흔치않은 직장인들입니다. 그러다보니 우스개 소리로 오랫동안 근무한 감사원 식구들은 오히려 매일 집으로 퇴근하는 것이 어색하다는 느낌까지 받기도 한답니다. 또 상대방과 관련된 일을 해야 하고, 대부분의 일이 상대방에 부담을 주는 일이라 조심스런 생활이 몸에 베여 있습니다. 그 만큼 안으로 접어드는 생활이 자기 자신에게는 생활에서 가장 힘든 일입니다. 감사원에서 불자회가 직장단위로 자연발생적으로 태동한 것도 이런 연유에서였습니다. 물론 감사원에 근무하기 전부터 신심을 가진 분도 있었겠지만, 대다수는 막연한 관심에서 적극적인 참여자가 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최근 감사원의 인적구성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젊은 직원들이 대거 채용됐습니다. 우리 감사원 불자회가 초창기에는 자발적이고 자연발생적인 요소가 많았다고 보면, 앞으로는 어느 정도 조직과 활동영역을 통한 적극적인 포교활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선, 젊은 직원들을 동참하게 하기 위해 흥미를 유발하는 이벤트를 마련할 생각입니다. 신임 남일호 회장(공보관)을 중심으로 한 운영진이 다양한 법회 프로그램을 준비 중입니다. 이번 5주년 창립기념 순례법회도 강화도의 지역문화재와 법회를 연계시킴으로써 신입직원들의 많은 참여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결혼하지 않은 직원은 연인의 손을 잡고 자연스레 스님의 법문을 듣고, 아이들이 있는 직원은 가족 단위 역사공부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알차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생활과 함께하는 감사원 불자회. 앞서가는 직장불자회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병원 총무(재정금융5과 부감사관)

우·리·절·은·불·자·여·러·분·을·사·랑·합·니·다

◆ 교통편
1. 강변역 → 광주 → 곤지암 1113-1
2. 잠실 → 모란 → 광주 → 곤지암 500-1
3. 양재 → 모란 → 광주 → 곤지암 500-2

곤지암 우리절

천도재 기도도량 · 대비주 기도도량 우리절!

우리절 정기기도 · 법회
-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 오후 2시 일요법회
-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 오후 2시 자녀 및 입시기도 목련사랑법회
-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 오후 3시 특별대비주기도회
- 매월셋째 화요일 오후 2시 ~ 4시 부 산 동 선 회 법 회
- 곤지암터미널 - 우리절 셔틀버스 운행

우리절은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대비주 기도도량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 오후 3시, 장장 5시간에 걸쳐 논스톱으로 올리는 대비주 기도에 불자님들의 모든 바람을 한번 멋지게 걸어보십시오. 그리고 또한 우리절은 온갖 정성을 다 기울여 선망조상 영가님들을 천도하는 역시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천도재 기도도량입니다.
주[대비주 = 신묘장구대다라니]

지장경을 읽읍시다

우리절에서는 목요대비주처럼 매주 수요일마다 봉행하며 동봉스님이 사언절로 옮긴 <<지장경>> 전체를 독송합니다. 물론 참석하신 분들은 부처님전에 낱낱이 축원을 올려 드립니다. 그리고 참석하신 불자님들께는 동봉스님이 번역하고 편집한 <<일원곡>> 제10권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우리절 http://www.urijeol.com / 우리절.com /우리절.net 우)464-881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상림리 178 전화 031)763-4674-5 / 팩스 031)763-2150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 전화 : 02)732-1522 (直) 02)737-8881 (代)
· FAX : 02) 737-069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 법당 : 100평
- 요사 : 60평
- 부지 : 300평
- 가액 : 6억

- 위치 : 경남
- 법당 : 12(임법당)
- 요사 : 15평
- 부지 : 400평외 1200평
- 가액 : 1억 7천

- 위치 : 경기
- 법당 : 48평
- 요사 : 160평
- 부지 : 3500평
- 가액 : 65억

※ 전국 사찰 ,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 011)713-5634

사찰(급)안내

- 위치 : 부산
- 대지 : 300평
- 임야 : 2천5백평
- 인등 : 3천개
- 가액 : 7억원(절충가능)

011-9338-2993
소개업자 일체사절

포교당안내

- 위치 : 암사동 현대아파트 정문앞 지하철역 인근 대로변
- 법당: 35평 큰방1, 옥상방 3개
- 옥상: 35평 총 60평이상 삼존불 모셔져 있음
- 스님 노환으로 사정상
- 가액: 보증금 5천만원,월 80만원 시설비 2800만원

011-714-3635
02)481-3635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대전 대흥동
- 건평: 35평 2층
- 주방1, 방1, 법당
- 삼존불, 108지장보살 모셔져 있음
- 가액: 전세 2천만원
- 시설비 : 답사후 절충

011-9848-3178
016-603-0160

포교원안내

- 위치 : 중랑구 신내동 대로변
- 평수 : 4층건물 4층(40평)
- 방 2개, 주방(단독주차)
- 가액 : 보증금 1,500만원 (월80만원)
- 시설비 : 800만원
- 특징 : 주변 주택 및 APT밀집지역 포교에 최적지임

02)436-3647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
- 부지 : 400평
- 법당 : 30평
- 요사 : 30평
- 가액 : 13억

- 위치 : 경기
- 부지 : 900평
- 법당 : 33평
- 요사 : 60평
- 가액 : 10억

◆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사 찰 안 내

- 사찰, 포교당,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지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통일시대 최대 투자처 경기 연천 土地 다량보유 상담환영

사찰안내

- 위치 : 충남 예산
- 대지 및 임야 20,500평
- 건물 : 대웅전,극락전,요사채3동 및 다수(연못2곳,석탑,불상등)
- 특징 : 1. 조경수려
  2. 예산시내와 인접하여 교통매우편리
- 가액 : 35억
- 실소유 하실 분만 연락요망

017-433-4525
011-422-2909
011-9883-0008 주인직접

사찰 안내

- 위치 :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 백운산 운장사 법당
- 10m돌탑영험부처님
- 전세 : 3천만원(절충가능)
- 가액 : 별도상담

033)766-0057

토 굴 안 내

- 위치: 충남 금산
- 부지 : 400평
- 건물 : 목조 한옥 21평 임법당(황토방)
- 가액 : 1억 8천만원

016-249-3393
041)753-8137

포교원안내

- 위치: 마산시 부림시장
- 상가 60평
- 보증금 1천만원 월 25만원
- 시설비 1천2백만원 (절충)
- 도심포교에 뜻 있는 분

016-424-0500

지 리 산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산청군, 진주 50분거리
- 해발 700미터, 16,500여평 부지
- 법당, 주택3동, 황토집(빼치카, 통유리) 전망 웅장, 맥반석 계곡, 동남향 명당
- 선원, 기도원 적합, 차량 진입가
- 가액 : 4억 2000만원

011-9136-1314

사 찰 안 내

[포교당]

- 위치 : 서울강남
- 법당 : 30평
- 보증금 : 1천만원 월 100만원
  시설비 : 4000만원
- 지하철역 200m교통요지

- 위치 : 대전
- 대지 : 176평
- 법당 : 40평
- 요사 : 100평
- 양도가 : 4억 5천 (대출가능)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국불사 011)530-1975 / 011)688-3521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사찰(급)안내

- 충남 당진군 합덕읍
- 평수: 500평, 건물:115평
- 가액: 답사 후 절충
- 산세수려, 조경, 시설완벽
- 누구든지 오시면 맘에 들게 정성스레 지어났음

041)363-4905
011-325-1272

절터안내

- 위치: 경북 봉화군 춘양면 근교
- 평수: 전 2000평 (터 정리됨)
- 토굴 14평, 방 3개, 기름보일러, 부엌1동
- 상태: 독립된 청정계곡 도로포장됨
- 가액: 5800만원

010-4752-2758

사찰안내

- 위치: 천안(목천) 천안고속철역에서 10분거리
- 부지 3천평(2천평도 가능)
- 가액: 8억원
- 지세가 삼태기형 산으로 둘러쌓임

041)621-4411
010-3121-3900

포교당안내

- 위치: 경기 시화 신도시
- 시설완벽 최고급
- 내부실평수 53평, 베란다 약 20평
- 난방 전기 큰방2, 거실겸주방 1, 샤워실겸화장실2, 엘리베이터, 주차장완비
- 가액: 보증금+시설비 포함 6천만원에 월60만원
- 살림일절, 몸만오셔서 포교하실분 따로상담가능

031)432-7406

사찰(전세)안내

- 위치: 경기도 이천시 대포리 소재
- 대지 200평, 건물, 요사채 35평 임법당 25평, 임산신각 3평, 스님방 11평
- 시설 : 삼존불, 신중, 영가단 보증금 5천만원, 시설비 1500만원(절충가능)
- 몸만 오시면 됩니다

031)631-1325/011-9240-1384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광역시소재(경산)
- 부지: 약700평
- 법당: 25평(목재,단청)
- 요사채: 40평
- 가액: 1억8000만원
- 특징 : 도심인근사찰로 포교지로 좋습니다

- 위치 : 경북고령군소재
- 부지: 약6000평(대지,답)
- 법당: 35평 ● 요사: 2동 70평
- 기타: 산신각, 석등, 공양간
- 가액: 4억원
- 특징 : 공사비 9억이상 소요된 멋진 사찰임

좋은인연됩시다 동진불사 전국소재 사찰, 포교당 양도 양수하실분 연락바랍니다
서울 018-536-4064 / 대구 018-689-0455

포교원안내

- 위치: 경북 포항시 시내 최고 중심지
- 삼존불, 신중, 산신, 영가단 스님방1칸, 주방1칸,
- 평수 29평 3층건물 중 3층 10년된 포교원
- 가액: 보증금 500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500만원

011-712-8533

5월23일 조계사 앞 불교문화마당에서 원만히 회향했습니다!!

웰빙전통사찰청국장은 국산콩(대두100%)을 유기농 볏짚에 띄워 냄새가 많이 나지 않는 무공해 청국장이며, 수행정진의 기운이 듬뿍 배어 있어 맛이 순하고 드시기 편합니다. 꼭! 동참하셔서 복 많이 지으시고 온 생명이 건강해지고 후복 해지길 발원합니다. (택배도 가능함)

▮효 과 : 청국장은 혈전(피떡)을 녹여 피를 맑게 하고, 지방을 체외로 배출시켜 다이어트를 쉽게 할 수 있으며, 항암물질(사포닌), 레시틴, 핵산, 셀레늄 등 생리 활성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두뇌 발달 등 놀라운 효능이 있습니다.
특히, 악성변비는 매끼 2수저씩 7일이면 큰 효과를 봅니다.
(D대학의 쥐 실험 결과 메주가루를 먹은 쥐의 두뇌가 170% 더 좋아짐.)

청국장(분말,환,찌개용,무염생청국장)주문 받습니다.
된장, 간장, 고추장, 참기름, 들기름 / 100% 순 우리콩(대두)
메주 매년 1~2월 판매.

※ 연락 하실 곳 : 금강경독송회 010-2227-1250

서울 02-742-0172/포항 054-261-2231/부산 051-514-3566/대구053-425-3063/대전 042-862-8638/울산 052-245-0337/수원031-253-2677/강릉033-644-9009/뉴욕 718-539-9108/LA 562-407-1059

사찰안내

- 위치: 수원시내 주택지
- 대지 61평, 건평 50평 2층 법당 요사 겸
- 후불탱화, 삼존불, 신중단, 칠성단
- 법회시설완비
- 가액: 1억6천만원

031)254-6425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부산시 북구 구포 3동 건물 4층 콘크리트
- 1층 법당. 2층 공양채. 3,4층 주택
- 산을 끼고 있으며 용도변경 가능함
- 법당 부분 주불 관세음보살 호신불 305불 조성되어 있으며 단청되어 있으며 법당 시설비는 일체 받지 않음
- 가액 : 2억 7천만원(절충가능)

051)343-5689
011-597-8889

사 찰 안 내

- 경남 마산시 화성동 서마산 IC 건너편
- 대지 : 438평, 종교부지, 대웅전 31평, 목조, 상포, 오포, 금단청 필 명부전 10평, 단청 필, 요사 80평, 방 10칸 주방 2개, 거실 주지실 10평, 기타 창고 약 6평, 주차장 100평정도
- 가액 : 9억(건물완공 약 7년)

※ 소개인 사절함

055)294-4889 / 011-554-0102

포교원안내

- 위치: 대구시 달서구 (도로변)
- 4층중 2층, 방3개, 부엌1개, 화장실1개, 법당30평(총70평)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3천5백만원)

011-822-6104

포교원안내

- 위치: 경기 구리시 (최요지)
- 평수: 65평, 4층
- 가액: 보증금 3천만원, 월 80만원 시설비 2천5백만원
- 시설완비, 즉시법회가능, 역학상담실 용도도 적합

033)557-4511
016-862-0803

사찰(긴급)안내

- 위치: 합천 진주간 중간지점
- 건물: 법당(기와): 25평, 요사채(스라브신축): 30평 요사채(스라브): 20평 <등기필> 산신각, 용왕당
- 대지: 250평 등기, 임야 100평(법당뒤 산세수려)
- 사찰까지 차량진입가능(정남향 위치) 마을어귀
- 불필요 전화사절, 절충가능함(꼭 사시고자 한분)
- 가액: 1억 5천5백만원(경남권으로 포교 요충지)

011-9017-5445

사찰,전원주택(터)안내

- 위치: 경북 영천시 근교
- 준농림 1350평
- 포장도로 대형차 진입
- 지하수 개발, 컨테이너(방2개)임시 거주가능
- 산이 둘러 싼 곳에 맑은 물을 끼고 있어 수양처등으로 적격
- 가액: 7천5백만원

016-9808-1576 / 054)337-0095

암자(급)안내

- 위치 : 경기도
- 경치 좋고 산세 수려함
- 평수 : 2530평 (평당 30만원)

011-9126-2266

포교원안내

- 위치 : 5호선 마천전철역 부근
- 평수: 40평, 법당 : 28평
- 방, 요사채
- 보증금 1천만원 월 60만원 시설비 3200만원

011-356-6946

포교당안내

- 위치: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포교최적지)
- 평수: 25평
- 보증금: 1500만원 월30만원 시설비: 1200만원
- 삼존불 각단탱화 모셔져 있습

032)543-9245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부산시 망미2동
- 평수 : 30평(시설 완비)
- 가액: 전세 600, 월세 50만 총가액 2500만원(절충가능)

051)754-1055
016-614-8730

비구니 스님 선원 분양안내

- 위치 : 경주시 충효동 금선사 내 여래선원 3층건물 24세대 (1세대 17평)
- 준공검사 완료. 현재 입주가능
- 가액 : 17평 5,500만원(1층, 3층) 17평 5,700만원(2층)
- 연락처 : 대한불교 조계종 금선사

011-538-3879 / 054)772-7171

포교당안내

- 위치 :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동 홍제전철역 부근
- 평수 : 약 50평 1층
- 가액 : 전세금 3천 2백만원 권리금 시설비는 현지 답사 후 절충가능
- ※ 시설완비. 즉시법회가능

02)3216-1118
016-499-1232

포교당 안내

- 위치: 부산시 온천3동
- 71평 3층
- 법회즉시 가능
- 가액: 전세 7천만원 (월세가능)
- 포교당 15년 됐음

011-9571-1710

사찰안내

- 위치: 광주광역시 평동 공단 인근
- 대지: 207평, 1층 요사채 25평 2층 법당(목조) 25평
- 삼존불, 지장보살, 신중
- 가액: 1억3천5백만원 (전세 4천5백만원)

062)943-3330
011-9600-8002

포교당안내

- 위치: 서울 노원구 공릉1동 아파트상가2층 전체 (6,7호선 태릉 입구역 400m)
- 평수: 전체 (32평), 법당(11평), 요사2동(12평)
- 실내 인테리어 완료, 역세권, 북부지원 인근, 가액 1억8천만원

011-9650-6104
02)949-6604

포교당안내

- 위치: 당고개역 부근
- 시설비 1천만원
- 전세,월세 가능
- 평수 15평
- 꼭 필요하신분만 연락 부탁드립니다.

011-236-0899
02)952-7347

사찰(급)안내

- 위치: 경남 창녕
- 대지: 150평
- 법당 12평(목조),
- 요사채 25평(현대식)
- 가액: 9천만원 (불기 및 비품 일체)

016-652-7547

사 찰 안 내

- 위치: 정동진(바다바로옆 위치) 전망최고
- 오존불, 후불탱화, 신중탱화
- 법당, 산신각, 요사채2동 1동은 건물등기 되있음
- 몸만들어오시면 됨 즉시법회가능

033)644-5797
011-9918-5251

사 찰 안 내

- 위치 : 의정부
- 평수: 65평
- 가액: 보증금 2천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2,300만원 절충가능, 즉시법회가능
- 시설완비(상담후 결정)

031)826-0376

포교원안내

- 위치 : 충남 예산군 덕산면 읍내리
- 삼존불, 탱화 등 모든시설 완비
- 가액 : 1천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5백만원
- 즉시 법회 가능
- 스님 몸 안좋은 관계로 급 안내 모든집기 일체 포함

041)337-8078
011-332-8079

포교당안내

- 위치: 부산 금정구 전철역에서 2분거리
- 총 40평, 삼존불 법당 25평,
- 방2개, 주방1, 화장실
- 가액: 평당 300만원

051)512-0437
016-574-0437

포교당안내

- 위치: 서울 강동구 명일동 (굽은다리 전철역)
- 평수: 약28평(3층 건물중 2층 전층)
- 법당, 방, 상담실, 주방, 다용도실, 화장실,
- 실내전체 도시가스 난방, 에어컨시설
- 삼존불, 상단탱화, 신중단탱화, 관음 지장 420존상, 불기 등 일체집기
- 보증금 1000만원, 월세 80만원, 시설비 6백만원.

02)426-2182

포교당안내

- 위치: 서울 영등포 사거리 인근
- 지하철 1,2,5호선 교통요지
- 상가, 주택 밀집 지역
- 현 운영중
- 2층 50평 전세 7천만원
- 시설비 2천5백만원

011-702-6655

토굴안내

- 위치: 경북 안동 예안면
- 법당시설 완비, 즉시법회가능
- 수행이나 작품활동 하시는 분들에게 적격
- 흙 벽돌집, 산세수려
- 가액: 1천5백만원(절충가능)

053)524-0315
016-606-0219

사찰부지안내

- 서울에서 30~40분거리에 약5만평
- 이만한 거리에, 이만한 땅, 이만한 가격이면 최고의 조건
- 종단의 성지 건립 및 종합타운
- 대웅전, 요사채, 선방, 명상실, 수련원, 불교대학, 노스님 복지시설, 종단 신도분들의 전용 공원묘지 및 납골당
- 기타 용도로 사용하기 가장 좋은 땅, 원매자는 아래로 연락바람

017-362-0577
031)947-2055

포교당안내 (무속인 가능)

- 위치: 부산시 해운대구 우2동 장산아래
- 평수: 법당 15평, 방4개
- 가액: 전세 3100만원 (권리금 무)

051)731-9677
055)386-3509
011-9585-1172

포교원안내 (매매가능)

- 위치: 부산시 구포동
- 평수: 5층 건물중 4층 50평
- 가액: 전세 4000만 월세 50만
- 시설: 대웅전 32평,
- 요사채 3실, 공양간 1실 (닫집,영각등 시설 최고급)

051)337-5517
019-841-5515

주택(급)안내

- 위치 : 서울 강서구 화곡본동 56-280
- 대지 : 56평(평당 420)
- 건물 : 2층 (약 40평)
- 특징 : 리모델링 예쁜집, 조용함. 집앞에 산과 공원인접 조계종 소속 작은 사찰 여승

011-1775-3525
016-205-5063

암자안내

- 위치: 경북 상주시 신현리
- 법당 21평, 요사채 18평
- 대지 108평
- 화장실, 샤워실 완비
- 가액: 7500만원

054)533-1477
011-9588-0998

사찰안내

- 위치 : 경기도 포천 경기승마공원입구
- 부지: 1300평
- 건물: 53평, 25평, 17평 3동
- 가액: 3억 8천만원
- 서울에서 50분거리
- 산세수려, 전망좋음

031)533-2420
017-202-2741

포교당안내

- 위치: 경기 하남
- 평수: 38평, 법당, 방2개, 주방
- 가액: 보증금1천만원, 월50만원 시설비 1200만원

031)795-7579
011-633-2754

도심속 최고 사찰 안내

- 위치: 전주시내 단독상가주택 밀집지역
- 대지 112평 8×6미터 코너절
- 건평 120평 대웅전 22평
- 후불순금탱화조성입체120평 신중순금탱화조성입체50평
- 칠성순금탱화조성입체 50평 부처님순금4자반 삼신불
- 부처님법단 홍송조각 연꽃16자 자신있게 갖춘도량
- 매매금4억8천중 준비금2억7천이며 개인사찰등기이전
- 좋은조건 매월 월세 일백만원 나옴
- 비구니스님, 비구스님, 법사님 최고도량
- 답사하시어 의논바람 가능성 없는 전화사절

스님직거래 010-3166-8483

더 빠른! 더 좋은! 더 저렴한!

불자생활정보

▷ 광고문의 : TEL 02)732-1522, 737-8881
FAX 02)737-0697

▷ 광고가격 : 1Box(4.4×4.4) 4만원



1. 법회기도 – 지장기도, 관음기도, 정기법회, 기념법회 등
2. 구인/구직정보 – 공양주, 행자모집, 운전기사모집, 사찰총무원 모집, 일반사원모집 등
3. 알림정보 – 개업, 이전, 각종전시, 불교동우회 행사, 각종불교강좌, 수련회, 동창회, 부음 등
4. 불교용품정보 – 각종불교용품, 불교용품업체, 탱화 업체 등
5. 알뜰정보 – 팔고/사고/대행/대여/재활용/인테리어
6. 생활장터 – 가구, 도서, 음반, 컴퓨터, 통신기기, 비디오, 가전, 사무용품, 비품, 정수기 등 – 사보편집대행, 음반대행, 곶집, 떡집, 승복집 등
7. 여행정보 – 성지순례, 사찰순례,

지현역리학 연구원

◆ 생활역학 전문 교육처
- 고 자강 이석영, 고 단원 이병렬선생의 전통 학문 강의(초급~고급)
  핵심적인 용신법을 바로 알아낼 수 있는 비법 전수
  한눈에 오행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 전수

◆ 작명학 강의
- 본명 사주의 오행균형법 원형이정의 수리법 부족된 자원보충법
  음령법 사상체질법 체계적인 이론연구의 정통작명 비법 전수

※갑신년 개요 : 강의록 테이프와 자료 판매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현대기림오피스텔 1004호

02)2243-9598. 018-470-6314

예수재, 49재, 천도재, 화청, 바라, 나비무, 점안식
각종 행사해 드립니다
011-9209-5691
051-291-5692
범음범패 이수자 성불암 용산 합장

약사부처님 가피력으로 해가 돌아가는 기적의 손으로 불치병, 신병 만져서 고침. 영가천도 무료
▷ 약사암 주지 칠광
017-257-6795
031)746-6795

경면주사
(수비경면)
▷부적용, 서예용, 일반용 한의원 약국용 도, 소매
구입문의
011-9675-1089

예수재 영산재 49재 천도재 점안식
사찰의 행사에 직접
영인스님
염불 해 드립니다(바라, 작법)
방앗간 055-882-3455
016-428-6665

전통의식, 각종행사, 천도재, 점안식, 기타불공 스님 필요하신 곳
016-9340-1725
055-521-3673
법음범패, 제의식, 염불 배우실 학인스님모집
※ 행자모집 0名
효자사 혜성 합장

참선스님 보세요
- 위장, 관절장애, 변비
- 냉증(전신 寒증)
- 수마(잠, 졸음), 仙食
- 기력 저하, 기혈 불통
- 상기(上熱下冷)

011-9715-6071
02)878-2515
※원만수행을 위한 10수년 전문 연구

천도재 구병시식
태중아기영가 49재 천도 전문도량
(9월경 제 2회 예정)
● 천도재, 49재 구병시식 수시 접수中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02)3391-8523. 011-9002-8523
약천사 자운 합장

치 질
● 재발 잘 되는 치질
● 한방 비법으로 완전치유
● 오래된 치질이나 암치질 특히 효염
※ 스님들께서는 특별 보시함
▷팔공산천룡정사
017-533-1356
053-986-1355

레이키(Reiki 靈氣)를 배우면
누구나 바로氣치료 원격치료 능력자가 됩니다
교육비 50만원, 교육기간 2~3일
인터넷: www.Reiki.co.kr
한글도메인: 국제타로학원
전화: 02)720-5719
720-5682
현대생활레이키연구회/국제타로학원

전생에 나는 무엇이었을까?
궁금하십니까?
전화 주십시오.
032-343-5701
법안스님



명 당
탐지기 관룡자 월간역학
02)2264-0258
동양상 역학강의도 함
www.kbs.cc

역 동영상 강의
www.kbs.cc
3개월분 7만원
학 속성 확실한 교육. 자격증 수여.
명당 탐지기 관룡자 판매
월간역학 02)2264-0258

사찰에서 1천만원이상 불사동참. 함께 기도 정진 운영하실 비구니 스님이나 불자님 초빙
▷강원도 횡성
033)342-7825

비구니 기도스님 모십니다
▷경력 : 승려생활 10년 이상
▷대구 초래산 칠보사
011-9372-2778
053)963-8975

기도스님 필요한 사찰 연락바랍니다
010-7160-6811

신비의 약초 **어 성 초**
어성초 생즙 주문, 배달합니다
(솔잎 주문도 받습니다)
051)465-0607
010-2465-0607

새 법당에 후불탱화 보시할 분 모십니다
도심포교원에서 평생 기도 생활하실 분 모십니다
016-261-2068

산좋고 물좋은 사찰 가족되어 불사하며 함께 사실 분 모십니다
▷비구니스님
▷공양주, 처사님 환영
033)342-7825

기도스님 모십니다
▷40세-50세
051)542-4848

행자 및 기도스님 모십니다
033)263-5904
011-370-5904

부전스님 모십니다
저희 사찰은 지장기도 도량으로 비구스님에 한하여 한 분 모십니다.
(충북 단양)
가족처럼 함께하실 처사님 모십니다.
011-693-7742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女)행자님 구함
▷경기도 고양시
031)973-8534

토굴, 작은 암자, 외딴 촌집, 불사 가능한 터 (땅) 시주해 주실 분
* 좋은 인연 기다립니다
011-9122-0509
011-9416-2261

공양주 보살님 구합니다
011-378-1445

공양주 보살님을 모십니다
(가족처럼 지내실 분, 60세 미만)
▷경기 화성 무우사
031)352-7346
011-9205-5679

공양주 구함
(경험있고 나이 60세이상)
017-554-0737
033)671-2900
033)671-7753

참신한 공양주를 모십니다
(55세 까지)
▷경기도 광주
011-742-8890

공양주 보살님을 모십니다
(40-60세 까지, 신심 있는 보살님)
▷경기도 양평
※부부가 같이 오셔도 됩니다
011-825-6909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충남 태안. 서해안
041)673-2333

대전 암자토굴 공부하며 운영하실 비구니 스님이나 보살님 구함
(텃밭 포함 3년 300만원 몸만와서 운영)
* 시골집 무료로 사실 분
017-409-9599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북 청도, 비구니
011-540-7739

인연있는 분을 모십니다
- 처사1명 : 운전경력 10년 이상, 30-45세
- 행자 약간명 : 수도생활에 뜻이 있는 고졸이상의 남녀, 20-39세

011-230-5387
054)383-8032

창건사찰에서 열심히 기도 정진 하실 스님 찾습니다
공양주 보살, 행자 수행하실 분 구합니다
011-259-5989
031-881-3371

시골 조용한 산사에서 공양주 하실 분 구합니다
017-553-5200
055-551-4949
해림사

자동차 시주 해 주실 분
(12인승이나 9인승)
소중히 사용하겠습니다.
054)262-3525
성진 합장

부전스님 원하는 곳
(조용한 산사, 평생 살 수 있는 곳)
011-628-1156

신심이 돈독한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도 의왕시
011-9054-4610
011-9216-9951

공양주를 모십니다
▷천년 관음 기도도량
포항 자장암
011-584-0888

참신하고 기도하면서 공부하실 비구니스님을 모십니다
▷40~50대
017-294-2003

산수 좋은곳 행자님 연락 바랍니다
011-696-8500

참신한 불자님이나 스님을 찾고 있습니다.
성태산 백원산 자락에 물과 공기와 울창한 자연 환경속에서 날마다 부처님을 모시고 염불과 기도정진으로 마음과 신심을 닦으며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함께 생활 하실 뜻이 계신분은 연락바랍니다.
현재 엘크사슴농장 경영, 양어장, 밤나무재배
사후에는 산소명당자리 제공할 예정
016-466-2470 / 농장(야)041)943-2756

사주 개인 지도
● 특수비법으로 쉽고 정확하게 하루에 통변
승려에 한하며 보시금 150만원
● 지도 : 대주 스님
HP : 011-741-0867 ☎ 02)926-1259

易學秘法 전수
구성학. 매화역수. 육임등의 핵심 비법만 모아서
숫자로만 간편하게 년운, 월운, 일운은 물론
래방객의 처해진 상황, 온 목적, 占事등을 정확하게
통변할 수 있는 역학비법을 전수합니다.
(출장지도 가능함)
02) 6081-8475 , 019 - 446 - 4755

눈
- 안구건조, 충혈, 피로, 눈꼽, 눈물
- 침침함, 눈부심, 희미함, 시력이상
- 당뇨 등 다른질병으로 시력저하
- 눈 수술전후, 눈의 모든 불편증세

일본특허 2790212 미국특허 5382714
KIST KDAR03G-3K 식약청 2106909099
http://eye88.hihome.com
제조원 : 日本(주) MERCURY-MK



눈밝은 세상 (02)2237-8004

성수철학원(학인모집)
■ 스님, 처사, 보살님 전문 교습 ■
▶ 무식자도, 공부해도 해도 안되는분 한달 수강 하면 역학 정통하여 환하게 개안(開眼)됩니다. (단체는 출장강의 가능)
▶ 눈치 안봐도 돼요, 다 맞으니까~ ▶사주, 신수, 작명, 궁합, 택일, 신병 모두 100% 적중
▶ 불자님의 포교 일환(방편)으로 최고 (불교 교리로 푼다)
▶ 전국 일원, 제자 150명 활동중 임. ▶전화 감정도 환영합니다(신속 정확)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2270-4 (2층)
053)255-4784, 256-4784. 018-531-2237

나의 조상은 누구인가?.. **족보**
지금 가문의 역사를 바로 알지 못하면
가문의 역사속에 당신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조상의 뿌리를 찾아 족보를 제작하여 드립니다.
☎ 042)255-0734-5
뿌리찾기 운동본부 www.krpuli.com

최면전문교육
당신도 최면 전문가가 될수있다
◆ 빙의(신들림) : 사람의 몸속에 들어온 빙의와 적접 대화하여 가족이 확인하고 영가가 떠나는 것을 본인이 목격함 (빙의된 분 별도상담)
◆ 전생상담 : 현생의 어려운 문제점과 전생과의 인연관계를 파악하여 긍정적인 삶으로 변화시킨다
◆ 2일간 핵심비법교육으로 완성지도 ◆ 출강강의 가능함
개인지도 : 일휴스님
연락처 053)984-9569, 011-533-8022

運谷室 사암鍼術학회 오행生食연구소 목당易학연구원 **生食**
역학 | 침술 | 풍수 | 육효 | 작명 | 생식
음양五行生食
TEL. (02) 969-3169
969-0603

사찰안내
● 위치: 성남 주택 밀집지역
● 법당, 거실 넓음, 방2개, 창고방1, 화장실, 주방 베란다 45평형
● 보증금 1천5백만원, 월세 75만원(물세,관리비포함) 월세만 100만원가능
● 시설비 : 답사 후 결정
011-678-0807

암자안내
● 위치 : 경북 상주시 공성면 용안리 김천, 상주에서 20분거리
● 대지 120평, 건평 25평
● 임법당1, 주방1, 방2개
● 가액 : 5,300만원 (집기일체포함)
011-462-5275

포교당안내
● 위치 : 대전 서구 배재대 부근
● 3층 건물에서 2층
● 평수: 50평
● 법당 25평, 방3개, 주방1, 창고, 화장실
● 전세 2천2백만원 시설비 1천8백만원
010-4405-7161
019-699-2201

사찰안내
● 위치: 경북 영양군 일월면 오거리
● 대지 406평, 전 716평, 건물 100평
● 삼존불, 후불탱화, 흑탱화 모셔져있음
● 가액: 6천만원(절충가능)
● 지은지 7년
054)683-6426
010-7733-8722

가든안내
● 위치: 창영군 영산근교
● 용도: 사찰 및 찜질방으로 운영가능 주위환경 수려
● 대지 및 토지 1500평
● 가액: 2억3천(절충가능)
010-7280-1210

포교당안내
● 당고개역 1번출구 2분거리 재래시장
● 평수 27평
● 보증금 3천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950만원
● 꼭 필요한 사람만 연락요망
019-9238-5804
011-323-5804

포교당안내
● 위치: 대구 서구 정류장 근처
● 75평 방3개, 법당,
● 부엌, 화장실, 집기 일체
● 주차장 있음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 70만원
● 시설비 3000만원 (시설 일체 완비)
011-308-4225

신축사찰(급)안내
● 위치:충북 옥천 대전 10분거리
● 규모: 법당 대웅전 25평, 산신각 5평, 요사채2동(11평, 18평)
● 시설: 근묵탱화, 후불 60평, 신중 40평
● 석물: 5층석탑, 자연석 신중, 산신탱화(화강암), 약사여래불입상, 지장보살입상 완벽조성됨
● 대지: 150평(산신환산지기결집 혈)
● 가액: 1억 3천만원(대출 2000만원 포함)
043)733-8186
011-9405-818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예천 소백산 정화봉
● 종교용지 450평(풍수좋음)
● 법당 :15평(불상 탱화 5점)
● 요사 : 40평(심야전기)
● 주차장 : 40평(주차 8대)
● 가액 : 9천만원
011-9802-3136

포교원(급)안내
● 위치: 부산 사직동
● 요충지(4층)35평
● 제반시설완비 즉시법회가능
● 전세금: 4천만원 시설비 1천5백
● 주지스님 이동으로 급히처분요함
051)502-5950

사찰.포항죽장하옥
● 편션 별장 같은 요사와 법당
● 산세 수려함
● 대지 200평, 전 500평
● 국유지 200평
● 가액 : 1억 5천만원
011-9302-0343
054)262-6673

토굴 터 안내
● 위치 : 경북 봉화군 일월산 자락
● 부지 : 총2330평(7필지)
● 계곡안 : 조용히 수행하실분, 물 풍부
● 잣나무 20년생 삼백여그루 자작나무 100그루 포함
● 평당 : 1만8천원
054)674-0097

사찰터(급)안내
● 위치: 충북 제천시 청풍호 주변
● 부지 두필지 708평
● 현재 하우스 전기 전화
● 계곡 자연수 흐르는 기도처
● 가액: 상담후 결정
043)644-1666
011-742-5925

사찰 안내
● 위치 :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금대리 아흔아홉골
● 대지 : 1440평, 논 100평, 임야 25000평
● 법당 23평(목조), 삼성각 7평(목조) 요사채 50평
● 가액 : 10억원
033)763-4328
011-798-8747

"지눌… 나옹 … 초의가 맞다"

한국불교 법통 논란 재가열 될까?

허흥식 교수, 초의선사 탄생문화제에서 '태고 보우설' 반박


보조 지눌(1158~1210)


나옹 혜근(1320~1396)


초의 의순(1786~1866)

한국불교의 법통이 보조지눌로부터 나옹혜근으로 이어졌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됐다. 지난 5월 23일 전남 무안에서 열린 초의선사탄생문화제 학술세미나에서 허흥식(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사진) 교수는 '한국 선맥에서 대흥사와 초의선사의 위상'이란 논문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허 교수는 이번 세미나에서 "고려 말 태고보우와 나옹혜근이 이어가던 한국불교의 선맥은 조선 초 나옹혜근의 문도들에 의해 회암사를 중심으로 이어졌다"며 "이후 보현사의 청허휴정과 대흥사의 편양언기, 초의선사로 법맥이 이어지며 대흥사 고승들이 조선 불교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허 교수는 "나옹과 지공의 부도탑비와 청허휴정의 비문은 보현사의 선맥이 지공과 나옹을 거쳐 청허휴정으로 계승되고 있는 뚜렷한 증거"라며 "조선의 법맥을 태고보우를 거쳐 청허휴정으로 연결시키고 있지만, 보현사에서 이를 따르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또 허 교수는 "대흥사에 서산대사의 의발을 보관하고 표충사에 사액한 것은 대흥사에서 조선시대 선맥을 계승한 뚜렷한 증거"라고 밝혀, 그 동안의 태고보우설과 배치되는 주장을 했다.

이에 앞서 허 교수는 <한국중세불교사연구>(1994)에서 태고보우의 법맥을 이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환암혼수가 나옹혜근의 제자라고 주장하며, 나옹혜근설을 뒷받침했다. 허 교수는 "나옹의 문도를 수록한 자료 가운데 '안심사 사리석종비음기'나 '신륵사 석종비음' 등에 환암혼수 등 주요 제자들이 기록돼 있다"며 "그러나 태고의 비문에 당시 조계종 고승을 승직순으로 망라한 가운데 혼수가 포함돼 있고, 혼수의 비문에는 나옹에 대한 기록은 있으나 태고는 전혀 언급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대한불교조계종 <종단법령집>의 종헌 전문과 제1조에서는 도의국사를 종조로 보조지눌과 태고보우를 중흥조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불교 법통에 대한 논란은 한국불교사연구에서 주요 논쟁 주제 가운데 하나로,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한국불교 선맥의 중흥조에 대해서는 보조지눌설(說), 태고보우설, 나옹혜근설 등 논쟁이 계속돼 왔다. 보조지눌설은 이재열, 이종익 교수 등이 태고보우설은 성철 스님, 지관 스님, 권상로 교수가 나옹혜근설은 1937년 활해 스님이 주장한 후 박봉석, 허흥식 교수 등이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2002년 10월 한국선학회 학술대회에서 법산 스님(동국대 정각원장)은 조계종 종조를 중국의 육조 혜능으로 봐야한다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멀게는 서산대사 이후부터 짧게는 1930년대부터 계속된 조계종의 법통설 논란에 대해 이제는 한국불교의 선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 조계종 교육원에서 <조계종사>를 발간한데 이어 허 교수가 논문을 다시 발표하면서 이 같은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에 대해 김방룡(보조사상연구원 기획실장) 박사는 "조계종도 종단차원에서 종조와 중흥조 등 선맥을 확실히 정리해 조계종의 정체성을 확실히 세워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유진 기자 e_exist@buddhapia.com

고대 금석문 자료 · 이미지 한곳에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금석문 종합영상시스템' 가동

고대 금석문(金石文)에 대한 판독과 해설 자료를 한 곳에서 검색해 볼 수 있는 '한국 금석문 종합영상정보 시스템(http://gsm.nricp.go.kr)'이 문을 열었다.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김봉건)는 2002년부터 진행해온 금석문 종합영상 DB 구축사업을 통해 축적한 금석문 관련 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5월 31일 밝혔다. 금석문이란 비문, 불상명문, 목간, 와전명 등에 기록된 명문(銘文)을 말한다. 정확한 문헌이 적은 고대사를 밝히거나, 잘못된 문헌상의 오류를 바로잡아 주기도 해, 문헌기록과 함께 역사연구를 위한 중요한 기초 자료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들은 선사시대에서 통일신라시대까지의 금석문 699종에 대한 원문, 판독문, 번역문과 2천여 건의 탁본과 실물 이미지를 담고 있다. 탁본 이미지는 'Zoom VR(Virtual Reality · 가상현실)' 기술을 적용해, 이미지를 확대해도 실제 탁본을 보는 것과 같이 선명하게 볼 수 있다. 또 주요 금석문은 탁본 글자와 여백의 색상을 바꿔 볼 수도 있어, 글자 판독을 쉽게 했다.

특히 홈페이지에서는 갈항사 석탑기(국보 제99호), 감산사 석조미륵보살입상 조상기(국보 제81호) 등 불상과 석탑 비문의 탁본 이미지와 해설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이 같은 기초자료 외에도 금석문에 대한 전문가의 설명도 덧붙여, '금석문이란' '금석문산책' '금석문과 역사' 등에서 금석문의 종류와 내용, 가치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한편 국립문화재연구소는 향후 3년간 고려시대 이후의 금석문에 대한 자료도 지속적으로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혀, 관련 전문가들과 일반인들이 보다 쉽게 금석문에 접근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오유진 기자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 쌍계사 진감선사 대공탑비 탁본 일부.

문을식 씨 등 6명 논문 당선

제6회 진각논문대상

제6회 진각논문대상 당선작으로 6편의 논문계획서가 선정됐다.

진각종 교육원(원장 혜정)은 불교, 밀교, 진각종 교학 등 세 분야로 나눠 접수된 16편의 논문계획서를 심사한 결과 불교 4편, 밀교 2편 등 총 6편을 제6회 진각논문대상 당선작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진각종 교학 분야는 당선작을 내지 않았다.

불교 분야는 △업보설과 회향사상의 비교연구(문을식) △근대중국의 불교부흥과 인문지식(김영진) △설일체유부의 육인오과설에 대한 나가르주나의 비판 연구(배경아) △19세기 서울 · 경기지역 불교사찰의 대방건축에 대한 연구(손신영) 등 4편이다. 밀교 분야는 △보리도차제론에 나타난 초기유가행파의 지관 연구(차상엽) △인도주석서에 의한 진실섭경의 유가수행 해명(정성준) 등 2편이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우희종 교수의

불교와 생명과학 <37>

생명과 선(4)

불가에서는 우리 안에 부처의 씨앗(佛種)이 있다고 하며, 유정무정 개유불성(有情無情 皆有佛性)이라고 하여 모든 것은 본래면목인 생명의 작용으로 나타남을 설하고 있다. 우리 안의 그 씨앗은 우리 안에서 숨죽이고 있는 것이 아니며, 항상 활발하게 살아 움직이고 있어 그것이 곧 우리의 어묵동정 행주좌와 중에 작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선(禪)이란 무엇인가?

비유하자면 귀 기울여 항상 작용하고 있는 그 생명의 소리를 듣고, 눈을 떠 그 생명의 소리를 보는 것이다. 언제 어느 때고 외부 조건이 어떠하건 조용한 자신의 마음으로 내면의 깊은 곳에서 울려 나오는 영혼의 소리를 듣는 것이 곧 선(禪)이다.

선법이지만 결코 간화선만이 선의 모든 것도 아니요, 일상의 삶 그 자체가 선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일상적 삶이 그대로 선이 되느냐 안되느냐는 오직 깨어서 자신과 이 세상을 이루고 있는 원래 면목의 모습을 향하여 자신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 치성한 관념(識作用)을 쉴 수 있어서 항상 귀 기울여 자신 내부의 깊고 깊은 영혼의 소리를 듣는데 달려있다.

산사(山寺)에 가서 흔히 볼 수 있는 네 발밑을 돌아보라는 뜻의 조고각하(照顧脚下)라는 평범하고도 기본적인 이 한 마디가 바로 참선의 요체이다. 마음공부를 한다면 마음을 쉬고 쉬어 항상 스스로를 되돌아보아 보는 것 외에 아무 것도 없으니 특별한 것을 찾아

내 안의 불성 항상 활발히 살아 있어
내면 들여다 보면 '생활이 곧 선' 돼

우리는 선을 매우 관념적이고 추상화된 모습으로 받아들여 어려워한다. 그래서 선을 삶과 유리된 특별한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 '마치 네가 곧 부처다'라고 했을 때 대부분이 믿지 못하고 놀라며 어떻게 내가 그 높고 거룩하신 부처님이란 말인가 라고 생각하듯 말이다.

하지만 선이란 내 안의 생명(佛種)의 소리를 듣는 것이기에 그러한 행위야말로 반야심경에서 언급된 것처럼 반야바라밀을 깊게 행하는 것이며, 관자재보살은 이를 통해 모든 고액을 뛰어넘는다. 굳이 말로 하자면 선이란 그런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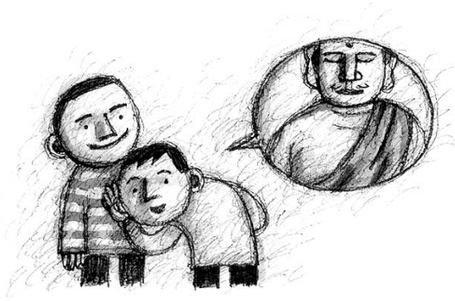
우리가 얼핏 선이라 할 때 그 대표적인 형태로서 화두를 통한 간화선을 연상한다. 물론 간화선은 참으로 좋은 참

밖으로 헤매거나 마음을 분주히 하지 않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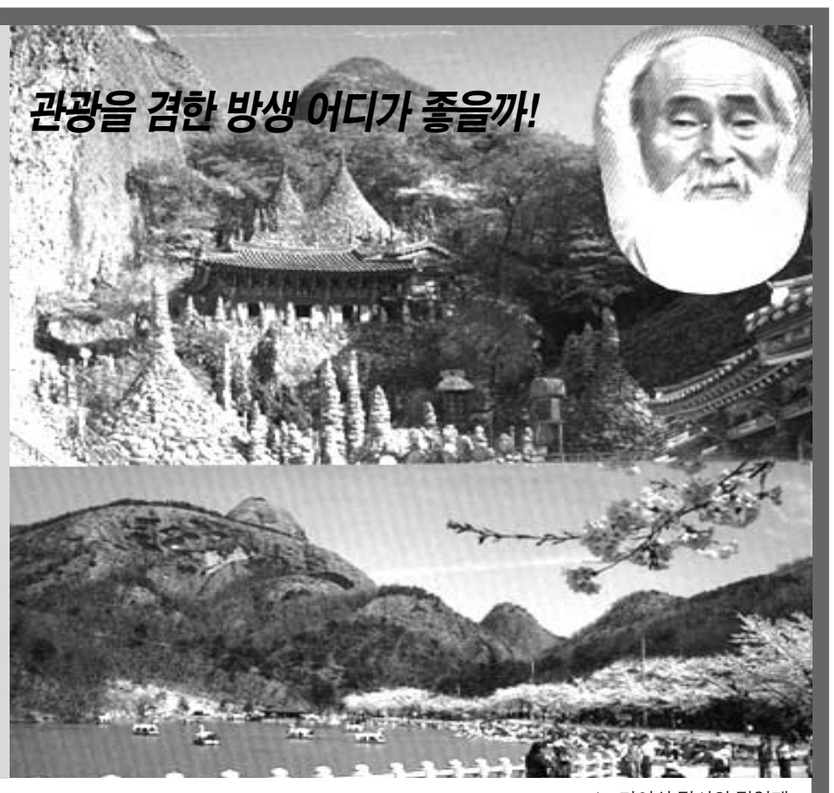
또한 마음공부에서는 그 과정과 목적지가 결코 둘이 아니기에 공부를 끝마쳤다는 잘못된 견해도 짓지 말아야 한다. 믿음과 용맹심 그리고 자신 내부를 향한 꾸준한 방향 전환으로 반드시 자신의 본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생명에 한 생각 일어나 삼라만상이 펼쳐지고 이 펼쳐지는 모습 속에 오직 연기(緣起)로 인하여 무명이 생기고 분주함이 생겨나니 부처가 생기고 불법(佛法)이 횡행하게 되었다. 삼세제불이란 무엇인가? 오직 선(禪)을 통해 생명의 바다 속에서 그 머무를 바 없는 기쁨을 맛 볼 수 있기에 부처님과 조사의 그 큰 은혜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다.

■서울대 수의과대학 면역학교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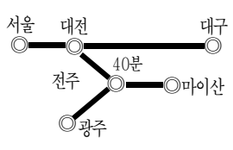
신비의 마이산 탑사
탑영제 방생



▶ 마이산 탑사와 탑영제

관광과 방생을 한곳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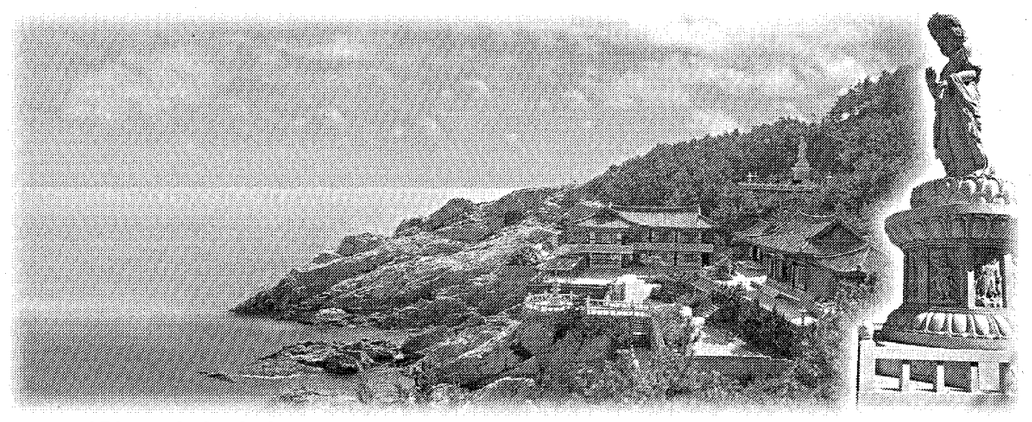
기묘한 산이 있어 좋고, 불가사의한 탑이 있어 신비스러운 곳, 이태조가 백일기도를 드린 영험있는 기도도량. 섬진강 맑은 물의 탑영제 방생기도



진안 마이산 탑사
063)433-2900,0303
432-0652,0072

한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삼사순례 및 방생도량

귀의 삼보하옵고,
해수관음도량인 **해동용궁사**는 앞은 푸른 바다요, 뒤는 산으로 **삼사순례**나 **방생법회** 하는데 가장 좋은 곳으로 유명합니다.
전국의 佛子님께서는 甲申년 새해를 맞이하여 해동용궁사에 오셔서 많은 공덕을 성취 하시기 바랍니다.



◀ 대형 주차장 완비
◀ 입장료 무료
◀ 점심공양 가능
◀ 방생물 배달해 드림

www.yongkungsa.or.kr
한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해동용궁사
HAE DONG YONG KUNG TEMPLE
전화: 051) 722-7744,7755

일 주 문



용천역 사고 어린이 돕기 행사
청소년교화연합회장 현성 스님은 5월 29일 서울 인사동에서 '북한 용천역 사고 어린이 · 청소년 돕기 벼룩시장'을 개최했다.



봉축 등공양비, 정토마을에 전달
강화 전등사 주지 계성 스님은 5월 24일 부처님오신날 봉축 등공양비 중 일부인 3백만 원을 천안 불교호스피스 시설인 '정토마을'에 전달했다.



대불어 37차 지도자연수회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장 정여 스님은 6월 12일 속리산 유스타운에서 제37차 전국어린이지도자연수회를 개최한다. (051)864-4569



위덕대 영덕군과 관 · 학협정
위덕대 한재숙 총장은 지난 5월 27일 한상한 영덕군수 권한대행과 농어촌복지사업 증진을 위한 관 · 학 협정을 체결했다.



동국대 총동창회 제66차 이사회
동국대 총동창회 류주형 회장은 6월 3일 서울 엠버서드호텔에서 동문회관건립 등 66차 정기이사회와 17대 국회의원 당선 동문 축하연을 개최했다.



선산 도리사서 철야정진법회
한국세무사불자회 이선희 회장은 6월 12~13일 선산 도리사에서 상반기 철야정진법회를 봉행한다. 017-260-9334



정기 합동 수련대회
철도청불교단체협의회 조진규 의장은 6월 12~13일 공주 마곡사에서 합동 수련대회를 개최한다. 019-286-4674

인 터 뷰 17대 국회 개원 맞은 초선 불자의원

6월 5일 제17대 국회가 개원했다. 17대 국회 총 299명 가운데 불자는 27명. 타종교에 비해 적은 숫자지만 당당하게 불자라는 사실을 밝히고 부처님 가르침대로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초선 불자의원 5명의 포부를 들었다.



정봉주 의원



최재성 의원



이계진 의원



박세일 의원



조승수 의원

108배 생활화… 교육분야 관심

정봉주 (서울 노원갑 · 열린우리)= 지난 선거기간동안 힘이 들 때 마다 집 근처 하계동의 작은 포교원을 찾았다. 그곳에서 "마음이 어지러울수록 남에게 드러나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고 평상심을 찾으라"는 화두를 얻었다고 한다. 그는 지금도 마음이 어지러울 때면 집안에 모신 불상 앞에서 108배로 자신을 다스린다. "우리사회의 개혁과제가 많지만 교육만큼 시급한 개혁과제는 없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국회 교육위원회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앞으로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꿈을 펼치며 공부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데 힘을 쏟고 싶다"며 활짝 웃어보였다.

당 불자회 활성화에 우선 노력

최재성 (경기 남양주갑 · 열린우리)= 17대 국회 불자의원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인물 중 하나.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한 최초의 불자의원이라는 점 때문이다. 아직은 이런 주변의 인식이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며 "정치인으로서 당당하게 불자임을 밝히고 불교계 현안에 대해서는 당차원에서 검토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다. 이를 위해 "당내 불자회 창립과 활성화에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또 "사교육 문제, 사립학교법 개정, 대학의 서열화, 부와 교육수준의 세습화 문제 등 앞으로 교육분야에 관심을 두고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전투지킴이 자처…"늘 하심할 터"

이계진 (강원 원주 · 한나라)= "상임위 1,2,3지망을 모두 문화관광위로 신청 한사람은 저뿐일 겁니다!" 문화관광분야 의정활동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오랜 세월 방송에 몸담았던 자신의 이력뿐만 아니라 불교의 전통과 문화를 지키고 발전시키는데 꼭 필요한 일이라는 생각에서다. 올 초파일 길상사에서 법정스님에게 3배를 올리고 정치인 '이계진'의 앞길에 대한 조언을 얻었다. "방송인 이계진의 반듯한 모습이 정치인이 되어서도 변하지 말 것과 늘 하심하고 어려운 이웃과 국민을 먼저 생각하라는 스님의 말씀을 임기 끝나는 날까지 마음속에 새길 것"이라고 다짐했다.

화합 · 상생 위한 중도 정치 실현

박세일 (비례대표 · 한나라)= 앞으로 펼칠 의정활동의 핵심을 "세대간 · 이념간 · 계층간 갈등을 끊어내는 중도(中道)의 정치"라고 표현했다. 자신만이 옳다고 믿는 아집을 버릴 때 화합과 상생의 정치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출신으로 초선이면서도 당에서는 중진급 대우를 받는다. 그만큼 당내 주요 정책을 만들어 내는 핵심 브레인이다. 문민정부시절 국가정책기획 수석비서관으로 활약한 그는 요즘도 수시로 절을 찾아 마음을 가다듬으며 '미래지향적이고 이상과 합리성이 조화를 이루는 큰 정치'를 그려 나간다.

정토 향한 국민의 염원 대변

조승수 (울산 북 · 민주노동)= "정치인들의 정치논리와 정치집단의 이해관계에 매달리지 않고 서민을 대변하는 참 정치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50년만의 첫 진보정당의 원내진출이라는 이변을 만들어낸 주인공다운 포부를 밝혔다. 40년을 양산의 작은 암자 한곳을 줄곧 다니는 어머니를 모시고 있다는 조 의원은 동국대에 진학하면서 불교와 더욱 가까워 졌다. "민주노동당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마치 미륵정토를 바라던 조선시대 민중들의 염원과 같다는 생각을 한다"는 조의원은 "노동자, 농민 등 소외계층을 위한 입법활동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용수 기자

자선음악회 수익금 전달

황선 교수, 조계종 총무원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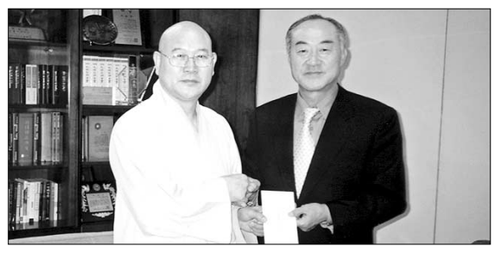


경희대 음악대학장 황선 교수는 6월 3일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을 예방해 지난 5월 열린 '소년소녀가장을 위한 자선음악회' 수익금 1천1백여만 원을 전달했다(사진).

이 자리에서 법장 스님은 "자선음악회가 현대불교를 앞당기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자선음악회는 종교가 다른 국 · 내외 정상급 음악가 20여명이 동참했으며, 황 교수가 기획했다. 여기에 조계종 총무원과 생명나눔실천본부가 힘을 보탰다.

대한불교진흥원, 군포교 기금 전달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서돈각)은 5월 28일 마포 진흥원 임원실에서 군법당 건립 및 군포교 지원금 3천만원을 조계종 군불교위원회에 전달했다. 진흥원 송석구 이사(사진 오른쪽)는 "청년포교 활성화에 유용하게 사용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울산 성불암 개원 · 부처님 점안법회



(사)한국불교 미륵종 울산 성불암(주지 도심)은 5월 17일 사부대중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처님 점안식 및 사찰개원식을 봉행했다. 이날 주지 도심 스님은 "울산 지역의 수행도량으로 자리매김해 불자들의 수행처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길복지관, '어르신 추억의 봄소풍' 개최



서울 신길종합사회복지관(관장 공상길)은 5월 25일 관내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경기 양평 산음자연휴양림에서 '어르신 추억의 봄소풍'을 열었다. 이날 행사는 교복을 착용하고, 당시 유행하던 레크리에이션 및 마음이 젊어지는 산림욕등의 행사로 진행됐다.

파-워봉 통증해결!!

통증의 원인은 혈액순환 장애가 원인이고, 혈액순환 장애의 원인은 氣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면 통증의 종류를 가리지 않는다.

통증에서 벗어나는 비결!

동양의학에서는 통즉불통, 불통즉통(通卽不痛, 不通卽痛)氣가 통하면 아프지 않고, 아픈것은 氣가 통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인체는 기(氣)와 혈(血)과 임파액이 잘 통하면 무병장수할 수 있지만 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으로 근육이 경직되면 기와 혈이 잘 통하지 않고 몸 구석구석이 막히게 되어 머리에서 발끝까지 각종 통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러한 통증에 자연 치유법으로 기와 혈을 소통시켜주면 통증의 종류에 관계없이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파워봉은 육각성과 피라미드 원리와 미약 자기발생의 원리로써 경락의 국소부위를 자극하여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순수한 자가요법이며 자연치유법입니다. 말이 필요없으며 단 한번의 체험이 모든것을 말해줍니다.

사용해 보신분들이 반드시 이웃에 권하고 있습니다.

파-워봉은 11년전에 개발되어 비구니스님들 사이에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스님들과 불자님들의 건강관리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으로 자리잡았습니다.
봉암사를 비롯하여 전국 선방에는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인기를 끌어 왔습니다.
10여년간 파-워봉, 신선대를 사랑해 주신 스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식약청 의료기 제조허가 1119호
품목허가 03-791호
특허청 의장등록 제180471호

특별 스님들께 사은판매!

지난 11년 동안 전국의 수많은 스님들과 불자님들이 파-워봉을 애용해 주시고 이웃에 소개해주신 공덕으로 파-워봉은 이제 세계적 상품으로 성장했습니다.
이에 보답코자 저희는 스님들께 특별 혜택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시중 소비자들에게 공급되는 가격보다 파격적인 가격으로 공급해 드리겠습니다. 스님 주머니 사정에 맞춰 드립니다.(6월 30일까지 한정)

※ 파-워봉으로 신도들을 치료해 주시는 사찰, 암자의 스님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계십니다. 신도확보에 확실한 방법입니다. 파-워봉을 포교용으로 사용하실 종단이나 스님들이 연락주시면 최대한 부담없는 가격으로 공급해 드리겠습니다.



▲ 파-워봉 개발자 이재복

- 천일기공 연구회 회장
- 파-워봉 연구학회 회장
- 한국 안전, 품질혁신재단 이사

<<저 서>>
- 우주파-워의 활용법
- 천일기공
- 통증없이 사는법

조정강의단체
- 중앙경찰학교 국립경찰대학교
- 삼성종합화학(주)
- 한솔개발(주)
- 한국중공업
- 독일동서의학병원 임상실험참가

※ 천일기공연구회 소백산수련원에서는 지금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스님들과 불자님들이 오셔서 수년간 고생하던 건강이 빠르게 호전되어 놀라워 하고 있습니다. 각종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스님들이 오셔서 건강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 5박 6일 코-스와 1박 2일 (토,일)코스의 기공 강좌가 있습니다.

※ 선방에서 정진하시는 스님들 중에서 골반이 틀어져서 고생하시는 스님들 이제 걱정 마세요.
스스로 골반잡는 법이 있습니다.
가만히 누워있는 것만으로 골반이 바로 잡힙니다.

11년의 역사!!
파-워봉 연구학회

주문전화 : **1544-3246**

소백산수련원(경북 영주) TEL: 054)638-2224

좋은것은 외국에서 먼저 압니다. 미국(뉴욕, LA), 캐나다, 독일로 보급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동서의학 병원 의사들을 통해 유럽으로 보급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천일기공**을 치세요



불자 세상보기

고 경 희
시인, 한글문화연대 부대표

우리말글이 천덕꾸러기?

오늘도 산책길에서 '우연찮게' 라는 소리를 여러 번 듣게 되었다. "제가 우연찮게 그 곳에 가봤는데 아주 좋던데요" "내가 우연찮게 그 일을 맡게 됐어" 내 옆을 스쳐간 두 무리가 모두 '우연히' 이라는 말 대신에 '우연찮게' 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었다. 요즘 부쩍 많은 사람들이 무심코 그렇게 말하고 있다. 같은 한국사람이니 새겨듣지, 만약 외국 사람이 들었다면 고개를 갸웃거렸을 것이다.

이처럼 요즘 우리들의 말글살이는 습관적으로 잘못 쓰는 것들이 많다. '너무' 라는 말도 그 중 하나다. '너무' 는 '지나치다' '알맞은 정도를 넘어' 라는 뜻을 나타낸다. 알맞은 정도를 넘었으니, 당연히 '부정적' 인 의미가 전제된다. 그러나 이 말은 뜻을 강조하려다보니 표현이 과장되고 잘못 사용되어 그 본뜻과는 사뭇 다르게 쓰이는 경우가 허다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사랑해' '너무 기쁘다' 는 이미 일반화되어버렸다. '참' '매우' 따위로 고쳐서 사용해야 올바른 표현인데 별 생각 없이 마구 쓰고 있는 것이다.

또 지금 인터넷 언어의 문제는, 이미 도를 넘어 올바른 언어습관을 역설하는 것조차 공허하게 들릴 지경이다. 어느 초등학교 선생님의 말을 빌리면 결석을 한 학생이 결석사유를 알 수 없는 '외계어' (이모티콘을 사용한)로 써서 제출했고, 선생님이 왜 그렇게 썼느냐고 꾸중을 하니까 오히려 그 아이가 더 의아해 하더라는 것이다. 이쯤 되면 이것은 우리 어른들이 그저 개탄만 하고 있을 일이 아니라는 생각에 마음이 급해진다.

이렇게 안으로 풀어야 할 당면 과제들이 쌓여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이유들로 우리말글이 천덕꾸러기 대접을 받고 있다. 서울시가 거듭 발표하고 있는 정책들이 그렇다. '영어 공용화' 니 '영어마을' 이니 하는 경제논리를 앞세운 근시안적 정책들로 우리 국어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더니, 또 이번엔 하루종일 서울시민의 눈과 발이 될 시내버스에 로마자를 대문짝만하게 써 붙이고 다니려 한다. 새로운 버스노선과 종류를 확실하게 시민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해서라는 게 그 이유데, 엄연한 우리말글을 놔두고 왜 로마자를 머리에 이고 다녀야 하는지 참 그 까닭을 알 수가 없다.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특별시의 버스에 우리말글을 제쳐두고 외국 글자인 로마자 도안을 단다는 것은 주권국가 정신에 어긋난다. 또한 우리 스스로 우리말글이 로마자 다음에 놓이는 것을 묵인하는 것이 된다.

언어는 그 민족을 하나로 묶는 중추다. 그 중추 위에 로마자를 세우고 그 새로운 문화적 지배를 자초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문화전쟁 중이다. 요사이 우리말글에 가해지는 안팎의 상황은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실 당시 지배계층의 논리와 조금도 다른 것이 없다. 인접해있는 국가들의 무서운 질주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으며 문화적 공략이 우리 깊숙이 침투해 있으니, 그것을 깨닫고 그 폐해를 저지하고 솎아낼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우리 모두가 지성과 열정을 겸비한 참 한국인으로 거듭 재무장하는 길뿐이다.

강 언덕을 어느새 개망초가 하얗게 덮어버렸다. 오뉴월 우리 산천 어디서나 흔하게 볼 수 있는 개망초는 원래 우리꽃이 아니라 우리꽃들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한 북아메리카가 원산인 귀화식물이다. 언젠가 몇 알의 씨앗이 들어왔을 테지만 지금은 왕성한 번식력으로 우리의 온들을 장악해버렸다. 언젠가 우리의 말글살이가 외래종에 밀려난 토종 식물들처럼 되는 것은 아닐까? 지금은 누구도 절대 그렇게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불자의 눈 논설위원 기명사설

건학 98주년을 맞은 동국대가 과연 한국불교학의 총본산 역할을 하고 있느냐고 묻는다면 긍정적이 대답을 할 수 있는 불교학자가 얼마나 될까? 물론 그동안 동국대가 한국불교학 발전에 끼친 공로는 인정하는 바지만 근래 다른 대학에서도 불교학 전공자가 늘어나면서 자성과 비판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동국대에 불교전문대학원을 설립하는 안은 3년전부터 준비되어 지난해 교육인적자원부에 신청하였으나 인가되지 않았다. 금년부터 동일한 명칭의 전문대학원을 신설할 경우 기존학부를 폐지해야 한다는 교육부의 강화된 조건 때문에 불교사회문화대학원으로 신청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재단 결제과정에서 필요성은 당연히 인정되지만 그냥 제출하여 또 반려당하는 것 보다 학생과 교원의 수급과 단독건물의 공간 확보 및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보완하여 내년에 신청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재단에서 학교경영에 더욱 신중한 검토를 하여

동국대 '불교학 종가' 만들기

내실을 기하고자하는 의지는 대단히 공감하는 바이다.

차제에 불교학부의 발전책도 심도있게 검토하여 한국불교학의 종가격인 위상을 되찾는 것도 시급한 상항이라고 본다. 동국의 100년 역사는 불교학의 역사이다. 현재 불교학부에 입학정원이 불교학과 35명, 인도철학과 17명, 선학과 18명이다. 이 상태에서는 불교학의 질적 발전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동국대는 어떠한 분야의 특성화 보다 불교학을 기반으로 한 특성화가 실행되지 않으면 대학개방의 세계화 과정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심사숙고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동국대는 우선 불교학부를 살릴 수 있는 방안부터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정원의 적정성 문제, 우수학생 영입, 현실에 맞는 교과과정의 개편, 세계화에 걸맞는 우수한 교수의 수급, 질 높은 교육환경 조성 등 다각적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당국자의 의지와 재단, 종단, 동문, 교수들의 개혁적 의지와 획기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 먼저 불교대학을 살리면서 동시에 연구중심의 우수한 학자를 양성할 수 있는 대학원도 발전시켜야만 한국불교의 미래를 희망적으로 바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법산(동국대 교수)

468호 '7천비구니…' 기사에 대한 반론

현대불교신문 468호 15면에 '7천비구니 대변하는 모임돼야' 라는 독자투고가 있었다. 내용으로 보아 투고한 '스마일' 이라는 분은 비구니회에 지대한 관심을 가진 분으로 보이나, 비구니회의 구성이나 조직 또는 역할과 계획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았다.

다만 본인이 생각했던 기대보다 못미치는 듯하여 냉소적인 비판으로 일관하여 질타하였고, 비구니회에 대한 숙지된 지식과 비구니회에 대한 자신의 생각에 대해 비구니회에 문의한 바도 없이 일방적으로 감정어린 내용이었다고 생각한다.

이보다 더한 것은 현대불교신문 기자가 '스마일' 의 글을 보기만 하고 모든 이의 관심거리라고 생각했는지는 모르지만 이성적인 식견이 없이 그냥 기사화하였고 이를 7천여 비구니에게 신문으로 알게 했다는데 문제가 있다.

신문은 그 보도가 공정하고 정당하고 올바른 사회 아름다운 사회가 되도록 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본다. 누구나 신문은 이러한 역할을 한다고 믿고 신뢰하기에 진지하게 신문을 대한다.

특히 현대불교신문은 이보다 더한 승가의 대변이고 진리의 메시지를 사방에 알리는 데 전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현대불교신문에 비구니회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걸러짐이 없는 폄하의 소리를 게재한 것은 상식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이 기사로 해서 비구니회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일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잘못된 오해는 바르게 알도록 해야하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조계종 전국비구니회

특별기고

불미전 30년, 이제 전망을 갖도록 하자

특별전 수용해 대중 호응 이끌어야

무엇보다 나는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이하 불미전)' 의 발전을 염원하고 있다. 하여 제20회에 즈음하여 '제언' 한마디를 한 것이다. 이는 불미전의 역사가 30년이라는 데에서 출발한 것이다. 30년이라, 적지 않은 세월의 축적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에 걸맞는 성과를 이룩했는가. 이 대목에서 아쉬움을 토로할 수밖에 없었다.

나의 제언에 대해 불교미술가와 주최측인 조계종 문화국장의 반론이 제기되었다. 그리고 나의 견해와 입장을 같이한 현역작가의 글도 발표되었다. 이렇듯 뜨거운 반응은 송구스럽기 그지 없게 한다.

나의 제언은 단순했다. 역사도 흘렀으니 이제 불교집안만의 행사에서 일반 미술계를 아우를 수 있는 미술전이 되기를 희망했다. 그러면서 전통미술의 복제와 창작품의 차이를 생각하고 시대정신을 강조했다. 전통미술 자체를 비하하는 발언은 한 적이 없다. 전통미술과 복제 혹은 창의성의 결여는 별개의 문제이다. 오히려 나는 법고창신(法古創新)을 강조하여 전통의 창조적 계승을 염원한다. 사찰의 성물과 미술전의 창작품과는 성격이 다르다. 미술이라는 이름 아래 치루어지는 전시는 창작품을 대상으로 삼는다. 미술이라는 단어에 이미 창의성이라는 함의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미술계와 무관한 미술전, 그것도 30년의 전통을 지니고 있는 불미전은 아마 '세계 유일의 전시' 일지 모른다. 여기서 세계 유일 운운의 표현은 불미전 주최측이 언론사에 배부한 보도자료에서 인용한 것이다. 결코 내가 지어낸 표현이 아니었다. 또한 현대미술(창작) 분야의 제외 관련은 당시 <불교신문>의 기사에도 나와 있는 표현이다.

우리의 불교미술은 글자 그대로 찬란한 역사를 자랑한다.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찬탄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는 수준을 가지고 있다. 나는 이런 불교미술의 찬란한 전통이 오늘에도 살아 우리들 곁에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미술전에서도 이와 같은 희망이 통하기를 바라고 있다. 불미전이 국내의 현역 미술가는 물론 일반 시민들, 아니 외국의 손님들까지 운집할 수 있는 그런 미술전이 되기를 꿈꾸어 본 것이다.

몇 십억 혹은 몇 백억 원의 불사를 소화해내는 불교계의 역량을 염두에 둔다면, 불교비엔날레 하나 개최하지 못할 바도 아니라고 본다. 문제는 의지이다. 하여 비전이 관건이다. 전망이 없는 미술전은 암담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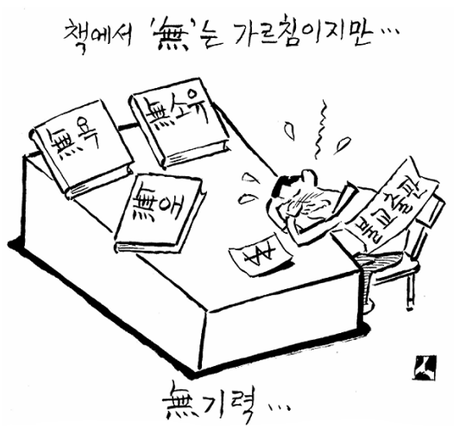
불미전 30년, 이제 전망을 갖도록 하자. 장단기의 계획을 수립하여 불교미술의 찬란한 전통과 오늘의 미술을 국제무대에 올려놓도록 하자. 예산타령보다 이는 의지의 문제라고 본다.

현재 불미전의 장르 구분조차 무색해지는 시대가 올 것이다. 멀티 미디어의 시대이다. 오늘의 젊은이를 생각해 보자. 그러면서 불교미술의 미래를 생각해보자. 현재의 상황이 만족할 수준인가. 불미전은 전문가의 기획에 의한 특별전을 수용하여 대중적 호응을 이끌어 내야 하리라. 그것은 우리의 전통적 불교미술일 수도 있고, 외국의 전통적 불교미술일 수도 있고, 해외의 현역작가의 작품일 수도 있다. 아니 이렇듯 다양한 불교미술이 하나의 주제로 한자리에 모여지는 특별전을 둘 수만 있다면, 이는 꿈에 불과한 것인가. 다양한 미술품을 한자리에 모아 그야말로 불교미술의 국제적 향연을 개최할 수 있는 날, 이는 꿈에 불과한 것인가. 그런데 문제는 장기적 전망의 유무이다. 더불어 그런 일을 진행시킬 인재를 키우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인재양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에게 불교미술관 하나 반반하게 있는가. 전시기획자를 양성하고 있는가. 아니 현역작가에게 창작의 열기를 넣어 준 적이 있는가.

예술처럼 대중에게 감동을 주는 분야도 없을 것이다. 포교의 차원에서 예술분야에 적극 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 인재를 키워야 한다. 무엇보다 전망을 곧추 세워야 한다. 이런 커다란 그림 속에서 불미전의 역할을 기대해 보는 것이다. 30년의 세월을 염두에 두고 빌어보는 한 비평가의 꿈인지도 모른다. 불교미전의 발전을 축원한다.

윤범모(미술평론가 · 경원대 교수)

'현대' 만평 심 민 섭



"행복한 가정 만들기"

제5기 가정폭력 전문상담가 교육생 모집

가정폭력의 증가로 인한 가정해체 현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불교계에서도 가정폭력 전문상담원을 양성
『불교가정폭력상담소』를 곳곳에 설치하여 불행한 사람을 행복으로 이끌어가는 불국토를 만듭시다

본 프로그램은 가정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하여 가정폭력 상담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보다 질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담윤리 7시간, 여성학 15시간, 가정복지 6시간, 상담학 23시간, 심리검사 6시간, 법 9시간, 가정폭력상담 15시간, 성폭력상담 13시간, 상담실습 7시간)등 다양한 접근으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1. 대 상 : ① 자원봉사 희망자
②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③ 가정폭력 상담원 및 1366 상담요원 희망자
④ 가정폭력 상담소 설치 희망자
2. 제출서류 : 경력증명서, 수강신청서
3. 연수기간 : 2004년 6월 25일 ~ 8월 3일까지(오전 10시~12시, 오후 1시~4시까지)
(강의따라 요일 변경)
4. 장 소 : 연꽃 교육장(인사동 4거리 상 갤러리 4층 401호)
5. 수 강 료 : 15만원(당일 등록시 16만원)
6. 모집인원 : 50명(선착순)
7. 신청방법 : 입금후 전화신청(입금처 : 우리은행 098-088769-01-501)
예금주 : (사)한국여성불교연합회
8. 신청기간 : 2004년 5월 20일 ~ 6월 25일까지
9. 문 의 처 : (사)한국여성불교연합회 TEL 02)738-5586, FAX 02)738-7576
http:kwba.or.kr / 한국여성불교연합회 / E-mail : kwba@orgio.net

※본 프로그램의 수료증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인정합니다.

1. 본 프로그램 이수자에게는 보건복지부 인정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자격을 수여함.
2. 본 행복한가정상담소에서 필요시 상담활동(봉사 · 유급)을 할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여성불교연합회 중앙본부

우리 가족에겐 名品이 있다!

20여년을 오직 한 길로만 걸어온
성광수의 수신토종오가피!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성 광 수

*국내 최대 규모 오가피 농장
*2003년 5대 일간지 히트상품 선정
*오가피 관련특허 보유기업(제0322351호)
*2002년 월드컵 선수들이 먹은 그 제품
*오가피전문연구소 개설(제20031860호)
*과학기술부 연구개발 사업참여 기업

나를 위해, 가족을 위해
월드컵국가대표선수들이 먹은
"수신토종오가피"를 챙겨주십시요.

신제품 발매개시 오가피
이젠 어디에서나 간편하게 챙기세요.
수신토종오가피!
5대신문 히트상품선정으로
그 품질을 인정받은 수신토종오가피!
아직도 안 챙기셨어요?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상담과 동시에 오가피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오가피건강상담 무료자료신청 02)447-2004

“도와주러 왔다가 감사하는 마음 배워요”

정신지체 장애인 시설서 봉사 ‘서울구치소 불심회’


서울구치소 불심회 이남수 회장(사진 오른쪽)이 의왕시 정신지체장애인 시설 녹향원에서 박진호씨와 목욕봉사를 하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회원 130여명 순번 정해 매일 방문
목욕·등산·운동·나들이 함께 해
“우리는 눈빛으로 통하는 가족”

올 봄, 입구에 항아리를 가져다 놨다. 여기에 된장 고추장을 집에서 퍼와 담아 넣었다. 낮은 담장 밑에는 봉선화를 가지런히 심었고, 텃밭에 상추씨를 뿌렸다. 시래기도 볏짚으로 엮어 담벼락에 매달아 놓았다.

6월 2일, 의왕시 정신지체 장애인시설 녹향원에서 만난 서울구치소 불심회 이남수 회장(54 · 원광)은 녹향원을 130여 불심회원들이 ‘함께 가꾸는 집’이라고 말했다. 녹향원 막내둥이 교일이(21 · 정신지체1급), 정환 씨(33 · 정신지체1급), 준환 씨(29 · 정신지체2급) 등 7명 모두가 불심회원들의 ‘동생 · 아들’이 되는 것도 이 때문이란다.

오늘은 불심회원들이 목욕 봉사하는 날. 일찌감치 녹향원은 들썩거렸다. 오전내내 창밖만 연신 내다보며 안절부절 했다고 배경주 사회복지사가 귀띔했다. 불심회원들이 매일 근무가 끝나면 순번을 정해 바깥나들이, 등산, 운동 등으로 원생들과 호흡을 같이하다보니, 어느새 오후 6시쯤이면 녹향원은 한바탕 전쟁을 치른다.

잠시 후, 불심회원들이 거실로 들어서자 괴성을 지르며 몰려들었다. 정환 씨는 이 회장의 두 뺨에 얼굴을 비비고, 한국 씨(45 · 정신지제1급)는 문장일 불자(36 · 정도)의 두 손을 맞잡는다. 말은 못해도 서로 눈빛에 반가움이 묻어났다.

하지만 목욕이 시작되면 녹향원 식구들과 실랑이가 벌어진다. 울부짖다 못해 방바닥에 머리를 찧는 준환 씨,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교일이. 되레 간식준비, 청소 등은 ‘누워서 떡먹기’다. 7명의 정신지체 장애인의 옷을 벗기는 것부터 비누질, 물기 닦아주기, 빨래에 이르기까지 손 가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도 씻고 나면 개운해 합니다. 하루 근무, 24시간 당직, 1일 비번으로 이어지는 근무형태로 봉사활동이 조금은 벅차지만 보람과 기쁨만큼은 한없이 큽니다. 뭔가 주려고 오지만 지금은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을 배워갑니다.”

문장일 불자는 이곳에서 2년 넘게 비지땀을 흘리는 이유를 이렇게 말했다. 다른 불심회원들도 마찬가지였다. 특별히 봉사활동에 의미를 두지 않았다. 다만 일상의 한 부분이라는 것이다.

불심회의 봉사활동은 서울구치소 개신교 모임 신우회원의 개별적인 참여도 이끌어냈다. 지난해 3월부터 녹향원 봉사를 해온 박진호 씨(35 · 보안과)는 자원봉사에 종교가 중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서울구치소 불심회의 봉사활동은 지난 87년 창립 초창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2년에 시작한 녹향원을 비롯해 안양 명륜보육원 봉사, 안양시 주변 노인시설 경로잔치 등 꾸준히 소외된 이웃과 만나고 있다. 또 야무진 활동을 위해 4년 전부터 불심회 내 봉사소모임도 꾸렸다. 장의염불팀과 자원봉사팀이 바로 그것. 활발한 소모임은 곧바로 회원들의 참여율도 높여 불심회 신행활성화로 이어졌다.

“불심회원 모두가 교도관을 천직으로 여기듯이 봉사도 해야 할 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봉사가 따로 있겠습니까? 내가 나눌 수 있는 것을 베푸는 거지요. 다만 따뜻한 정이 있어야만 봉사의 의미가 깊어진다고 봅니다.”

이남수 불심회장이 말하는 ‘봉사철학’은 이랬다. 마음가짐이 사심 없어야 진정한 봉사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 회장은 한 마디 덧붙였다. 날마다 업무에 치여 살지만, 불자교정인이야말로 구치소 수감자들은 물론 정신지체 장애인들이 겪는 ‘마음의 징역살이’까지도 훌훌 털게 하는 일터불자들이라고.

의왕=김철우 기자

고사리 손에서 피어난 이웃사랑

삼양어린이집 어린이·부모, ‘아나바다 장’ 열어



서울 강북구 미아2동에 소재한 삼양어린이집(원장 남경희)이 나눔의 보살행을 실천하는 ‘아나바나 알뜰 나눔장터’를 열었다(사진).

5월 25일 삼양어린이집 운동장에서 열린 이날 장터는 어린이집 아이들과 학부모가 가지고 온 의류나 장난감, 일상용품 등을 전시 또는 판매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하자는 취지로 열린 나눔행사. 그래서 이름도 아끼고, 나누고, 바꿔 쓰고, 다시 쓰자는 뜻을 담은 ‘아나바나 알뜰 나눔장터’로 정했다.

아이들의 고사리 손과 정성이 담긴 물건에서 이웃사랑이 피어났다. 미아2동 지역주민을 비롯해 강북구청 주요 관계자, 서울시보육시설연합회에서도 후원의 손길을 보냈다. 이날 생긴 수익금을 주변의 가정형편이 어려운 어린이에게 나눠준다는 뜻이 그들의 마음을 잡은 것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불교용품 전시, 단주 만들기, 소원쪽지 적기, 천연 염색하기, 전통놀이 등 문화체험의 장도 열렸다. 엄마와 아빠의 손을 잡고 소원을 적는 아이들의 해맑은 모습에서는 작은 것도 함께 나누는 온정이 묻어났다.

행사에 참가한 학부모 김순임(36) 씨는 “아이들에게 이웃사랑의 싹을 키우는 뜻깊은 행사가 된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박봉영 기자

장애인 작업시설 운영

진각복지재단, 구청과 위탁계약

서울 도봉구지역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보호작업시설이 7월 1일 문을 연다.

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재단(대표이사 효암)은 6월 2일 도봉구청과 장애인 보호작업시설에 대한 위 · 수탁 운영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진각복지재단은 산하시설인 도봉서원종합사회복지관 옆에 1백여평의 가건물을 건립, 일반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의 보호작업을 실시한다.

보호작업시설에서는 도봉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신청자에 한해 상담을 거친 뒤 장애정도에 따라 직업훈련과 사회적응훈련이 실시되며, 여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전액 장애인에게 분배된다.

박봉영 기자

현대불교와 좋은 벗 풍경소리가 함께 하는 ‘나눔의 손잡기’



“어린이·청소년 법회에 찬불동요 테이프와 CD를 보냅시다”

현대불교신문사와 좋은 벗 풍경소리가 공동으로 ‘전국 어린이 청소년 법회에 창작 찬불동요테이프와 CD 보내기’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순수한 마음을 지니고 있는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아름답고 순수한 부처님의 마음을 담은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창작 찬불동요를 선물해 주세요.

불자님들 한 분 한 분의 정성은 미래의 부처님 되실 어린 불자들에게 ‘불성’을 가꾸어 주는 참된 불사가 될 것입니다.

◀ 어떻게 참여하나

◇종단 · 사찰 · 기업 · 단체 · 개인 모두 동참 가능합니다.

◇본사·연고사찰 단체 등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1구좌 1만원입니다.

◇보급기간: 2004년 3월부터 12월31일까지

◀ 어떻게 진행되나

◇매주 캠페인 내용이 소개됩니다.

◇매달 한번씩 동참자 명단을 게재합니다.

◇아름다운 사연을 본지에 지속적으로 소개.

※ 온라인구좌 / 농협 053-12-132878
예금주: 좋은벗 풍경소리 이종만

※ 문의 / 좋은벗 풍경소리 (02) 723-9836

▮이렇게 참여하세요

♥ 각 종단의 나눔운동과 연결

함께하면 큰 힘이 됩니다. 각 종단과 NGO 복지단체들이 벌이고 있는 사업과 연대합니다. 또 자비의 콘서트(불자가수) 법률 및 세무상담(불자 변호사 세무사) 봉사에 참여하거나 사업연대가 가능합니다.

♥ 나눔의 손잡기 공동체

내가 가진 돈, 힘, 시간, 지식 등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보시하도록 연결해 드립니다. 자원봉사를 원함에도 그 방법을 몰라 실천하지 못하는 불자들의 중개소 역할을 자부합니다. 모범이 되는 봉사자들을 추천해 주세요.

♥ 나눔의 손잡기 기금참여

남을 돕고 싶은 분들은 계좌나 한통의 전화로 자비를 실천하는 ARS(060-700-1080)를 통해 기금을 보내주세요. 결식아동,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장애우 등 우리 사회에서 함께 살고있는 이웃들에게 전달해 드립니다.

♥ 어려운 이웃 사연 제보

주위의 어려운 소년소녀가장, 결식학생, 독거노인, 장애우의 사연을 알려 주세요.

♥ 정기후원 참여

소년소녀가장들과 결식아동들의 후원자가 되어 매월 정기적으로 생활비나 급식비를 줄 수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결식아동과 결연을 희망하시는 분은 연락주십시요.

♥ 불자기업의 사회공헌

기업의 사회공헌은 이제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불자기업들과 불교복지시설을 연계하여 후원하거나 시설을 건립해 드립니다.

♥ 외국인 노동자와 불교지도자 자매결연

불교권 국가의 외국인 노동자와 불교계 각 종단 스님과 단체 운동가간 자매결연을 추진합니다. 불안에 떨고 있는 노동자들과의 결연을 희망하는 스님과 불교지도자들을 모십니다.

♥ 각 사찰의 공양미 나누기

불자들이 보시한 각 사찰의 공양미를 소년소녀가장 및 독거노인들에게 지원해주세요. 어려운 곳이나 복지시설에 공양미를 보내고 싶은 사찰은 본사로 신청해주시고, 공양미가 필요한 시설은 연락바랍니다. 과일과 김장, 양념, 라면, 과자류 등 식품도 접수 받습니다.

♥ 자비의 헌혈증 및 장기기증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헌혈증을 보내주세요. 장기기증에도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 보고싶은 가족찾기

미아는 물론 실종가족과 이산가족, 입양아들을 찾아드립니다. 사연을 보내주십시요.

나눔의 손잡기 우리이웃 현대불교신문 · buddhanews.com

도와주세요

“앉기만이라도 했으면…”

20여년 투병…가족조차 등 돌려



‘뺑소니 사고에 20년간 하반신 마비, 장기투병으로 욕창까지 생겨 일어나지도 안지도 못하는 신세….’

홀홀 단신 외롭게 투병생활 중인 50대 불자가 병원 치료비가 없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지체1급 중도장애인 김일출(51 · 사진) 씨는 현재 치료에 필요한 기계대여비 2백만 원과 병원입원비 60여만 원 등을 지급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1주일에 40여만 원씩 소요되는 욕창치료비 등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환경미화원이었던 김 씨의 불행은 지난 1984년 뺑소니 차량에 치여 척추를 크게 다치면서 비롯됐다. 게다가 뺑소니 차량 범인을 잡지 못해 결국 수술비와 병원비는 고스란히 김 씨의 몫이 됐고, 오랜 투병생활로 급기야 가족, 형제 모두에게 버림을 받게 됐다.

특히 김 씨는 긴 병상생활로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겨 최근 엉덩이와 골반부분에 욕창이 생겨 지금은 주먹이 들어갈 정도로 살이 심하게 패였다.

도움을 주실 분은 후원계좌 농협 계좌번호 : 053-01-243778(예금주 : 생명나눔)을 이용하면 된다. (02)734-8050 김철우 기자

▮성금내신분

대구 정안농산 – 3만6천원
부산 이제권 – 5만원
서울 임채양 – 1천280원
천안 윤석길 – 2만7천130원

▮알립니다

현재 1차 저금통 수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찰이나 단체에서는 직접 개봉하여 온라인으로 입금해 주시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02) 722-4162. 입금계좌: 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김원우

▮나눔의 저금통 신청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동방암 법연스님
저금통-100개

▮나눠드립니다

우리사회에는 현재 점심을 굶는 어린이들이 1만4천여명이나 되고 6천여명의 소년 · 소녀가장, 64만여명의 독거노인 등이 한 하늘아래 살고 있습니다. 이웃들과 마음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불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나눔 저금통 분양합니다



원숭이해를 맞아 원숭이 저금통을 분양합니다. 저금통은 회사, 가정, 가게, 단체 사무실 등에 비치하시면 됩니다. 특히 불자가 운영하는 가게에 기금 모금용 저금통을 비치할 경우 ‘나눔의 가게’로 선정해 드립니다.

스티커 드립니다

사찰, 자동차, 건물, 가방에 붙일 수 있는 나눔의 손잡기 스티커를 나눠드립니다. 나눔의 손잡기 스티커는 조선일보가 전개중인 ‘우리이웃’캠페인과 상호 협조에 의해 엠블럼을 공동 사용합니다.

파사석탑 전설 되살려 가야 불교 복원 이룬다

향토사학자 허/명/철 금강병원장


파사석탑의 문양을 설명하는 허명철 원장. 이 문양은 인도의 아잔타 엘로아니식에서 볼 수 있는 형태임이 입증됐다.

김해 구산동 구지봉 산자락에는 사적 제 74호인 가야 수로왕비 허황옥의 무덤이 있다. 무덤 앞에 가면 허황후가 인도 아유타국에서 가야로 시집오면서 가져 온 탑이라고 전하는 파사석탑(婆娑石塔)을 만날 수 있다. 닳을 대로 닳은 20㎝ 두께의 불그스레한 돌 다섯 개를 쌓아놓은 이 탑은 불과 15년 전까지만 해도 '풍랑을 잠재워 안전 항해를 하게 해 준다'는 전설을 믿는 사람들에 의해 탑신의 훼손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 파사석탑 주위에는 탑을 보호하기 위한 전각이 세워졌고 3년 전에는 지방문화재로 등록되기까지 했다.

파사석탑의 이 같은 변화를 이끌어낸 장본인은 김해 금강병원 허명철(59 · 향토사학자) 원장. 1981년부터 김해의 문화사를 연구한 자료를 바탕으로 87년 <가야불교의 고찰>이라는 저서를 낸 바 있는 허 원장은 가야불교에서 빠뜨릴 수 없는 허황옥과 파사석탑의 정체를 추적했다. 문화재관리국이나 불교계에서조차 탑으로 인정하지 않아 '돌무더기'로 방치되었던 파사석탑에 대한 허 원장의 짝사랑이 시작된 것은 이듬해인 1988년.


김해 구산동 구지봉에 있는 파사석탑.

"<삼국유사>의 기록을 어떻게 하면 학문적으로 입증할 수 있을까 여간 고민이 아니었지요. 허황후의 숨결을 느끼며 파사석탑에 하루에도 몇 번씩 갔습니다. 탑 앞에 앉아 좌선도 하고 어루만지기도 하며 한시도 탑을 잊어본 적이 없었죠."

환자를 진료하는 틈틈이, 심지어 점심 식사까지 걸러가며 6개월 동안 200회가 넘게 파사석탑을 드나들자 '탑에 미쳤다'는 말까지 들어야했다. 그러나 허 원장의 파사석탑에 대한 열정은 가라앉지 않았다.

파사석에 닭벼슬 피를 묻히면 피가 응고되지 않고 흘러내린다는 기록을 토대로 실험한 결과 탑의 재질이 우리나라에서는 나지 않는 파사석임을 밝혀냈다. 인도에서 건너온 탑인지를 밝히기 위해 우리나라 석탑과 인도의 석탑에 관한 문헌을 모조리 뒤지지 시작했다. 그것도 모자라 허 원장은 일반적인 것과 모양이 다르다는 탑을 찾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파사석탑이 우리나라 일반적인 석탑 및 부도와는 형태나 구조면에서 아주 판이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때 허황후가 인도에서 가져온 게 분명하다는 심증이 굳어졌어요. 그렇다면 허황후가 파사석탑을 갖고 왔다는 AD 48년 경 인도에서 조성됐던 탑과 파사석탑의 연관성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파사석탑과 인도 석탑간의 연관성을 밝혀낸다면 한국 최초로 가야에 불교가 전래되었다는 가야불교사 복원의 실마리를 찾는 셈이었다. 허 원장의 가야사 복원을 향한 꿈은 더욱 간절해졌고 파사석탑 앞에서의 좌선과 기도는 더욱 잦아졌다. 기도 덕분이었을까? 파사석탑 밑 땅속에서 백의관음보살상이 두 손을 내밀며 당겨달라고 하는 꿈을 꾸고 파사석탑의 밑부분을 자세히 살핀 결과, 탑돌 아래 부분에 인도 사원에서 볼 수 있는 특이한 문양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허 원장은 드디어 파사석탑의 분해 재조립을 결심했다. <삼국유사>의 기록대로 사각형 원형을 석고로 본을 떠 복원했더니 인도 동굴사원인 아잔타 엘로아니식에서 볼 수 있는 탑의 형식임을 입증하게 됐다.

"탑이 <삼국유사>에 기록된 대로 인도에서 건너온 것이 분명하며 가야불교사를 입증할 유일한 국보급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다"고 허 원장은 강조했다. 금강병원 복도에 전시된 석고 파사석탑 원형은 수많은 환자들과 직원들이 오가는 복도를 지키며 허 원장의 가야사 복원을 향한 원력을 대변해주고 있었다.

파사석탑과의 인연에 이어 허 원장은 또 다른 돌과의 특이

외면시 되던 '돌무더기' 학문적으로 밝혀
200회 넘는 탑 답사 '탑에 미쳤다' 소리도
전국돌며 문헌조사, 구조·재질·형태 파악
탑돌이 부분 문양발견으로 인도 전래 입증



한 인연을 맺었다. 이 돌은 김해 동림사 입구에 가면 만날 수 있다. 파사석탑 연구에 한창이던 어느 날, 발자국을 따라 산을 오르니 용이 힘을 잃고 쓰러져 있는 꿈을 꾼 뒤 허 원장은 가야인의 후예라는 자긍심으로 관음보살의 원력을 김해 시민들의 가슴에 심어주기 위해 신어산 자락에 관음보살상 조성을 발원했다. 우여곡절 끝에 이리에서 높이 100m, 폭 3m, 무게 360여 톤에 달하는 거대한 돌을 구할 수 있었다.

"흠집 하나 없는 돌을 캐내고 그 돌을 옮기기 위해 외국에서 차를 수배하고, 차체를 이어 붙이고, 서울 인천 등지에서 크레인을 수배하고 돌의 무게 때문에 수시로 터지는 타이어를 교체해 가며 바지선에 옮겨 싣고 부산까지 왔습니다. 이 모든 일이 부처님의 힘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죠."

이 과정에서 세계의 명상서적을 두루 읽고 명상 수행을 생활 속에서 실천해 왔던 허 원장은 심력(心力)을 온통 쏟아 부었다. 산신각 기도 원력으로 태어나 일월성신을 향한 절을 하며 경외심을 품고 자란 허 원장은 고등학교 때 어느 스님의 권유로 관세음보살 백연화 수진언인 '옴 바아라 미라야 사바하'를 뜻도 모르고 일삼아 외워왔으니 관음보살 조성을 위한 일체의 과정은 모두 부처님의 힘과 관음의 원력이었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이 세상에 내가 한 것은 없으며 다만 심부름에 나를 써준 것에 감사할 뿐"이라는 허 원장은 "김해 시민들의 마음이 모이면 관음보살 조성이 현실화 될 것으로 믿는다"며 무위(無爲)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몸은 바빠도 마음은 한가해야 합이 없는 행이 아니겠어요? 지금 3만평에 달하는 병원 건립중이라 몸은 눈코 뜰 새 없지만 모두 헛일이고 오로지 그 근원을 살피는 것만이 진짜배기입니다. 방귀를 뀌었으면 냄새나 소리에 속지 말고 그 방귀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물어들어가야 하잖아요." 허 원장의 역사 연구는 근원을 알고자 했던 그의 수행 이력과 맞닿아 있음을 느끼게 했다.

'놓아라. 놓아라. 다 놓아라. 무주공산에 한 물건뿐이다. 요뭐꼬?' 허 원장이 스스로 만들어 지니고 있다는 화두처럼 흰 고무신을 신고 파사석탑 앞에 선 허명철 원장은 이미 파사석탑에 대한 사랑마저 놓아버린 듯 초연해 보였다.

글=천미희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신개발 玉 佛 (옥불)

천연 비취 옥을 이용, 압축 성형하는 최첨단 공법으로 기존 옥불 보다 더욱 정교하고
정밀하며 가격 면에서도 월등히 저렴합니다.
비취 옥 불상 조성 불사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 종류 : 석가, 관세음, 지장, 약사불 외 각종 옥불 가능 ■ 크기 : 7인치, 1자, 2자반, 3자 ■ 108불, 500불, 1,000불, 3,000불, 10,000불

정심원 옥불의 좋은 점
1. 변색이 전혀 없어 장기간 깨끗하고 미려합니다.
2. 옥에서 기(氣)가 발생하여 건강에 좋습니다.
3. 개금할 필요가 없어 차후 금전 부담이 없습니다.
4. 금이 가거나 깨질 염려가 전혀 없습니다.
5. 법당 내부나 외부에도 모실 수 있습니다.
6. 가격이 저렴합니다.
7. 화재시 타거나 변색이 전혀 없습니다.

영가위패단





의 장 등 록 제 20819호
실용신안출원 제 15466호

영가위패의 좋은 점
1. 혁신적인 기술로 최첨단 직류전원장치를 사용하여 화재 및 감전의 위험성이 전혀 없습니다.
2. 자석과 특수가공 철판을 사용하여 탈,부착이 용이하며 수정아크릴을 사용하여 장기간 사용하여도 변색되지 않고 깨끗합니다.
3. 위패 한위 한위마다 연화문양을 조각하였고, 상단에는 닫집 문양을 넣어 현대감각과 불교미술적 조화로콤팩트하고 장엄합니다.
4. 장소를 적게 차지하여 같은 장소에 많은 영가를 모실 수 있습니다.
5. 특수 반도체 전구를 사용하여 반영구적이며 전기료도 거의 들어가지 않아 경제적입니다.
6. 위패 한위 한위마다 인등처럼 불을 밝혀 미려하고 장엄합니다.

인 등



안전하며, 편리하고, 디자인까지 완벽한 정심원 인등
- 일반 인등 - 석가, 관세음, 지장, 연꽃, 산신, 호롱
- 호박 인등 - 산신, 연꽃
- 크리스탈 - 연꽃
- 특수인등 - 삼존불, 주존불
- 특수 반도체 전구 인등 - 지장, 관세음, 석가

저희 정심원 제품은 가격상승의 원인이 되는 불필요한 유통을 줄이고자 불교용품점에는 일체 납품하지 않고 사찰에 직접 보급합니다.

영가위패 · 인등 · 옥불 전문
正 心 院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식사동 1474
전화 031)969-6310 핸드폰 011-724-0455



장휘옥 박사의 세계각국 수행처 탐방기

"세계의 유명한 수행처일수록 교리를 중시한다. 또한 스승과 제자가 개별적으로 만나 수행 진척사항을 점검하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갖고 있다."

일본, 동남아, 유럽 등 세계 각지의 다양한 수행법을 체험한 미래학불교학회 장휘옥(53) 회장의 결론이다.

장 회장은 최근 미래학불교학회 학술세미나에서 '불교수행의 세계적 현황과 그 미래'라는 주제로 발표한 논문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많은 선지식들이 나오기 위해서는 수행과 교학의 병행과 함께 늘 점검해 줄 수 있는 지도방식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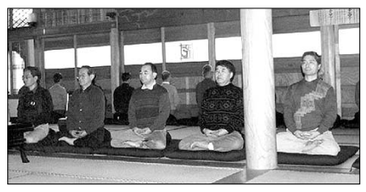


사념처 가운데 마음을 위주로 관찰하는 미얀마의 쉐우민 센터.



프랑스 플럼빌리지의 행선 장면. 맨 왼쪽이 틱낫한 스님.

"교리없는 수행은 위험 수행 빠진 교리는 공허"



일본 교토 좌선회의 정진모습.

명성 높은 곳일수록 교리 중시 제자들의 수행 상황 정기 점검

일본 도쿄대에서 화엄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십여년 이상 동국대 등 대학 강단에서 연구와 교육에 전념했던 장휘옥 박사. 장 박사는 지난해 3월 그동안 익힌 불교학을 실참으로 확인하겠다는 절박한 발심으로 교수라는 '보장된 직업'을 포기하고 구도행에 나섰다. 이 논문은 그동안의 감회와 수행담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지난 1년간 각국의 수행센터와 선지식들을 찾아다닌 구법여행을 시작한 것은 각기 다른 전통에서 계승되어 온 수행법들을 체험해 봄으로써 자신의 눈도 새로 뜨고 한국불교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데도 일조하고 싶었다는 게 그녀의 취지였다.

●日, 독참제도 눈길=이 논문에 따르면 장 박사가 처음 방문한 곳은 **일본** 임제종 향옥사파의 참선도량인 **고오가쿠지**(向嶽寺)였다. 이 절은 중국 송나라 때 선 수행과 생활 모습을 거의 그대로 계승하고 있었으며, 지금도 양식이 떨어지면 스님들이 탁발을 나갈 정도로 청빈한 생활을 하고 있다. 특히 여름, 겨울 안거기간에는 하루 15시간 이상 좌선할 정도로 용맹정진 하고 있다. 입선 중에는 조금 졸기만 해도 딱딱 내리치는 장군죽비, 겨울에도 문을 모두 열어놓고 좌선하는 모습, 노동 즉 울력을 중요시 하는 전통에서 일본 선불교가 아직도 펄펄 살아있음을 뼈저리게 체험할 수 있었다고 장 박사는 소개했다. 특히 그녀는 이곳의 가장 큰 장점으로 제자가 스승에게 매일 1~5회씩 자신의 견처를 보이고 점검을 받는 독참(獨參)제도를 꼽았다.

장 박사는 미야모토 다이호오 방장스님과의 대화를 통해 '화두를 하나만 들지 않고 단계별로 화두를 바꾸어가며 드는 이유'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다. "화두를 단계별로 바꾼다는 것은 화두 하나를 온전히 깨쳤는지 점검하는 방법에 불과합니다. 화두 하나를 온전히 깨쳤다면 1700개 화두를 다 들이대어도 그 자리에서 다 뚫을 것이니, 화두를 바꾼다는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장 박사는 "하루 15시간씩의 좌선을 수행해 본 결과 방장스님의 말처럼 '좋은 스승이 있으면 언제라도 좋은 제자가 배출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묵언·오후불식 체험=일본의 간화선을 체험한 장 박사는 다시 **미얀마** 양곤의 **쉐우민 센터**를 방문했다. 새벽 3시 30분부터 오후 10시 잠자리에 들 때까지 몸과 느낌, 마음, 법 등 사념처 가운데 마음을 위주로 관찰하는 쉐우민 센터의 위빠사나 수행은 좌선과 행선을 중심으로 계속됐다. 이곳에서 그녀는 묵언과 오후불식을 철저히 지키는 집중수련 코스에 참가했고 이 곳을 대표하는 고승 우 떼자니야 스님과 문답도 가졌다. "알아차리는 마음의 자세만 바르면 대상은 저절로 바른 대상이 됩니다. '어떤 마음자세로 수행하고 있나?' 하고 항시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장 박사는 우 떼자니야 스님의 가르침처럼 위빠사나의 핵심은 '사띠(sati)', 즉 알아차림에 있으며, 남방불교의 수행 도량에서도 철저한 지도점검과 경전 공부가 필수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장 박사는 베트남 출신의 틱낫한 스님이 **프랑스** 보르도 지방에 세운 **플럼빌리지** 명상수련센터도 찾았다. 이곳에서 그녀는 일주일 동안 울력명상, 진리토론, 대지와 접하기, 게으름의 날, 팃낙한 스님의 법문 등으로 이뤄지는 수행코스에 동참했다. 장 박사는 틱낫한 스님과의 인터뷰를 통해 플럼빌리지의 수행프로그램은 '이 순간에 일어나는 일을 호흡과 걷기 명상을 통해 알아차리고, 모든 존재가 그물처럼 얽혀 있다는 자각 아래 더불어 살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모든 존재 그물처럼 얽혀 있음 깨닫기=장 박사는 구산 스님의 제자로 **영국과 프랑스**에서 한국 선을 지도하고 있는 마틴 베츨러와 스티븐 베츨러 부부, 숭산 스님의 제자로 **폴란드** 등에서 선을 지도하고 있는 우봉 스님, 파리 길상사 주지 무이 스님 등을 면담하기도 했다. 이어 그녀는 중관학의 세계적 거장이자 선 수행자인 **스위스** 로잔대학의 자크 메 교수를 만나 일주일간 함께 생활하며 그에게서 유럽불교의 희망을 발견하기도 했다.

1년여에 걸쳐 수행법 체험을 마친 장 박사는 "어느 수행이든 자신의 근기에 맞는 수행법을 선택해 꾸준히 노력하면 깨달음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그녀는 "교리없는 수행은 위험하고 수행없는 교리는 공허하다"는 말로 선교쌍수(禪敎雙修)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장 박사는 현재 남쪽 바닷가 외딴 섬 오곡도에 조그마한 수행처를 마련해 내면을 향한 구도여행을 다시 시작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힘들게 살지 않아도 된다!
왜?
홈페이지 : 빈마음

각묵 스님의 '놓치고 있는 수행의 핵심'에 대한 반론

간화선의 전통 수행법과 배치

본지 475호에 보도된 각묵 스님의 〈청정도론〉 완역 기념 특강(5월 18일)과 관련, 이상호(법명 성조, 위덕대 불교대학원 석사과정 수료) 씨가 반론문을 보내왔다.

관행과 타성 속에 안주하려는 수행자들의 각성을 촉구하는 애정 어린 비판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특강의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보면 간화선 자체에 대한 비판이거나 간화선적 입장에서의 대안이라기보다는, 전통적인 간화선 수행법과 배치되는 다른 수행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자칫 간화선 자체를 부정하는 듯한 결론이 도출된다. 문제는 그 전제가 왜곡되어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첫째, 이 특강은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조사에 의한 근거없이, 막연히 깨달음을 향해 가는 수행자를 들어 수행방법을 도외시하고 돈오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단정하거나, 일자무식운동을 강조한다고 비판한다. 하지만, 간화선 수행은 실참실수를 행하되, 반드시 스승의 점검을 받도록 강조한다. 또한 조사어록, 천 칠백여 공안집 등 선서를 나침반으로 삼아 다양한 일상생활에서 나투어지는 불교의 모습들을 간명직절하게 체득하며 배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일자무식운동이라고 평한다면 그야말로 단편적인 사고라고 아니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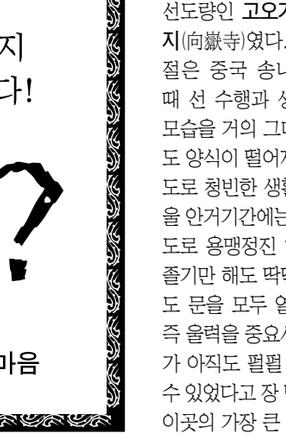
둘째, 간화선 수행자가 깨달음의 당체를 건립하여 그것을 굳게 움켜쥐고 있다고 하나, 간화선에서는 어떠한 당체도 세우지 않기에 때로는 '무일물'을 말하고 '살불살조'를 말하며, 혹은 '백척간두 진일보'를 말하고, '향상일로'를 말한다. 이것은 모든 얽매임으로부터 벗어나려 하는 것이다. 비록 진아, 본성, 자성, 주인공, 불성 등이라고 말하는 바가 있더라도, 그것은 하나되는 대상으로서의 개념이 아니라, 이미 붓다가 깨달은 바이고, 선지식들이 깨달은 바이며, 또한 자신이 깨달아야 할 바를 제시하기 위한 방편임과 동시에, 수행의 길을 끝까지 가기 위한 동인(動因)으로서의 역할을 중시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것을 외도라고 말한다면, 외도가 아닌 간화선 수행은 어떤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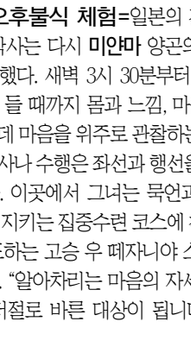
셋째, 깨달음에 대한 갈애를 키우고 있다고 하나, 간화선에서는 의정을 가지라고 할 뿐, 갈애를 키우라고 하지 않는다. 설령, 수행 과정에서 그 의정이 갈애가 된다손 치더라도, 그것은 궁극적으로 갈애를 버리고 의정을 깨뜨리기 위한 사전 준비이다.

넷째, 본래부처요, 본무번뇌라는 무사선에 빠져 있어 무명 속에서 탐진치에 휘둘리는 중생의 실상을 무시한다고 한다. 그러나 간화선에서 모든 중생이 본래 부처임을 먼저 믿고 들어가도록 하는 것은 깨우침으로 가는 중요한 관건이 된다. 왜냐하면, 중생의 성품이 따로 있어 중생이 되는 것이 아니고, 부처의 성품이 따로 있어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이법이다. 만일 중생이라고 못 박고 하는 수행은 평생 중생 노릇 밖에는 못한다. 그래서 간화선에서는 본래 부처라는 대신심(大信心)을 갖도록 적극 권장하는 것이다. 또한 무명 속에서 탐진치에 휘둘리는 중생의 실상이 본래 부처이므로, 번뇌도 본래 번뇌가 아닌 것으로 본다.

다섯째, 간화선은 앉는데 집착하면서 깨달음과 적정처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간화선은 예나 지금이나 일상선이며, 어느 곳에서나, 어디서나, 그 무엇에도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다. 비록 간화선에서 좌선을 강조하기도 하지만, 행주좌와 어묵동정 간의 화두일념을 가장 중시하는 수행방법이다.

위와 같이 정상적인 간화선 수행자가 지침으로 삼는 전통적인 수행체계 내지 근거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잘못된 전제를 바탕으로 간화선(수행자)을 비판하고 이끌어낸 결론으로서 교학적인 점검 내지 위빠사나 수행법에 대한 권장은, 자칫 교학과 위빠사나 수행법의 확장을 위해 간화선을 비판하기 위한 비판으로 비춰질 수 있다. 간화선의 진정한 정체성 재확립에 한 발 다가서는 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그대들이 진정 "불살생계(不殺生戒)"의 뜻을 아시는가?
아아 관세음보살(觀世音菩薩)!
아바로키테 스바라 보디사트바
벽관돈오(壁觀頓悟) 달마선사(達磨禪師)님의 송(頌)과 해동초조(海東初祖) 원효성사(元曉聖師)님의 소(疏)를 따라 살펴보는 이야기
참으로 부끄럽사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 사람의 수행인(修行人)임을 자처하는 저의 죄가 너무 크옵니다.
금과옥조(金科玉條)와도 같은 그 제1계 "불상생계(不殺生戒)"의 뜻 하나 제대로 올바르게 전파하지 못하는 이 무능력함.
여기 하 답답한 나머지, 그 때나 지금이나 사람 살기는 마찬가지인 이 오탁악세
(五濁惡世)에 ...

"관세음보살"은 정녕 어떻게 하여 스스로 오안(五眼)과 삼덕(三德), 즉 반야(般若)·해탈(解脫) 법신(法身)을 구족(具足)하여 제도 하셨던가.
해동초조(海東初祖) 원효성사(元曉聖師)님의 소(疏)와 벽관돈오(壁觀頓悟) 달마선사(達磨禪師)님의 송(頌)을 빌어다가 다시금 현실에 사무쳐 되새겨 보는 것으로 감히 무상참회의 서(序)로서 삼고자 합니다.
자명 편저 / 도서출판 화담 / 신국판 137쪽 / 값 10,000원
●보급처 : 불교서적 총판 법우당 02)994-4437
●문의처 : 043)851-1080, 팩스 043)853-8909

관 절 염
자 생 환(自生丸)
관 절 염
류마티스
초기 퇴행성관절염
혈액순환장애
디 스 크
약간의 활동이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쑤시고 저리는 경우 자생환(自生丸)을 복용후 1개월부터는 확실한 효과가 나타남
선천성 냉체
산후바람
낭 습 진
자생환(自生丸)을 2-3주만 복용해도 효과가 나타남
"
자생환(自生丸)의 뛰어난 효과
때문에 입에서 입으로
소개되어 많은 고객으로부터
주문 및 문의가 쇄도
"
▶주의사항 - 심장질환자, 폐질환자, 임산부 음주전후에 복용금지
관절염은 참 견디기 힘든 병입니다.
빠마디의 통증은 통증대로, 약을 먹으면 위장장애 때문에 이중으로 고생을 합니다.
자생환으로 근본적인 치료를 해보세요
상태가 심한 분은 3개월 이상 복용해야 합니다.

1개월분 ₩180,000
2개월분 ₩320,000
발명자 : 민속의학자 권재우 옹(경남 산청)
주문 및 상담전화 (055)972-4054
한방을 선도하는 기업
骨仁製藥(株)

줄 탁 동 시
(참선 · 부처님 호흡법, 자동단전호흡법, 챠크라 여는법)
◆ 쪼그리고 앉아 배꼽아래 명치를 손으로 쥐어보면 불행과 병고액난의 화병 덩어리가 잡히는데, 중단전 챠크라가 막힌 것으로 이런 사람은 호흡수련이나, 염불, 독경, 주력, 위빠사나, 참선을 하면 할수록 가슴이 더 답답해지고 배꼽 주변에 딱딱한 덩어리가 생기고 배에 가스가 차고 허리나 손가락 마디가 까맣게 되며, 얼굴이 붉어지고 상기병이 되므로 수행의 제일 우선 과제는 중단전 챠크라를 여는 것입니다.
◆ 중단전 챠크라 지옥 덩어리를 간단한 수행의 비법으로 찰라에 뚫리게 하여 순간 수승화강이 되어져 머리에선 서늘한 바람이 나오고 손, 발, 배는 따뜻해지며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게 된다.
◆ 위빠사나, 참선 단전호흡 수행시 고개를 숙이고 어깨가 쳐지고 허리를 약간이라도 구부리고 또한 너무 반듯한 자세로 경직되면 교감신경의 작용으로 100% 상기병 걸리니 자세법, 이완법, 집중법을 철저히 배우고 수행해야 한다.
◆ 염불, 독경, 주력 수행의 들숨시에 배가 들어가고 어깨, 가슴이 들먹거리는 역호흡으로 숨을 들어마시게 되면 불행의 늪인 병고액난을 자초하는 것이니 자동단전호흡법을 배우시게 되면 몸과 마음과 호흡이 참으로 건강한 수행자가 되어집니다.
△ 자동단전 호흡법의 기초에서부터 참선 수행을 잘 할 수 있는 테크닉과 심신건강의 비법을 배우게 됩니다.
☞ 수련일시 : 매주 목요일 낮 반 : 오후 1시, 저녁반 : 오후 8시
☞ 수 련 비 : 입회비(만원), 수련비(월: 3만원)
☞ 오시는 길 : 지하철 5, 7호선 군자전철역 4번 출구에서 천호방향으로 100M 이망스 가구 4층
법왕정사 서울 군자법당
☎ 전화: 02)456-4994, http://cafe.daum.net/sorisan
"숨을 氣차게 잘 쉬는법" 책 5월 출간 예정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 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 교회, 창고, 공장, 가정집(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서 울 : 011-379-0667
강원도 : 010-3044-9708
경기도 : 019-690-4018
충청도 : 011-327-7697
경상도 : 016-9294-8580
전라도 : 011-368-0667
조은칼라지붕공사



불교포럼이 5월14일 개최한 '명상의 사회적 의미'에 참석한 토론자들.



불교포럼 세미나와 더불어숲학교 강의에서 잇따라 발제자로 나선 명상가 박석교수(오른쪽).

현대문명의 위기 명상으로 극복

'명상의 사회적 의미' 주제 2곳서 세미나 열려

불교의 '참선', 기독교의 '묵상', 유대교의 '까발라'…. 명상은 각 종교의 핵심적인 세계관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심신 수련법의 하나였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오면서 명상은 종교적인 울타리에서 벗어나 속세로 내려오기 시작했다. 특히 근대 서구문명의 폐단을 치유하는 하나의 대안운동으로서의 가능성을 내보이면서 심리학, 과학 등의 분야에 다양하게 응용돼 왔다.

최근 불교포럼(대표 김연규 · 임완숙 · 김광하)과 더불어숲학교(교장 신영복)가 개최한 두 세미나는 이 같은 사회 현실과 명상의 관계에 주목한 자리였다. '명상의 사회적 의미(5월 14일)', '사회의 명상화, 명상의 사회화(5월 22~23일)'를 주제로 각각 열린 세미나에서 잇따라 발제한 명상가 박석(상명대) 교수는 "명상은 현대문명의 위기를 극복할 힘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명상은 인류의 정신적 능력을 빠른 시간에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방편"이라며 "명상을 통해 물질적 능력과 정신적 능력의 괴리현상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그 극복의 힘은 바로 욕구의 자율적인 조정능력. 명상을 제대로 하면 자율적으로 적게 먹고 적게 소비하게 되며, 그것으로도 깊은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 같은 '명상적 삶'은 물질적 욕구 증대로 대표되는 자본주의 문명의 폐단을 치유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꼽힌다.

박 교수는 또 명상이 현대 종교인의 삶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그는 "명상은 현재의 종교가 지니고 있는 기복적인 신앙이나 도그마화된 교리체계를 극복할 수 있는 훌륭한 도구"라고 말했다. 언어 너머의 그 자리를 직접 체험한 것을 강조하는 명상은 종교적 도그마와 무관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이것이 결국에는 종교 간 갈등해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 욕구 자율조정능력 커져
> 적게 소비하고도 만족감 높아
> 물질-정신적 능력의 괴리해소

그러나 이러한 명상 속에도 해결돼야 할 부분이 있다. 박 교수는 명상에서 신비적인 요소를 걷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명상 과정에 경험하게 되는 '주관성과 객관성의 혼동'을 경계할 것을 주문했다. 예를 들어 명상시 깊은 이완이나 집중력 향상 등은 객관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개인적인 체험을 '깨달음의 경지'라 착각하는 등의 주관적인 느낌을 유의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는 집단주관적인 착각으로 확대돼 사회와 소통불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박 교수는 이와 관련해 '명상의 과학화'를 제시했다. 그는 "명상에서 나타나는 효과의 상당부분은 심리적 기대치에 의한 플라세보 효과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명상의 생리적 · 심리적 효과를 밝히는 연구들이 명상의 보편적인 원리를 밝히는 체계적인 단계로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효과에 대한 과학적 검증과 더불어 명상을 제도권 학문으로 발전시킬 것과 명상교사에 대한 자격요건을 강화할 것 등 세부적인 노력 또한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곧 '올바른 명상'의 문제와 연결된다. 불교포럼 토론에 참가한 유마선원 이제열 원장은 "올바른 명상법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방향성'과 '경직성'의 문제를 먼저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명상의 방향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견해 속으로 빠지기 마련이기에 계율과 같은 윤리의 문제가 요구된다는 것이 '방향성'에 관한 이 원장의 견해다. 또한 아상(我相)과 아치(我癡)를 걷어낸 수행자라 할지라도 수행으로 얻어진 경지나 깨달음을 절대 화시킬 위험이 있다. 그래서 '경직성'의 문제 역시 명상의 사회화에 앞서 반드시 논의돼야 할 부분이다. 박 교수 역시 "상구보리 하참(下參)중생, 즉 위로는 진리를 구하고 아래로는 현실에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이며 올바른 명상은 사회에 대한 고민과 별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강신재 기자 thatiswhy@buddhapia.com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Avatar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경전의 이 말씀을, 당신께서 투자하는 단, 9일간의 내면 여행으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서울 종로구 평창동 110-4 101호
☎ 02)396-2736 · HP 010)6230-2113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heegyunwiz@hanmail.net

"재미·치유 일거양득"

어린이 선무 무용단 만드는 이선옥 교수



"범패나 작법무는 승가의 문화와 다름없습니다. '선무(禪舞)'는 우리 재가자들이 직접 나서서 가꿔갈 수 있는 불교문화이자 포교수단이 아닐까 싶습니다."

참선의 행선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선무를 창안한 이선옥(포천중문의대) 교수가 '어린이 선무 무용단'을 창설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대학원에서 선무치유전공 석사를 키우는 것을 시작으로 '선무동작명상센터'까지 개원해 일반인에게 선무를 지도해오던 이 교수. 그가 이제는 선무를 통한 어린이 포교에 뛰어들었다.

"동작명상은 재미와 치유효과를 겸비해 어린이들이 부담없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무용에 관심있는 불자 자녀를 중심으로 무용단을 꾸릴 생각입니다."

이 교수는 현재 초등학교 3학년 이상 중학교 2학년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무용단원을 모집 중이다. 이와 별도로 3년 이상의 무용경력이 있는 이들로 구성된 성년 선무 무용단 창단도 계획 중에 있다. (02)391-6502

세계 불교 여성지도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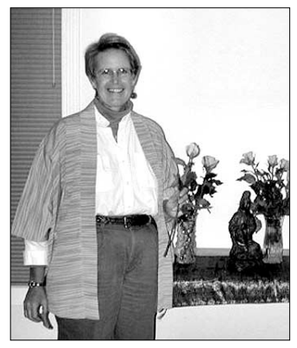
루신다 그린 美 록키산 명상센터 원장 (上)

불교와 서양 심리학의 만남

"깨달음의 일곱가지 요소들은 모든 깨어있는 자각의 순간에 실현되어야 합니다. 마음챙김, 법(法)에 대한 탐구, 활동력, 환희심, 평정심, 집중 그리고 고요함이 그것입니다."(rockymountaininsight.org)

미국 록키산통찰명상센터(Rocky Mountain Insight, RMI)의 설립자이자 심리학자 겸 수행자인 루신다 그린(Lucinda T. Green) 박사의 말이다.

1999년 미국 콜로라도 주 콜로라도 스프링에서 비영리법인으로 출범한 RMI는 2000년 정부로부터 세금감면 혜택을 받은 단체로 지정되었으며 매년 선거를 통해 운영위원들을 뽑고 있다. RMI의 원장인 그린(Lucinda T. Green) 박사는 1968년부터 동양의 명상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1970년에는 인도의 한 대학에서 9개월 동안 머물며 공부 했 으 며, 1975년에는 비로소 몸과 마음의 통합적인 치료 프로그램의 일부인 위빠사나 명상을 하기 시작했다.



RMI, 주 정부서 공익단체로 인정
매주 좌선모임 열고 교리 등 지도

1979년 그린 박사는 그녀의 스승인 루스 데니슨(Ruth Denison)을 만난다. 미국 캘리포니아 조슈아에 위치한 '담마데나 사막 위빠사나 센터'(Dhamma Dena Desert Vipassana Center)의 설립자인 루스 데니슨 법사는 미얀마의 유명한 재가 수행자인 우바킨(U Ba Khin, 1899~1971)의 법을 이어받은 수행자로 서양 위빠사나 수행의 질적, 양적인 발전을 가져온 인물이다. 1979년부터 1984년까지 그녀는 많은 불교 지도자를 찾아다니며 수행과 교학을 배웠다. 이 가운데는 무닌드라 우 실라난다, 잭 콘필드, 조셉 골드스타인, 페마 최된, 틱낫한 스님, 라이너 서카르, 크리스토퍼 티무스 등 최고의 불교 수행자들이 포함되어 있다.

1980년부터 84년까지 루신다 박사는 버클리대학에서 박사과정 연구의 일환으로 티베트 불교의 닝마연구센터에서 아비담마(불교 심리학), 불교와 서양 심리학 및 티베트 요가 등을 주제로 집중 연구했다. 1982년 그린 박사는 소외받는 불교 계층간의 모임인 불교여성공동체(Buddhist Women's Sangha)를 공동으로 설립했다. 그녀는 이 단체를 이끌며 매주 좌선과 예불, 매달 하루 수행 및 법회를 가졌다.

1985년, 그린 박사는 스리랑카의 대표적인 여 수행자인 故 아야 케마 스님의 지도아래 다섯달 동안 사원에서 출가 수행자 생활을 경험했다. 그리고 귀국해서는 매사추세츠 바르에 있는 통찰명상회에서 석달 간의 묵언 수행을 완수했다.

그린 박사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1994년부터 콜로라도 캠프에서 매주 명상모임을 갖기 시작했다. 매주 좌선모임의 정기 참가자가 30명을 넘어선 1999년부터 그린 박사는 하루종일 또는 주말수련회를 통해 몸, 감각, 마음, 법 등 사념처 수행과 불교교리에 대해 가르쳤다. 주말 좌선모임의 회원들이 늘어나자 이들은 RMI를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점점 늘어나는 수행자들을 고려해 콜로라도 스프링에 넓은 수행처를 확보했다. 이리하여 RMI가 1999년 6월 설립됐다.

RMI에서 그린 박사는 좌선과 행선, 자애관을 중심으로 일상 속에서 움직이는 몸에 집중하는 위빠사나를 지도한다. 그녀는 수행의 진척을 통해 무상, 고, 무아의 삼법인과 사성제의 가르침을 통찰해 온갖 스트레스와 고통으로 신음하는 삶에서 해탈할 것을 가르친다. 이를 위해 그녀는 심리학자답게 수행의 지침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신성한 네 가지의 변치 않는 사랑과 동정심, 기쁨, 평정심이 독서나 수행, 명상 등을 통해 탐구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믿음, 활동력, 마음챙김, 집중, 지혜 등 다섯가지 정신적 요소들의 연관성과 통합을 깊이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ockymountaininsight.org) 계속

김재경 기자

대구 대승불교대학 정토사 부설 불교의식 대학
제2기 불교의식(범음 · 범패)
수강생 모집
7월초 개강
본 대학은 대승불교의 수행 이념을 전파코자 설립한 교육기관으로서 갑신(甲申)년에 경전 강의와 함께 불교의식반 신입(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과 정

가 초급반 (3개월) : (매주 : 목,금요일 오후 3시 ~ 5시)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기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향수해례, 행선축원. 신중청, 관음기도법, 산왕기도…

나 중급반 (3개월) : (매주 : 화요일 오후 3시 ~ 5시)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시다림법, 점안의식, 방생의식, 구병시식

다 작법반 (6개월) : (매주 : 화요일 오후 5시 ~ 6시 30분)
천수바라, 다게작법, 오공양작법, 요잡바라, 삼귀의작법 (일명 바라 나비춤)

라 고급반 (6개월) : 영산재, 예수재, 수륙재 등…(희망자 소수)

대구 대승불교대학 부설 범음 · 범패 의식교육원 · 정토사
신청 문의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동 1914-5 (월촌역4거리)
전화 : 053)622-0333 / 011-699-9120
※ 가야산 철야기도는 매달 넷째 토요일 저녁 9시부터 정진하오니 불자님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퇴마승

영험도량

불보살님 가피력 받는사람
참회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 갖는사람

누구나 4차원 파장을 받을 수 있으며 음(陰)을 양(陽)의 기운으로 바꾸어 주면 육체, 마음 고통에서 벗어납니다.

- 중병은 70~80% 4차원 장애
- 육체, 마음 고통은 4차원 장애
- 기타, 인생사 4차원 장애

▶ 인연기도로 가피를 받은 사례 ◀
낙태 경험이 있는 사람 둘 중에 한사람이 고통을 받고 가족에게 영향을 주며 기도로써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물질, 금전욕, 애착, 그리움, 미움을 갖고 살아가면 사후에 구천을 떠도는 파장이 되어 직계 가족에게 영향을 준다

해원사 초하루, 18일 법회 신중참회기도
031-736-3734 · 732-3790

승복 법복 안내
확실한 품질 · 만족할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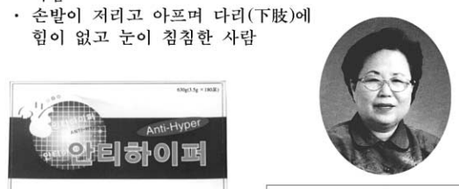
1. 고급 모직(물세탁)
적삼, 바지 150,000 동방, 바지 190,000
두루막 140,000
2. 면,광목(먹물, 손염색)
적삼, 바지 100,000 동방, 바지 130,000
두루막 100,000
3. 면레프사(먹물염색)
적삼, 바지 150,000 동방, 바지 170,000
두루막 140,000
4. 무명(먹물, 손염색)
적삼, 바지 180,000 동방, 바지 220,000
두루막 180,000
5. 마 : 한국산 100%(먹물, 손염색)
적삼, 바지 140,000 동방, 바지 160,000
두루막 140,000
6. 장삼 고급모직 200,000
경남제일모직 250,000
7. 가사 대가사 150,000 / 반가사 70,000

◆ 유사제품과 비교해 보십시요 ◆
전화주시면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치 : 대구 중구청 뒤편 [동삼아파트 지하 공장] (지역판매점 모집)
30년 전통의 승복 전문 업체 원방각
아름승복
전시장 : 053-256-0108
공 장 : 053-425-4449
휴대폰 : 016-597-4449
011-809-2398
주소 :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 3가 88번지(동삼아파트 지하 공장)

중풍(뇌졸중)고혈압
해결책 보인다
100% 한방생약제제 안티하이퍼 Anti-hyper

한국인의 사망율 1위
: 고혈압 및 상관된 질환인 뇌졸중 · 심장마비 · 협심증 · 심근경색

안티하이퍼(Anti-Hyper)복용이 꼭 필요한 사람
- 고혈압환자
- 협심증, 뇌졸중(중풍), 동맥경화증, 심근경색환자 및 동 질병 예방
- 약물(신약)의 각종 부작용이 염려되는 사람
- 당뇨병과 고혈압 등의 심혈관계 질환을 동시에 앓고 있는 사람
- 손발이 저리고 아프며 다리(下肢)에 힘이 없고 눈이 침침한 사람



2달분 258,000원

- 개발약사 약력 -
▶ 1941년 2월 5일 경북 상주 출생
▶ 1965년 효성카톨릭 대학교 약학과 졸업
▶ 1997년 홍채학 연구소 설립
▶ 현재 대체의학, 분자 교정의학, 체질영양학 연구 겸 한빛약국(반석 당뇨 연구실) 경영중
▶ 저서 : 21세기 만성 난치성 피부병

구입신청 033-255-5669 안티하이퍼

주장자따라…

㉒ 탄허 스님의 '예언'

조태호



탄허 스님(1913~1983): 전북 김제 生. 최익현 계통에서 한학을 수학. 오대산 월정사에서 한암 스님에게 득도. 조계종 초대 중앙역경원장. <화엄경> 등 번역서 다수.

네티즌 교리문답

마음을 진흙소로 비유한 까닭은?

문 경허 선사의 선어록을 비롯해 많은 선어록에서 마음을 진흙소에 비유한 까닭은 무엇인가요? 그냥 황소나 물소라고 해도 될텐데요. (ID '중생부처')

답1 : 진흙소라는 말은 허상을 일컫는 말이라고 본다. 진흙으로 만든 소는 겉으로는 소의 모습이지만 일대 인연의 화합으로 조성된 가상, 허상을 말하는 것이다. 진흙소가 비를 맞거나 물속에 빠지면 녹아 없어지게 되므로 진흙소는 허상을 지칭하는 상징적인 것이다. 즉 진실상으로 보이는 모든 것들이 인연을 따라서 생멸하는 허상이라는 말이다. 그런데 이 진흙소가 쟁기질도 하고 싸움도 하고 여물도 먹으니 묘한 일이다.(ID '보호')

답2 : 진여본성인 청정심을 물로, 물속의 진흙을 번뇌와 망상으로 비유하면, 청정심에 번뇌의 바람이 일어 흙과 물과 바람 등의 모임인 진흙을 자기(소)로 알아, 쌓인 그것들이 마치 실재하는 자기로 전도된 망상을 한다. 그러나, 물이 잔잔해 지고(무명의 바람이 멈추고) 진흙이 가라 앉으면 청정한 물속(지혜가 밝아진)에 자기라고 믿던 진흙소(아상)는 없어지고, 오직 청정한 밝음(혜)만 나타난다. 중생들이 나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다는 것이다. (ID '무명물')

붓다뉴스(www.buddhanews.com)에 '네티즌 교리 문답' 코너가 있습니다.



선의 세계 ㊻

교외별전(敎外別傳)- 6

'마음이 만법의 근본'이라는 말은 모든 것을 우리의 마음이 지어낸다는 뜻이라고 했다. 여기에서 지어낸다 함은 모든 것의 의미를 우리가 규정한다는 뜻이다. 여기에는 이를테면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다. 우선 나쁜 면부터 살펴보자.

세상의 온갖 일과 물건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저런 인식과 판단을 한다. 그리고 그 인식과 판단을 철썩 같이 옳다고 믿는다. 물론 인식과 판단이 바뀔 수도 있다. 그러나 어쨌든 그 새로운 인식과 판단이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 쪽으로 생각을 바꾸는 것이다. 대상에 대한 자기의 인식과 판단이 옳다고 여기는 것은 대상의 진상이 워낙 그러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그렇게 인식되고 판단될 수밖에 없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우리가 어떤 대상을 두고 이러 저러 하게 인식하고 판단하는 내용은 그 대상의 진상을 온전하게 반영하지 않는다고 진단한다. 우리가 사물의 진상이라고 여기는 것은 기실 우리의 그런 생각을 사물에다가 덮어씌운 것에 불과하다고 본다. 그것을 일컬어 망상(妄想), 망념(妄念)이라고 한다.

아집·탐욕에 의해 사물의 진상 왜곡

'본다'는 정신의 눈이 판단하는 것

왜 우리는 사물의 진상을 그대로 보지 못하고 우리 마음대로 왜곡해서 지어내고 그 망상, 망념을 사물에다가 덮어씌우고는 바로 그것이 사물의 진상이라고 믿으며 살아가는가? 아집(我執) 때문이라는 것이 불교의 진단이다. 아집은 이기적인 탐욕을 수반한다. 아집이란 간단하게 말하자면 '나'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있다고 여기는 것을 말한다. 불교의 기본인 무아(無我)의 가르침에 반대되는 태도이다. '나'라는 것이 절대적이고 독자적인 존재로 있다고 여기고, 따라서 나와 나 아닌 것을 분별하는 구도를 가지고 모든 것을 인식하고 판단하는 태도이다. 그러한 '나'는 당연히 그 개체로서의 나를 중심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가늠하지, 나 아닌 것들의 입장에서, 또는 세상 전체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다. 그리고 당연히 개체로서의 나의 입장과 이익을 고집하고 추구하는 운동력이 거기에서 일어나게 마련이다. 그것이 탐욕이다. 이기적(利己的)인, 즉 자기 자신에게 이로운 것을 추구하는 탐욕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아집과 탐욕의 필터를 통하여 보고 인식하며 판단하기 때문에 사물의 진상을 그대로 보지 못하고 왜곡하고 지어낸다는 얘기이다. 마치 사진기 렌즈 앞에 색깔이 있는 필터를 끼우면 무엇을 찍더라도 그 색깔로 채색되는 것과도 같다. 우리는 무엇을 보든지, 아무리 이른바 객관적으로 본다고 해도, 근본적으로는 아집과 탐욕이라는 필터를 가지고 채색해버린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왜곡되지 않은 진상 그대로의 사물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저 산이, 저 물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이익이 되는가 하는 시각에 보이는 그런 모습 말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은 어떤 것이라는 말인가? 내 눈이 아집과 탐욕으로 뒤틀려서 잘못 보고 있는 것이지, 저 산이 사실은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저런 모습이 아니라 다른 모습이라는 말인가? 그런 뜻은 아니다. 여기에서 눈이라고 하는 것, 본다고 하는 표현은 이를테면 정신의 눈이 인식하고 판단하는 것을 가리킨다. 그리고 우리가 왜곡되지 않은 정신의 눈으로 보아야 할 사물의 진상은 불이(不二)요 연기(緣起)라는 것이 불교의 진단이다. ■윤원철(서울대 종교학과 교수)

권탄준 교수의 경전읽기

화엄경 입법계품 <71>

보현보살의 법문(1)

열 가지 지혜 바라밀다 얻으니

시방세계 보현보살들이 인가

선재동자의 구법여행에서 마지막으로 만나는 선지식은 보현보살이다. 보현보살도 문수보살처럼 특별한 자신의 법문을 설하는 것은 없다. 그러나 그의 법문을 통해서 보살행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지향해서 어떻게 행하여져야 하는 것이며, 그것을 통해 도달하는 경계는 과연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선재동자는 문수보살을 만나고 나서 삼천대천세계의 티끌 수 선지식을 찾아보고 받들어 섬기며 부지런히 보살행을 실천하면서 보현의 해탈경계를 관찰하였다. 그 때 선재동자는 보현보살의 이름, 행원(行願), 조도법(助道法), 지혜의 경계, 지혜의 위력 등에 대해서 듣고 보현보살을 뵈려 갈망하였다. 그리하여 선재동자는 모든 세계를 버리고 모든 애착을 여의려는 걸림 없는 마음, 모든 지혜의 경계에 널리 들어가려는 청정한 마음, 모든 부처님 법 바다에 들어가려는 광대한 마음, 모든 중생세계를 교화하려는 넓은 마음, 모든 국토를 깨끗이 하려는 한량없는 마음, 모든 겁에 머무르려고 하는 끝없는 마음, 여래의 열 가지 힘에 나아가려는 구경의 마음을 일으켰다.

선재동자가 이렇게 진실하고 순수한 마음을 일으키니, 자기의 선근의 힘과 모든 여래께서 가피하시는 힘과 보현보살과 동일한 선근을 심는 힘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청정하여 모든 여래가 정등각을 이룸을 보고, 나쁜 길이 없음을 보고, 모든 중생의 몸과 마음이 청정함을 보는 등 열 가지 상서로운 모양을 볼 수 있었다. 또한 모든 세계의 낱낱 티끌 속에서 모든 세계의 티끌 수 같은, 부처님의 광명그물구름을 내어 두루 비침을 보고, 여러 부처님 형상의 마니구름을 내어 법계에 가득함을 보는 등 열 가지 광명한 모양을 보게 되었다. 진실하고 순수한 대승보살의 마음을 일으켜서 이처럼 여러 가지 상서롭고 광명한 모양을 보고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뜬 선재동자는 이렇게 생각하였다.

"나는 이제 반드시 보현보살을 보고 선근을 더할 것이며, 모든 부처님을 보고 여러 보살의 광대한 경지에 대하여 결정한 지혜를 내어 온갖 지혜를 얻을 것이다."

이때 선재동자는 여러 감관을 거두어 일심으로 보현보살을 보려고 크게 정진하며 마음이 물러가지 아니하였고, 넓은 눈으로 시방의 모든 부처님과 여러 보살을 관찰하면서 보이는 것마다 보현보살을 뵈옵는 생각을 지었다. 지혜의 눈으로 보현의 도를 보니 마음이 광대하기가 허공과 같았고, 크게 가엾이 여김이 견고하기가 금강과 같았으며, 오는 세월이 끝나도록 보현보살을 따라다니면서 생각생각마다 보현의 행을 순종하여 닦으려 하였고, 지혜를 성취하고 여래의 경지에 들어 보현의 지위에 머무르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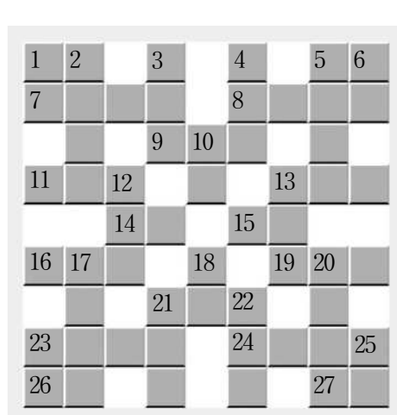
드디어 선재동자는 보현보살이 금강장 보리도량의 여래의 앞에 있는 보배연꽃 사자좌에 앉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상호는 참으로 뛰어나 세간에 짝할 이가 없고, 지혜의 경지도 한없이 크고 넓어서 헤아리고 생각하기 어려워서 삼세 부처님과 평등하였다. 그리고 보현보살의 몸에 있는 낱낱 털구멍에서 모든 세계의 티끌 수 광명구름, 향구름, 꽃구름, 중생의 몸구름, 보살의 몸구름, 범천의 몸구름 등을 내어서 모든 중생의 괴로움과 근심을 멸하고, 여러 여래에게 묘한 법륜을 굴리도록 권하며, 법계와 허공계에 두루 있는 교화 받을 중생을 따라서 모두 아뇩다라삼먁삼보리심을 내게 하며, 모든 중생의 마음을 만족케 하고 온갖 지혜의 도를 갖추어 닦아 익히게 하는 등의 자유자재하고 신통한 경계를 보았다.

선재동자는 보현보살의 이렇게 한량없고 부사의한 큰 신통력을 보고 잠깐잠깐 동안에 모든 부처님 세계에 가득한 지혜바라밀다 · 모든 여래께 공양하는 지혜바라밀다 · 모든 부처님의 부사의한 큰 신통한 일을 아는 지혜바라밀다 등 열 가지 지혜바라밀다를 얻었다.

선재동자가 이렇게 열 가지 지혜바라밀다를 얻자, 보현보살이 오른손을 펴서 그의 정수리를 만졌는데, 이때 선재동자는 일체세계의 티끌 수와 같은 삼매문을 얻었다. 그리하여 낱낱 삼매에서 옛날에 보지 못하던 모든 세계의 티끌 수와 같은 부처님의 큰 바다를 보았고, 온갖 지혜의 도를 돕는 기구를 모았고, 온갖 지혜의 가장 묘한 법을 내었고, 온갖 지혜의 큰 서원을 세웠고, 큰 서원의 바다에 들어갔고, 온갖 지혜의 큰 정진을 일으켰고, 온갖 지혜의 깨끗한 광명을 얻을 수가 있었다. 뿐만이 아니라 이 사바세계의 보현보살이 선재동자에게 한 것처럼 시방세계의 낱낱 티끌 속에 있는 모든 세계의 모든 부처님 처소에 있는 보현보살도 모두 선재동자의 정수리를 만졌고, 얻은 법문도 또한 같았다. 이리하여 선재동자는 마침내 이 사바세계뿐만 아니라 시방세계의 보현보살들로부터 인가를 받게 되는 것이다.

■금강대 불교문화학부 교수

상식퍼즐



정답은 26면에

가로 1. 地, 水, 火, 風을 통틀어 일컫는 말 5. 사마천이 저술한 역사책 7. 모든 세계를 뜻하는 말 8. 일곱 부처님이 모두 공통으로 강조하신 내용으로 계속 전승되어 온 합축된 계목 9. 월요일 다음 요일 11. 전북 익산에 총본산을 두고 세운 불교 교파 13. 제석천의 아악을 맡아보는 신 14. 먹을 수 있는 열매의 통칭 15. 우리나라 고유의 정형시 16. 참고가 되는 책 19. 퇴계와 사단칠정론 논쟁을 벌였던 유학자 21. 불교에서 궁극의 깨달음을 얻어 존경, 공양받는 사람 23.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셔놓은 당우 24. 여름철 밤에 반짝이며 날아다니는 곤충, 개똥벌레 26. 나라에서 관리하는 도로 27. 선종에 비해 경전을 중시하는 종파.

세로 1. 오전 아홉 시부터 열한 시를 십이시로 표현한 것 2. <화엄경>의 본존인 대방광(大方廣)의 이치를 증득한 부처님 3. 지역화의 상대적 의미 4. 아이를 낳은 지 스무 하루째의 날, 세이레 5. 교통망이 이리저리 사방으로 통함 6. 동력장치가 부착된 작업 도구 10. 고대로부터 전해오는 인도의 심신단련법 12. 교육을 위해 사용되는 교재 13. 기후가 건조한 시기 17. 사성제의 각 첫 자를 따서 일컫는 말 18. 왕이 받던 아침과 저녁 식사 20. 대승의 교리를 근본으로 하는 불교 21. 방이나 솥에 불을 때기 위해 만든 구멍 22. 우리나라 국토를 일컫는 말 23. 우방국의 반대말 25. 다른 종류.

아프리카의 聖女 루실 仁術로 총칼을 녹이다



아프리카 내사랑
미셸 아르스노 지음 | 이재형 옮김 | 들녘 | 1만1800원

내전중이던 우간다에서 35년간 의술 펼친 캐나다 출신 외과의사 부부의 다큐멘터리

"자신이 망설이고 있다는 걸 환자가 눈치채게 하는 건 아무 쓸모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끔찍한 결과를 불러 올 수도 있는 행동입니다."

'아프리카의 테레사 수녀'로 비유되는 캐나다 출신의 외과의사 루실 티즈데일(1929~1996)이 남긴 말이다. 그녀는 여성의 사회진출은 물론이요, 사회적 지위 보장 역시 척박했던 현실 속에서도 의학을 그것도 외과를 선택해 아프리카의 많은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려냈다. 미국은 여자라는 이유로 그녀의 의술을 의심하고 거부했지만 아프리카는 그녀의 손길을 절실히 필요로 했고, 그녀는 그곳에서 자신의 전부를 불태웠다.

치료중 에이즈에 감염되고도 죽는 날까지 '헌신'으로 일관

직접 자신의 손을 넣어가며 병든 군인들 몸의 뼛조각을 필사적으로 꺼냈던 루실은 결국 에이즈(AIDS)에 감염됐지만, 2년 뒤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25퍼센트의 가능성을 믿고 죽는 날까지 정상적으로 의술을 행했다. 35년 동안(1961~96) 우간다 라코어 병원에서 하루에 평균 두 번씩, 큰 수술만 2만 건 이상을 행했던 루실은 결국 그 공로를 인정받아 남편인 피에로(1925~2003)와 함께 1986년 세계보건기구에서 수여하는 '사사카와 상'(묘이치 사사카와는 '일본 조선산업 재단'의 회장으로, 1950년 이후 천연두 박멸 사업에 120억 달러를 기부한 독지가)의 수상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아프리카 내사랑>은 버림받은 땅 아프리카를 자신의 조국보다 더 사랑하며 '헌신'과 '봉사'의 진정한 의미를 일깨워준 외과의사 루실 티즈데일과 피에로 코르티 부부의 휴먼 다큐멘터리다. 이 책에서는 내전과 에이즈로 병든 우간다에서 정부군과 반군에 의해 협박당하고 의약품과 생활필수품 등을 약탈당하는 온갖 시련을 겪으면서도, 병원을 세워 헌신을 다했던 아름다운 의사의 이야기가 잔잔하게 펼쳐진다. 이들은 환자를 머리로 치료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과 가슴으로 치료 했다는 점때문에 남다른 평가를 받고 있다.

루실의 우간다행은 "나랑 같이 우간다에 가지 않겠어요?"라는 동료 의사이자 남편인 피에로의 프로포즈에 이끌려 비롯됐다. 처음에는 '우연한 선택'이었지만 나중에는 '결연한 의지'로 바뀌었던 아프리카에서 루실의 삶은 한마디로 전쟁 그 자체였다. 총상으로 실려온 군인, 제왕절개 해야할 산모, 이질에 걸린 아이, 에이즈에 걸린 여인들 등 모두 하나같이 만만찮은 환자들이 그의 주 고객이었다. 어떤 날은 하루에 325명을 진찰할 정도로 그녀의 병원은 환자들로 항상 북적 거렸다. 아마도 그녀곁에 영혼의 동반자였던 남편 피에로가 24시간 내내 버팀목 역할을 하지 않았더라면 불가능했다고 밝힐 만큼 힘들고 고된 일이었다. 특히 내전으로 루실의 라코어 병원이 밤낮으로 바뀐 정규군과 반군의 약탈 대상이 되었을 땐, 널리 인술을 펼치겠다는 이상이 끊임없이 흔들렸다.





▲우간다 라코어병원에서 수술중인 루실.

◀수습간호사들과 환자들을 세심하게 살펴보고 있는 루실(왼쪽에서 두번째)과 피에르.

하지만 이런 악조건도 생명 존중에 대한 그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다. 80년대말 우간다 인구 1700만명 가운데 15만명 이상이 에이즈에 감염될 정도로 심각했던 상황속에서도 죽음을 무릅쓰고 치료를 계속해 나갔다. 그리고 그녀도 결국 치료중 에이즈에 감염됐다. 그를 찾아오는 무수한 에이즈 환자들은 루실 또한 병을 극복하지 못할 것이란 걸 매번 깨우쳐 주었다. 하지만 그녀는 절망하지 않았다.

"때때로 내가 에이즈가 아닌 유방암과 싸우고 있었다면 과연 사람들이 나에게 이처럼 환호를 보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다"고 고백했을 정도로 일에 미쳐 생각지 못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라코어 병원을 거쳐간 무수한 아프리카의 환자들이 얼마나 자신의 존재를 사랑하고 있는가를.

이것이 바로 이 책의 두 주인공들이 세계 인류를 위해 의학적으로 위대한 발견을 한 것은 아니지만, 우간다 사람들에게 슈바이쳐 박사 못지 않은 위인으로 추앙받고 있는 이유다. 그래서 캐나다 출신으로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프리랜서 미셸 아르노스가 쓴 이 책을 감히 전기(傳記)라고 평하고 싶을 정도로 이들 부부의 삶의 궤적이 감동스럽다. 갑자기 다가온 더위로 삶의 권태를 느끼기 쉬운 요즘, 이 책은 한번 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바짝 긴장시켜 주는 묘미를 준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전문가 서평



누구와 함께 살 것인가 - 새로 쓰는 가족 이야기
또 하나의 문화 동인들 지음 | 또 하나의 문화 | 1만5천원

가족이라는 말만 들어도 고개를 절레절레 내젓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가 하면 진정한 인생의 행복은 가족 안에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항상 웃음이 넘치는 화목하고 정겨운 가족은 별로 찾아보기 힘들다. 그만큼 '가족'이란 명사는 아무리 사이가 좋아도 무겁고 힘든 관계일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가족간의 책임과 의무가 뒤따르기 때문이다. 흔히 보험에 비유되는, 그래서 힘들어도 참고 끝까지 함께 살아야 하는 것이 가족이라면, 그 관계는 과연 서로를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누구와 함께 살 것인가>는 10대에서 50대까지 다양한 세대의 자기 고백적인 글을 통해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를 고민하게 만든다. 부모 중 한쪽이 없는 것만으로도 비정상적인 가족이라는 편견이 지배적인 한국 사회에서 이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어색하며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 그것은 '가족이란 이런 것이어야 하지 않을까' 라는 고정관념 때문이다. 사람들은 행복한 가족을 상상하며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지만, 그것도 언제까지나 지속될 수는 없다. 다른 형태의 함께 살기에 대해서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은 자녀가 성장해 떠나거나 배우자와 함께 살지 못하게 되는 등의 변화된 상황에 적응하기 어렵다.

가족관계에도 연습이 필요하다

'다른 방식으로 함께 살기' 화두 제시

특정한 형태의 가족만을 정상적인 가족으로 보고 그이외의 사람들에게 냉랭하고 배타적인 혈연주의로 뭉친 공동체만을 인정하는 사회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무리한 요구를 당연시한다. 이 책의 필자들은 우리가 정답이라 알고 있는 가족의 모습에 얽매이지 않으며,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는 이기적이고 타산적이며 방어적인 심성으로부터 거리를 유지하면서 더불어 사는 연습을 하고 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이 인간관계라면, 함께 밥을 해먹고 잠을 자는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이야말로 많은 연습이 필요한 일일 것이다.

이혼의 증가, 가족관계의 단절, '패륜적인' 범죄의 증가 등을 보면서 사람들은 가족의 위기를 염려하지만, 위기에 있는 것은 단지 의무감만 남은,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는 가족이다. 사람들은 의무감에 버거워하면서도 같이 살 뿐인 관계, 아플 때나 문제가 생겼을 때 도와줘야 하는 관계 이상의 친밀감을 갈망하고 있다. 그런 관계는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고 노력해서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정답이 없는 것이 인생이라면, '누구와 함께 살 것인가' 라는 질문에도 정답은 없다.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상황을 그저 받아들이고 하라는 대로 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의지로 선택하고 만들어 나가는 것이, 힘들지만 보다 행복에 가까워지는 길이 아닐까?

이 책은 이처럼 다른 방식으로 함께 살기 위해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며, 풍부한 고민거리를 던져줄 것이다.

■**임태연** (한라대 여성학과 강사)

불교서적전문출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종로구 견지동 110-33
Tel : 02)737-0695
Fax : 02)737-0696

"수행길에서 만나는 스님들은 모두가 선지식이다"

스님이야기







홀로 피었다가 홀로 지지만 그 향기만은 바람에 실려
멀리 멀리 전해지는 들꽃같은 스님들의 수행일화

이 책은 스님들의 수행과 일상사를 여과없이 진솔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스님들이 수행길에서 만난 스님들의 다양한 수행 이야기가 감칠맛나는 문체에 녹아 있어 재미와 감동을 더한다.
청정한 스님들이야말로 세상을 지탱해 주는 힘이며,
이러한 스님들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속인들은 살 맛이 나고 희망을 갖게 된다.
- 현대불교신문 기사 중에서 -

시묵 스님 외 14인 지음 | 신국판 | 448쪽 | 12,000원 | 여시아문

책에 나오는 스님들 - 무소유의 큰 스승 **법정** 스님 / 20년 장좌불와 **자유** 스님 / 사찰안내의 '원조' **인암** 스님 / 분별 · 시비심 끊어진 **정화** 스님 /집착하지도 떠나지도 않는 **현장** 스님 / 열정의 인권운동가 **진관** 스님 / 한결같은 인욕 · 하심 **지월** 스님 / 수행자로서의 투철한 삶 **홍법** 스님 / 후덕한 주지 **혜성** 스님 / '산 거지' 자처 **정우** 스님 / 햇차 같이 샤프한 **여연** 스님 / 병든 처사 헌신적으로 돌본 **묘운** 스님 / 옷 한 벌이 전 재산 **진공** 스님 / 진정한 무술 고수 **대오** 스님 / '가야산 호랑이' **정원** 스님 / 냉정함과 따뜻함의 조화 **종진** 스님 / '화엄신장' 같은 고참 수좌 **중천** 스님 / 효심 지극한 **현진** 스님 / 중앙승가대 정규大 인가 앞장 **금정** 스님 / 理事 두루 밝은 **원타** 스님 / 불교문학 발전 견인차 **혜관** 스님 / 생명나누기 실천교육 20년 **종실** 스님 / 뜨거운 피 · 절절한 가슴 **혜조** 스님 / 영원한 선지식 **고송** 스님 / '뿌리깊은 나무' **종범** 스님 / '공포의 목침할배' **경하** 스님 / 결제 땐 면벽, 해제 땐 기도 **법현** 스님 / 해조음처럼 편안한 **하운** 스님 / 가슴 뜨거운 소신파 **현담** 스님 / 운문인들의 귀감 **홍문** 스님 / 운문도량 '지킴이' **일진** 스님 / 주관 뚜렷한 노력파 **혜원** 스님 / 감각 뛰어나고 재주 많은 **정안** 스님 / 물 흐르듯 거침없는 말과 글 **지륵** 스님 / 방황과 갈등 '공부'로 승화 **불굴** 스님 / 해제 · 결제 따로 없는 **일선** 스님 / 이 시대의 '부루나 존자' **향산** 스님 / 효성 지극한 묵언수좌 **환기** 스님 / 소탈해서 더욱 빛나는 **현봉** 스님 / 자애로운 눈빛, 맑은 미소 **효명** 스님 / 따뜻한 마음, 깔끔한 강의 **일초** 스님 / 장좌불와 · 일종식 계속 **금산** 스님 / '불교문화유산 지킴이' **홍선** 스님 / 나서면 '만사형통' **자응** 스님 / 농사짓고 공부하고 **관문** 스님 / 병자의 슬픔 · 고통 함께 **지홍** 스님 / 사회변혁운동 앞장 **유묵** 스님 / '1등 포교사' **홍도** 스님 / 전형적인 수행자로 일관 **서암** 스님 / 남다른 문학적 재능 **원철** 스님 / 전법제일 '부루나'의 후예 **현원** 스님 / 군 포교 헌신 **성광** 스님 / 산새 · 짐승들과 교감 **정호** 스님 / 언제나 반듯한 수행자 **현덕** 스님 / 끝없이 차 공양 **우진** 스님 / '이상적 도심포교당' 계획 **지해** 스님 / 미소 잃지 않는 '자비보살' **만초** 스님 / 서릿발 같은 기상 **현근** 스님 / 90세에도 어디든 가서 법문 **호명** 스님 / 호거산처럼 넉넉한 품 **명성** 스님 / 기도정진과 이타행 **행문** 스님 / 병고를 인욕으로 승화 **지우** 스님 / 늘 초발심으로 정진 **설송** 스님 / 삶의 따스함 가르쳐 준 **법인** 스님 / 오롯이 한 길 매진 **미산** 스님 / 자상한 탁마의 도반 **상목** 스님 / 덕숭산 가풍의 계승자 **보리** 스님 / 도시로 입산한 '만능인' **덕신** 스님 / 수덕사 '터줏대감' **영수** 스님 / 당당한 출가인의 표상 **휘광** 스님 / 언제나 젊은 마음자리 **수암** 스님 / 굴삭기 운전하며 불사 **금강** 스님 / 급함 · 욕심 · 시비 없는 **성전** 스님 / 깐깐함과 자상함의 조화 **효명** 스님 / 마음까지도 다 주는 **석우** 스님 / 속명을 불명으로 **대석** 스님 / 계으름 허용 않는 **지산** 스님 / 만날 때마다 깊어지는 수행 **대공** 스님 / '몸 아픈것도 내 탓' **영호** 스님 / '수행자의 여법함' 보여준 **원타** 스님 / 학문에 남다른 열정 **성원** 스님 / 만날 때마다 순수함 더하는 **영각** 스님 / '불사佛事 제일' **지문** 스님 / 도심포교의 베테랑 **희휴** 스님 / 청소년 포교 중요성 알려 준 **목주** 스님



禪 어렵고 지루해?
만화로 보면 아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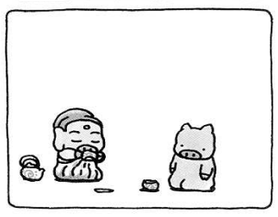
날마다 좋은 날
고이즈미 요시히로 지음
오경순 옮김 | 들녘 | 8천원

차나 한 잔 마시게
김헌식 글 · 그림 | 문자향 | 8천5백원









'선(禪)'은 어렵고 지루하기만 할까? 선의 화두를 만화를 통해 재치 있고 유쾌하게 전하는 두 권의 책을 보면 이러한 생각이 편견이었음을 알 수 있다.

<날마다 좋은 날>은 일본 작가 고이즈미 요시히로의 불교만화 '부처와 돼지' 시리즈 가운데 네 번째 작품이다. 책은 일본어로 발음이 비슷한 돼지(부타)와 부처(붓타)가 일상에서 삶의 의미를 묻고 대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익살스러운 4컷짜리 그림에 삶을 뒤돌아보게 하는 재치와 날카로운 지혜가 번뜩인다.

<차나 한잔 마시게>는 <전등록>과 <무문관> 등에 나오는 달마대사와 육조혜능 스님, 마조도일 스님 등 66인 선사들의 일화를 만화로 소개하고 있다. 스승과 제자의 문답을 통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고민과 의문에 대한 단순 명쾌한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인터넷한겨레 하니리포터와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로도 활동하고 있는 지은이 김헌식 씨는 만화를 통해 "선은 부처가 되는 법, 불교의 교리를 효과적으로 알려주는 방법이 아니라 모든 외부의 강제와 주입, 우상에서 자신과 마음의 자유를 구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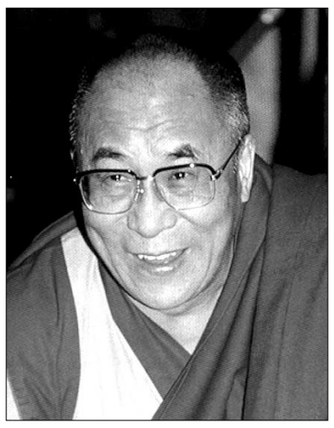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잘 살다 잘 죽는 길이 있다



달라이 라마, 삶을 이야기하다
달라이 라마, 죽음을 이야기하다
달라이 라마 지음 | 제프리 홉킨스 엮음
진현종 · 이종복 옮김 | 각 1만원

행복 달라이 라마 지음 | 손민규 옮김
문이당 | 8천8백원



"죽음은 반드시 오지만 죽음의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으니/ 모인 것은 흩어지기 마련이고 모아둔 것은 남김없이 소모되며/ 일어난 것이 가라앉으리니, 태어남의 마지막은 죽음이 되리라/ 우리가 낭비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깨닫기를"

우리에게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고, 떠올리기조차 싫은 일이다. 하지만 죽음은 엄연히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삶의 마지막 과정. 그렇다면 죽음에 대한 생각을 피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사색을 통해 행복의 계기를 마련하는 편이 현명한 처사일지도 모른다. 새로 나온 달라이 라마의 <달라이 라마, 죽음을 이야기하다> <달라이 라마, 삶을 이야기하다> <행복>은 삶과 죽음이라는 피할 수 없는 조건과 그 속에서 행복을 찾아야 하는 우리의 숙명에서 출발한다.

삶…, 죽음…
행복

"수행의 목표는 타인 위한 봉사" 일깨워
일상을 주제로 불교개념 쉽게 설명

<…죽음을 이야기하다>는 죽음에 대한 통찰력과 죽음을 맞이하는 지혜를 가르쳐주는 책이다. 제1대 판첸 라마의 '중음도의 위험한 곤경으로부터 해방되고자 하는 기원문,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된 영웅'이라는 시를 달라이 라마가 설명하고, 제프리 홉킨스가 엮었다. 제프리 홉킨스는 서방의 달라이 라마 연구의 권위자다.

달라이 라마는 죽음에 대한 사색이 삶의 태도를 수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삶이 영원하다는 착각이 탐욕과 어리석음의 원인이 되는데, 죽음에 대한 사색이 삶의 무상함을 깨닫게 하여 수행에 더욱 정진토록 하기 때문이다. 이 책은 죽음, 중음, 환생의 과정에서 어떻게 정신을 차려야하며,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 상세하게 조언해주고 있다.

<…죽음을 이야기하다>가 '잘 죽는 법'을 말하고 있다면, '잘 사는 법'은 <…삶을 이야기하다>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진다. 1972년 인도의 다람살라에서 16일간 이루어진 달라이 라마의 강의를 역시 제프리 홉킨스가 엮은 것이다.

달라이 라마가 말하는 '잘 사는 법'이란 계 · 정 · 혜 삼학(三學)의 수행을 통해 깨달음에 도달하고, 자비를 실천하며 사는 것이다. 특히 계율에 대한 강조가 유난히 눈에 띄는데, 책의 절반 이상 분량을 계율 설명에 할애하고 있을 정도다. 악업을 금하는 소극적인 개념이 아니라 자비의 실천을 포함하는 적극적 의미의 계율을 달라이 라마는 강조하고 있다.

정치적 권력까지 쥐고 있는 종교지도자로서 달라이 라마가 성(聖)과 속(俗) 어느 한 편에 치우침 없이 수십 년간 자신의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낼 수 있었던 비결은 계율을 중히 여기는 마음가짐에 있을지도 모른다.

달라이 라마가 설하는 삶과 죽음 이야기의 종착점에는 커다란 가르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불교 수행의 최고의 목표는 다른 이들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며, 다른 이들을 위한 봉사를 가장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깨끗한 몸과 마음의 성취가 필요한 것이다."

마음 내어 읽은 독자라면 절로 고개를 끄덕이며, 달라이 라마에게 완전히 설득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또 한 권의 책 <행복>은 인도 델리에 위치한 '투시타 대승 명상센터'에서 최근 몇 년 간 이루어진 달라이 라마의 강론과 문답을 모은 것이다. 제목만 보고 말랑말랑한 에세이를 상상하면 오산이다. 불교의 개념과 교리로써 주제에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답을 보면 책의 폭과 깊이가 잘 드러난다. '공부하는 학생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나'와 같은 질문부터 인간의 자유의지, 공과 무아의 관계에 관한 질문까지 그 스펙트럼이 꽤 넓다. 좋은 말들로 일관된 명상 에세이에 식상한 독자들이나 불교 초심자라면 흥미진진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이다.

박익순 기자 ufo@buddhapia.com



무소득의 마음
자명 스님 지음
수안 스님 그림
고요아침 | 1만2천원

'해외포교 10년' 하고 얻은 바 없다?

"세상은 시작도 끝도 없는 무한의 연속입니다. 무한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의지할 바는 무소득(無所得)의 마음입니다. 구할 바 없고 얻을 바 없는 마음, 이것이 무소득의 마음입니다."

설악산 백담사에 주석하고 있는 자명 스님이 지난 10년간 미국과 유럽, 캐나다, 일본 등을 돌아보며 쓴 편지를 묶어 책으로 펴냈다. 시집 <어느 자리의 꽃송이>를 펴내기도 했던 스님은 이번엔 편지글이란 형식을 통해 깨달음을 전한다. 통도사 수안 스님의 선화(禪畵)가 글의 내용과 어울려 잔잔한 감동을 더한다.

스님은 해외에서의 경험을 전하며 "해외에 나와서 불교를 믿는다는 것은 여간한 신심과 확신이 없으면 쉽지 않다"고 말하면서도 미국에서의 수행 열풍과 호주 시드니 정법사의 내실 있는 활동을 전하며 불교의 밝은 미래를 기대한다. 이를 위해 우리 불교계에서는 교육과 역경, 포교를 위한 발판이 될 사찰도서관을 지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한다. 또한 스님은 '종교 세속화' 시대에 무엇을 위한 수행자가 되어야 하는지 되물으며 그 답으로 '수행'을 제시한다.

유럽 · 美 · 日 등지서 쓴 편지 묶어
종교세속화 시대 수행의 길 제시

"일상에 묻힌 자신의 본래 모습을 찾는 것이 바로 수행의 길"이라는 것이다.

새로나온 책



■ **<자비수참과 법화참회>**(혜능 스님 엮음, 하늘북, 1만원)="허물이 있는데도 스스로 참회하지 않고 문득 그 마음을 쉬게 되면 죄가 몸에 다가오는 것이 마치 물이 바다로 돌아가면 점점 깊고 넓게 되는 것과 같다." 해인총림 율원장 혜능 스님이 계율과 참회의 정신을 기르기 위해 펴낸 의식집이다.



■ **<참마음 이야기>**(지눌 스님 지음, 강건기 엮음, 불일출판사, 1만2천원)=지눌 스님의 <진심직설>을 전북불교대학장 강건기(전북대) 교수가 풀이했다. 지난해 가을 전북불교대학 보현학림 과정에서 3개월간 진행한 <진심직설> 강의원고를 기초로 정리한 것으로 초심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 **<금오신화>**(김시습 지음, 고영숙 엮음, 정병식 그림, 청솔, 7천원)=우리나라 최초의 한문소설인 <금오신화>를 초등학생의 눈높이에 맞춰 재구성했다. 조선 시대 사람들의 삶과 기발한 상상의 세계가 투박하지만 정겨운 그림과 함께 펼쳐진다.



■ **<아아 관세음보살>**(자명 엮음, 화담, 1만원)=충북 충주시에 실참선원을 개원한 자명 스님이 <반야심경>에 담긴 뜻을 한 구절 한 구절 자세히 설명한 책이다. 스님은 "몸과 마음을 스스로 편안하게 다스려 참된 '나'를 찾아보라"고 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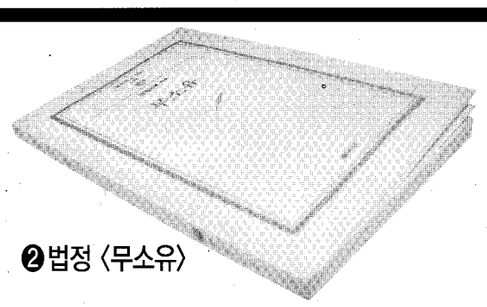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 · 편자	출판사
1	청정도론1	붓다고사	초기불전연구원
2	365일 부처님 말씀	윤창화	동숭동
3	탄허 스님의 동양사상 특강	탄허 스님	교림
4	무문관 강송	혜개 스님	운주사
5	하룻밤에 읽는 불교	소운 스님	랜덤하우스중앙
6	가장 행복한 공부	청화 스님	시공사
7	불교의 수행법과 나의 체험	우룡 스님	효림
8	들숨 날숨에 마음 챙기는 공부	대림 스님	초기불전연구원
9	잠나	혜거 스님	선문
10	생활 속의 좌선 수행 20년	권영두	운주사

도서 안내 : (02)737-06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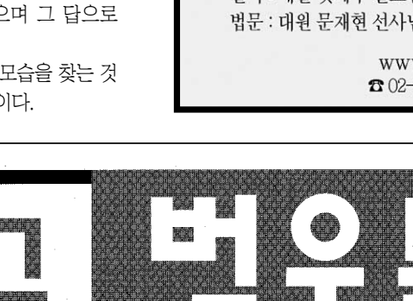
禪으로 깨우치는 반야심경
일시 : 매월 첫째주 일요일 오전 11시-12시
법문 : 대원 문재현 선사님(전강 선사님 인가제자)
www.zenparadise.com
☎ 02-522-0122, 011-785-0122



주머니 속의 작은 친구 범우문고

❷법정 〈무소유〉

1 수필 피천득
3 바다의 침묵(외) 베르코르 조규철·이정림
4 살며 생각하며 미우라 아야코 | 진웅기
5 오, 고독이여 F.니체 | 최혁순
6 어린 왕자 A.생 텍쥐페리 | 이정림
7 톨스토이 인생론 L.톨스토이 | 박형규
8 이 조용한 시간에 김우종
9 시지프의 신화 A.카뮈 | 이정림
10 목마른 계절 전혜린
11 젊은이여 인생을… A.모루아 | 방곤
12 채근담 홍자성 | 최현
13 무진기행 김승옥
14 공자의 생애 최현 엮음
15 고독한 당신을 위하여 L.린서 | 곽복록
16 김소월 시집 김소월
17 장자 장사 | 허세욱
18 예언자 K.지브란 | 유제하
19 윤동주 시집 윤동주
20 명정 40년 변영로
21 산사에 심은 뜻은 이청담
22 날개 이상
23 메밀꽃 필 무렵 이효석
24 애정은 기도처럼 이영도
25 이브의 천형 김남조
26 탈무드 M.토케이어 | 정진태
27 노자도덕경 노자 | 황병국
28 길매기의 꿈 R.바크 | 김진욱
29 우정론 A.보나르 | 이정림
30 명상록 M.아우렐리우스 | 최현
31 젊은 여성을 위한 인생론 P.벅 | 김진욱
32 B사감과 러브레터 현진건
33 조병화 시집 조병화
34 느티의 일월 모윤숙
35 로렌스의 성과 사랑 D.H.로렌스 | 이성호
36 박인환 시집 박인환
37 모래톱 이야기 김정한
38 창문 김태길
39 방랑 H.헤세 | 홍경호
40 손자병법 손무 | 황병국
41 소설 · 알렉산드리아 이병주
42 전락 A.카뮈 | 이정림
43 사노라면 잊을 날이 윤형두
44 김삿갓 시집 김병연 | 황병국
45 소크라테스의 변명(외) 플라톤 | 최현
46 서정주 시집 서정주
47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L.톨스토이 | 김진욱
48 불가능은 없다 R.슐러 | 박호순
49 바다의 선물 A.린드버그 | 신상웅
50 잠 못 이루는 밤을 위하여 C.힐티 | 홍경호
51 딸깍발이 이희승
52 몽테뉴 수상록 M.몽테뉴 | 손석린
53 박재삼 시집 박재삼
54 노인과 바다 E.헤밍웨이 | 김회진
55 향연 · 뤼시스 플라톤 | 최현
56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 R.릴케 | 홍경호
57 피천득 시집 피천득
58 아버지의 뒷모습(외) 주자청(외) | 허세욱(외)
59 현대의 신 N.쿠치키(편) | 진철승
60 별·마지막 수업 A.도데 | 정봉구
61 인생의 선용 J.러보크 | 한영환
62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F.사강 | 이정림
63 이동주 시집 이동주
64 고독한 산보자의 꿈 J.루소 | 연기용
65 파이돈 플라톤 | 최현
66 백장미의 수기 I.숄 | 홍경호
67 소년 시절 H.헤세 | 홍경호
68 어떤 사람이기에 김동길
69 가난한 밤의 산책 C.힐티 | 송영택
70 근원수필 김용준
71 이방인 A.카뮈 | 이정림
72 롱펠로 시집 H.롱펠로 | 윤삼하
73 명사십리 한용운
74 왼손잡이 여인 P.한트케 | 홍경호
75 시인의 반항 H.D.소로 | 황문수
76 민중조선사 전석담
77 동문서답 조지훈
78 프로타고라스 플라톤 | 최현
79 표본실의 청개구리 염상섭
80 문주반생기 양주동
81 신조선혁명론 박열 | 서석연
82 조선과 예술 야나기 무네요시 | 박재삼
83 중국혁명론 모택동(외) | 박광종 엮음
84 탈출기 최서해
85 바보네 가게 박연구
86 도왜실기 김구 | 엄항섭 엮음
87 슬픔이여 안녕 F.사강 | 이정림·방곤
88 공산당 선언 K.마르크스·F.엥겔스 | 서석연
89 조선문학사 이명선
90 권태 이상
91 내 마음속의 그들 한승헌
92 노동자강령 F.라살레 | 서석연
93 장씨 일가 유주현
94 백설부 김진섭
95 에코스파즘 A.토플러 | 김진욱
96 가난한 농민에게 바란다 N.레닌 | 이정일
97 고리키 단편선 M.고리키 | 김영국
98 러시아의 조선침략사 송정환
99 기재기이 신광한 | 박헌순
100 홍경래전 이명선
101 인간만사 새옹지마 리영희
102 청춘을 불사르고 김일엽
103 모범경작생(외) 박영준
104 방랑이 깎던 노인 윤오영
105 찰스 램 수필선 C.램 | 양병석
106 구도자 고은
107 표해록 장한철 | 정병욱
108 월광곡 홍난파
109 무서록 이태준
110 나생문(외) 아쿠타가와 류노스케 | 진웅기
111 해변의 시 김동석
112 발자크와 스탕달의 예술논쟁 김진욱
113 파한집 이인로 | 이상보
114 역사소품 곽말약 | 김승일
115 체스·아내의 불안 S.츠바이크 | 오영옥
116 복덕방 이태준
117 실천론(외) 모택동 | 김승일
118 순오지 홍만종 | 전규태
119 직업으로서의 학문·정치 M.베버 | 김진욱(외)
120 요재지이 포송령 | 진기환
121 한설야 단편선 한설야
122 쇼펜하우어 수상록 A.쇼펜하우어 | 최혁순
123 유태인의 성공법 M.토케이어 | 진웅기
124 레디메이드 인생 채만식
125 인물 삼국지 모리야 히로시 | 김승일
126 한글 명심보감 장기근 옮김
127 조선문화사서설 모리스 쿠랑 | 김수경
128 역옹패설 이제현 | 이상보
129 문장강화 이태준
130 중용·대학 차주환
131 조선미술사연구 윤희순
132 옥중기 오스카 와일드 | 임헌영
133 유태인식 돈벌이 후지다 덴 | 지방훈
134 가난한 날의 행복 김소운
135 세계의 기적 박광순
136 이퇴계의 활인심방 정숙
137 카네기 처세술 데일 카네기 | 전민식
138 요로원야화기 김승일
139 푸슈킨 산문 소설집 푸슈킨 | 김영국
140 삼국지의 지혜 황의백 엮음
141 슬견설 이규보 | 장덕순
142 보리 한흑구
143 에머슨 수상록 에머슨 | 윤삼하
144 이사도라 덩컨의 무용에세이 I.덩컨 | 최혁순
145 북학의 박제가 | 김승일
146 두뇌혁명 T.R.블랙슬리 | 최현
147 베이컨 수상록 베이컨 | 최혁순
148 동백꽃 김유정
149 하루 24시간 어떻게 살 것인가 A.베넷 | 이은순
150 평민한문학사 허경진
151 정선아리랑 김병하·김연갑 공편
152 독서요법 황의백 엮음
153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B.러셀 | 이자황
154 조선사 연구(草) 신채호
155 중국의 신화 장기근
156 무병장생 건강법 배기성 엮음
157 조선위인전 신채호
158 정감록비결 편집부 엮음
159 유태인 상술 후지다 덴 | 진웅기
160 동물농장 조지 오웰 | 김희진
161 신록 예찬 이양하
162 진도 아리랑 박병훈·김연갑
163 책이 좋아 책하고 사네 윤형두
164 속담에세이 박연구
165 중국의 신화(후편) 장기근 엮음
166 중국인의 에로스 장기근 역음
167 귀여운 여인(외) A.체호프 | 박형규
168 아리스토파네스 희곡선 아리스토파네스 | 최현
169 세네카 희곡선 세네카 | 최현
170 테렌티우스 희곡선 테렌티우스 | 최현
171 외투·코 고골리 | 김영국
172 카르멘 메리메 | 김진욱
173 방법서설 데카르트 | 김진욱
174 페이티의 산문 페이터 | 이성호
175 이해 사회학의 카테고리 막스 베버 | 김진욱
176 러셀의 수상록 러셀 | 이성규
177 속악유희 최영년 | 황순구
178 권리를 위한 투쟁 R.V.예링 | 심윤종
179 돌과의 문답 이규보 | 장덕순
180 성황당(외) 정비석
181 양쯔강(외) 펄벅 | 김병걸
182 봄의 수상(외) 조지 기싱 | 이창배
183 아미엘 일기 아미엘 | 민희식
184 예언자의 집에서 토마스 만 | 박환덕
185 모자철학 가드너 | 이정배
186 짝 잃은 거위를 곡하노라 오상순
187 무하선생 방랑기 김상용
188 어느 시인의 고백 릴케 | 송영택
189 한국의 멋 윤태림
190 자연과 인생 도쿠토미 로카 | 진웅기
191 태양의 계절 어시하라 신타로 | 고평국
192 애서광 이야기 구스타브 플로베르 | 이민정
193 명심보감의 명구 191편 이응백
194 아큐정전 루쉰 | 허세욱
195 촛불 신석정
196 인간제대 추식
197 고향산수 마해송
198 아랑의 정조 박종화
199 지사총 조선작



200 이어령 단편선 〈흥동백서〉
201 최인호 단편선 〈유명의 집〉
202 오정희 단편선 〈목련초〉

▶각권 값 2,800원 ▶계속 출간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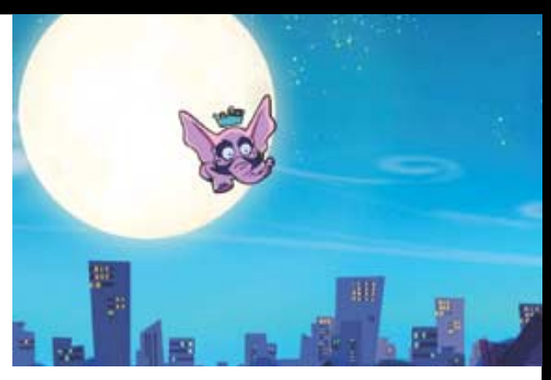
온고지신(溫故知新)으로 21세기를! www.bumwoosa.co.kr T.(02)717-2121 범우사



불교 애니메이션 '달마의 시간여행' 첫편인 '참새를 구해줘요' 중에서 '선재'와 '동자'가 달마코끼리를 만나는 장면.

불교여행 떠나볼까!

카르마엔터테인먼트 '달마의 시간여행' 제작



경전 내용 아이들 눈높이로 각색
'대장금' 부른 팀 찬불가 불러
총 56편 중 4편 완성 정규방송 방영
불교 문화상품 대중화에 큰 기대



부처님 가르침을 소재로 한 TV 애니메이션 시리즈가 제작되고 있어 화제다.

특히 시리즈 가운데 이미 제작 완료된 일부가 이번 부처님오신날 특집으로 지상파와 케이블TV의 전파를 타면서 불교 문화 콘텐츠의 대중화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화제의 애니메이션은 카르마엔터테인먼트(대표이사 하윤환)에서 제작 중인 '달마의 시간여행'. 초등학생 선재와 마야, 그리고 신통력을 가진 동자와 달마코끼리의 신나는 모험이야기가 주 내용이다. 여기에 <부모은중경> <목련경> <인과경> <법구경> <천수경> <반야심경> <화엄경>과 같은 불교 경전에서 '효(孝)' '인과응보' '형제애' 등 교훈적인 주제를 선별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각색 했다.

또한 배경음악도 영화의 주제에 맞게 창작 찬불가를 사용하고 있다. 특히 이번 음악 작업에는 최근 방영된 MBC-TV의 인기 드라마 '대장금'의 주제곡을 부른 가수들이 참여해 대중적인 인기에도 한몫 할 것으로 보인다.

TV 방영을 목적으로 제작된 '달마의 시간여행'은 11분짜리 단편 분량으로 총 56편이 제작된다. 시나리오 작업은 끝난 상태며, 이중 제작이 완료된 '참새를 구해줘요', '엄마가 위험해' '놀이 공원에 가요' '게 섯거라, 바퀴벌레' 등 4편은 지난 5월 25 · 26일 SBS와 불교 TV에서 봉축 특집으로 방영돼 호응을 얻었다. 나머지 제작분도 현재 SBS와 EBS에서 가을 개편 이후 정규방송에 편성하겠다고 제의 하는 등 이 애니메이션에 대해 각 방송사들이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문화콘텐츠는 '원소스 멀티 유즈(One Source Multi Use)'라는 장점을 갖고 있다. 즉, 하나의 소스를 가지고 캐릭터, 게임, 모바일, 완구산업 등의 여러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것. '달마의 시간여행'도 이런 취지에 맞춰 비디오와 DVD 출시를 계획하고 있으며, 달마코끼리 등 캐릭터를 응용한 인형 제작과 만화책 출간 및 게임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어서 불교 문화상품의 대중화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제작을 맡은 카르마엔터테인먼트사는 '업(業)'이라는 뜻의 산스크리트어 회사 이름 처럼 불심이 강한 불자들이 만든 회사로 그동안 '행복한 세상', '아름다운 여행', '동강 아이들' 등 상업용 애니메이션을 꾸준히 기획 제작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내에 '불교프로젝트' 팀을 별도로 가동해 어린이 교육용 불교 애니메이션과 불교만화 제작 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하윤환 대표는 "우리 민족 문화의 원형인 불교를 소재로도 얼마든지 고부가 가치산업인 문화콘텐츠에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보여주고 싶다"며 "이번 작품을 계기로 현재 소재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콘텐츠 산업분야에서 불교 소재가 많이 활용될 수 있는 기폭제가 됐으면 바란다"고 말했다.

김두식 기자 doobi@buddhapia.com

투박한 소리에 담긴 천년의 아름다움



우리나라 전통음악의 중요 갈래인 영산회상의 '평조회상(유초신지곡이라고도 하며 영산회상곡을 4도 아래로 조옮김 하여 연주하는 악곡)'을 대금 독주로 감상할 수 있는 음반 '천년을 잇는 소리'가 나왔다.

중요무형문화재 제20호 대금정악의 예능보유자인 김응서 교수(용인대 국악과 · 사진)가 40년에 가까운 대금 연주 활동을 통해 처음으로 낸 음반이다. 음반에는 유초신지곡 전곡의 대금독주와 '청성곡(청성자진한잎)' '변조두거'가 함께 담겼다. 특히 이 음반에 담은 음악은 김 교수의 스승인 故 김성진 명인으로부터 물려받은 대금으로

김응서 교수 첫 음반 '유초신지곡' 전곡 담아

연주해 소리의 전통을 잇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 조선조의 최학봉 김계선 김성진으로 이어진 대금 정악의 뿌리를 이어 1997년 예능보유자가 된 김응서 교수는 그간 3천800여회의 국내외 연주 행사와 60여 나라에서 700여회의 해외공연 경력을 가진 고수다. "예인이 이렇게 음반을 만들어 스스로 상을 내는 것은 자신을 죽이는 일인 줄 알지만 주변의 권유를 뿌리치지 못하고 투박한 소리를 음반에 담았다"는 김 교수는 "후학들이 내 소리를 듣고 더 나은 소리를 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연태 기자

양주 육지장사 제 1회 영화제

사찰에서도 대형 스크린으로 영화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경기도 양주시 육지장사(주지 지원)는 6월 19 · 20일 양일간 오후 8시 대웅전 앞마당에서 '제 1회 영화축제'를 연다. 이번 행사의 백미는 깊은 산사에서도 극장에 서처럼 대형 스크린과 최첨단 음향시설로 영화의 묘미를 만끽할 수 있다는 점이다. 우선 첫째날인 19일에는 엄마를 찾는 한 소년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담은 애니메이션 '오세암'을 상영한다. 또 둘째날인 20일에는 티베트의 정

산사음악회, 숲길 보행 명상 등 다채

신적 지주인 14대 달라이라마의 환생에서부터 그가 티베트 국경을 넘는 순간까지의 과정을 조명한 영화 '쿤둔'이 상영된다. 이와함께 영화 상영전인 오후 4시부터는 육지장사 주지 지원 스님이 '물 잘알고 마시면 건강해 진다'를 주제로 건강 특강을 진행한다. 이어 10㎞ 숲길 보행 명상 프로그램과 서울 경기연합합창단과 국악인들이 참가한 작은 산사음악회도 함께 펼쳐진다. 지원 스님은 "웰빙 시대에 맞춰 사찰도 건강과 문화 행사를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031)871-0101 김주일 기자

불교성지순례 17년간 불자님들과 함께합니다

(주)실크로드여행사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68-5 서흥빌딩 9층 조계사앞 (02)720-9600

부처님의 숨결을 느낄수 있는 성지순례!!

성지순례는 전통있는 실크로드와 함께 최고의 순례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특선1 중국 실크로드 10일 ▶출발일 : 6월 30일 169만원
서안-종남산-천수(맥적산석굴)-난주(병령사석굴)-돈황(막고굴,유림석굴)-투루판-우루무치로 이어지는 실크로드상의 중요한 석굴을 답사하는 최고의 일정

특선2 인도세미 배낭여행 10일 ▶출발일 : 7월 15일 149만원
● 인도 7대불교성지순례 : 델리-기원정사-카필라성-룸비니-쿠시나가르-바이샬리-파트나-라즈기르-보드가야-바라나시-아그라-델리 ※ 호텔,차량,식사,입장료,보험,안내자등 포함 / 인도비자대 불포함

특선3 파키스탄, 카라코람, 실크로드 13일 ▶출발일: 7월 20일, 8월10일 285만원
● 일정 : 라호르-탁실라-페샤워르-스와트-칠라스-길기트-훈자마을-카슈카르-쿠차(천불동)-우루무치

중국불교 4대 명산 순례 *10명이상 출발 가능
▶지장보살의 성지 구화산 5일 (남경-구화산 지장성지-천하제일 황산-항주-영은사,서호-상해) 85만원
▶관음보살의 성지 보타산 5일 (상해-항주-영파-보타산-관음현신처 조음동,보제사,낙가산 등-상해) 79만원
▶보현보살의 성지 아미산 5일 (성도-낙산대불-아미산-아미산 정상의 금정,만년사 등-성도) 85만원
▶문수보살의 성지 오대산 6일 (조주선사의 백림선사 임제선사의 임제사, 오대산, 운강석굴 등) 95만원

■ 티벳, 네팔 순례 12일 ▶출발일 : 7월 20일 259만원
티벳의 라사에서 히말라야를 넘어 카트만두까지 일주하는 신비로운 티벳의 불교성지를 찾아서
▶일 정 : 라사-포탈라궁-장체-시가체-라체-시가(에베레스트등 히말라야 조망)-장무-카투만두

■ 수미산 순례 25일 ▶출발일 : 7월 6일 405만원

육 법 등(六法燈)




용암사(서울 광진구) 대웅전에 장엄된 육법등

특 징
1) 부처님께서 보리수아래서 성도 하신후 49년간 설법을 하셨기에 등을 49개 밝히니 그 모양이 마치 보리수 나뭇잎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음
2) 더러운 곳에서 물들지 않고 항상 깨끗함을 나타내는 연꽃모양을 만들어 등을 밝힘
3) 연등의 밝기를 자유로이 조절하여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음
4) 등의 재질을 신주 및 아크릴로 제작하여 변형 및 변색이 되지 않음

활용범위
1) 법당내 상단 부처님전 조명 및 장엄등
2) 지장단 영가천도를 위한 49재 및 각종 제사단에 활용
3) 각단의 인등 및 장엄 등으로 활용 가능함
4) 예식장의 주례단 단상의 장엄 및 촛불 대용으로 활용가능
5) 장례 예식장의 영가단에 화환대신 장엄 가능함
6) 등 장엄이 필요한 각 단상 및 기타장소

(주)동원전기 주 소 : 경기도 포천군 포천읍 설운리 290-1
전 화 : 031)541-1417 / 팩 스 : 031)541-1419
총판 및 대리점 모집

안양규 교수의
경전이야기 <23>



행복을 가져오는 주문

주문을 외우면 초능력이 생기거나 소원을 성취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 특정한 말을 외워 되풀이하면 소원이 이루어지고 병이 낫고 자식들이 일류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업할 수 있다면 누구든지 주문을 외우려고 할 것이다. 모 신흥종교에선 아직도 주문의 효능을 믿으며 자신들의 교주가 하늘로부터 들은 주문을 외우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가르치고 있다. 주문은 일상언어와 달리 이해되지도 않아 신비로운 느낌을 주며 특별한 힘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 받아들여진다. 주문의 효과를 믿는 사람들은 소리 그 자체가 파워를 지니고 있다고 말한다. 주문은 또한 그 주문에 감응하는 신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신이 주문을 외우는 사람에게 힘을 가져다 준다고 믿기도 한다.

부처님 재세시에도 브라흐민교는 주문을 암송하면 행복을 얻고, 죽어 천상에 태어날 수 있다라고 믿고 있었다. 이러한 대중적인 주문의 신앙에 대항해 붓다도 제자들에게 주문을 가르쳤다. 그러나 붓다가 가르친 주문은 주술적인 주문과 달랐다. 말소리 자체가 어떤 특수한 힘을 지니거나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말의 소리 이면에 담겨 있는 의미에서 힘이 발생한다고 가르쳤다. 다른 종교들의 주문이 이성적으로 이해될 수 없는 무의미한 말들의 조합에 지나지 않지만 붓다의 주문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다.

<숫타니파타>의 <자비경>은 자신을 보호하는 호신주(護身呪, paritta)로 동남아시아 불교에서 널리 애송되고 있다. <자비경>은 능히 자신의 안녕을 지켜주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주며 사고와 불행으로부터 자신을 구제해줄 수 있는 신비한 문구로 독송되고 있다. "어떠한 생명체일지라도, 즉 강하든 약하든 모두 행복하라.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멀리 있거나 가까이 살고 있는 것이나, 이미 태어난 것이나 앞으로 태어날 것이거나 모든 살아 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 마치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외아들을 아끼듯이, 모든 살아 있는 것에 대해서 한량없는 자비심을 내라. 또한 온 세계에 대해서 한량없는 자비를 행하라. 위로 아래로, 또는 옆으로 장애와 원한과 적의가 없는 자비를 행하라. 서 있을 때나 걸을 때나 앉아 있을 때나 누워서 잠들지 않는 한, 이 자비심을 굳게 가지라." 붓다가 제시한 주문은 한마디로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과 같이 일체 중생에 대하여 자비심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다.

부처님이 <자비경>을 설하시게 된 동기는 붓다고사가 쓴 주석서에 설명되어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은 비구들은 적당한 거처를 찾아다니다 히말라야 산록에 이르렀다. 주야로 명상하기에 알맞은 나무 그늘을 골랐다. 그런데 이 거대한 나무들에는 신들이 살고 있었다. 이 나무신들은 정진하는 비구들을 존경하여 기꺼이 그 자리를 비켜주었다. 처음에 나무신들은 비구들이 기껏해야 하루나 이틀 묵어가리라 생각하고 기꺼이 불편을 참았다. 그러나 여러 날이 가도 계속 비구들이 나무 아래 자리를 차지하고 있자, 그들은 비구들을 빨리 떠나게 하고 싶어졌다. 신들이 마침내 수행자들에게 무시무시한 모습을 나타내 보이고 끔찍한 소리를 내어 괴롭히자 수행자들은 겁에 질려 떠나게 되었다. 이윽고 그들은 사밧티에 도착하여 세존께 자신들의 끔찍한 체험을 말씀드렸다.

부처님은 그들에게 이르셨다. "비구들이여,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라. 두려워하지 말라. 신들의 괴롭힘에서 벗어나고 싶거든 이 <자비경>을 외우고 닦아라. 이는 명상의 주제일 뿐 아니라 호신주도 되니라." 그리고는 세존께서 <자비경>을 읊으시자, 비구들도 세존 앞에서 따라 외운 다음 다시 온 곳으로 되돌아갔다. 비구들이 <자비경>을 암송하며 그 깊은 의미를 음미하고 명상하면서 다가가자, 신들은 비구들을 깊은 공경심으로 맞아들였다. 신들은 3개월의 우기 동안 비구들을 여러 모로 돌봐주었을 뿐만 아니라 조금도 소음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었다. 덕분에 우기가 끝났을 때엔 모든 비구들이 아라한과를 성취하게 되었다고 한다.

자비의 주문을 암송하면 자신을 해치려는 독사조차도 물리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다. 한 비구가 독사에 물려 죽은 사고가 부처님께 알려지자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자비심을 가지고 자비의 주문을 외우라고 하였다. 온전한 사랑의 마음을 담고 있는 자비의 주문은 적도 온화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광폭한 코끼리가 부처님과 그 제자를 향해 돌진하고 있을 때 부처님을 피하지 아니하고 자비심을 코끼리에게 보내 날뛰던 코끼리를 유순하게 한 이야기는 자비의 주문의 효력을 보이는 것이다. 미운 사람에게 행복하라고 염원하는 자비의 주문을 외워보도록 노력해 보자.

미운 사람의 행복 염원하는 자비 주문 외우자
온전한 사랑 담으면 적조차 온화하게 만들어

동국대(경주) 불교학과 교수



"생활속에서 늘 부처님 가르침을 기억하며 실천하는것이 참불자의 삶"이라는 정각 스님.

부처님 말씀 한순간도 놓지말라

지상 백고좌

정 각 스님

(법륜종 종정)

옛날 조주스님은 '날마다 좋은날(日日是好日)'이라 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좋은고 하면 '봄이면 꽃이 피고 여름엔 시원한 바람, 가을에는 밝은 달이요 겨울엔 흰눈이 있어 좋구나(春有百花 夏有風 秋夜明月 冬有白雪)'라고 했지요.

정말, 날마다 좋은 날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모두가 좋은 날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좋은 날도 허공처럼 머무름이 없었을 때 좋은 날인줄 알며 삽니다.

모든 것을 놓고 비우고 쉴 때 좋은 날이고 생활이 편안해 집니다. 우리가 해야 할 공부는 바로 비우는 공부입니다.

우리는 늘상 말이나 생각으로 '비운다, 놓는다' 하면서 막상 사물을 대하고 보면 그렇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중생이고 현실입니다. '나'를 버리는 공부로 <금강경>이 가장 으뜸입니다.

<금강경>에 보면 '여래(如來)는 참다운 말을 하는 이며, 실다운 말을 하는 이며, 한결같은 말을 하는 이며, 속이지 않는 말만 하는 이며, 사실과 다르지 아니한 말만 하는 이다(是眞語者 實語者 如語者 不語者 不異語者)'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 말씀을 생활 속에서 확실히 체험해야 합니다.

<금강경>을 크게 세 단락으로 분류하면, 먼저 '무릇 있는 바 상(相)은 다 헛되고 망령된 것이니 만약 모든 상이 상 아님을 보면 곧바로 진실한 여래를 보게 된다(凡所有相 皆是虛妄 若見諸相非相 卽見如來)'는 것입니다.

또한 본론격으로 '만약 색신으로써 나를 보려 하거나 음성으로써 나를 구하려 하면 이 사람은 삿된 도를 행함이라 능히 여래를 보지 못하느니라(若以色見我 以音聲求我 是人行邪道 不能見如來)'고 하였으며, 마지막 결론으로 '일체의 유위법은 꿈 환상 물거품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같고 또한 번개와 같나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하라(一切有爲法 如夢幻泡影 如露亦如電 應作如是觀)'고 하였습니다.

구구절절 모든 것이 허망하다는 것을 알고, 놓고, 비우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살면 가장 편하고 좋습니다.

그러기에 조주 스님도 '평상심이 도(道)'라 하셨습니다. 도(道)가 길밖에 또 생활밖에 따로있는 줄로 알면 잘못된 것입니다. 평소의 내 생활 그대로 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끝없



30여년간 생활불교를 주창해 온 정각 스님은 보현정사(www.bohyun.net) 홈페이지도 운영하고 있다.

피 흘리는 부처님의 영험 도량 가평 원흥사
신묘장구 대다라니 진언 7일 정진기도

부처님의 영험이 가득한 원흥사에서 중생의 고통을 함께하는 마음으로 지극정성 7일 정진기도를 하고자 합니다. 고통 받는 마음이 간절한 기도로 치유되고, 소원하는 바가 성취되도록 무루 동참하시어 이루시기 바랍니다.

옛이야기로는 삼국시대 원홍가라는 곳이 이곳이었는데 이절의 스님이 불법은 물론 부처님의 자비로움으로 병을 치료하는 신비한 힘이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 이곳을 찾는 신도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으며 특히 이절을 찾아 많은 신병을 치료했다고 하고, 이때부터 이절이 있던 곳을 불심의 터전이라 하여 원홍 부락이라 불리워졌습니다.

옛절은 일제시대때 소실되었으며 소승 구천이 복원 불사 중 땅속에 묻혀있던 두 부처님을 발견하고 정성껏 관욕하여 새롭게 금으로 개금하여 원홍사에 모셨고, 이 부처님께서 기이한 피흘리는 기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일 정진기도 토굴

기도안내
7일 정진기도
(신묘장구 대다라니 진언기도)
● 입재 : 매주 월요일 오전 8시
● 회향 :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찾아오시는 길 ✪ 서울에서 포천 일동 방향 신팔 사거리에서 현리(37번 국도) 방향 10분. 청평에서 포천 방향 20분.

경기도 가평군 상면 태봉 2리 494-1 전화 031)585-2090 원 흥 사 주지 구천 합장

홍체학의 비법 특강
인간이 질환 없이 살 수는 없을까?
◎ 요즘 한창 성황중인 임상 홍체학은 무엇인가? ◎
"최첨단 눈 동공에서 찾을 수 있는 건강 진단 방식"
"눈을 보면 건강을 알 수 있어요. 홍체와 자연치유 영양의학"
현대 중앙병원 대체의학 연구소에서 왜 연구를 지속할까?
카이스트 공흥진교수와 팔상 체질의학 창시자인 권도원 박사님의 체질 진단 공동개발 프로젝트 개발
● 한국기문미래연구학회에서는 매주 월요일 오후 14시부터 16시까지 새로운 건강관리 운동에 소중한 당신을 초대합니다.
● 자연치유 의학에 시작, 지구촌 자연의학 바람 거세다. (중앙일보 2004년 1월 25일자 기재)
전철 5호선과 7호선 환승역 군자 3번 출구 조흥은행 옆
선착순 10명 제한 접수 연락처 02)497-8709

사주학 특강반 모집
매주 수요일 - 금요일 (오전 10시~12시, 오후 4시 ~ 6시)
▶ 신기문 선생과 송강선생 직강 ◀ (현재 방송국에서 강의 중. i-TV. SBS 출연함)
평생 직업! 특강반에서는 직접 영업할 수 있게 속성강의
오행의 기초부터 완벽한 이론 및 실제 감정 완전 정복
(자격증. 취업보장) "ARS 대동정보 통신에서 후원"
사단법인 한국 기문미래 연구학회
전철 5호선과 7호선 환승역 군자 3번 출구 조흥은행 옆
미달 접수. 5명 제한. 접수 연락처 02)454-3369
지선법사의 운명 특별상담 접수 中

불교 불모지 옥토로 일군 '무쇠'

기자가 본 정각 스님

의외였다. 스님들을 만나면 알고 싶어도 물어서는 안 될 금기사항중 하나가 속가(俗家)와 출가(出家) 이야기이건만 정각 스님은 허물없이 들려준다. 스님이 대학 때 고시를 준비하던중 병을 얻어 요양차 간 곳이 속가 은사가 주석하고 있던 지리산 백장암이다. 그 은사는 지난해 입적한 청화 스님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세속의 은사였고 출가 은사로 이어졌다.

정각 스님이 들려주는 청화 스님 이야기는 흥미롭다. 55년전, 무안 혜운사에 계시던 청화 스님은 직접 탁발하여 망운 중학교를 건립했고, 승복 입은 채 수학을 강의했단다. 스님의 행동, 말 한마디는 그대로 흐트러짐 없는 사표였다. 이처럼 큰 스승이었기에 고향에서 청화 스님 권속으로 출가한 이가 놀랍게도 100여명이라 한다.

강원과 선방에서 정진하던 정각 스님은 30여년전 '불교 생활화'를 내걸고 목포입구 승달산 자락에 터를 잡았다. 불교 불모지 목포에서 1만여평의 대지에 1만여명의 대중이 심신을 닦아가는 대가람 '보현정사'로 자리잡기까지 정각 스님의 역할은 상상을 초월한다. 스님은 2시30분에 기상해 참선과 예불에 이어 법회, 불공, 신도대담 등 하루 200~300여명을 만난다. 부전, 법주는 물론 때로는 행자가 되기도 한다. 그러다보니 신도와 대중들로부터 '무쇠덩어리'로 통한다. 무슨 비법이 있지는 않을까 해서 재근하니 '경전을 독송하라' 한다. 생활 속에 한시라도 부처님 말씀을 놓치지 말라 한다.

해인사 성수 스님에게 율맥을 전수받은 정각 스님은 '승단의 율이 바로서야 불교가 산다'는 신념으로 요즈음 계율 정비에 혼신을 다하고 있다. 1997년 법륜종 3대 종정으로 추대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정각 스님은 보현정사 유치원생들에게는 자상한 할아버지로 통한다.

는 자기 반성과 참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즉 자기 점검이지요. 따라서 불자라면 항시 아침, 저녁으로 경전을 독송해야합니다. 특히 <금강경>을 독송해 보세요.

경전을 아무리 읽어도 뜻을 알 수 없다며 포기하지 마세요. 일심으로 독송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처님 말씀은 '성구 금언(聖句 金言)'으로서 독송하면 사기(邪氣)가 침입하지 못합니다. 독송할 때는 천천히 읽으면 망상이 생기니 빨리 읽도록 하세요. 빨리 읽으면 망상이 들어올 틈이 없게 됩니다.

옛 선사들이 말하기를 '공부할 때는 고양이가 쥐 잡듯이 하라' 했습니다. 혼신을 다해야 날렵한 쥐를

독송 빨리하면 망상 못 들어와

잡을 수 있습니다. 조금의 방심이나 흘어짐이 없어야 합니다.

처음 출가하여 청화 스님을 모시고 진불암에서 공부할 때였습니다. 대중이 묵언하며 아침 점심만 공양하고 오후불식하며 수행했습니다. 공부하는데 있어 여러 가지로 부족했지만 그때만큼 공부 잘 되었던 때가 없었습니다. 수행자로서 자세가 흘어지지 않았기에 공부가 잘 되었던 것입니다.

강원을 마치고 전국의 선방에서 20여년 공부하다 우연히 허응당 보우 스님(虛應堂 普雨)의 출산게(出山偈)를 보았습니다. 보우 스님이 공부하고 저자거리로 나오면서 쓴 시입니다.

'내가 뜻을 세워 공부한 6년, 금강의 본 경지를 보았노라. 사나운 말(馬)과 간사스런 원숭이를 뜻과 같이 길 들였다. 비단옷 입고 밤길을 걷는다고 많은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더라도 내 법당(法幢)의 주장자를 곧게 세우고 고통과 시련이 많은 사바세계 중생세계를 찾아가노라' 하셨습니다.

중생들을 위해 세간으로 나가는 보우 스님을 모두 말렸는데 스님은 산문 밖으로 나와 포교하시다가 결국은 제주에서 유생들에 의해 돌아가셨습니다.

저 역시 무척 고민되었습니다. 불교는 생활 속에 살아있어야 하는데, 그때도 불자들의 생활은 불교와 거리가 멀었습니다. 산중에서 공부를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세간 밖으로 나갈 것인가….

이때 보우 스님의 글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곧장 불교 불모지 목포에 터를 잡고 '생활불교'를 펴고자 노력했습니다. 오늘의 보현정사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생활불교에 대해 이해는 하는데 실천하는 데는 부족합니다. 생활불교는 직접 보고, 듣고, 먹고, 잠자고 행동하는 것이 모두 생활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 떨어져서는 안됩니다. 부처님의 진리가 생활과 직접적인 관계 속에서 이익이 되어야지 '이론 따로, 생활 따로'이어서는 안됩니다.

생활불교를 위해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합니다. 불자라면 모름지기 정기법회에 꼭 참석해야 합니다. 법회에 참석하여 법문을 듣다보면 지난 일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콩나물 자라나듯 공부가 되어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양할 때 꼭 기도하셔야 합니다. 제가 간단한 공양문을 소개하겠습니다.

'한 방울의 물에도 부처님의 은혜가 스며있고, 한 알의 곡식에도 부처님의 은혜가 스며있습니다. 이 공양으로 주림을 달래고 열심히 정진하여 성불하겠습니다.'

집이나 밖이나 어디서든 공양할 때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잘못 알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불교가 배불정책으로 산속으로 밀려났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본래 불교는 '상구보리 하화중생'으로 진리탐구를 위해 공부할 때는 산이 필요하지만, 공부가 된 다음에는 중생제도를 위해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요즘도 공부하는 큰 스님들이 산중에만 계시는

큰스님들 도시로 나와야

데 모두 도시로 나와야 합니다. 큰 스님들은 연꽃처럼 더러움에 물들지 않으니 견성하신 분들이 저자거리로 나와서 중생제도를 하셔야 합니다.

부설 거사의 열반송에 '눈으로 보되 분별하지 말고, 귀로 듣되 시비를 가리지 말고, 분별시비를 다 놓아버리고, 마음의 부처에 귀의하라(目無所見 無分別 耳聽無聲 絶是非 分別是非 都放下 但看心佛自歸依)'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대로 저의 생활이요, 신도들에게 제시하는 생활불교입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내가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그리고 불법을 만난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를 느끼곤 합니다. 나옹 스님의 글을 끝으로 불자의 삶을 되새겨 봅니다.

'우리가 이 아름다운 부처님의 도량에서 정신 바짝차리고 두 눈을 크게 뜨고 성성하고 적적하여 자기의 본래면목을 확실히 찾아야 한다. 보이는 만물이나 보이지 않는 일체만물이 본래 그대로 주인이다. 참된 성품은 두루 밝아 본래 한물건도 없나니 목마가 밤에 우니 서쪽에서 해가 뜨도다.'

정리 · 사진=이준엽 기자



진각 스님의

스님이야기

고산 스님(2)

고산 스님이 오시기 전 쌍계사는 살림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어려웠다. 뒤주에는 쌀이 없어 늘 텅 비어 있었고, 요사채는 퇴락할 대로 퇴락해 남루하기 그지 없었다. 신도도 없었다.

그러나 스님이 오시고 부터 도량 곳곳에 변화가 왔다. 요사채를 비롯 모든 전각은 단정하게 정비되었거나 알맞은 크기로 자리잡았고, 신도들의 발길은 끊이지 않았다. 남의 손으로 넘어갔던 사찰의 토지도 모두 되찾았다. 버려져 있던 밭들은 스님의 손에 의해서 여름에는 고추와 상추가 가득했고, 가을에는 무와 배추로 넘쳐났다.

고산 스님을 뵈려고 오는 신도들은 낮에는 밭이나 불사 현장에서 스님을 친견할 수 있었다. 스님은 해가 떠 있는 동안에는 방에 계시지를 않았다. 추운 겨울에도 밖에서 장작을 패는 등 늘 부지런한 스님 모습에 신도들은 더욱 더 신명이 났다.



그림 · 문병성

한번은 스님이 방 횃대에 걸려있는 수건을 가리키며 "십 년째 사용한 것"이라고 지나가듯 말씀 하셨는데 그 말씀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다. 시줏물과 신도들의 공양물을 대하는 스님의 사고방식과 그 근검절약하는 생활이 얼마나 생활화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

고산 스님은 경, 율, 논에도 해박하지만 농사일이나 원예에도 '박사' 소리를 들을 정도로 능통하니 스님의 상좌들은 은사스님 앞에만 서면 저절로 경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신도들은 자신들이 모시는 스님이 부처님일은 말할 것도 없고, 농사, 원예, 목공일까지도 막힘이 없으니 그저 자랑스러워 할 뿐이다. 내가 옆에서 지켜본 고산 스님의 하루는 1년 365일이 한결같았다.

고산 스님은 당대의 대 강백 고봉 스님으로부터 전강을 받았고, 부산 내원정사 창건주인 석암 노스님으로부터 계맥을 이었다. 쌍계사에서는 보살계를 설해서 많은 불자들에게 법의 진수를 맛보게 하고 있다. 스님이 가시는 곳마다 신도들이 넘쳐 나고, 하시는 불사마다 성황을 이룬다.

부산 연산동의 혜원정사와 부천 원미동의 석왕사는 고산 스님이 창건한 사찰이다. 당시만 해도 사찰의 창건은 인연 따라 짓는 것이 스님들의 일반적인 사고였다. 하지만 스님께서는 부산시청이 동래로 옮겨온다는 것을 알고 혜원정사의 부지를 매입하였고, 석왕사는 부천이 인천과 서울의 최대 배후도시가 된다는 점을 강조하셨다. 30년이 지난 지금의 혜원정사와 석왕사의 사세(寺勢)는 도심 포교당의 역할을 훌륭하게 해내고 있다. 혜원정사가 위치한 인근의 연산동 로타리에 부산시청이 옮겨와서 부산의 중심지가 되었고, 석왕사는 창건당시에는 한적한 산밑에 자리잡고 있었는데 수도권의 비약적인 팽창으로 부천의 불교중심지로 자리매김했다.

부산 혜원정사 법당 불사 때 나는 스님 옆방에 기거하면서 심부름을 했다. 스님은 새벽예불이 끝나면 저녁 공양 때까지 인부들과 함께 일을 했다. 스님과 함께 일하다 보면 너무나 강도 높게 일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사흘 안에 코피를 쏟게 되어 있다. 나도 사흘만에 코피를 쏟았다.

수건 하나도 십년 넘게 사용

경·율·론은 물론 모든일 '박사'

고산 스님은 평생동안 기도와 불사로 일관해 왔기에 어느 정도 사람에게 일을 시켜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금새 읽어내신다. 마주앉아서 스님의 눈과 마주치고 있으면 그 형형한 눈빛이 내 속을 훤하게 꿰뚫는 것 같아서 저절로 가슴이 움추러 든다. 또한 스님은 이야기도 청산유수로 잘 하신다. 결에서 일하면서 스님말씀을 듣고 있으면 시간가는 줄을 모르게 된다. 스님은 사람을 끌어모으는 탁월한 매력이 있다. 그것은 물론 당신이 부처님 가르침을 청정하게 실천하는데 기인하고 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기독교는 서울 강남지역에서 아파트나 주택단지의 종교부지를 확보하여 오늘날의 급성장을 이뤄냈다. 그것은 정부의 정책을 계획이나 입안 단계서부터 접근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다. 사람이 사는 사회는 사람과 사람사이의 관계설정이 매우 중요하다. 정보도 사람으로부터 나온다. 도시개발의 산물인 종교부지를 타종교가 독식하고 대도시의 전도활동에 역동적인 힘을 쏟아부을 때 불교는 오히려 도심의 한 축인 봉은사의 그 광활한 땅을 헐값에 매각할 정도로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했다.

당시 불교의 지도자급 스님들이 도심포교의 중요성에 제대로 눈뜨지 못하고 있었을 때 고산 스님은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고 철저한 수행과 앞서가는 안목으로 급속하게 변화하는 사회에 불교가 동력의 축이 되게 한 것이다. 이렇게 스님의 탁월한 안목과 견고한 수행력에는 늘 고개가 숙여진다. ■조계종 포교원 포교국장

현대불교신문
창사10주년
독자사은대잔치

※ 탄허스님의 육성법문 일부분은 탄허닷컴(www.tanheo.com) 육성듣기 코너에서 직접 들을 수 있습니다.

출고정가 15만 2천 6000원
참고교재 1권 포함
5만원(74.8%할인)

단!
"500분"께만!
기회를 드립니다

<<탄허스님의 佛 · 祖 · 仙 · 華嚴 특강(CD18매)>>

탄허스님 육성 강의
(동양사상 특강 CD)



탄허 대종사께서 1977년과 1982년 동안거 기간에 전국 강원의 중강이상의 스님 80여 명을 대상으로 하루 8시간씩 강의한 내용을 녹음한 250여 개의 테이프를 간추려 18장의 CD에 담아 처음으로 공개하는 스님의 육성 강의

■ 판 매
책 방 : 여시아문 전화 02)737-0695(www.yosiamun.com)
마 하 몰 : 주문전화 02)732-1520 (www.mahamall.co.kr)
주 소 : 서울 종로구 견지동 110-33

당신도 최고의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국내 어느곳에서도 배울수 없는 과정과 비법을 3개월만 배우면 초보자도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때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단기과정!! 속성비결!!

사암침술 강좌

맥을 터득해야 사암침술을 자유자재로 시술 할 수 있습니다. (초,고급과정)
▶ 내 용 : 12경락과 경근, 사암도인침구요결, 장부의 허실증 판단, 황제내경맥진법, 맥조절방법, 처방요령, 침술즉효요법(一鍼法), 뼈교정법, 종합실습
▶ 개 강 : ● 2004. 6. 9 (주 · 야간반 : 3개월 완성) ● 2004. 7. 5 (주 · 야간반 : 3개월 완성)
※ 침술사 자격증도 교부합니다.

매화역수 강좌

간단한 수리학(1~9)만으로 운명을 판단하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쉽고 간단하고 재미나며, 명리수준을 최고위 과정까지 높여 드리는 국내유일의 강좌로 년운과 월운은 물론 일운까지 정확하게 적중시키는 최고의 학문입니다.
▶ 개 강 : 2004. 6. 11 (주 · 야간반 : 1개월 완성, 개인지도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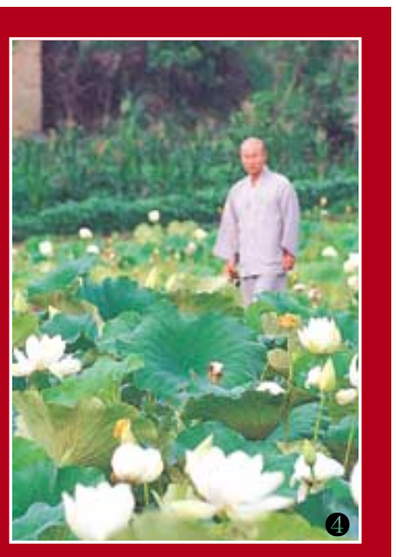
사 암 침 술 학 회

장소 : 화암빌딩 402호(종로3가 지하철 12번 출구 옆) 문의 : 011-307-2975. 02)2267-9136


❶


❷


❸


❹

❶ 합천 해인사 강원스님들은 매해 단오날 '특별한' 수행을 한다. 바로 축구공과 함께하는….
❷ 범일국사를 모신 대관령 국사성황제.
❸ 단오날 머리를 창포물에 감으면 일년 내내 머리결이 고와진다.
❹ 김제 청운사는 단오를 맞아 하소백련 축제를 연다.

창포물에 머리감고 신명나게 한판 놀자

6월 전국서 단오축제 활짝

민속놀이 · 국악경연 등 프로그램 다채


매해 단오날 봉행되는 신촌 봉원사의 전통 영산재.

6월 22일은 민족 4대 명절 중 하나로 꼽히는 단오날이다. 강릉 경산 천안 등 지방자치단체들과 전국 사찰들은 단오날을 맞아 다양한 행사를 마련해 즐거운 축제 한마당을 준비하고 있다.

강릉 단오제는 가장 규모가 크고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행사다. 강릉시는 올해부터 이 행사를 세계 20여 개 전통 민속공연단체가 참여하는 '강릉 국제관광민속제'로 확대해, 11~27일 진행한다. 수리취떡 만들기, 단오부적 그리기, 창포에 머리감기 등 단오 풍속은 물론 투호, 비석치기, 대나무 막대 타고 걷기, 코코넛 돌리기 등 다양한 세계 민속놀이를 즐길 수 있다(033)640-5026.

판소리와 창 등 국악공연으로 유명한 영광 **법성포**는 20~22일 단오제 기간 동안 전국 국악경연대회를 개최한다(061)810-8064. 천안 병천면 일대에서 열리는 **아우내** 단오제에서는 24~25일 농악, 그네뛰기, 창포물에 머리감기 등 전통 단오풍습이 재현된다(041)564-1022. **경산** 단오축제에서는 농악놀이와 대학 장사씨름 행사가 마련된다(053)810-8064.

사찰들도 다양한 단오행사를 준비한다. 부산 **범어사**는 22일 금정산 고당봉에서 사찰의 안녕과 대중스님의 용맹정진을 기원하는 '고당제'를 지낸다. 고당제는 조선시대 범어사에 금정산 일대를 시주한 노보살의 뜻을 기리기 위한 행사다(051)508-3122. 합천 **해인사**도 22일 내화산 정상에 소금묻기 행사와 해인사 강원이 주최하는 단오맞이 체육대회를 개최한다.(055)931-1001. 서울 **봉원사**는 22일 하루내내 영산재를 봉행한다.(02)392-3007. 고성 **옥천사**는 22일 연화산 정상에서 화마로부터 가람을 보호하기 위한 소금묻기 의식을 갖는다(055)672-0100. 김제 **청운사**는 6월 27일 5000여 평 연지에서 하소백련축제를 시작한다. 판소리 등 국악과 남미 음악 공연이 마련됐다(063)543-1248.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폭넓은 시각에서 불교공부 해봐요

조계사 아카데미 '현대사상과 불교' 등 흥미로운 강좌 눈길 6월 14일부터

조계사(주지 지홍)가 6월 14일부터 10주 동안 '조계사 아카데미'를 개설한다.

이번에 개설되는 것은 '대혜 종고 스님의 서장' '불교인을 위한 철학강좌1' '불교한문교실' '현대사상과 불교2' '초기불교 수행의 이론과 실제' '원각경 강의' '불교문화 속에 스며든 인도의 신화' 등 총 7개의 강좌로 폭넓은 시각에서 불교를 접근하는 방법을 제공할 예정이다.

'현대사상과 불교2'는 현대 프랑스 철학을 대표하는 베르그송, 들뢰즈, 데리다의 사상을 불교적 시각에서 조망한다. 서양 철학의 전통에서 불교를 사유하는 '불교인을 위한 철학강좌1', 불교의 탄생과 초기 불교의 모습을 조명하는 '불교문화 속에 스며든 인도의 신화' '초기불교 수행의 이론과 실제' 등도 흥미로운 강좌들이다.

경희대 최화, 서울산업대 이진경, 동국대 김종욱, 강릉대 심재관 교수와 정신문화원 김형효 연구원 등 서양 철학과 불교에 정통한 연구자들이 강의를 맡았다. '원각경 강의'와 '대혜 종고 스님의 서장' 강의는 원철 · 인경 스님과 무애 스님이 진행한다.(02)732-2115

공연


퍼포먼스 중인 홍신자 씨.

지구 치유를 위한 퍼포먼스

죽산국제예술제 10일부터 안성 용설리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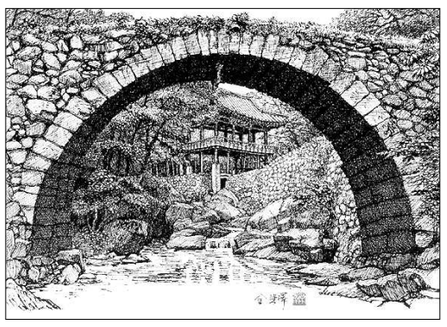
세계적인 전위예술가 홍신자(64) 씨가 매년 개최하는 '죽산국제예술제'가 10일부터 13일까지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용설리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에서는 더그럴스 던 댄스그룹의 댄스 워크숍, 일본계 브라질 현대무용가 에밀리 스가이의 춤 공연을 비롯한 현대 전위예술과 강은일의 해금과 이자람의 판소리 공연, 류경아 윤정민의 춤 공연 등 전통예술을 동시에 만날 수 있다.

또한 '지구를 위한 치유' 주제의 '리사이클링 패션쇼'와 '자연환경 워크숍'도 관심을 끄는 행사다.

전시

펜화로 되살아난 우리 옛건축

김영택 '펜화 기행전' 15일까지 학고재 화랑


◀순천 선암사 승선교와 강선루, 2001년작.

전국의 사찰, 암자, 고택을 펜 한 자루로 캔버스에 옮겨 담은 김영택 펜화전이 6월 15일까지 서울 인사동 학고재 화랑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회에서 김영택 작가는 통도사를 비롯, 신륵사, 쌍봉사, 봉암사 등 전국의 사찰을 순례하며 사찰 건축의 아름다움을 한 폭의 수묵화처럼 세밀히 그려내고 있다. 전시되는 작품은 총 48점.

1994년 루브루 박물관을 갔다가 펜화에 매료된 김영택 씨는 독학으로 미술공부를 시작, 그동안 70편의 한국 건축물 펜화를 그렸다.(02)739-4937

앵글에 담은 법화경의 세계

이경순 '우란연꽃 사진전' 15일부터 영광도서갤러리


◀절 안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의 모습이 신비로운 느낌을 준다.

법화경의 핵심을 연꽃 사진 등에 담은 이경순 씨의 '우란연꽃 사진전'이 6월 15~20일 부산 영광도서갤러리에서 열린다.

새벽 산사를 거니는 스님들의 모습에서부터 간절한 기도를 올리는 불자들, 다비의 장면을 담는 사진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불가의 세계를 포착하고 있다. 또한 흑백으로 처리된 피사체들의 모습은 인간의 감각을 넘어선 신비한 세계를 보여준다.(051)804-7500

방송 프로그램

BBS 불교방송 (서울 FM 101.9 MHZ, 부산 FM 89.9 MHZ, 광주 FM 89.7 MHZ, 대구 FM 94.5 MHZ, 청주 FM 96.7 MHZ, 춘천 FM 100.1 MHZ)

06:05 불교강좌
10:05 BBS 신행상담실
13:00 뉴스
15:05 음악의 마을
18:00 저녁예불
20:05 다시 듣고 싶은 노래
00:00 세계음악여행

Btn 불교TV <ch 32>

9일 09:40 혜거 스님의 선특강
10일 11:30 향토음식기행 전통의 손맛
11일 14:30 의명학으로 보는 건강법1
12일 13:10 조선불교탄압사 부처 통곡하다
13일 11:30 정을 스님 찬불가 교실
14일 20:30 수진 스님의 화엄경 강의
15일 12:00 자비의 천수천안

하이라이트

■**불교방송**: 혜거 스님의 선특강(6월 9일 09:20)-혜거 스님의 선특강 '제7회 좌선의 원문(3)-좌선전의 서원'이 방송된다. '좌선전의 서원' 마지막을 정리하는 시간으로 이 대목은 좌선을 하기 전 보살이 지녀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 말해주고 있다.

■**불교텔레비전**: 그리운 등불 하나(6월 13일 일요일 오후 10:05)- 장애우들과 함께 해 온 '그리운 등불 하나'. 월간 솟대문학의 발행인 방귀희 씨의 진행으로 장애우들에게 필요한 각종 뉴스, 건강정보, 생활정보, 취업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전해준다.

클릭! 불교문화상품

불교전문쇼핑몰 mahamall.co.kr

견성향



"한 잔의 차는 마음을 여유롭게 하고 한 자루의 향은 평화롭게 한다."

지견향은 라벤다 향유로 만들었다. 요즘 유행하는 아로마 테라피에 사용되는 라벤다는 상처와 통증을 치료하고 긴장 이완과 정신 안정 효과가 있는 식물. 신경을 쓸 일이 많은 사무직 근로자와 학생들에게 좋은 선물이다. 긴 것(지관장)과 짧은 것(지관단) 두 종류가 있다. 재질: 참숯과 라벤다 가격: 12,000원 15,000원 (02)732-1520

게시판

공부합시다

벽암록 강좌 서울 삼보정사는 6월 12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송찬우 교수의 '벽암록' 강좌를 진행한다.(02)913-2859

호두마을 집중수행 천안 호두마을은 6월 11~16일 김열권 법사의 지도로 집중수행 시간을 갖는다. 40명 선착순 모집.(041)567-2841

실라난다 스님 특강 서울 보리수선원은 6월 14~28일 저녁 7시 아비담마 학자 우 실라난다 스님 초청 특강을 연다. 참가비는 15만 원.(02)517-2841

명상수련 서울불교대학원대학은 6월 13일 오전 9시 1층 수련실에서 1일 명상수련회를 개최한다. 참가비는 없으며 편안한 옷차림이면 된다.(02)808-3321

즐겁게 떠나요



섬진강 청매실 체험(사진) 답사모임 '터사랑'은 6월 13일 전남 광양 청매실농원에서 매실을 딴 후 장아찌를 만드는 행사를 갖는다.(02)725-1284

칠장사 청룡사 답사 '모놀과 정수'는 6월 20일 경기도 안성 죽주산성 칠장사 청룡사 등을 둘러보는 정기답사를 떠난다.(016)219-6001

경주 탐방 다음 카페 '나의 문화유산 답사'는 6월 19, 20일 경주 일대로 문화유산 정기답사를 실시한다. 신청은 woorigangsan@daum.net

함께 해요

발맛사지 교육 봉사단체 '맑고향기롭게'는 6월 12일 오후 3시 서울 길상사 설법전에서 전문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발맛사지 교육을 실시한다. 발맛사지를 비롯 약발요법, 아로마 테라피 등도 배울 수 있다.(02)741-4696

실버취업박람회 서울시는 6월 17, 18일 삼성동 코엑스 인도양홀에서 '2004 상반기 실버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 주 · 정차 단속, 지하철 도우미 등 2,600여 개 일자리가 신청자를 기다리고 있다.(02)979-6817

자원봉사자 교육 불교자원봉사단체 천수천안은 제 7기 자원봉사 교육생을 모집, 6월 15일부터 교육에 들어간다. 장소는 고양 천수천안교육장.(031)969-0108

자원봉사자 오세요 마포노인주간보호센터는 65세 이상 무의탁 노인 대상의 종이접기 프로그램을 진행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다.(02)365-3677

장애인 리더십 연수 한국 소아마비협회 정립회관에서는 '장애인 리더십 연수생'을 모집하고 있다. 홈페이지(www.jeongnip.or.kr)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이메일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02)446-1237

노인 무료검진 금천노인복지관은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안과(6월 11일), 피부과(22일), 한방 침구과(25일) 무료 검진을 실시한다.(02)804-4058

통일대화마당 (사)좋은 벗들은 6월 11일부터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통일대화마당 2004 '닫힌 역사를 넘어 열린 세계로'를 개최한다.(02)587-8996

봉축사진 공모 개원 20주년을 맞는 능인선원은 6월 15일까지 2004년 봉축행사 사진 공모전을 연다. 규격은 11×14인치 이하.(02)577-5800

20면 상식 퍼즐 정답

사	대		세		삼		사	기
시	방	세	계		칠	불	통	계
	광		화	요	일		팔	
원	불	교		가		건	달	바
		과	일		시	조		
참	고	서		수		기	대	승
	집		아	라	한		승	
적	멸	보	궁		반	딧	불	이
국	도		이		도		교	종

신행수기

마음 찾아가는 길목 〈중〉

이정숙 (시인)



그림 · 김흥인

108배부터 3천배까지 절 수행 깊어져

몸과 마음 따로 없는 일념에 들며 환희심

삼주 보살의 권유로 처음엔 별생각 없이 7일 기도를 시작했다. 자식과 남편에게 좋은 일 생긴다는데 누가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108배 기도를 마친 얼마 후 남편은 직장을 옮겼다. 가시적인 면에서는 직위가 높아졌으나 통념적인 면에서는 불안한 결정이었다. 소위 짱짱한 중앙 일간지 주간부 부장에서 거듭 실패만 하는 여성지의 편집장으로 갔으니 말이다.

"응, 그런 게 기도 공덕이다. 두고 봐. 그 회사 너네 꺼 될 테니…."

불안해서 찾아갔더니 삼주 보살은 장담을 했다. 남편의 회사를 옮기기 전이라면 말리기라도 했을 텐데… 어디 맞나 두고 보자고 별렀다. 그런데 반년도 못돼서 남편은 그 회사를 인수했다.

그 일은 나를 삼주 보살에게 푹 빠지게 했다. 그 집을 들락거리면서 어느새 나는 절수행에 길들여졌다. 108배에서 300배, 500배, 1000배, 3000배로 삼주 보살의 주문은 늘어났고 7일에서 21일, 100일로 기도일수가 늘어나면서 전국 기도처를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나중에는 내가 법당에 들어서기만 하면 기본으로 하는 절이 1000배였다. 철야정진은 늘 3000배 였을 정도로 몸에 배었다.

그때는 불법을 잘 알아서라기보다는 자연의 아름다움 속에서 모두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분위기에 매료됐었다. 여자로서 불혹을 넘기는 변환의 시기에 겪는 힘든 시간들을, 절을 끝내고 나면 흐르는 땀과 함께 가슴 가득 몰려오는 환희로 견뎌 나갔던 것 같다.

무엇보다도 '기도 외박'을 눈감아 주는 남편이 있어서, 일상생활에서의 스트레스가 풀리는 효과도 한 몫 했을 것이다.

기도의 영험은 반드시 있다. 구체적인 형상으로 즉시 나타나지 않는다 해도 어느 시점에서든 그것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인지 기도도량에서는 그것을 '기도적금'이라 하기도 하고 '기도보험'이라고들 한다.

초발심자에게, 특히 나처럼 기초가 없는 불자들에게 절수행은 꼭 권하고 싶은 기도 방법이다. 부처님께서 기도공덕으로 던져주신 결과로서가 아니라, 궁극에 가서는 마음 찾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자세와 힘을 다져주는 밑그림이기 때문이다. 당장 영험을 경험하지 않더라도 많은 시간 지나지 않아서 본인이 스스로 알고 느낀다.

기도도량을 순례하다 보면 전설따라 3천리 같은 영험담도 많다. 고시합격, 대학입시 합격, 건강회복, 송사문제 등의 성취는 기본이다. 내가 '전국구 보살'이라는 비아냥에도 개의치 않고 기도도량을 헤맸던 것도 실은 큰아들의 대학입시가 원인이었다. 그 공덕이었던지 3남매 모두 좋은 대학 나오고 원하는 삶을 잘 살고 있다.

"보살님은 어떻게 그렇게 절을 잘하세요?"

한자리에서 1000배를 거뜬히 해낼 즈음에는 이렇게 묻는 사람이 많았다.

"절을 하는 것이 제일 쉬워서요."

사실 그랬다. 참선은 스님과 회색 옷을 근사하게 차려 입은 근엄한 보살들만의 것으로 보였고, 가만히 앉아서 염불을 해도 잡념이 밀려드는데….

참선을 시도해 보지 않은 것도 아니다. 가부좌를 틀고 앉으면 일상을 다 접어놓고 귀한 시간 뒤로 하고 왔는데도 가스밸브는 잘 잠궜을까, 문은 잠그고 잘까, 오늘 남편은 약속대로 일찍들어 왔을까 등등 망상이 끝이 없다. 그리고 웬 졸음은 그리 밀려오는지… 그런 것들을 견디기엔 절수행 이상 가는 방편이 없다.

절수행이 몸에 배면, 속도가 빨라지면서 스님의 목탁소리와 염불과 오체투지가 맞물려 돌아간다. 그때쯤은 팔다리도 가벼워지고 마음도 가벼워진다. 비 오듯 쏟아지는 땀조차도 서늘하게 느껴진다. 3000배를 마치고 법당을 나설 때, 그 뿌듯하고 가슴 벅찬 환희심은 이미 기도가 성취됐음을 스스로 알게 한다. 절 일념에 녹아 있을때는, 몸과 마음이 따로 없다. 그냥 움직이는 대로 몸을 맡기다보면, 어디에서고 맛볼 수 없는 마음자리와 내가 하나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게 된다.

아마도 절수행은, 이렇게 몸과 마음이 둘이 아니고 하나가 되는 환희심을 알리는 방법으로서 옛 선지식들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 아닌가 싶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호흡과 오체투지가 맞아떨어진 현상이고, 흔히들 말하는 '절삼매'의 경지가 바로 그것인것 같다. (계속)

신행수기 일년내내 받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가슴속에만 꼭꼭 담아두었던 감동깊은 신행체험들을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십시오. 연중 접수한 신행수기 가운데 우수작은 소정의 고료를 드리고 신문에 연재하며, 연말에 최종 심사를 거쳐 시상합니다.

- 주제: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고난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A4용지 4장)
- 접수처: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722-4162
- 인터넷 접수: thatiswhy@buddhapia.com

릴레이 수행일기 〈상〉



정경문
법무사 '삼보선원' 지도법사

20대 때부터 책 읽으며 참선에 관심

이희익 선사에게 '무' 자 화두 받아

1984년 5월 17일 목요일 오후 2시 서울 종로의 법무사회관 8층 불교진흥원 시민선방에서 있었던 이희익 선사님의 좌선지도 시간. 나는 선방에 붙여진 시간표를 보고 이희익 선생님이 어떤 분일까 하는 호기심만을 갖고 참석했다. 법회시간 보다 늦게 도착하여 방안에 들어서니 키는 작지만 형형한 눈빛을 내는 노인 한 분이 대중들 앞에 서서 선 지도를 하고 계셨는데, 20분간은 가부좌하여 좌선을 하게 하더니 죽비를 치고 가부좌를 풀게 한 뒤 나머지 20분 동안은 휴식하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하라고 하셨다.

그때 앞자리에 앉아있던 50대 초반의 한 불자가 "선생님, <무문관>을 쓰셨지요?" 하고 질문을 던지자 선생님께서 "썼어요"라고 말씀하셨다. 그 불자가 "제가 <무문관>을 다 봤습니다"라고 하니, 선생님은 그 불자를 앞으로 나오라고 한 후 그 불자한테 아래와 같은 질문을 하셨다. "<무문관>을 보면 조주 스님에게 어느 때 한 스님이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고 물으니, 조주 스님이 '무(無)'라고 했는데 그 '무'가 뭐요?" 그 불자가 "모르겠습니다"하고 얼버무리자 선생님은 "여보! 그건 <무문관>을 본 게 아니오!"라고 하셨다.

그 광경을 보자 나는 눈이 번쩍 뜨였다. 그토록 찾아 헤매었던 좌선의 스승이 내 눈앞에 계셨던 것이다.

당시 내 나이는 만 40세 였는데, 내가 20대 후반에 불교를 만나면서 처음 본 경전이 <금강경>이고 그 다음으로 본 책이 <법보단경>이었다. 육조 스님이 글자를 모르지만 <금강경> 읽는 소리를 듣고 마음이 열렸다는 <법보단경>의 구절은 불교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그 후 <경허 스님 기행록>과 고형곤 선생님의 <선의 세계>를 읽은 후 좌선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굳혔으나 쉽게 스승을 만날 수 없었다. 70년대까지만 해도 재가에서 좌선하는 곳이 드물었고, 주변의 스님들도 선을 잘 모르는 듯했다.

나는 책을 읽으면서 혼자서 좌선을 시도했다. 직장에서 6시에 퇴근하면 집으로 돌아와 저녁밥이 될 때까지 좌선을 한다고 앉아 있곤 했다. 그러던 어느날 집사람이 방밖에서 다급한 목소리를 내기에 내가 좌선하는 도중에 황급히 몸을 일으켰더니 상기가 되었는지, 그 순간 불빛이 샛노랗고 가슴이 답답해서 며칠동안 혼이 났다. 그 날 이후부터 누구의 지도를 받지 않고 혼자서는 무서워서 좌선을 할 수가 없었다. 그러다가 이희익 선생님이 지도하는 시민선방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 나서게 된 것이다.

처음 선방에 입실해서 선생님께 큰 절을 올렸더니 '무(無)'자를 보라 하셨다. 선생님으로부터 무자 화두를 받고 약간 흥분되었다. 선사의 육성을 통해 '무자가 뭐냐'고 물으시면서 건네준 화두에 생동감이 있었다. 나는 무자를 받자 무엇이 무자인가 하고 골똘히 의심하면서 무자에 빠져들었다. 밥을 먹을 때나 길을 걷거나 육체를 움직일 때도 무자가 무엇인가를 의심하고 있었다. 아랫배에 지긋이 힘을 주고 아랫배 호흡하는 훈련까지 겹들여 해야 하니 다른 잡생각을 할 틈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일 하다가 잠시 쉴 때는 물론 앉으나 서나 걷거나 방에 누워서까지 무자를 참구했지만 세월만 가고 무자는 쉽사리 해결되지 않았다. 스승님이 80세의 연세라 얼마나 더 살아계실지도 모를 일이었다. 나대로 열심히 공부하면서 이것을 무자의 답이다 라고 제시해도, 저것을 제시해도 아니라고 하셨다. 나는 앞뒤가 콱 막혀버렸다. (계속)

불교신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연구원

안녕하세요
부처님 가피로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원장 이영숙 합장

안녕하십니까?
6월의 하늘이 너무도 맑아
가만히 바라봅니다
삶의 번뇌하나 가슴으로 남아
요즘 어려운 경제 관계로 힘드시죠?
다소 도움이 되어 보고자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저렴한 비용으로 회원등록을
해드리겠습니다
성혼을 이루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大卒, 초 · 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현대결혼연구원에서 좋은 느낌,좋은 인연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현 대 결 혼 연 구 원

원 장 이영숙 (법명 : 無生子)
사무실 : 032)345-5411
휴대폰 : 011) 288-2944

사찰, 법당, 앰프 설치

지난 30년간 사찰의 앰프, 마이크, 스피커 소리를 연구해온 音響硏究家 金文華가 직접 설치해 드립니다.
(아무리 먼 곳이라도 출장비는 받지 아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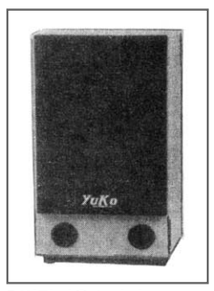
소리공양 실적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www.yukosound.com



염불, 설법 전용
고성능 마이크

DX-707스텐드 마이크
가격 : 250,000원



◇ 소리공양 종목 ◇
▷ 사찰 법당 앰프설치
▷ 고성능 무선마이크
▷ 각종 마이크 판매
▷ 법당전용 스피커

비구니스님 특별우대!

법당전용스피커 YM-520

유 코 음 향 연 구 소
소장 김문화 : 011-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02)2697-9976, 2601-8284 팩스 (02)2695-9676
홈페이지 : www.yukosound.com

당 뇨
당치발란스

국내최초 천연원료로 안전성을 입증한 생약캡슐

- 당뇨, 고혈압, 만성피로 등 각종 성인병 개선에 효과 '놀라워' -

▶당치 발란스의 당뇨에 대한 효과
7일~15일만 드셔도 효과가 나타나며 1~2개월만 드시면 병원약(신약)을 먹지 않아도 됩니다.





개발자(김종연 교수) 약력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부교수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생리학교실 주임교수
-영남대학교 기초의학연구소 소장
-영남대학교 비만-당뇨 선도연구센터 센터장
현재 역임중

현직 의과대학 교수들이 의학적 검증을 거쳐 개발된 한국인의 식생활 습관에 맞춘 혈당강하 식품입니다.

- 당치발란스의 기타 질환에 대한 효과 -
· 위궤양, 비만증, 무좀, 체력증강
· 감기에 걸리지 않는 체질로 개선
· 피로를 없애고 뇌를 맑게 해줌
· 갱년기 장애
· 고혈압, 고지혈증

영남대학교 당뇨선교연구센터 소재 공동연구
주문 및 무료상담전화 080-558-6633

제4기 역학 상담 전문가 과정 강좌개설

미래 상담 역리사 양성 목적

타고난 운명과 다가올 인생 여정에 대하여 상담하고, 복잡한 현대사회의 고달픈 생활을 비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카운셀러! 전통의 "동양역학 전문지식"전수로 불확실한 미래를 성공으로 이끄는 상담사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 직업인 양성과정"

주요 교육 내용
◆ 우주 창시론, 역학의 기원, 운명과 사주, 음양오행, 생극제화, 사주구성
◆ 대운,세운,합,충,파,해,십이신살,십이운성,육친론,지장간,격국,용신
◆ 성격,직업,건강과질병,재난,부부,자녀관계,부귀빈천,간지체성론,궁합,택일

참가 대상
◆ 기관 기업체 퇴직자 및 주부, 일반인, 대학생으로 평생직업으로 전환하실 분
◆ 부동산중개업, 결혼상담인, 심리적성을 상담하여 성공하실 분

▣ 특 전
• 한국역리사자격 검정관리협회 자격증 시험응시 자격부여
• 수료후 합격자 전원 전화상담사 및 일반 상담요원으로 취업보장

▣ 중요교육내용 ※ 개강 날짜 문의 바람

과목	시 간		강 사	수 업 료
명리	토요일(오후2시~6시)	일요일(오후2시~6시)	유방현	25만원(5개월 완성)
육효	월요일(오후7시~10시)	보충수업가능	유방현	25만원(4개월 완성)
육임	수요일(오후2시~5시)	보충수업가능	정수언	25만원(3개월 완성)
자미두수	화요일(오후2시~5시)	보충수업가능	장정림	25만원(4개월 완성)
원문	목요일(오후7시~10시)	원문 해독	박종천	12만원
관상	금요일(오후2시~5시)	이론과실재 병행	신장근	20만원(3개월 완성)

※ 각 과목 최고 강사 선생님을 모십니다.

▣ 교육 장소
KTA한국전통과학아카데미교육원 전철 1호선 신설동역 5번출구 남동방향 30m

▣ 신청 및 문의처
02)929-4646 / 4643, 018-350-7150

주관 KTA한국전통과학아카데미 교육원

홍차 백배 즐기기

흔히 '차(茶)'라고 하면 녹차를 떠올리기 쉽다. 하지만 홍차는 전 세계 차 생산량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대중적인 차다. 최근 홍차의 효능이 속속 밝혀지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젊은이들 사이에 '홍차 붐'이 일고 있다. 곳곳에 홍차 전문점이 생겨나는가 하면 커피 전문점에서 홍차를 파는 곳도 늘고 있다. 집안 어딘가에서 잠자고 있을지도 모를 홍차, 이제 그 맛을 제대로 즐겨보자.



紅色에 반하고, 香에 취하고…

■홍차란?

녹차가 찻잎에 바로 열을 가해 산화효소 작용을 정지시킨 비발효차인데 반해 홍차는 85% 이상 발효한 차다. 홍차의 유럽 전래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다. 17세기 초 네덜란드 해상무역을 통해 중국에서 유럽에 전해진 뒤 유럽인의 기호에 맞춰 발효도가 높아진 홍차가 탄생했다고도 하고 영국이 아편전쟁 이후 중국의 홍차 제조법을 몰래 입수해 인도, 스리랑카 등 식민지 지역에서 차를 대량 생산하기 시작했다는 설도 있다. 현재 홍차의 주요 생산지는 인도와 중국, 스리랑카 등이다. 홍차의 효능으로는 암 예방과 소화기능 활성화, 충치예방, 이뇨작용, 살균 및 해독작용 등을 들 수 있다.

■종류

홍차는 찻잎의 배합에 따라 스트레이트, 블렌디드, 플레이버드로 나뉜다.

스트레이트는 한 종류의 찻잎으로 만든 차를 말한다. 주로 산지의 이름을 그대로 따서 쓰는데, 우리에게 잘 알려진 실론(Ceylon), 아삼(Assam), 다즐링(Darjeeling), 기문(Keemun) 등이 여기에 속한다. 하지만 100% 원산지 차로 만들 경우 비용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해마다 차의 풍미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홍차 제조회사에서는 차의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원산지 차를 바탕으로 다른 차를 조금씩 블렌드(Blend)해서 만들고 있다.



인도등 동남아 주생산지
암, 충치 예방 등에 효능

스트레이트 - 원산지 맛 유지
블렌디드 - 두가지 이상 배합
플레이버드 - 다른 향 가미

블렌디드(Blended)는 두 종류 이상의 차를 배합해 만든 것이다. 실론차와 인도차를 섞어 만든 잉글리쉬 블랙퍼스트나 오렌지 페코, 스리랑카산 차를 섞어 맛을 낸 실론티 등이 여기에 속한다. 제조사마다 블렌드 방식은 조금씩 다르다.

플레이버드(flavored)는 홍차에 홍차 이외의 다른 향을 첨가한 것을 말한다. 가장 널리 알려진 얼그레이는 중국의 홍차에 베르가못 나무의 기름향을 더한 차로 우렸을 때 진한 오렌지색이 난다. 레몬이나 사과, 복숭아 등의 과일향이나 장미향을 첨가한 차도 여기에 속한다.

■등급

홍차는 차의 모양과 크기에 따라 여러 명칭과 등급으로 나뉜다. 하지만 등급이 곧 차의 품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OP(오렌지 페코, Orange Pekoe)**: 채취한 잎을 자르지 않고 그대로 만든 홍차라는 뜻이다. 인도 홍차에서 많이 볼 수 있다. 보통 찻잎의 길이는 10~15cm 정도며 어린 싹(Tippy)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 FOP나 FTGFOP 등의 표시는 찻잎이 OP 타입이며 어린 싹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는 뜻이다.

● **BOP(브로큰 오렌지 페코, Broken Orange Pekoe)**: OP크기의 잎을 분쇄했다는 의미로 찻잎의 길이는 2~3mm 정도다. 어린 싹을 포함하고 있으며 스리랑카 홍차에서 많이 볼 수 있다.

● **F (플레닝, Fannings)**: 찻잎의 크기가 보통 1mm 정도이며 BOP를 만들 때 아래로 떨어지는 작은 잎을 말한다. 진하고 강한 떫은 맛을 내며 티백홍차에 많이 사용된다.

● **D (더스트, Dust)**: 찻잎 중에서 가장 작은 분말 정도의 크기를 말한다. 차색은 진하고 투명도가 낮다.

글=여수령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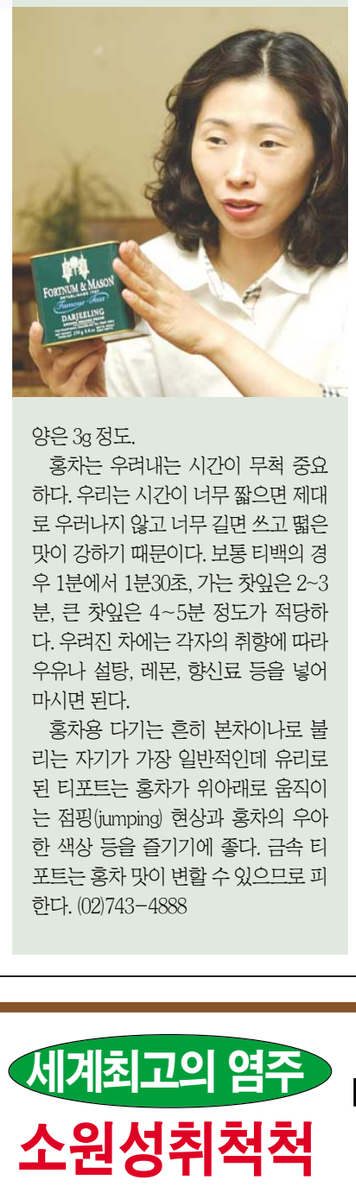
■우리는 법

차를 맛있게 우리는 법은 차의 원산지와 어떻게 가공되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하지만 홍차를 우리는 기본적인 조건인 '골든 룰(Golden Rule)'을 지킨다면 초보자라 해도 맛있게 차를 우릴 수 있다.

서울 대학로 홍차전문점 '차야' 이민경(37 · 사진) 대표에게 골든 룰을 배워본다.

신선한 찻잎, 물 사용
우릴때 티백은 1분30초
금속 티포트는 피해야

우선 홍차를 우려낼 때는 신선한 물을 써야 한다. 한번 끓인 물이나 너무 오래 끓인 물은 피한다. 홍차는 녹차와는 달리 섭씨 100도의 물로 우려낸다. 차를 우려낼 찻주전자나 찻잔은 더운 물을 부어 미리 데워 놓는다. 찻잎의



양은 3g 정도.

홍차는 우려내는 시간이 무척 중요하다. 우리는 시간이 너무 짧으면 제대로 우러나지 않고 너무 길면 쓰고 떫은 맛이 강하기 때문이다. 보통 티백의 경우 1분에서 1분30초, 가는 찻잎은 2~3분, 큰 찻잎은 4~5분 정도가 적당하다. 우려진 차에는 각자의 취향에 따라 우유나 설탕, 레몬, 향신료 등을 넣어 마시면 된다.

홍차용 다기는 흔히 본차이나로 불리는 자기가 가장 일반적인데 유리로 된 티포트는 홍차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점핑(jumping) 현상과 홍차의 우아한 색상 등을 즐기기에 좋다. 금속 티포트는 홍차 맛이 변할 수 있으므로 피한다. (02)743-4888

우리 사찰 차 모임 — 대구 영남불교대학 관음사 감로다례회

"봉사로 뭉쳤습니다"



대구 영남불교대학 관음사 감로다례회 회원들은 다도를 수행의 방편으로 삼고있다.

"감로다례회는 수행의 한 방편으로 운영되는 다도 봉사단체입니다."

대구 영남불교대학 관음사 2층 감로찻집. 그곳에서는 그윽한 차향과 함께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 감로다례회 회원들을 언제든 만날 수 있다. 불자들에게 차 한 잔 건네며 세상의 바쁜 마음을 내려놓고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는 것이 감로다례회 회원들의 몫이기 때문이다.

항상 '禪茶一如(선다일여)'를 생각하는 감로다례회는 바쁜 움직임 속에 고요함을 느끼고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 보는 수행단체다. 그래서 영남불교대학에서 하는 모든 행사에는 감로다례회의 봉사활동이 빠지지 않는다. 초파일, 수계식 등 각종 행사 때마다 올리는 육법공양, 결식아동돕기 바자회 동참, 어린이 학생들을 위한 다도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결식아동돕기 등 다양한 활동
차밭 조성, 현장실습 통한 전문화

감로다례회는 1998년 4월 회주 우학 스님이 직접 다도 수업을 마련한지 3년만인 2001년 3월에 결성되어 현재 20개의 기별모임에서 7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영남불교대학 문화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도반 수업 2년 과정 중 8개월 이상 이수자에 한해 가입이 가능한 감로다례회는 매월 셋째 목요일 우학 스님의 <동다송> 수업을 듣게 된다. 강의 후 이어지는 다담시간에는 봉사와 찻집운영에 관해서나 햇차와 새로운 중국차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기도 한다.

차를 만나게 된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는 감로다례회 회원들은 저마다 수행과정을 털어 놓았다.

"첫차를 마실 때는 이 차가 만들어지기까지 모든 인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를 갖추고 마시지요." "나쁜 소리를 들어도 마음의 동요없이 차분히 이를 받아들이고 되새기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차를 만난 것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우학 스님은 지난해 감포분원에 300평 규모의 차밭을 마련했다. 바닷가라는 기후 환경을 고려해 통도사 서운암에 있던 차나무를 옮겨온 것이다. 내년부터는 감포분원에서 직접 차를 따서 차를 만들 수 있게 된 만큼 회원들의 자부심이 한껏 커질것으로 기대된다.

인터뷰 — 이경화 회장

불자들에 감로수 역할할 터



"감로다례회 회원은 감로다(甘露茶)라는 말처럼 다양한 다도 봉사를 통해 불자들에게 번뇌를 쉬게하고 갈증을 없애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감로다례회 이경화 회장은 조용한 가운데 오직 부처님의 뜻에 따라 심부름을 할 뿐이라고 말한다.

"회원들의 협조로 자연스럽게 하나가 될 수 있어 감사하다"는 이 회장은 "아직은 걸음마 단계에 있지만 앞으로 우학 스님의 강의를 책으로 엮고, 감포분원의 300평 차밭을 이용해 차에 대한 심도 깊은 전문 연구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배지선 기자

지금 드시고 있는 보이차는 어떠십니까?
고급 보이차와 좋은 찻그릇을 만날 수 있는 곳





보이차의 품격이 다른 · 茶人들이 즐겨 찾는
茶友茗家
고급보이차 전문(광운조기,인급,호급차)
고급 자사호(공예사,고급공예사급)
고급 다관 및 다완
녹차,청차,말차
괘목 다반
찾아오시는길
지하철 3호선주엽역 3번출구
(그랜드백화점건너편)
031)911-1044
011-307-6620
e-mail : hajun2000@dreamwiz.com
※방문하시면 언제나 좋은 보이차 시연이 가능합니다

세계최고의 염주
소원성취척척
금강염주
2가지 소원이 꼭 이루워지는 신비와 영험의 금강염주
성불에도 최고! 건강에도 최고! 선물로도 최고!



금강의 강한氣가 발산되는 신비의 금강염주

금강의 강한氣로 건강을 지키는 금강염주
금강약석은 60여종의 미네랄 원소와 95%의 높은 원적외선,음이온이 발산되고 98%의 살균작용을 하며 활성탄의 몇 배 강한 흡착력이 동시에 이루어져 뇌가 맑아지고, 원활한 신진대사, 혈액순환등에 효과적으로 북한에선 일부고위층만 사용하며 뇌졸중, 중풍, 고혈압, 동맥경화, 당뇨, 천식, 치매, 아토피등 치료제로 사용합니다. 오염된공기,수맥파,OA기기,컴퓨터에 의한 전자파등 현대의 환경속에 건강이 약해지는 스님 및 불자님들께 건강증진 및 활력증강을 드리는 세계 최고의 신비와 영험의 금강염주입니다. 금강염주는 사용할 본인이 점안식후 사용하세요.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신용카드로도 분할구입 가능합니다.
최심이 들어간 12단주를 제작하였으니 기도 정진하시는 스님 및 불자님께 주문 판매 합니다.
전국대리점모집 사찰매장 및 불교용품점, 개인사업자

2가지 소원이 꼭 이루어지는 금강염주
세계희귀의 금강약석이 주성분인 금강염주는 북한특산품으로 평안도 명산에서 소량이 생산되며 이곳은 원효대사께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받아 유학을 포기하고 참선안거 하시던 곳으로 유명한 일화가 있는 곳입니다. 금강염주사에서 국내 독점으로 반입, 조립 시판하며 화제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하신 스님 및 불자님께서 효능을 인정하시며 모든 분께 최고의 선물로 추가 주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강염주는 금강의 강한氣로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강한 마음과 맑은 영으로 정신이 안정되며 악귀와 잡귀들이 보기만 해도 도망쳐서 액운과 화를 쫓고 동서남북의 복을 불러 오며 금강의 강한 氣와 지혜로 2가지 소원이 꼭 성취되며 가족의 건강을 지켜 드리는 신비와 영험의 금강염주로 기도 정진시 부처님의 대광명, 대성취를 이루시며 가피를 받습니다.

이런분은 스님께 보시 또는 본인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분
❖ 사업이 안되어 고민하고 계신 분
❖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분
❖ 승진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분
❖ 자녀가 없어 고민하고 계신분
❖ 수험생 자녀를 둔 부모님
❖ 고시준비 하시는 분
❖ 결혼배필을 찾고 계신 분
❖ 중환으로 투병중인 분
❖ 건강(氣)이 약하신 분

금강염주를 성원해 주신 모든 스님 및 불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감사의 뜻으로 금강염주를 별도로도 추가 판매합니다.

◎ 1세트 가격
108염주, 손목염주 160.000원
108염주, 12단주 195.000원
108염주,12단주,손목염주 225.000원
◎ 별도가격
108염주 135.000원
12단주 85.000원
손목염주 38.000원
입금구좌 :농협 743-02-563237 (정해철)
문의 및 신청전화 (02)723-0909
전화로 주소 성명을 알려주시면 우체국 등기소포로 전국 어디나 받아 점안식을 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金剛念珠社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177 대형 B/D 406호

오로지 거기에다 몰입해서 놔라!

눈 뜨고 푹 자려면…

문 매번 감로법문을 청하오니 한편으로는 감격스럽고 한편으로는 무거운 보은의 빚이 쌓여 가는 듯 조심스럽습니다. 스님 말씀 중에 '두 눈 뜨고 푹 자라'는 말씀이 있는데 좀더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저의 생각에 그 말씀의 뜻은 아상을 녹여서 내가 무엇을 했다는 상,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주었다는 상도 다 녹이고, 너와 내가 한 몸으로 여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눈 뜨고 푹 자는 단계를 넘어선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오로지 수행으로 한 발 한 발 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급히 질문을 올립니다.

답 눈 감고 자는 거는 자는 게 아니지요. 눈을 뜨고 자야 시장바닥에 갖다가 팽개쳐도 우뚝우뚝 서게 되는 거죠. 잘된 거 못된 거를 남의 탓으로 돌려서도 아니 되고, 또는 잘된 거 못된 거를 건져 들어도 아니 되고, 잘된 거 못된 거를 일일이 계산해도 아니 됩니다. 그건 그런 거지요. 그래서 속으로 똑똑하더라도 겉으로는 좀 무식한 척하고 둔한 척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공부는 둔하지 않고는 도대체 될 수가 없어요. 벌써 오관을 통해서 사량으로 전부 알거든요. 머리로 다 알아버려요. 감각이니 지각이니, 보는 거 듣는 거 거기 기계적으로 다 있는 거거든요. 그 자리를 통해서 자기한테 전부 오는 게 있는데, 헤아릴 수도 없이 수많은 게 그냥 스쳐 가는데 언제 그놈의 걸 세요?

이 세상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건 자기 탓이에요. 이 세상에 자기가 나왔기 때문에 자기가 봤고, 자기가 거기 갔기 때문에 들었고 자기가 있었기 때문에 말다툼을 하게 되고, 자기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게 되면 모든 게 내 탓이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못난 내 탓이란 말입니다. 잘나지도 않았고 못나지도 않았고 그저 그대로 내 탓이에요.

내 탓이라는 그 한마디의 뜻이 눈 뜨고 자는 일이에요. 예를 들어 가정에서도 부부지간이라든가 자식지간에 언짢은 일이 있다든가 모든 일에 대해서 말을 이익하게, 마음 상하지 않게 말을 해 줄 뿐 아니라 말을 해서 상할 일이라면 하지 말고 안에다 굴려야 하고 안에다 놔야 된다 이거예요. 모든 걸 내공(內空)에서 나오는 건 내공에다 다시 놔야 돼요. 잘된 거는 감사하게 놓고 안된 거는 안돼서 맡겨야 돼요, 그 자리에. 그렇지 않고 내가 나기 이전 자리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전 자리를 알게 되면 이전도 없고 이후도 없는 것을요. 말로만이 아니라 스스로 실천을 해봐야 진정한 뜻을 감지하리라 믿습니다.

집중하는 것과 놓는 것에 대해서

문 스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인공에 놓으라고 하시는데, 어떤 스님께서는 지나가는 모든 것에 신경 쓰지 말고 오로지 하나에 집중하라 하십니다. 그 하나가 '나무아미타불'일 때, 자나 깨나 염불하는 것과 놓고 관하는 것의 차이는 무엇인지요.

답 그래서 여러분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나를 찾는 게 아니다. 말하고 보고 듣고 하는 놈이 바로 그놈이니까 나를 찾는 게 아니라 거기에 오로지 몰입해서 놔라.' 이런 겁니다. '오로지 거기에다 몰입해서 놔라.' 놓는 작업을 하게 되면 우리가 스스로 들고 나는 것이 그대로…. 들고 남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예를 들어 "아버지!" 하면 그대로 아버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스스로 들어오고 스스로 또 내는 거죠. 그렇게 여여하게 작용을 하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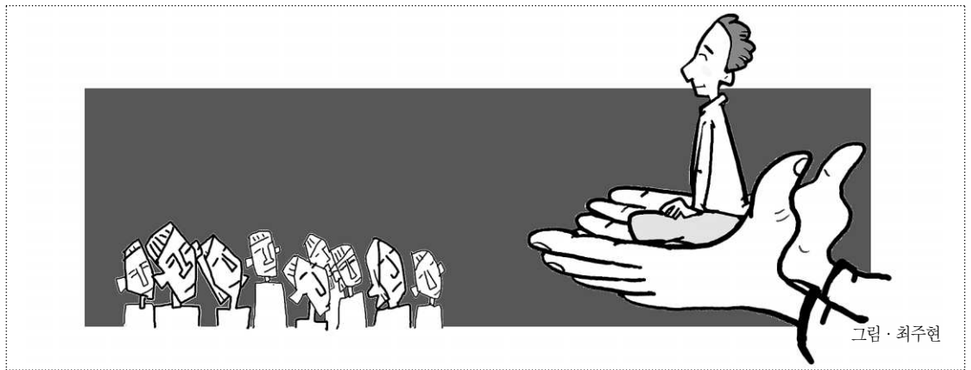
그런데 우리가 공했기 때문에, 『반야심경』에 '고정됨이 없이'라고 이렇게 했죠? '고정됨이 없어서 색(色)이 공(空)이고 공이 색이다.'라고 했습니다. 고정됨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고 듣는 거, 말하는 거, 가고 오는 거, 만나는 거, 차를 타는 거, 시발점이 종점이고 종점이 시발점인 거, 이렇게 돌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그대로 한군데서, 한군데라고도 할 수 없는 데서, 쥘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데서 그 모두가 나온다는 것을, 자동적으로 여여하게 나고 든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깨우쳤든 안 깨우쳤든 우리가 보면 보는 대로 들으면 듣는 대로 좔나좔나 지나가 버리죠. 좔나좔나 가 버리고 또 듣게 되고 좔나에 가 버리고 또 듣게 되고…. 남편이 되었다가 그건 돌아가 버리고 아버지가 되고, 또 아버지는 돌아가 버리고 아들이 되고, 이렇게 자꾸자꾸 돌아가니까 공했다는 소리가 나옵니다. 좔나좔나 돌아가고 공해서, 색이 공했다.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다. 공이 즉 색이다.

그러니까 그냥 좔나좔나 쉬지 않고 돌아갈 뿐이니 합이 없이 그냥 공해 버렸다. 그래서 각자 여러분이 합이 없이 이렇게 하고 있고 사는 게 없이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탤런트가 연기를 할 때 죽는 역할을 해도 그 역할이 끝나면 여전히 살아 있듯이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은 원래 모자라지 않게 자리를 잡고 계신데도 어떤 분은 자리를 잡고 계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자리를 잡고 한 발짝 한 발짝 떼 놓고 가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실천하기가 어려운데, 그냥 실천하는 것이 그대로 뛰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스스로 알아져야 되겠죠.

나를 이끌어 가는 선장은 나한테 있습니다. 모두. 그렇기 때문에 그 선장하고 나하고 상봉을 해야만 자리가 잡히는데 그 전에는 자꾸 놓고 몰입해야 완벽하게 자리를 잡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스스로 실천을 옮기게 되죠. 조그만 거든 큰 거든 실천을 옮기는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고 봅니다. 어쩌다 한 번 실천을 하게 되고 어쩌다 한 번 느끼게 되고 그러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벌써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차차 그럭하다 보면 문이 활짝 열리게끔 돼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비로소 스스로 알게 될 겁니다.


그림 · 최주현

인간으로서 참답게 살아가려면…

문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답게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살아야 참다운 인간으로 살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인생의 의미인지 도통 알 수가 없습니다.

답 우리 인생이란 지수화풍으로부터 우리 몸을 형성시켜서 지수화풍을 먹고 살고 나중에는 지수화풍으로 거두어 가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인간은 지수화풍으로 가공된 물주머니 속에서 한 치도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물속 생물이 물속에서 벗어나면 뭇 살듯이 그렇게 한 발짝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또 있습니다.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없고 미래는 오지 않았으니까 없고, 현실에 여러분이 모두 자기 몸뚱이 속의 생명들로서 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몸뚱이 속의 생명들은 한 발짝도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연쇄적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우리들 몸뚱이에 더불어 같이 살고 있느냐.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인과성이라든가 영계성 세균성 업보성, 이 모두가 한데 어우러져서 내 영혼과 더불어 정자 난자를 비롯해서 같이 형성된 것입니다. 형성됐다는 이 자체를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불가에서는 이름해서 오신통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천이 천안 신족 숙명 타심, 이 다섯 가지입니다. 이 다섯 가지를 종합해서 현재의 말로 한다면 자동적인 컴퓨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건 왜냐. 우리가 차원에 따라서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입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그렇습니다. 자동적으로 입력이 되는 것을 바로 불기둥이라고 이름한다면 땅을 딛고 하늘을 꿰고 불기둥이 서 있는데 수레가 불기둥을 싸서 돌고 있어요. 이 기둥이 가운데 섰고 그 수레바퀴가 돌아가는 게 우리 생활이에요, 모두가. 우리 생활인데 그 생활 속에서 우리는 항상 그 근본 기둥, 그 자체에 부합이 돼야만이 오신통에서, 그 수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겁니다.

아까 용어를 변경해서 오신통을 자동적인 컴퓨터라고 그랬죠.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입력이 됐다가, 영계성이니 뭐니 모두가 지금 솔솔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벗어나게 하려면, 그 나오는 구멍에다 다시 입력을 해야만이 앞서의 입력은 없어지면서 새로이 들어가는 대로 되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해야만이 여러분이 알아듣기 쉬울까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신통 자체가 컴퓨터라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컴퓨터에 입력이 돼 있던 것이 현실에 자꾸 나오니까 그 구멍에다가 다시 일임해 놓는다면 입력이 다시 돼서 앞서의 입력이 없어진다 이 소립니다.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털구멍이라고 했어요. 그것도 방편으로 말입니다. 한 털구멍의 들이고 냄이 그렇게 광대하다고 그랬어요. 털구멍이라고 하는 것은 털구멍이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들이고 내는 것은 단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저기 있는 것도 아닙니다. 들이고 내는 구멍은 한 구멍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다 들이고 낼 때에 진정코 의심을 하지 말고 '나를 이끌어 나가고 형성시킨 주인이 바로 나의 마음 가운데의 선장이로구나. 나의 뿌리로구나. 내 몸이 싹이라면 나의 근본 뿌리는 바로 나의 주인이로구나.' 하고 거기다가 맡겨 놓으세요. 진정코 내가 움죽거리고 보고 듣고 가고 오고 말하고 하는 일거일동이 바로 그놈으로 인해서 움죽거린다고 생각할 때 진짜 믿고 거기다가 맡겨 놓을 수 있는 겁니다. 그거를 진짜 맡겨 놓고 있을 때에 통신이 돼서 생명의 의식들이 전부 작용을 합니다. 헤아릴 수 없는 모습과 생명이 의식을 가지고 이 몸속에서 살고 있는데 이걸 큰 혹성이라고 해도 되고 별성이라고 해도 되고 큰 회사라고 해도 됩니다. 이걸 국토라고 해도 됩니다. 이 국토에서 모든 자생중생들이 살고 있는데 신호가 가면, 내 마음에서 통신이 가면 벌써 대뇌를 통해서 중뇌를 통해서 책정이 돼서 사대로 통신이 됩니다. 사대로 통신이 되면 모든 생명체의 소임을 맡아 가지고 있는 공장장들이 전부 작용을 하게끔 합니다.

이것은 심성의학이기도 하지만 심성과학이기도 합니다. 이름만 거창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실천이 문제입니다. 말이 문제가 아니라, 잘 아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진실로써 한 걸음 한 걸음 실천하면서 떼어 놓을 수 있는 그것이 문제란 말입니다. 신호가 가서 내 한생각에 모든 생명의 의식들이 따라 줄 수 있다면 바로 더불어 같이 공존하는 겁니다. 즉 시쳇말로 한다면 원자 속에서 분자로 인하여 입자가 돼서 털구멍을 통해서 들이고 내면서 천백억화신으로서 응신이 되신단 말입니다. 없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자생중생들에게 안과 밖을 조복받게 되면 부처님 국토에서 날날이 보살로 화해서 헤아릴 수 없이 나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그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물질세계만 생각하고 보이지 않는 무의 세계, 정신세계 50%를 아주 망각하면서 모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걸려서 돌아갑니다. 50%와 50%가 같이 돌아간다면 얼마나 여여하게 돌아가며 얼마나 슬기롭고 지혜롭고 물리가 터지고, 아주 마음이 천 리를 가도 간 사이가 없고 와도 온 사이가 없이 모두가 이렇게 될 수 있으련만….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면서도 "가고 오는 것도 도가 아니니라. 보는 것도 도가 아니니라. 아는 것도 도가 아니니라. 듣는 것도 도가 아니니라. 네가 어디서 나온 줄 아는 것도 도가 아니니라." 그러셨어요. 과학적으로는 그릇이 얼마만하고 물이 얼마나 담겼다는 것을 알아내는 거지만,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뜻은 이것을 보기만 하는 건 도가 아니다 이런 겁니다. 있는 줄 알면서도 이거를 갖다 먹지 못한다면 이건 도가 아니다 이거지요. 남이 목마를 때 줄 수 있고 내가 목마를 때 먹을 수 있어야만이, 그것도 이름해서 도라고 할 수 있다 이겁니다.

말이 문제가 아니라 실천이 문제입니다
잘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진실로써
한걸음 한걸음 실천하면서 떼어놓는 것이 문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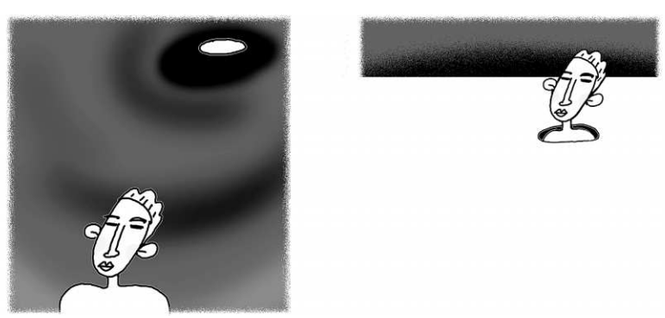
수행자로서의 마음 자세

문 부처님의 경전을 보면 깨달음의 세계가 밝고 맑아서 너무나 환희롭고 꼭 이루고야 말겠다는 서원이 저절로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단 순간에 깨달음의 세계에 다다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세속에 살면서 생활 속에서 수행해 나가는 저희들이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로 향하기 위한 수행자로서의 마음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 아주 추운 겨울 동안 움츠러들었다가 봄이 오면 활동하기가 좀 유하시죠? 그래서 마음의 봄이 와야 살기에 좀 유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배우는 데 세 가지의 어긋남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진리에 순응해야 하고, 둘째는 그 뜻을 따라야 하고, 셋째는 시대에 따라야 한다는 얘깁니다. 이 세 가지가 어긋날 때에는 부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과 같아서 그거는 불제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왜 이 정신세계의 마음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를 한 번 숙고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 인간들은 살아나가면서 갖가지로 생활에 얽매이죠. 그러나 만물에 대해서 한번 거론해 봅시다. 모든 생물들, 동물이든 식물이든 어떤 새들이든, 어떤 곤충이든 개든 고양이든 모두가 자기 분수를 안다 이겁니다, 말이나 소나 개나 돼지나 다 알고 삽니다. 돼지는 자기가 돼지인 줄 알기 때문에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새도 그렇고 개도 그렇고, 모든 게 다 자

☞30면으로 계속


그림 · 최주현

들이고 내는 구멍은 한 구멍밖에 없어

☞29면에서 계속

기 분수를 알기 때문에 편안하게 지낼 수 있다는 얘깁니다. 오직 한 군데에다 몰두하고 말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바를 틀림없이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건이 주어지면 개는 개로서 사는 방식을 허탈하게 보내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네 인간처럼 아주 악순환을 겪고 얽히고설킨 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집착과 관습에 의해서 그냥 얽매이고 살지는 않죠.

어떠한 사람들이, 사대 선지식들이, 또는 부처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 거기에 끄달려서 아예 한 발짝도 떼 놓지 못하죠. 부처님께서도 "말에 끄달리지 마라, 뜻을 봐라. 뜻에 따라야지 말에 따르면 안 되느니라. 그 말을 들어서 뜻을 가지고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은 그렇게 얽매이고 지내는데 동물들이나 식물들은 아주 편리하게 얽매이지 않고 산다 이겁니다. 그것은 어떠한 점 때문이냐 하면 자기 분수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사람은 자기 분수를 지키지 못하고 분수를 모르고 남의 말만 듣고 얽매이고, 집착과 욕심에 분수를 모르고 끄달리는 그러한 일들이 허다 많습니다. 아니, 모두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우리가 자기 다리가 긴지 짧은지 그걸 모른다면 개천을 건너뛴다 하더라도 아마 개천 중간에 빠질 겁니다. 그러나 자기 다리가 짧은 줄을 안다면 뛰지를 않겠죠. 넓은 데는 뛰지 않고 자기가 뛸 수 있는 만큼만 뛰겠죠.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안 그래요. 개천이 넓으나 좁으나 막론해 놓고 그냥 넘어갈 생각만 하거든요.

이 공부하는 자체도 그래요. 우리가 분수를 안다면 나부터 발견하려고 애를 써야지, 말을 많이 들어서 첨단을 넘어서려고 기어오르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그건 자기 자리도 모르는 그런 위치가 되죠. 자기 내면의 자기가 철저하게 그렇게 해 나감으로써 스스로 자기 자생중생들이 제도가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해도 그것을 귀담아 듣지를 않는 모양 같습니다. '어떡하면 빨리빨리 알아질까? 어떡하면 빨리빨리 깨달을까?' 하지만 내 자생중생들부터 한 마음으로 돌아갈 줄 알아야 내가 한마음으로 돌아갈 줄 알게 되고, 자생중생들이 튼튼하고 건강해야 내가 건강하고, 또는 자생중생들이 둘 아니게 돌아갈 줄 알아야 내가 둘 아니게 돌아갈 줄 알고, 그러니만큼 모든 것은 자생중생들이 남이 아니라 바로 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를 제도를 해야 내가 제도를 받고, 자생중생들이 제도를 받아야 내가 깨달음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정신계를 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문 지금처럼 첨단과학의 시대에 마음공부를 해서 정신계를 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림 · 최주현

답 우리 인간이 살아나가는 걸 가만히 보십시다. 여러분은 애고(哀苦)가 많으니 고(苦)가 많으니 병고가 많으니 온통 야단들인데 난 병고다 애고다 고통이다 이런 생각 안 합니다. 그런 고통을 받아 보신 분들이 그 낙(樂)을 알 수가 있는 거지 고통을 모르면 남의 고통도 모르고, 또 사람이 발전을 하고 진화돼서 창조력을 기를 수가 없습니다.

고통과 즐거움은 동시에 평등한 겁니다. 그래서 항상 재료로 알라고 그러죠. 여러분이 아무리 빠져나가려고 해도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이치가 있다는 사실을 실감나게 알아야 될 일인데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그걸 말을 어떻게 해야 여러분한테 잘 비벼서, 비빔밥을 맛있게 해서 먹게끔 하고 나중엔 소화를 잘 시키고, 나중에는 대변을 잘 눠서 속이 시원하게 해 줄 수 있을까 이런 점에서 곰곰이 생각해도 때로는 부실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한테 표현이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 보십시다. 영화를 찍는데 미리미리 대사나 모든 것을 준비해서 촬영해 가지고 영화를 찍지요? 인간들도 자기가 살아나가는 데에 자동적으로 촬영이 되고 자동적으로 입력이 돼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생활을 해 나가는 영화를 돌린다 이겁니다.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영화 제작이 되고, 또는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했느냐에 따라서 대사와 모든 것이 그렇게 정신력에 의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치도 벗어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영화를 볼 때에 때에 따라서 국민이 '이렇게 이렇게 이거는 잘못됐다.' 하고 말을 하면 좀 고치기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 80%, 90%는 고칠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이 태어날 때 벌써 그렇게 역할을 가지고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한 것대로. 그래서 자기가 한 것대로 방영을 해 주는 겁니다. 아주 요만큼도 빈틈없는 겁니다.

얼른 쉽게 말해서, 태양계가 모든 행성을 이끌고 다니되 태양이 잘나서만이 아니고 행성들이 잘나서만도 아니에요. 서로 주고 서로 받고 이렇게 공용(共用)하는 겁니다. 공식(共食)이 없다면 공용이 없습니다. 상대성이 아니라면 우리가 움쭉거릴 수가 없고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이 아주 이 도리를 확실히 안다면 한 치도 어긋날 게 없고, 진리에 순응하고 부처님의 뜻을 따르고 우리 생활도 시대에 따라서 용어가 변천되고 바뀌고 하는 대로 발전이 돼서 아마 시대에 어긋나지 않게 살아나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테두리 안에서, 이 지구 안에서 벗어나면 벗어나는 대로 정신계와 통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꾸 하는 말이지만, 우리의 마음과 마음이 저 우주의 근본과 직결이 돼 있다고 그랬죠? 이 세상 살아나가는 건 가설이 돼 있다고요. 한 치도 어긋나지 않게 그렇게 가지고 나온 거죠. 이 세상에 나왔다 하면 내가 나온 게 바로 화두요, 앉고 서고 생활하는 게 그대로 참선이요, 그 모든 살림살이 하는 것이 바로 자기이기 때문에, 붙잡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는 자기이기 때문에 우주하고도 직결이 돼 있다 이겁니다. 직결이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하고 행하고 그런 거를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정신계를 통하지 않으면 안 되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벗어나려면 정신세계와 통해야 우리가 정신세계로 발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옷을 벗고. 즉 말하자면 원자가 발전을 해서 은하계라든가 태양계라든가, 만약에 거기의 지배자가 된다면 수명은 더 길어지고 모든 각계각층 중생들을 다 건지게 되고 살리게 되는 거죠.

함이 없이 하고 있고 사는 게 없이 살고 있어요

그런 반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나가 다 내가 되지 않는 생명들이 하나도 없고 나 아닌 게 하나도 없느니라.' 한 뜻이 뭔 줄 아십니까? 만약에 이렇게 여러분이 잘 아시는 태양계의 지배자라면 모든 행성, 혹성을 이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마음의 줄에, 염주알이 한 줄에 꿰어서 돌아가듯이 다 돌아갑니다. 진리에 조금도 어긋남이 없고 인간의 한마음의 도리에 어긋남이 없이 서로가 주고 받고 공생 공용 공체 공식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조금도 빈틈없이 저 갈고리에 걸려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고기가 바다를 벗어나서 살 수가 없듯이, 우리가 지구를 벗어나서 살 수 없듯이,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벗어나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당신과 둘이 아닌 까닭에 나는 한 사이도 없고, 어떤 거를 집어서 나라고 할 수 없으니 나는 한 사이도 없다고 했겠지요. 허나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그 길을 일러 주시지 않았다면 반드시 우리가 지금도 허우적거리고 있었을 거다 이겁니다. 역력히 지금도 그분의 마음은, 진리와 그분의 마음과 세상과 전부 일체만물만생과도 더불어 같이 마음을 한마음으로 돌렸기 때문에, 지금도 진리는 여여하듯 부처님의 그 뜻과 말씀은 여여하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데서 만약에 원자에다가 입자들을 그냥 수없이 이 우주 공간에 있는 걸 다 집어넣어도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게 이름만 다르지 뜻은 다 똑같애요. 다 집어넣어도 두드러지지 않고 다 내놔서 활동을 해도 줄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될 수 있으면 처음에는 절대적으로 여기만, 자생중생들이 모인 이 세계만 믿고 모든 걸 '주인공의 뿌리에서 뿌리가 가닥가닥 헤아릴 수 없이 있는 이 자체 여기서 모든 게 나오는구나. 여기서 모든 게 드는구나. 나고 드는 게 여기구나. 그러니까 너만이…' 이렇게 해서 다 거기다 놓고, 자생중생들이 '아, 이거 마음의 선장에 의해서 모두가 돌아가는구나!' 하고 다 알았을 때, 그때는 털구멍을 통해서 보이지 않게 원자에서 입자가 나가듯 다 나가서 조절하고, 도리에 어긋남이 없이 같이 돌아갈 수가 있죠. 예를 들자면 미국에 아들이 사는데 도대체 어떻게 그곳까지 가서 자꾸 도와줄 수도 없고 이럴 때는, 내 마음에서 탁 나가면 벌써 거기서, 그걸 이름을 하자면 입자로서 그 활동을 하게 돼 있죠.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서 내가 그래요. 허허.

그러니까 입자로서 거기 가서, 입자라도 원자가 될 수 있고, 원자 속에서 입자가 나오고, 나온 그 입자가 바로 원자가 될 수 있는 거니까요. 일할 땐 원자가 되는 거죠, 그 속에 둘이 아니게 가니까. 그래서 순간순간 찰나찰나 원자에서 입자가 돼서 나가서 그쪽에 가서는 원자가 되고, 원자가 돼서 그쪽에서 그 뜻을 알았으면, 그러면 또 전화를 해 주고 아, 이러면 자연적으로 공부가, 느끼고 체험하고 이렇게 되면 자연적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정을 이끌어나가는 데 여여하게 이끌어나갈 수 있죠.

그러니 여러분이 정신계의 이 공부를, 마음공부를 아니하신다면 앞으로 살기가 극난히 어렵다 이겁니다. 왜냐. 앞으로 물질세계의 발전은 고도로 진전이 되겠으나 이 정신세계의 공부가 없이는 물질세계도 광대하게 발전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조성 모연문

본 암자 내원암은 지리산 도솔봉에 위치하며 대한불교조계종 19교구 본사 지리산 화엄사 산내 암자로 창건연대가 신라 경덕왕시대 8월 81암자 중 하나 였던 내원암이 6.25사변을 겪으면서 내원암에 거주하기 어렵도록 쇠락소멸 되어 터만 남은 것을 시절 인연이 도래함에 산승이 복원을 발원하여 현재 건물 1동을 건립하는 중 입니다.

하오나 본승의 원력이 부족함에 부득이 도솔봉 내원암에 모실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님, 지장보살님을 조성하는 불모 시주님과 법당에서 사용할 법당종 조성 불사 인연을 발원하게 되었습니다.

신심 깊으신 많은 불자님의 동참 인연을 기다립니다.

※ 불구와 가전 및 일체 생활용품 등도 보시를 기다립니다.

전남 구례군 마산면 황전리 지리산 화엄사 산내 도솔봉 내원암 암주 보광당 지암 합장

연락처 전 화 061-783-0095 휴대폰 017-611-0096

● 온라인 : 우체국 601625-02-021246 국민은행 576-21-0308-915 예금주 : 장훈섭(지암스님)

동의대학교 음악 아카데미 응용피아노 수강생 모집

지도교수 권 상 무

• 방송 피아니스트
• 필라델피아 음대 음악박사-편곡
• "크로스 오버"오케스트라 지휘자

피아노 치며 노래하는 반주법(초보, 중급) - 생활피아노(초보 누구나 가능)
• 찬불가, 가곡, 가요 강좌번호 108번
• 찬불가 합창단 반주 및 법회 반주

예술적인 고급 연주법 및 재즈(고급): 연주용 피아노
• 피아노 전공자, 피아노 교사, 사찰 반주자 강좌번호 109번

수시모집 12주-주1회 ₩300,000
1:1 렛슨 · 눈높이 교육

동의대학교 평생교육원
TEL:(051)890-1947~8 FAX : (051)890-1949
http://www.educate.dongeui.ac.kr E-mail:educate@dongeui.ac.kr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동 산24번지
권상무 교수 H.P : 011-342-8215

간(肝)이 간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 (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055) 963-9583 · 상담문의: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 매일경제신문 인체 경영학 연재 -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 해독다이어트 ☆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 생활하며,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수십년간 몸안에 쌓인 온갖 노폐물이 빠지면서 체중감량이 된다는 이강옥 교수의 20여년 임상경험은 비만인들에게는 귀가 번쩍 뜨이는 희속식이다.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자가 살빼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 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꾸는 발효원액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규명 못하는 노폐물이 장 속에는 이끼처럼 숙변이 쌓이고 관절 사이사이에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물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답답해 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발효원액은 우리땅에서 자란 50여종의 야채, 과일, 해조류 등을 3~5년간 장기간 자연발효 숙성시킨 것으로 그 속에는 천연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이 살아 숨쉬고 있다. 이것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인체의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효소는 인체 곳곳에 마치 쓰레기처럼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과잉으로 축적 되어있는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 대수술을 일상 생활 중에 소리없이 진행한다.

02)523-0708 초 록 원 (팔보효소)



약초물에 몸 담그니 氣차 오르네

약초목욕으로 건강 지키기

최근 반신욕, 아로마목욕 등의 목욕법이 인기를 끌면서 '건강지키는 목욕'에 대한 관심이 높다. 특별한 부작용 없이 작게는 미용효과에서부터 크게는 질병의 치료와 예방까지 두루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약초를 이용한 목욕은 한의학적인 치유효과까지 누릴 수 있어 눈길을 끈다.

경희대 한방병원 재활의학과 신현대 교수는 "약초를 이용한 목욕법은 약재를 끓여 증기를 쏘이고 그 약물에 전신을 씻어내는 과거의 약물요법에서 유래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약초목욕은 약재를 우린 물로 환부를 씻기도 하고 그 물에 전신을 담그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응용될 수 있다.

재료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약초목욕법은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를 따른다. 먼저 욕조에 뜨거운 물을 받는다. 그리고 약초목욕재료 50~100g을 면 또는 베보자기에 넣어 묶은 다음 목욕물에 우린다. 약초물이 알맞게 우러날 동안 가볍게 샤워를 하고, 욕조물의 온도가 36~38도 정도로 내려가면 입욕한다. 15~20분 정도 몸을 담근 뒤 욕조에서 나와 비누칠을 하고 수압을 세게 하여 헹군다.

한의학적 치유효과로 큰 인기
36~38도에 15~20분 입욕 적당
발열, 피부질환 등 증세시 삼가

가정에 욕조가 구비되어 있지 않다면 전문 '약초탕'을 찾는 것도 좋다. 대구 팔공산 파계사 입구의 만유약초탕(053-982-2030)에서는 14가지 한약재를 사용해 개개인의 체질에 따른 맞춤식 약초탕을 제공하고 있다. 손진걸 대표는 "<향약집성방>, <동의보감> 등의 의서에 나타난 '약욕'을 참고해 전통 약초를 이용한 목욕법을 소개하게 됐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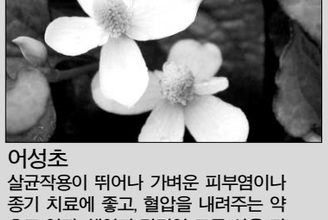
그러나 주의할 점도 있다. 열이 나거나 부기가 있을 때는 삼가는 것이 좋다. 또한 편도선염, 눈병, 종기 혹은 화농 증세가 있을 때도 해롭다. 식사 바로 전후의 목욕도 피하도록 한다. 병증의 치료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하루에 2~3번 정도는 반복해야 한다.

강신재 기자



솔잎- 피부미용과 신경통 완화에 좋다.

■ 약초목욕에 좋은 재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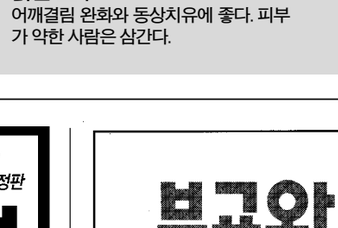
감초
근육이완과 신경안정에 효과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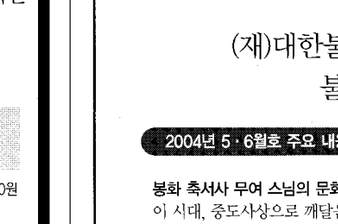
당귀
혈액순환에 탁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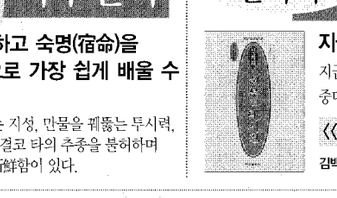
마늘
혈액순환 촉진과 살균작용에 있다. 겨드랑이 냄새 제거에도 효과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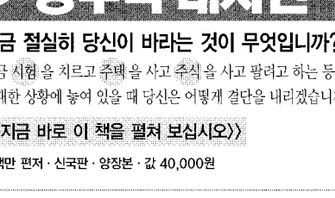
어성초
살균작용이 뛰어나 가벼운 피부염이나 종기 치료에 좋고, 혈압을 내려주는 약효도 있다. 생잎과 말린잎 모두 사용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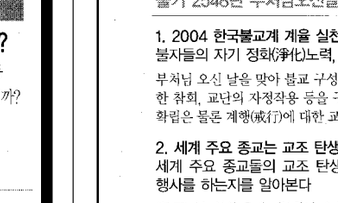
귤껍질(진피)
말려서 사용하면 어깨결림, 신경통, 류머티즘 증세에 효과가 있다.



표고버섯
기미퇴치와 습진치료에 좋다.



말린 생강
혈액순환을 돕고 염증을 가라앉힌다. 신경통에도 좋다.



붉은 고추
어깨결림 완화와 동상치유에 좋다. 피부가 약한 사람은 삼간다.

최윤근 교수의 아유르베다 읽기 ㉑

자신에 맞는 운동으로 몸·마음 젊게



운동을 꼭 해야만 하는 이유

에어로빅이 좋은 이유는 심장과 순환계의 활동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근육과 지방 조직을 튼튼히 한다는 데 있다. 그러므로 꾸준히 해 주어야 한다. 그런데 이런 운동을 할 때는 어떤 성질의 도샤를 가졌는가에 따라 운동 방법이 달라지게 된다.

우선 카파 도샤가 지나친 사람은 일반적으로 격렬한 운동이 도움이 된다. 반면 바타가 지나친 사람은 가벼운 운동, 피타에 이상이 있는 사람은 중간 정도의 운동이 필요하다.

도샤 상태 따라 운동 방법 달라져야
요가·호흡법 통해 독소 노폐물 제거

두 번째는 운동을 통해 에너지를 얻는다는 뜻의 '비아야마(Vyayama)' 운동 처방법이다.

이것은 운동을 통해 에너지를 확대하려 하기보다는 '에너지' 그 자체를 몸에 주려는 것이 진정한 목적이다. 태양에 대한 인사(sun salutation), 하타 요가(yoga asanas), 코로 교대로 숨쉬기(pranayama) 등 3가지가 이에 해당한다.

에어로빅 운동과 달리 이것은 몸과 사지를 뻗치고 호흡하는 운동으로 아주 천천히 그리고 부드러운 방법으로 행한다. 이들 운동은 심혈관 활동을 증가시키기보다는 오히려 감소시킨다. 그러므로 실제로 전보다 몸이 더 가벼워지고 힘이 더 넘치며 정신 또한 맑아짐을 느낄 수 있다. 그 까닭은 무엇일까?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다.

만약 우리가 팔이나 다리에 부상을 입었다고 치자. 이때 팔이나 다리만 아플 뿐 다른 곳은 별로 아픈 것을 못 느낀다. 그러므로 몸의 다른 부분에 영향을 끼치지 않고도 사지는 얼마든지 치료할 수 있다. 하지만 배에 손상을 입었을 때는 문제가 다르다. 이때는 전신을 통해 그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것이 우리가 사지보다 배에 더 관심을 갖게 하는 이유다. 요가나 호흡법은 흉부와 내장의 운동을 돕는 것이다. 이들 기관에 압력을 가함으로써 내장의 운동을 유도해 몸에 쌓인 독소와 노폐물을 제거시키고 영양소를 필요한 조직 속으로 운반하는 것을 돕는 작용을 한다.

코를 교대로 사용하는 호흡법은 흉부, 횡격막, 대뇌의 반구를 확장시키거나 압축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이것은 그곳에 쌓여 있는 독소를 제거하고 기능을 향상시키는 일종의 마사지 운동 방법이다. 또한 도샤들에 의해 행해지는 가장 중요한 기능들이 이들 운동법에 의하여 많은 도움을 받는다. 이런 이유들로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판차카마와 함께 요가가 사용되어야 한다고 차라카가 말하였다.

이유베다에서는 몸을 정화시키고 젊게 하기 위해 4가지의 요가 체위를 들고 있다.

첫째가 메뚜기 체위, 두 번째는 무릎을 가슴에 대는 체위, 세 번째 코브라 체위, 네 번째 장을 위한 특별한 운동과 함께 코로 호흡하는 법을 매일 규칙적으로 시행할 것을 차카라는 권하고 있다.

■ 포천 중문의대

KBS, MBC, SBS, EBS 각종 언론이 인정한
인생역전 김재덕 역학교육원
모집과정 : 수시모집
강 의 : 주 2회(화,수요일)
역 학 : 초·중급 - 남륜스님
사주통변 및 작명법, 인연법 : 김재덕선생
관상학 (특강 월 2회) : 신기원선생
신청문의 02)567-4833
011-9702-22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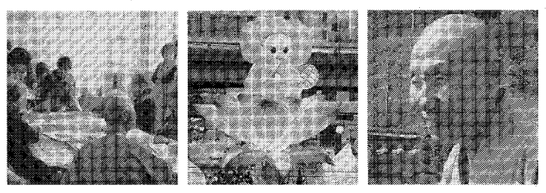
21세기 新개념의 역학!
易學, -입문편-
더 이상의 학문은 없다
왕초보부터 외국인까지 이 책 한권이면 누구나 알 수 있다
녹현방정식은 몇 천년간 내려온 두루뭉실한 이론을 세계 최초로 수치화하여 공식에 대입하였다.
헷갈리지 않는 격국(용, 희신=추구하는 삶)과
심성체질(원초적인 본능=끌려가는 삶)이 나오며,
운의 순위(마음의 만족도)와 격국의 크기(상, 중, 하격)까지 나온다.
화제의 신간 어학, 더 이상의 학문은 없다
녹현 이세진 지음 / 신국판 / 448페이지 / 정가 2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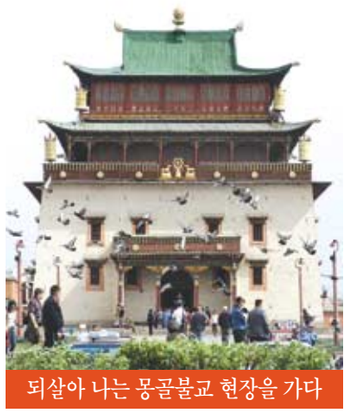
도표 사진 등 최신 기획자료 4백여점을 집대성
佩鐵 向法 九星 紫白을 해설한 국내 최초의 결정판
풍수학논법
본서는 불필요한 논리전개과정을 과감히 축소하고 핵심에 바로 접근하는 지름길 안내를 시도했다.
내용과 표현방법을 단순화 해 흔한 스타일의 표현은 탈피했다.
부록 / 나만의 모순일까?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한다.
성재권 지음 / 신국판 / 양장본 / 512페이지 / 정가 25,000원

청산 김성진 지음 신국판·양장본 값 30,000원
韓國人의 新 사주팔자
누가 운명(運命)을 논(論)하고 숙명(宿命)을 운운(云云)하는가? 독학으로 가장 쉽게 배울 수 있는 21C 역학 지침서!
해박한 지식, 명쾌한 논리, 번쩍이는 지성, 만물을 꿰뚫는 투시력, 특히 풍부하고 살아있는 경험 등은 결코 타의 추종을 불허하며 도저히 다른 책에서는 볼 수 없는 新鮮함이 있다.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지금 절실히 당신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시험을 치르고 주택을 사고 주식을 사고 팔려고 하는 등 중대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당신은 어떻게 결단을 내리겠습니까?
<<지금 바로 이 책을 펼쳐 보십시오>>
김백만 편저 · 신국판 · 양장본 · 값 40,000원

관음역서 시리즈
1 헤서 명리진평 신국판/헤서 조영수 편저/정가30,000원
2 21c 최신판 우리말 대운 만세력 4*6배판/헤서 조영수 편저/정가16,000원(大) 신국판/헤서 조영수 편저/정가 10,000원(小)
3 재미있는 오행철학으로의 여행 신국판/김백만 편저/정가12,000원
4 최신 풍수지리 핵심비결 신국판/양장본 김봉서 지음/정가 30,000원
5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신국판/김백만 편저/정가 40,000원
6 그림 당사주 대전 4×6배판/이선암,전호일 공저/정가25,000원
7 사주학 핵심비결 신국판/양장본/송월스님 지음/정가 25,000원
8 고전 풍수학 설심부 신국판/양장본/申坪 譯註圖解/정가 25,000원
9 사주학 강의 신국판/哲學博士 曺誠佑 /정가 12,000원.
10 관상 수상학 강의 신국판/哲學博士 曺誠佑 /정가 15,000원
11 신토정비결 신국판/배광 지음/정가 8,000원
12 사주 입상록 신국판/양장본/이상욱 지음/정가25,000원
13 전통 풍수지리 월계관 신국판/양장본/신상백 서/정가30,000원
14 실전 사주학 길라잡이 신국판/金允中 지음/정가 15,000원
15 한국인의 신 사주팔자 신국판/양장본/김성진 지음/정가 30,000원
16 꿈풀이 삶풀이 대백과 신국판/정현우 지음/정가 17,000원
17 명가흉가의 기상학 비결 신국판/김용식 지음/정가 15,000원
19 구성학의 사주풀이 신국판/양장본/문길여 지음/정가 25,000원
20 육효학 핵심비결 신국판/양장본/송월스님지음/정가 30,000원
21 한국 풍수 이론의 정립 신국판/양장본/박봉주 지음/정가 25,000원
22 적천수 형의(上) 신국판/양장본/공유성 지음/정가 40,000원
23 대권과 풍수 地氣를 해부하다 신국판/우영재 지음/정가 18,000원
24 21C 천문만세력 4*6배판/정수홍 지음/정가 35,000원
25 실전 명리학 첫걸음 신국판/정수홍 지음/정가 15,000원
26 적천수 형의(下) 신국판/양장본/공유성 지음/정가 40,000원
27 정설 사주공부 신국판/양장본/일현스님 지음/정가 20,000원
28 新 토정비결 신국판/백광 지음/정가 9,000원
29 풍수학논법 신국판/양장본/성재권 지음/정가 25,000원
관음출판사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761-15 광성 B/D 3층 T. 921-8434 F. 929-3470

불교와 문화
www.buddhistculture.co.kr

(재)대한불교진흥원이 불교의 대중화·현대화·생활화를 위해 펴내는
불교 속의 문화, 문화 속의 불교와 만나는 유익한 잡지
2004년 5·6월호 주요 내용
봉화 축서사 무여 스님의 문화칼럼 | 불기 2548년 부처님 오신 날 기념 이 시대, 중도사상으로 깨달음의 본질을 본다
불기 2548년 부처님오신날 기념
1. 2004 한국불교계 계율 실천과 자정의식에 관한 설문조사 불자들의 자기 정화(淨化)노력, 너무 부족하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불교 구성원들의 생활 속의 오계 실천 정도, 자기 정화를 위한 참회, 교단의 자정작용 등을 구체적으로 점검함으로써 향후 불자로서의 정체성 확립은 물론 계행(戒行)에 대한 교단의 준거틀 확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2. 세계 주요 종교는 교조 탄생일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 세계 주요 종교들의 교조 탄생일의 유래와 사회적 의미, 그리고 어떤 기념 행사를 하는지를 알아본다
(불교)가능성의 축제, '부처님 오신 날'
(그리스도교)예수님의 탄신 기념일 '크리스마스'
(이슬람교)모하메드의 탄생일 '마울리드'와 이슬람의 의례
특집 | 불교계에도 현대적 요양시설이 필요하다
노령화사회를 맞아 일반 불자들은 물론이고 불교계에 몸담고 있는 전, 현직 종사자들까지도 실제 이용 가능한 이상적인 불교요양시설의 밑그림을 그려본다.
불자들이 원하는 요양시설, 어떤 것이 있나 - 요양시설 운영사례 분석
불교계 요양시설의 이상적인 모델
교리 | 지혜의 샘
생활인을 위한 경전 읽기 동국대 불교학과 권기종 교수의 『유마경』 강설 (3) - 진정한 좌선이란 어떤 것인가
지상중계 | 고려대 조성택 교수의 불교경전강의 원효 스님의 『열반경종요』
문화 속으로
테마가 있는 문화산책 | 불단이 아름다운 사찰(경산 환성사·은해사 백흥암) 부처님 오르신 삼라만상 위 사자자리, 수미단
자연과 사람
절집의 나무들 | 은행사, 보문사 경내의 향나무
등잔 밑을 비추는 사람들 | 숨은 불자 인터뷰 부처님 오시는 길 밝히기 - 박상희·전영일·장우영 씨
불교 정보창고
불교잡지에서 고른 명문장 조선불교의 교육방침을 확정하라(글·오봉산인, 1924 『불교』 2호)
책 속의 책 | 불교관계논저총합색인(2004년 단행본, 학위논문)
격월간 『불교와 문화』 전화 02-719-2606, www.buddhistculture.co.kr



몽골불교 중흥으로 '희망찾기'

되살아 나는 몽골불교 현장을 가다

5월 28일. 3시간 10분의 비행끝에 도착한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는 푸르름을 재촉하는 단비가 내리고 있었다. 생명의 활기가 넘치는 시기는 고작 6, 7, 8월 3달에 불과한 만큼 나무들은 반가움에 떨며 푸르른 잎을 발산한다.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서돈각)과 고려사(주지 활안)가 한몽불교우호교류 증진차원에서 진행한 한몽 합동법회와 불화 및 민화전시회 취재를 위해 5월 28일부터 6월 2일까지 몽골을 다녀왔다. 현지에서 본 몽골불교는 이제 막 새싹을 돋고 있었다.

▮모든 것을 껴안는 몽골



몽골은 인구가 250만에 불과하지만, 한반도의 6배에 달할 정도로 영토가 넓다.

울란바토르를 중심으로 한 중앙부의 드넓은 광활한 초원, 북부의 울창한 산림, 남부의

유목 생활로 다져진 무욕의 삶

사막, 지하에 매장된 금, 석유등의 광물…,

한때 아시아와 유럽을 지배하며 세계에서 가장 넓은 땅을 소유했던 몽골제국을 비롯 위구르, 흉노, 돌궐로 불리우며, 중국역사의 반을 차지한 몽골족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삶의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초원을 떠돌며 양과 염소, 소를 방목하는 유목민인 몽골인들이 전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단순했다. 바로 이방인을 감싸안으며 그들에게 수집하는 다양한 정보를 수용하는 마음에 있다. 또 지배자가 되어 몇백년을 타지에서 살아도 유목민의 정신을 잃지 않고 타민족의 문화를 한없이 존중해 준다. 또 힘이 약해지면 미련없이 넘겨주고 초원에 돌아와 양을 키우며 살아가는 무욕의 생활을 한다. 피지배자가 됐을 때는 종교, 사상, 문화등을 가지리 않고 일단 받아들인 뒤 자신들의 것에 맞는 것을 골라 일관되게 밀고 나가는 끈기가 그것이었다.

▮몽골불교 현황

몽골불교는 1920년 공산화 이후 700여개에 이르던 사찰이 3~4개 사찰만 남고 모두 불탔다. 당시 성인 남자 50%인 7만 여명이었던 스님들은 강제 환속당하고, 거부한 수만명의 스님은 처형됐다. 1917년부터 시작된 몽골의 독립운동은 민족주의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몽골의 민족주의자들이 일본에 맞서기 위해 러시아와 손잡으면서 수난은 시작된다. 당시 민족주의자들은 8대 복드칸을 제정일치 수장으로 모셨으나 4년

90년 종교 자유화 되며 중흥 몸 짓

후인 1924년부터 소련의 간섭에 의해 폐위됐다. 또 독립영웅 수마트라 장군을 비롯한 민족주의자들도 모두 숙청됐다.

1990년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면서 몽골불교는 다시 부흥의 몸짓을 하고 있다. 현재 100여개 사원에 300여 명의 스님이 있으며, 현재 인구 250만 여명 중 25%가 불교, 70%가 불교와 정령숭배가 결합된 신행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3%는 이슬람, 1%는 기독교도이다.

▮새롭게 중흥하는 몽골불교

몽골불교는 대표적 사찰 간단사와 에르덴죠, 다시초링 사찰을 중심으로 법회와 승려양성등이 이뤄지고 있다.

몽골의 대표적 사찰인 울란바트르 간단사는 1940년까지 러시아 군대의 마굿간으로 쓰이던 곳. 미국 부통령 방문시 종교의 자유를 보이기 위해 절로 급조했고 승려들은 환속한 사람들을 급히 데려왔다. 당시 다시 사찰로 돌아온 스님은 모두 7명. 7명의 스님을 중심으로 몽골불교가 새롭게 시작됐다. 그동안 3명의 스님이 열반에 들고, 현재 단장람, 이시삼초, 도제장첸 스님등 4명이 승가대학을 세우고, 200여명의 제자들을 양성하고 있다. 울란바토르에서 서남쪽으로 370km 떨어진 몽골의 옛수도 카라코룸에

간단사 등 공부 열기 가득

징기스칸의 29대손인 아부타이 사인한이 세운 외몽골 최초의 사원 에르덴죠. 몽골 제국의 궁전인 만안궁의 석재를 이용한 에르덴죠 사원은 108개의 탑으로 둘러싸여 있다. 14개의 건물과 23명의 스님이 거주하는 에르덴죠 사원은 현재 대대적 보수공사가 진행중이다. 본래 미륵불의 본당이었던 다시초링사원은 티베트어, 고어, 산스크리트어, 러시아어, 중국어에 능통한 前 총무원장 담마자우 스님이 개교한 다시초링 불교대학에는 50여명의 학승들이 공부하고 있다.

▮몽골불교 활성화 프로젝트 박차

1996년 전국민의 성금을 모아 간단사 법당 본존불로 26.5m높이의 관음보살 입상을 건립한 몽골불교계는 7월 21일 바클라 린포체 사리탑 점안식을 국가적인 행사로 준비하고 있다. 이를 시작으로 몽골불교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또 덕산리 오오프로젝트를 진행중이다. 덕산리 오오프로젝트는 몽골의 남산을 몽골정부로부터 불하받아 사찰인 아미타바사와 서비스센터, 박물관, 문화원, 갤러리, 도서관, 불교대학을 건립할 계획이다.

현대적인 정치 경제 사회 문화계의 지성



에르텐쵸 사원에서 독경하는 스님들.

인들을 지도하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아시아정신을 살리고, 환경보존과 인류가 살아갈 길을 제시하는 아스팩(asfec)과 불교와 과학의 연계를 시도하는 웁베르텐(upepden)학회, 몽골지성인 여성들의 모인인 굿프렌드등의 단체를 스님들이 이끌고 있다. 만토회 여학교(고아원) 설립등 몽골에서는 다소 생소한 사회복지에도 첫발을 내딛는등 선진적인 이론과 실천의 겸비에 나서고 있다.

이와 함께 프레밭 스님(몽골불교미술대학장)을 중심으로 한 젊은 스님들은 불교의 전통 잇기에 적극적이다. 스승들로부터 배움을 게을리 하지 않고, 몽골전역을 돌며, 밀

국가지원속 불교 발전 도모 계획

교수행 비법을 전수받아오고, 문헌자료들을 모으고 있다. 또 사회주의 국가시절 학살당한 승려들의 유해를 수습해 위령탑을 건립중에 있다.

특히 프레밭 스님은 수도 울란바토르에 그치지 않고, 전국적인 전통문화 부흥운동을 펼칠 계획을 서두르고 있다. 2006년 4년제 몽골불교미술대학 졸업생들을 전원 고향으로 돌려보내 전통 및 불교문화를 되살리는 네트웍을 구성할 방침이다.

프레밭 스님은 "몽골불교는 충분히 미래의 희망이 있는 만큼 한국불자들의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글 · 사진/몽골= 김원우 기자



개원 1주년 맞은 몽골 고려사

내년, 법당 · 한몽문화원 등 건립 계획



다시 초링사원내 게르법당으로 건립한 고려사에서 6월2일 개원 1주년 기념 한몽 법회가 열렸다.

내년 7월 몽골에 고려사를 비롯 국제불교 박물관과 한몽문화원 건립불사가 시작된다.

고려사는 최근 몽골정부로부터 자이승국립공원 한가운데 위치한 5천평, 울란바토르공항 인근에 4천평의 토지를 기증받았다.

자이승유적지 부근에는 세계불교박물관, 세계불교승가대학을 건립할 예정이다. 또 고려사에는 한국불교를 알리고 교민들의 의지처가 될 전통건축양식의 법당과 몽골 현지인들에게 한국문화를 알릴 대한불교 진흥원 부설 한몽문화원을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몽골 고려사(주지 활안)는 6월 2일 게르법당이 마련된 다시초링사원에서 몽골고승 단장람 스님 금강선원장 혜거 스님을 비롯 아시아평화협의회 사무총장 볼강 스님, 몽골불교문화대학장 프레밭 스님등 300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1주년 한몽교류법회를 개최했다.

제1회 한국불화 · 민화전 개최

불교진흥원, 전시작품 61점 모두 기증



몽골 국립 자나바즈라 박물관에서 열린 제1회 한국불화 및 민화전 개막식 장면.

초원의 나라 몽골 울란바토르에 한국불교 및 전통문화가 꽃을 피웠다.

(재)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서돈각)은 6월 1~7일 국립 자나바즈라 국립박물관 1층 전시관에서 제1회 한국불화 및 민화전을 개최했다.

현지 언론의 초점을 받는등 대 성황을 이룬 한국불화 및 민화전에는 부처님의 설법모습을 담은 김익홍 교수(불교문화센터)의 영산회상도, 이영자 교수(불교문화센터)의 자비화신을 표현한 수월관음도,를 비롯 불교문화센터 수강생들의 작품인 불화 15점과 한민족의 정서와 숨결을 느낄 수 있는 민화 44점등 총 61점이 전시됐다.

이에 앞서 1일 열린 개막식에는 김원태 주몽골 대사, 몽골대통령 수석보좌관 체덴담마, 아시아 톱모델 보도르만양, 몽골국립대 한국어과 남정주 교수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진흥원은 전시된 작품 60여점을 모두 한몽문화교류 활성화 차원에서 국립 자나바즈라 국립박물관에 기증키로 했다. 또 내년에는 한국과 몽골 작가들이 공동으로 전시회와 '민화'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기로 합의했다.

김원우 기자

동숭동 전화:(02)732-2403~4 팩스:(02)739-7565

생활의 지혜
365일 부처님 말씀



윤창화 엮음
값 7,500원

하루 한 구절
부처님 말씀을 읽으며 살아간다면 당신은 진정한 불자입니다!

【10월 1일】
말을 조심하라, 함부로 남을 모략하지 말라.
남의 허물을 전하지 말며,
보지 않은 것을 보았다고 하지도 말라.
악한 말은 자기도 해롭고 남에게도 해를 입힌다.
(대장엄론경)

1월 · 자비와 보시
2월 · 선행과 악행
3월 · 지혜로움과 어리석음
4월 · 증오와 반성
5월 · 인내와 노력
6월 · 애착과 고통
7월 · 애욕과 탐욕
8월 · 올바른 삶
9월 · 친구와 가정
10월 · 거짓말과 말조심
11월 · 자유와 행복
12월 · 진리와 무상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벗어나는 길!
번뇌와 업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길!

번뇌는 업을 낳고
업(業)은
고통을 낳는다!



정승석 지음(동국대 교수)

번뇌 업 고통

민족사 간/신국판/값 8,500원